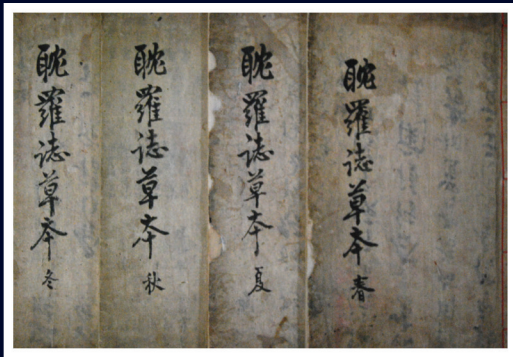


耽羅誌草本



탐라지초본
(상)

2007

제주교육박물관

濟州教育博物館教育資料(3)

발 간 등 록 번 호
79-9290039-000001-01

耽羅誌草本 (春·夏) (上)



제주교육박물관 자료집(3)
耽羅誌草本(上)

인쇄 2007년 11월 28일
발행 2007년 11월 28일

발행처 제주교육박물관
편집부 제주교육박물관 기획부

690-825 제주시 이도2동 교육박물관로 35
TEL(064) 753-9105~6
FAX(064) 752-9104
홈페이지 www.jjemuseum.go.kr

2007

濟州教育博物館

탐라지초본(상)

(춘·하)



2007

제주교육박물관

향토 학습자료 발간에 즈음하여

‘우리 문화를 배우며 삶의 여가를 즐기는 평생학습의 장’을 지향하는 제주교육박물관은 향토 교육자료들을 수집하고, 조사·연구하여 전시하는 전문 교육박물관으로 제주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장 교육을 충실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교육박물관은 교육과 관련된 상설 전시 및 평생교육을 통하여 각급 학교 및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도와주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진정한 자리매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박물관에서는 연차적으로, 제주와 관련된 옛 책들을 조사·발굴하고 제주 교육에 요긴한 고서(古書)들을 선별하여,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글로 역주하여 책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조선시대 제주목사로 재임(1470~1473년)하셨고, 청백리이신 이약동(李約東) 목사의 문집인 노촌문집(老村文集)을 한글로 번역하여 발간함으로써 제주 교육 및 향토사 연구가들의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선시대 1841년(헌종7) 윤3월부터 1843년(헌종9) 6월까지 제주목사로 재임하셨던 응와(凝窩) 이원조(李源祚)목사가 제주 지역을 직접 탐방하면서 쓰신 『탐라록(耽羅錄)』, 『탐라계록(耽羅啓錄)』, 『탐라관보록(耽羅關報錄)』,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 중 『탐라지초본』의 춘(春)·하(夏)·추(秋)·동(冬) 4권 중 춘·하권을 하나로 묶어 한글로 번역한 <제주교육박물관 교육자료(3)> 『탐라지초본(상)』 <춘·하>편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탐라지초본』은 제주의 역사·지리 등을 서술한 필사본으로 이 책을 정서한 『탐라지(耽羅誌)』 춘·하·추·동(春夏秋冬) 4책이 있었으나, 후손에 의하면 1970년대에 분실되고 말았습니다. 귀중한 문화재를 잃어버린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며 역사의 손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탐라지초본』 역시 제주를 연구하는 데에 아주 귀중한 자료 중의 하나로 생각되며, 제주 교육과 역사 연구의 길라잡이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번역서 『탐라지초본(상)』을 함께 애독·활용해 주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함께 편찬하지 못한 『탐라지초본(하)』 <추·동>편도 빠른 시일 내에 발간되도록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이원조 목사의 후손이시며 이 고서(古書)의 소유자이신 이수학님께서 제주 『탐라지초본』 사업을 기꺼이 허락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더불어 무더운 여름 내내 윤독(輪讀)을 하시면서 번역에 힘을 모아 주신 고창석 교수님 등 8인의 역주자님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2007. 11. 28.

제주교육박물관장 김 윤 수

목 차 (目 次)	
인사의 말씀	
이원조 목사의 치적(李源祚 牧使 治績) 5	
卷一(권일) 16	전결(田結) 170
건치연혁(建置沿革) 16	대동(大同) 171
읍호고증(邑號攷證) 22	봉름(俸廩) 171
산천(山川) 24	요역(徭役) 172
도서(島嶼)〔各浦附〕 45	조적(糶糴) 172
물산(物産) 49	창고(倉庫) 173
토속(土俗) 53	군액(軍額) 186
관직(官職) 55	노비(奴婢) 186
씨족(氏族) 55	공장(工匠) 186
방리(坊里) 56	인물(人物)〔孝烈・忠義〕187
호구(戶口) 57	과환(科宦) 190
도로(道路)〔院站附〕 57	형승(形勝) 195
교량(橋梁) 57	제영(題詠) 200
성지(城池) 57	고적(古蹟) 214
단묘(壇廟) 58	
학교(學校) 59	
卷二(권이) 89	
공해(公廩) 89	
누관(樓觀) 109	
진보(鎭堡) 147	
봉수(烽燧)〔烟台附〕 160	
목양(牧養) 162	
과원(果園) 165	
공헌(貢獻)〔各司納附〕 167	

李源祚 牧使의 治績

고 창 석

I

이원조(1792-1871)는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학자이다. 자는 주현(周賢)이며, 호는 취송(驚松)·나고(懶高)·호우(毫宇)·응와(凝窩)·만귀산인(晩歸山人) 등으로 불리었다. 조선 정조 16년(1792, 壬子) 2월 6일[乙巳]에 경상북도 성주(星州) 대포리(大浦里, 한 개)에서 성균관 진사(成均館進士) 형진(亨鎭)과 함양 박씨(咸陽朴氏) 사이에서 태어나, 백부모인 규진(奎鎭)과 동래 정씨(東萊鄭氏)에게로 출계(出系)하였다. 그리고 15세 되는 해에 두 살 연상인 풍양 조씨(豐壤趙氏)와 혼인하였다. 그의 처가는 상주(尙州) 장천(長川)으로 학봉(鶴峰)의 문인인 조정(趙靖)의 자손들이 세거(世居)하는 곳이다.

응와의 나이 18세가 되던 순조 9년(1809) 8월 9일에 효명세자(孝明世子, 翼宗)가 태어나자, 조정에서는 예조의 건의를 받아들여 경과(慶科) 증광별시(增廣別試)를 보이게 되었다. 이 때 응와는 아직 사마시(司馬試, 小科)를 거치지 않았지만 이에 응시하여 초시와 복시에 모두 합격한 뒤 11월 25일의 춘당대(春塘臺) 전시(殿試)에서 을과(乙科) 6등으로 급제하였다. 3,40대에 과거에 합격하는 것이 통례였던 당시에 시골서 올라온 18세 소년의 문과 급제는 대단히 경이적인 일이었다. 그런데 응와의 급제 등위(等位)는 문제가 있다. 『국조방목(國朝榜目)』과 종가(宗家)에 소장되어 있는 ‘홍패교지(紅牌敎旨)’에는 ‘을과 제6인(乙科第六人)’으로 명기되어 있으나 응와의 ‘자서(自敍)’와 이진상(李震相)의 ‘응와부군가장(凝窩府君家狀)’, 허전(許傳)의 ‘응와이판서신도비명(凝窩李判書神道碑銘)’ 등에는 ‘병과 제9인(丙科第九人)’으로 기재되어 있다. ‘가장’과 ‘신도비명’은 응와의 자서에 근거한 것이다. 결국 『국조방목』 및 ‘교지’와 응와 자신의 기록이 상치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국가의 공식 기록인 『국조방목』과 ‘교지’의 기록을 따르기로 한다.

응와는 나이 21세가 되는 순조 12년(1812) 8월에 권지 승문원(權知承文院) 부정자(副正字)의 직첩(職帖)을 받았다. ‘권지’는 임시직으로 과거 급제자들이 어떤 관직을 받기 전에 승문원·성균관·교서관(혹은 예문관) 등에 파견되어 업무를 익히는 제도이다, 이때에 응와는 그의 이름인 영조(永祚)를 원조(源祚)로 개명하였다. 즉, 효명세자(익종)의 이름이 ‘대(昊)’

■ 耽羅誌草本(上)

이면서 음은 ‘영’으로 읽었기 때문에 응와는 과거에 합격한 뒤에 세자의 이름을 피하여 개명하게 된 것이다.

응와의 이력(履歷, 연대순이 아닌 관직별로 묶음)은 내직(중앙직)으로 승문원(承文院) 정자(正字)·제조(提調), 성균관(成均館) 전적(典籍)·직강(直講), 예조 좌랑(禮曹佐郎), 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장령(掌令), 사간원(司諫院) 정언(正言)·대사간(大司諫), 이조 좌랑(吏曹佐郎), 시강원(侍講院) 사서(司書)·문학(文學), 군자감 정(軍資監正), 실록청(實錄廳) 편수관(編修官), 분판관(粉判官), 문신(文臣) 겸 선전관(宣傳官), 승정원(承政院) 우부승지(右副承旨)·좌부승지(左副承旨)·좌승지(左承旨), 병조 좌랑(兵曹佐郎)·정랑(正郎)·참판(參判), 상의원 제조(尙衣院提調), 경연(經筵) 참찬관(參贊官)·특진관(特進官), 형조 참의(刑曹參議), 한성부(漢城府) 좌윤(左尹)·판윤(判尹), 공조 판서(工曹判書), 춘추관 지사(春秋館知事), 도총부(都摠府) 부총관(副摠管)·도총관(都摠管), 의금부(義禁府) 동지사(同知事)·판사(判事) 등을 역임하고, 영수각(靈壽閣)에서 초상(肖像)을 그렸다.

외직(지방직)으로는 충청도 결성 현감(結城縣監), 강원도 강릉 부사(江陵府使), 전라도 제주 목사(濟州牧使), 평안도 자산 부사(慈山府使), 경상도 경주 부윤(慶州府尹) 등을 역임하였다.

응와는 나이 80세가 되는 고종 8년(1871, 辛未) 8월 2일에 고향에서 별세하였다. 조정에 서는 부음을 듣고 3일 동안 조회를 폐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12월에 성주의 남쪽 명계산(鳴鷄山)에 안장하였다. 조정에서는 정헌(定憲)이란 시호를 내렸다. 부인은 정경부인(貞敬夫人) 풍양 조씨 응수(應洙)의 따님이다. 슬하에 자녀는 3남 3녀를 두었다.

다음으로 응와의 제주도로의 부임 일정을 『담라록(耽羅錄)』과 ‘연보(年譜)’ 등을 참조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와가 제주 목사로 임명된 것은 그의 나이 50세가 되는 현종 7년(1841, 辛丑) 정월이었다. 당시 제주도에서는 이에 앞서 현종 6년 12월에 대정현(大靜縣)의 가파도(加波島)에 영국 군함 2척이 정박하여 발포하면서 둔우(屯牛)를 약탈해 가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변방의 방비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구재룡(具載龍) 목사를 파직하고 민심을 수습할 인물을 찾게 되었는데, 응와가 영의정 조인영(趙寅永)의 추천으로 이듬해 1월 1일에 후임 목사로 특별히 제수되었다. 이 때 제주도 근해에 외국 선박이 출몰하여 섬 전체가 소요에 휩싸였으므로 유능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중론(衆論)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원조는 경연(經筵)에 두는 것이 합당한데, 갑자기 변방의 관리로 임명하여 승진시키는

것은 시대적 여망에 어긋난다.”고 하였다. 이에 응와를 추천한 영의정 조인영은 “홍문관의 관직도 청환요직(淸宦要職)이지만, 변방의 자리인 제주목사는 더더욱 중요하다. 나라의 급선무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하였다. 그 당시 조정에서는 응와의 능력을 문한(文翰)과 이치(吏治) 양 방면에서 모두 인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때에 강릉 백성들이 달려와 유임시켜주기를 원하므로, 강원도 관찰사 이광정(李光正)이 이러한 사실을 들어 조정에 요청하였으나 묘당(廟堂)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응와도 이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강릉부의 사세(事勢)로 말하면, 마치 중류에서 노를 잃은 것과 같으나 공직에 대한 격식에 구애되어 유임을 청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다.

이러하여 3월에는 통정대부(通政大夫, 정3품)로 승자(陞資)하여 당상관이 되었다. 18세에 급제한 해로부터 가산하면 23년 만에 한 품계가 올라 당상관이 된 것이다. 실로 험난한 벼슬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응와가 인사 명령을 통보 받은 것은 1월 9일이었다. 그러므로 강릉부의 미진한 업무를 수습하고 24일에야 강릉부를 출발하여 먼저 원주 감영으로 관찰사(觀察使, 監司)를 찾아가 이임 인사를 한 뒤, 죽령(竹嶺)을 넘어 고향으로 돌아와 근친(覲親)하였다. 뒤에 순상(巡相)의 전최(殿最, 근무평정)를 보니, “마음은 반드시 정사를 이룸이 있고, 기량은 예리함을 알 수 있다.”고 칭송하였다. 강릉을 떠나올 때 길가에 목비(木碑)가 많았는데, 각 역(驛)마다 백성들이 일제히 모여서 음식을 드리니, 선생은 시(詩)로써 이에 답하였다.

2월 15일에는 다시 고향을 떠나 상경(上京) 길에 올랐는데 도중에 친지와 지기들이 달려와 떠나는 그를 전송하였다. 25일에 서울에 입성(入城)하여 숙사(肅謝)하고 3월 7일 대왕대비(大王大妃)에게 존호(尊號)를 올리는 일과 대전(大殿, 憲宗)의 친정(親政)을 축하하는 반열에 끼어 참여하였다.

3월 11일에 부임지로 떠나기 위해 어전에 나아가 하직 인사를 드리니, 현종이 경연(經筵)중에 입시(入侍)를 명하여 일곱 가지 일을 선유(宣諭)하고 궁전(弓箭, 활과 화살)과 호초(胡椒)를 하사하자. 이것을 받고 곧 출발하였다.

23일에 영암에 도착하고, 24일에 고달도(古達島)에 이르니, 백씨(伯氏) 원고(源祜, 호 寒皐) 공이 먼저 와 있었고, 장남 정상(鼎相)도 배종(陪從)하였다. 백씨는 산수를 찾아 노는 취미가 지극하여 역내(域內)의 명승지를 두루 유람하였다. 응와가 제주목사로 제수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탐라를 구경하기 위해 약속하고 먼저 와 있었던 것이다. 고달도의 해월루(海月樓)에서 4일간을 머무르며 바람을 기다린 뒤 29일에 승선, 도중에 다시 소안도(素安島, 지금의 所安島)에 상륙하여 하루 반을 머무르고 윤 3월 초1일 새벽에 다시 승선하였다. 파도를

■ 耽羅誌草本(上)

만나 가까스로 위기를 넘긴 뒤 정오 무렵에 비로소 제주 화북진(禾北鎭) 포구에 정박, 견여(肩輿)를 타고 화북진성으로 들어갔다.

이튿날인 윤 3월 2일에 제주목에 입성하여 전임 목사와 인수인계를 한 뒤, 관덕정(觀德亭)에서 군례(軍禮)를 받고 정아(正衙)인 연희각(延曦閣)에 착좌(着座)하였다. 실로 강릉에서 1월 9일 제명(除命)을 받은 지 3개월 만에 임지에 도착한 것이다. 천신만고의 부임길이였다.

응와는 우선 포화에 놀란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조정에 도움을 요청하여 기민을 구제하였으며, 군비를 확충하여 유사시에 대비하였다. 민생이 안정되고 난 뒤 그는 학문을 장려하고 향풍(鄉風)을 쇄신하여 육지와 떨어져 있는 제주도의 문화적 분위기를 진작시키는데 힘썼다. 특히 응와는 제주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 지방지인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을 저술하여 제주 세 고을의 건치연혁 등을 40개 항목으로 나누어 제주 세 고을의 과거와 현재를 체계 있게 편술하였다. 이 책은 오늘날 제주 연구의 기본 사료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3절에서 논하기로 한다.

II

이하에서는 이원조 목사가 재임기간 동안 남긴 치적을 그의 저술인 『탐라록』과 이진상(李震相)의 ‘응와부군가장(凝窩府君家狀)’, 이기원(李基元)의 ‘연보(年譜)’, 허전(許傳)의 ‘응와이판서신도비명(凝窩李判書神道碑銘)’ 등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헌종 7년(1841, 辛丑, 50세)

○ 부임하는 해에 마침 흉년이 들자 월름전(月廩錢) 520냥과 별비전(別備穀) 1,170섬을 마련하고 이를 환곡의 이자로 받은 곡식에 충당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자금으로 삼았다. 진홀에 필요한 물자가 부족할 것을 염려하여 비변사(備邊司)에 보고하여 백미(白米) 2천 섬을 요청하여 허락을 받았다. 호남 연안으로부터 이전곡(移轉穀)을 실어올 때, 1천 섬을 실은 배 한 척이 파선되자, 나머지 1천 섬만으로 진홀하거나 무상으로 지급하는 물자로 삼아 백성들을 구제하였다. ○ 산하 세 고을에 공문[甘結]을 보내어 유생(儒生)들에게 열흘마다 일과(日課)를 시험 보이게 하였다.(旬試日課) ○ 무학(武學)·갑사(甲士)·정로위(定虜衛) 삼청(三廳)의 도안(都案, 합동명부)을 나누는 절목(節目)을 만들어 주었다. 제주영(濟州營)에는 삼

청의 도안이 있었다. 이것을 진무청(鎭撫廳)에 맡겨서 병방(兵房) 아전들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였으므로 침어(侵漁)하는 폐단이 생기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이들은 명단을 나누고 자 하여 비변사에 보고하는 사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들의 소원에 따라 명단을 쪼개고 청사(廳舍)를 분리시켜 주었다. 그러자 모두 기뻐하며 덕을 칭송하였다고 한다.

○ 굴림서원(橘林書院)에 가서 오현(五賢)을 배알하였다. 서원은 충암 김정, 규암 송인수, 동계 정온, 청음 김상헌, 우암 송시열 등을 향사(享祀)하는 곳이다. ○ 백씨와 함께 영구(瀛丘)에 올라 경승을 살펴보고 돌아오는 길에 삼성혈을 보았다. ○ 관덕정에서 활쏘기를 시험하였다. ○ 연무정(演武亭)에서 문무 백일장을 베풀었다. 유생이 200여 인이고 무사가 240여 인이다. ○ 망경루(望京樓)에서 유생(儒生) 60인을 시험을 쳐 뽑아서 각 학교에 거접하게 하였다. 굴림서원이 20인, 삼천서당이 20인, 사학(四學)은 각 5인이다. ○ 각 면에 방(榜)을 붙여서 무당[巫覡]들의 푸닥거리[祈禱]를 금하였다. 제주도의 풍속이 귀신을 좋아하여 음사(淫祀)를 행하니, 병와 이형상이 제주목사로 부임하였을 때 신사(神祠)를 다 불태워 없앴다. 그러나 오히려 습속이 남아 있었는데, 한 차례 신에게 비는 비용이 거의 1백금에 가까웠다. 그러므로 응와는 보이는 대로 엄하게 금지시켰다.

○ 홍화각중수기를 지었다. 망경루·연희각·굴림당을 중수하였을 때도 모두 기문을 남겼다. ○ 제주 백성들의 사정을 비변사에 보고하였다. 그 내용은 첫째, 양대(涼臺)의 직조에 관한 사항으로 통영(統營)을 제외하고 오로지 도민(島民)들에게만 맡겨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둘째, 우도와 가파도 목장을 혁파하고 백성들이 들어가 갈아먹게 하되, 3년이 지난 뒤에 세금을 매기도록 하는 것이다. ○ 학규(學規)를 정하여 향교와 서원의 제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서책을 특별히 갖추어서 서재(書齋)에 반급하였다. 즉, 굴림서원은 『사문류취(事文類聚)』 70권, 남학당은 『홍사(鴻史)』 15권, 삼천서당은 『명신록(名臣錄)』 한 질이다.

○ 한라산 정상에 올라 백록담과 영실의 경치를 구경하였다. ‘한라산기’에서 백록담에 전하는 말에 선인이 백록을 타고 여기에서 놀았다고 하니, 과연 누가 보았으며, 누가 이것을 전했는지? 라고 하였다. 그리고 ‘탐라지발(耽羅誌跋)’과 ‘해설(海說)’ 등은 제주의 산수를 사랑한 자취라고 하였다. ○ 문묘에서 석전(釋奠)을 지낸 뒤, 각 면의 훈몽(訓蒙)들을 선발하여 매월 말에 강(講)한 내용을 보고하게 하여 그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고찰하고 평가하여 학문을 장려하였다. ○ 세 고을을 순시하면서 백성들의 어려운 사정을 묻고 해보(海堡)를 방수하는 일을 살펴서 단속하였다. 제주도의 흉년에 대하여 진휼할 것을 조정에 요청하였다. 굶주리는 호구를 뽑아내어 각 창고의 한곡으로 등급을 매겨 구휼하였다. 또 월급을 덜어서 돕고 또 부족한 액수 2천 섬을 청하여 진휼하였다. ○ 순로(巡路) 때에 각 참(站)의 공수(公需)에 소용

되는 사기(沙器)는 본전을 별도로 마련해 주었다.

○ ‘열흘의 학업(十日之業)’을 두어 ‘삼여(三餘)의 공부’를 엄중히 명하고 한 달에 세 번 강(講)을 받도록 하였다. ○ 연회각에서 여러 유생들의 강을 받았다. ○ 삼천서당을 중수하여 학생들이 머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당은 노봉 김정이가 창건한 것인데 중간에 폐지한 까닭으로 중수하였다. 기문이 있다. ○ 세육(歲肉, 정초에 주는 고기붙이)을 보내어 도내의 노인들을 봉양하였다.

헌종 8년(1842, 壬寅, 51세)

○ 굶주리는 백성들을 가려서 뽑는 일로 두 고을에 공문(甘結)을 보내었다. 공문에서 말하기를, “굶주리는 백성들을 가려서 뽑는 법이 있었는데, 마땅히 정밀하게 하여 넘침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정밀하여 원망을 사기 보다는 조금은 넘쳐서 정밀함을 잃는 것만 못하다. 이에 다시 공문을 보낸다.”라고 하였으니, 여기에서 선생이 백성을 사랑하는 지극한 뜻을 엿볼 수 있다.

○ 백씨가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전송하였다. 기록 가운데는 “닭이 세 번 울자 화북으로 나갔는데, 백씨가 탄 배는 이미 출항하여 서로 바라보이는 가까운 곳에서는 다시 얼굴을 대할 수가 없어서 서글픈 심회를 거의 스스로 진정하기가 어려웠다. 해가 뜨고서야 비로소 관아로 돌아와 망루 위에 우두커니 서서 바라보니, 돛의 그림자가 보인다 말다 하였다. 오래 지 않아 온전하게 소안도에 정박할 것으로 생각하였다.”라는 말이 있다.

○ 상현사를 살펴보았다. 이 사당은 평정공 이약동, 만오 이회, 병와 이형상, 노봉 김정, 참봉 김진용을 향사하는 곳이다. 기문이 있다. ○ 대정현에 있는 동계의 적소에 세울 ‘동계정 선생적려유허비명’을 지어 동계의 절의를 추모하였다. ○ 아병(牙兵)의 종전 제도를 고쳐서 새로 절목을 만들었다. 아병이 바치는 녹용가(鹿茸價) 320냥을 혁파한 뒤, 아병 중에서 140명을 선발하고 그 명단을 평역고(平役庫)에 부쳐서 미곡(米穀)을 받아 녹용가를 대신하게 하였다.

○ 송죽서원을 세워서 동계 정선생의 위판을 봉안하였다. 대정현의 유생들이 여러 차례 동계의 사당을 세울 것을 건의하였을 때, 응와는 처음에 나라에서 금지하는 일이라 하여 어렵게 여겼으나 뒤에 “학문을 일으키는 길은 이 밖에는 달리 없다.”고 생각하여, 그 일을 도와 성취시키도록 하였다. 그리고 ‘봉안문(奉安文)’·‘상향축문(尙饗祝文)’·‘상량문(上樑文)’ 등을 직접 지었다. ‘송죽서원기(松竹書院記)’에 의하면, 그가 제주에 있을 때 동계 정선생이 귀양살이하던 대정 동쪽의 유적지에 선비들이 사당을 건립하였으므로 이에 ‘송죽서원’이라는 네

글자를 크게 써서 걸었다고 하였다. ○ 또 향현사(鄉賢祠)를 굴림서원 옆에 세워 영곡(瀛谷) 고득중(高得宗)을 제향하였다. ○ 군병을 검열하기 위해 노루목[獐項]에서 사냥을 하였다. 옛날에 이러한 관례가 있었으나 뒤에 점차로 해이해졌는데, 선생이 무비(武備)를 소홀히 할 수 없음을 근심하여 이때에 이르러 이를 쇄신하였다. ○ 서원의 유생들이 제출한 사서(四書)에 대한 의의(疑義)를 강평하였다.

헌종 9년(1843, 癸卯, 52세)

○ 2월에 양로연(養老宴)을 거행하였다. ‘양로연기(養老宴記)’는 제주 삼읍의 노인 남녀를 위로한 것인데, 백세가 지난 사람이 7인이며, 90·80세가 200여인이라고 하였다. ○ 토평청(討捕廳)을 설치하고 절목을 만들어 주었다. ○ 우도와 가파도의 국축우마(國畜牛馬)를 반출하고 백성들이 들어가 경작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가파도 목장의 소는 인근의 모동장(毛洞場)으로 옮기고 우도 목장의 말은 다른 목장으로 옮기거나 민마(民馬)와 바꾸어서 봉진(封進)하게 하였다. ○ 공피전(供彼錢, 표도한 외국인 구제용) 1,800냥을 거두어서 놓아둔 것을 환곡(還穀) 750섬으로 바꾸어서 진흥하는 환곡과 함께 대여하였다가 이자를 거두었다.

○ 사학당(四學堂)을 이진하였다. 예전에 사학이 있었으나 모두 유명무실하였다. 남학(南學)은 궁벽한 산기슭의 치우친 곳에 있었기 때문에 향교의 옛터에 옮겨 사학의 유생이 모여 거처하면서 학업을 닦는 장소로 삼도록 하였다. 기문이 있다. ○ 한학·왜학·유구학 등 삼학(三學)의 학생들의 강을 받고 원안(原案)을 수정하였다. 삼학의 학생들에게는 삼학청을 설치하여 가르쳤는데, 그 유래가 이미 오래이다. 처음에 일과를 권면하고 성적을 고찰하는 일이 없었다. 이때에 이르러 시험에 관한 기록을 살펴서 수정하였다. ○ 세 고을에 공문을 보내어 정려(旌閭)를 수리하게 하였다. 『담라록(耽羅錄)』 계묘년(헌종 9년, 1843) 4월 2일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백성들이 사는 집과 마을을 가려 표시하고, 착한 풍조를 도와 유행하도록 하는 것은 곧 백성들을 선도 교화하여 풍속을 선량케 하는 첫 번째 의무이다. 본 도(島)는 절해의 황량한 지역으로, 이따금 충(忠)·효(孝)·열(烈)이 눈에 띄게 두드러져 칭송이 자자한 자가 있었고, 전후하여 작설(綽楔)의 특전을 요청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허락한 것도 몸을 쫓구쳐 움직이며 여러 사람이 지켜보게 하여, 마을을 빛내기 위한 것이니, 내지(內地)에 비해 더욱 귀히 여길 만하다. 그러나 당시 영(營)·읍(邑)에서는 크게 살피어 계칙(戒飭)하지 못하고, 다만 한 조각의 나무 팻말이나 서너 자[尺]의 기둥만을 길가에 세웠으니, 비바람에 벗기어 떨어져

■ 耽羅誌草本(上)

글씨가 잘 보이지 아니하고 눈으로 본 바가 너무 심하여 뜻이 분명하지 아니하였다. 4면(面) 각 리(里)에 전령(傳令)하여 정려(旌閭)가 있는 곳은 면임(面任)이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 바꿀 만한 것은 바꾸고 보수할 만한 것은 보수하여 외관을 아주 새롭게 한 뒤 자초지종을 보고하되, 만일 자손이나 일가친척이 없어서 물력이 나올 만한 곳이 없는 것은 지목하여 한결 같이 보고하면 마땅히 영문(營門)에서 헤아려 지급할 것이다.”

○ 관가 건물을 수리하는데 각각 차등이 있었다. 개건한 것은 주사·군기고·화약고·내대문·복수구·누고·토평청·외학사 도합 236칸이고, 중수한 것은 동서남 세 문루·왜학당·아병청·철장방·사령방·마방 도합 160칸이며, 수보한 것은 객사 정청·관덕정·본주 옥사 도합 50칸이다, ○ 응와는 2년여의 치리(治理)로 제주가 평온을 되찾자 세 차례에 걸쳐 사직장(辭職狀)을 올린 끝에 52세 되던 현종 9년(1843) 4월 22일에 체직되었고 5월 10일에야 서울을 다녀온 압령(押領, 공물을 호송하던 吏屬)편에 이 소식을 전해 들었다. 7월 2일에 신임 목사의 배편이 제주에 당도하여 6일에 인수인계를 한 뒤, 11일에 2년 4개월 동안의 임지를 뒤로하고 귀로에 올랐다. 윤7월 2일에 서울에 입성하여 병부(兵符, 符節)를 반납하고, 귀환을 보고하였다.

III

이원조 목사는 조선 후기 제주역사 연구의 기본 자료가 되는 귀중한 저술들을 남겼다. 『탐라록(耽羅錄)』·『탐라계록(耽羅啓錄)』·『탐라관보록(耽羅關報錄)』·『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 등이 그것이다. 『탐라록』은 재직 기간 동안의 일기체 집무 기록으로서 그의 행적이 잘 나타나 있다. 『탐라계록』은 조정에 올렸던 각종 장계(狀啓)들을 수록한 것이며, 『탐라관보록』은 산하 기관에 발송하였던 각종 문서를 수록한 것이다. 그리고 『탐라지초본』은 제주도 읍지의 총 결산이라 할 만한 것으로 재래 읍지의 수정본이다. 물론 수정 작업에는 임사도감(任司都監)으로 김영락(金英樂)·양관(梁觀), 주유사(州有司)로 강제진(姜齊鎭)·김용징(金龍徵), 대정 대표로 강석호(姜錫瑚), 정의 대표로 오형국(吳亨國) 등이 차출되었을 뿐 아니라 이원조 목사 자신이 쓴 ‘신수탐라지발(新修耽羅誌跋)’에는 읍지에 대한 정의, 자료수집 과정, 편찬 태도 등이 잘 나타나 있다. 우선 그 내용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읍지(邑誌)가 있는 이유는 세간의 풍속을 기록하고 예전에 있었던 사실을 갖추기 위해서다. 차라리 번거로울지언정 간추리지는 않으며, 차라리 예전대로 둘지언정 삭제하지는 않는 것이 정사(正史)의 간결하고 엄정함과 다르다. 탐라(耽羅)는 고을(州)이 되었으나 바다밖에 멀리 떨어져 있어서 유달리 별다르다. 개벽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어쩌면 진기한 이야기〔奇聞〕와 불가사의한 일〔異蹟〕도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승국(勝國, 高麗) 이전의 탐라국 시대는 거의 존로(尊盧)·혁서(赫胥, 이상 둘 다 고대의 帝王)와 같았고, 여지(輿地, 地圖)에 기록하여 장려한 바는 대완(大宛)·대하(大夏)〔둘 다 漢代의 西域國名〕·공도(邛都)·작도(笮都)〔둘 다 漢代 西南夷 國名〕와 같았다.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

정통(正統, 明나라 연호) 갑자년(세종 26년, 1444)에 영부(營府)의 문적이 다 소실되었으므로, 예전의 읍지(舊誌)가 지금의 사실에는 상세하고 예전의 사실에는 간략하니, 이치가 혹 그럴 듯하다. 그런데 한(漢)나라 때 지지(地志)가 나타났지마는 오리려 진(秦)나라의 분서(焚書) 뒤에 나온 것이니, 어찌 이 고을(州)만이 한결같이 화재를 겪었다고 한 조각의 종이도 남은 것이 없겠는가? 생각하건대, 해도(海島)가 거칠고 넓어서 예전에 인문(人文)이 시작되었으나 노끈을 매듭지은 것〔結繩〕이 아니면 나무를 깎아 글을 쓴 것〔木契〕일 뿐이었다. 지금 비록 찾아 모은다 하더라도 바로잡아 보충할 수가 있겠는가? 예전의 읍지를 읽는 자가 항상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번거로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간추린 데에 있는 것이다. 새 읍지(新誌)의 등본(謄本)에서는 반대로 주장하겠는가? 간결함이 거의 남아있던 예전의 사실과 합쳐지면서 삭제되어 없어졌기 때문이다. 예전 읍지에서 새로운 사실은 새 읍지에서는 오래된 사실이다. 오래된 사실과 새로운 사실을 그대로 추가할 적에는 손질하여 매끄럽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영문(營門에) 부임한 지 반년 동안, 널리 조사하고 탐방하였으나 결국 재야(在野)에서는 한 가지도 일사(逸史)를 얻지 못하였다. 단지 공가(公家)의 계본(啓本)과 첩문(牒文), 관청 건물〔館宇〕의 편액(扁額)과 기문(記文)을 수집하여 문드러진 것을 손질하고 여러 가지를 한 데 모아 초본(草本)을 만든 다음 조목조목 나열하여 나누고 합하되, 어떤 것은 예전대로 하고 어떤 것은 고쳤다. 그리고 내 뜻으로 별도로 추가해 넣은 것은 네 가지 편목(編目)이다.

첫째는 진기한 이야기〔奇聞〕이다. 이 땅은 본래 신령한 신선들이 사는 곳이라 칭하였으니, 제해(齊諧)의 괴담이 다 없어질 수 없는 것이다. 둘째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관례〔舊例〕이다. 예전 도읍지의 남은 습속과 제주영을 설치한 뒤의 사례는 상고할 만한 것이 많은 편이다. 셋째는 변경의 정세〔邊情〕이다. 삼면이 이국의 땅으로, 돛단 배 한 척이 이중삼중으로 통역〔朝會〕하는 이유는 인명을 중시하고 바다를 방어하는 일을 엄히 하기 위해서다. 마지막으

■ 耽羅誌草本(上)

로 은전(恩典)과 구휼(救恤)이다. 우리 성조(聖祖)께서 먼 곳에 사는 백성을 어루만져 달래는 은택이 전후하여 끊어졌으나, 펴는 일과 마는 일[開卷]을 한결같이 하면, 반드시 그 상감을 친애하는 마음을 펼쳐 일으킬 수가 있다.

편집이 완성되자, 신·구의 양본(兩本)과 합쳐서 책으로 엮어 보관하였다. 갑작스레 새김칼의 취사선택에 부칠 수는 없는 것이다. 쓸데없는 부분은 삭제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일은 다시 뒤에 오는 사람을 기다리고자 하는 것이다.”

* 제해(齊諧)의 괴담(怪談)은 ‘제해지괴(齊諧志怪)’를 번역한 것이다. 『장자(莊子)』 소요유(逍遙遊)의 ‘齊諧者 志怪者也’에서 유래한 것으로, ‘제해’는 괴담을 잘하는 사람의 이름이라고도 하고, 또 괴담을 쓴 책의 이름이라고도 한다.

위 내용에 의하면, 이원조 목사는 읍지를 편찬하면서 기문·구례·변정·은휼 등에 크게 관심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탐라지초본』은 글자 그대로 초본임으로 해서 아직까지 널리 알려지지 못한 관계로 이에 대한 세인의 평도 아직은 볼 수가 없다. 여기서는 본초본의 체제와 이미 편찬된 관·사찬의 읍지와 비교하여 그 특이한 점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편성된 항목을 살펴보면, 건치연혁·읍호고증·산천·도서(부, 각포)·물산·토속·관직·씨족·방리·호구·도로(부, 원·참)·교량·성지·단묘·학교(부, 서원)·공해·누관·진보·봉수(부, 연대)·목장·과원·공헌(각사·납부)·전결(한전·수전)·대동·봉림·요역·조적·창고·군액·노비·공장·인물(효열·충의)·과한·형승·제영·고적·기문·변정(전수·이선·표류)·구례·은휼(賑賑·蠲蕩·은전)·관안(부, 판관안) 등으로 되어 있으며, 정의와 대정도 체제는 같으나 내용이 없는 항목은 생략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조선 초기로부터 이원조 목사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나타났던 지리지 편찬의 주요 항목들이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시대적 경향과는 관계없이 제주도와 관계되는 것은 전부를 수록한다는 편찬자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그 중 우리의 주의를 끄는 항목은 읍호고증·방리·호구·전결·군액·변정·구례·은휼이다. 읍호(邑號) 고증에는 탐모라(耽毛羅)·탐부라(耽浮羅)·섭라(涉羅)·담라(儋羅)·둔라(屯羅) 등의 읍호를 중국의 사서(史書) 등을 통해 고증하고 있다. 방리에서는 방리제 실시 이후의 변천된 방리의 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당시의 호구(7,017호)와 인구(47,499명) 및 전결(4297결 83부 9속)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군액에서는 당시의 병종(兵種)과 그 수효, 변정에서는 고려조 이래의 제반 사건, 예를 들면 문종의 벌재(伐材) 계획, 삼별초, 원(元)나라 순제(順帝)의 피난궁전 건립 계획, 최영(崔瑩)의 목호(牧胡) 토벌, 왜구

(倭寇)와 중국 객상(客商)의 내도, 표도인 등을 기록하고 있으며, 은홀에서는 특히 숙종과 영조 때의 제주도 구휼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 이 방면 연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원조 목사는 재직 기간 동안에 탐라지도(耽羅地圖)도 제작하였음을 다음의 ‘탐라지도소식(耽羅地圖小識)’의 내용에서 파악할 수 있다. 지도의 해설 자료로도 충분하므로 여기에 풀이해 둔다.

“탐라지도는 예전에 판각이 있었으나 해가 오래되어 새긴 글자나 그림이 닳아 없어졌다. 또 규격이 커서 병풍이나 족자를 만드는데 불편하였다. 들으니, 제주 사람 고경욱(高敬旭)이 영주십경을 잘 그린다고 하므로, 예전대로 모형을 판각하게 하였다. 지도의 짜임새는 옛 것에 비해 3분의 1로 축소하였다. 방리·촌명·구릉 및 하천으로서 이름이 없는 것은 이를 간략히 하였다. 번거로운 것을 삭제하고 간략함을 취해 먹으로 바꾸어 채색하였다. 보고 즐기며 열람하는데 편리하도록 한 것이다.

족자로 장식하여 만들고 벽에 걸었더니, 구름과 맞닿은 것처럼 보이는 먼 바다가 광대하고, 신령스런 산악들이 여기저기에 우뚝 솟았다. 망루와 성곽의 배치, 인물과 마을의 둘레, 포진(浦津)과 방수(防守)의 위치, 월삭진헌(月朔進獻)의 수량 및 외양제국(外洋諸國)의 방향 등은 원근을 한결같이 눈여겨보면서 모두 파악할 수가 있다. 이것이 누운 채로 그림 안의 경치를 보고 즐기는 자료가 될 수 있고, 이것이 밖으로 나가 다스리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혹 이를 논박하는 자는 말한다. ‘육지에는 상세하고 바다에는 간략하니, 만 리를 축소하여 육지에 접한 것 같이 그린다면, 누(累)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나는 말한다. ‘종이가 협소하고 손재주가 졸렬하면 무엇이 걱정되겠는가. 또 바다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바다를 꺼려할 것이 없다. 소자(小子)가 사리에 밝은 눈으로 관찰하건대, 탄환 같은 자그마한 한 섬이 극지(極地)의 사극(四極)과 어느 것이 멀고 어느 것이 가까우며, 어느 것이 크고 어느 것이 작은 지를 알지 못하겠다.’라고. 서로 함께 한 번 웃고 이 글을 쓰게 된 것이다.”

〈참고문헌〉

『凝窩全集』, 退溪學派諸賢集 13, 驪江出版社, 1986.

『응와 이원조의 삶과 문화』,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6.

고창석, ‘제주목사 겸 방어사 이원조의 업적’(위책에 수록됨).

『탐라지(耽羅誌)』 권(卷) 1

제주(濟州) 【진관(鎭管) 2 : 대정(大靜) · 정의(旌義)】

건치 연혁(建置沿革)

〈제주는〉 본래 ‘구한(九韓)’¹⁾의 하나였다. 혹은 ‘탁라(毛羅)’ 【‘안홍기(安弘記)’²⁾에 구한(九韓)을 열거하였는데, 탁라(毛羅)는 네 번째에 있다.】 라고도 하고, ‘탐모라(耽牟羅)’라고도 하고, ‘동영주(東瀛洲)’라고도 하였다.

〈제주는〉 전라도(全羅道) 남쪽 바다 가운데에 있는데, 섬 둘레가 400여 리나 된다.

태초에 양을나(良乙那)와 고을나(高乙那), 부을나(夫乙那) 형제 세 사람이 있었는데 【옛 읍지를 살펴보면, 고(高)씨가 먼저 나오고 양(良)씨가 나중에 나온다. 그러나 그 뒤에 수록한 고적(古蹟)조에는 『고려사(高麗史)』 「고기(古記)」를 인용하였는데, 양(良)씨가 우두머리로 되어 있다. 앞뒤가 저절로 서로 바뀌었다고 의심할 만하다. 이것은 고적 내용 중 가장 오랜 것이지만, 믿을 수 있는 것은 포은(圃隱)의 『동사(東史)』³⁾만 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지금 이 『동사(東史)』에 따라 그것을 바로 잡는다.】 그 땅을 나누어 살았다. 그들이 사는 땅을 ‘니’(徒 : 니)내)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도(都)’로 표기하였다.】 라고 하였다.

신라 때 고을나 15세손인 고후(高厚)와 고청(高淸), 막내(季) 【그 이름이 전하지 않으므로 막내(季)라 한 것이다.】 가 배를 타고 건너가서 신라에 조공(朝貢)을 바쳤다. 이때 고후(高厚)는 ‘성주(星主)’라고 부르고 【당시 객성(客星)이 나타났으므로 그렇게 부른 것이다.】 고청(高淸)은 ‘왕자(王子)’라고 부르고, 막내(季)는 ‘도내(徒內 : 도니)도내)’라고 불렀다 【『양씨보첩(梁氏譜牒)』에는 “탁라국주(毛羅國主)가 양탕(良宕)과 부계량(夫繼良)을 파견하여 신라

1) ‘구한(九韓)’은 당시 신라 주변에 있었다는 아홉 개의 나라를 이른다. 곧 일본(日本), 중화(中華), 오월(吳越), 탁라(毛羅), 응유(鷹遊), 말갈(靺鞨), 단국(丹國: 거란), 여진(女眞), 예맥(濊貊) 등 9개 나라를 이른다.

2) 『삼국유사』(제3) ‘황룡사구층탑(皇龍寺九層塔)’ 조에는 ‘海東名賢安弘撰東都成立記(해동명현안홍찬동도성립기: 해동명현 안홍이 찬한 동도성립기)’라고 하고, 『고려사』(권35, 지권 제11) ‘탐라현’조와 『세종실록』 지리지 ‘제주목’ 조에는 ‘三國遺事載海東安弘記(삼국유사재해동안홍기: 삼국유사에 실린 해동안홍기)’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안홍기(安弘記)’는 ‘안홍(安弘)이 지은 동도성립기(東都成立記)’를 이르는데, ‘해동안홍기(海東安弘記)’라고 하였다. 이 책에는 ‘第四層 托羅(제4층 타라)’로 표기하였는데, 이 ‘탁라(托羅)’가 『고려사』와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부터 ‘탁라(毛羅)’로 표기되었다.

3) ‘포은(圃隱)’이 누구인지, 『동사(東史)』가 어떤 책인지 확실하지 않다.

에 조회(朝會)하자 신라왕이 이들을 가상하게 여겨 양탕(良宕)을 성주(城主)로 삼고, 성(姓)을 양(梁)으로 고쳐서 내려주었다. 부계량(夫繼良)은 왕자(王子)로 삼았다. 그 뒤 고씨(高氏)가 양씨의 나라(梁氏之國)를 멸(滅)하였다.”라고 하였으나, 자세하지 않다.】 이때 나라 이름을 하사받았는데 ‘탐라(耽羅)’라 하였다 【처음에 ‘탐진(耽津)’에 정박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⁴⁾】. 그 뒤부터 〈신라에〉 복종하여 섬겼다.

백제 문주왕(文周王) 2년(476) 병진에 탐라국(耽羅國) 사자(使者)에게 벼슬을 내려 은솔(恩率)⁵⁾이라 하였다. 동성왕(東城王) 20년(498)⁶⁾ 무인에 직공(職貢 : 공물)을 바치지 않으므로 몸소 〈제주를〉 정벌하려고 무진주(武珍州) 【지금의 광주(光州)】에 이르자, 탐라 왕이 그 사실을 듣고 사자(使者)를 보내어 잘못을 빌자 곧 멈추었다.

곧이어 백제가 망하자 신라 문무왕(文武王) 2년(662) 임술⁷⁾에 탐라국주(耽羅國主)인 좌평(佐平) 【은솔(恩率)과 좌평(佐平)은 모두 백제의 벼슬 이름이다.】⁸⁾이 도동음률(徒冬音律)⁹⁾에 와서 항복하였다.

고려 태조 21년(938) 무술¹⁰⁾에 탐라국주 고자견(高自堅)이 태자(太子) 말로(末老)를 보내어 조공하자, 그대로 성주(星主)와 왕자(王子)의 작위를 주었다.

〈고려〉 숙종 10년(1105) 을유에 ‘탐라(耽羅)’를 ‘탁라군(毛羅郡)’으로 고치고, 의종(毅宗)

4) 『고려사』(권55) ‘탐라현’ 조에서부터 조공을 바칠 때 ‘탐진(耽津)’에 다다랐기 때문에 ‘탐라(耽羅)’라 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한편 『동국여지승람』(권37, 강진현, 산천)을 보면, “九十浦[在縣南六里……耽羅星子 朝新羅時泊舟于此 因名曰耽津]”이라고 하여 『고려사』 내용과 배치된다. 김정호 『대동지지』에서는 『동국여지승람』의 “因名曰耽津”을 “因名曰耽羅”로 잘못 기록하였다. 이때 ‘耽津’은 ‘耽津縣(나중에 康津縣)’을 이른다.

5) ‘은솔(恩率)’은 백제시대의 관직인 16관등에서 셋째 벼슬, 곧 3품을 이른다. ‘좌평(佐平)’은 백제시대의 관직인 16관등 가운데 첫 벼슬, 곧 1품(品)을 이른다.

6) 『탐라지초본』에는 “東城王二十年庚申(동성왕 20년 경신)”이라 하였다. 『고려사』(권55) ‘탐라현’ 조에는 “東城王二十年(동성왕 20년)”이라 하였고, 『세종실록지리지』 ‘제주목’ 조에도 “東城王二十年庚申[南齊太祖建元二年]”이라 하였다. 그러나 “東城王二十年(동성왕 20년)”은 “庚申(경신)”이 아니고 “戊寅(무인)”이다. 더욱이 “庚申”은 “동성왕 20년(498)”이 아니라 “동성왕 2년(480)”이다. ‘건원 2년’도 ‘480년’이다. 그러나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東城王二十年”이라 하였으므로 경신은 무인의 잘못이므로 바로잡는다.

7) 『탐라지초본』에는 “新羅文周王元年壬戌(신라 문주왕 원년 임술)”이라 하였다. 『고려사』(권55) ‘탐라현’ 조에는 “新羅文武王元年(신라 문무왕 원년)”이라고 하고, 『세종실록지리지』 ‘제주목’ 조에는 “新羅文武王元年壬戌[唐高宗龍朔二年]”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文周王(문주왕)”은 “文武王(문무왕)”의 잘못이다. 또한 “문무왕 원년(661)”은 “辛酉年(신유년)”이고, “壬戌年(임술년)”은 “문무왕 2년(662)”에 해당한다. 또한 “용삭 1년”은 “문무왕 1년”이고 “용삭 2년”은 “문무왕 2년”이다. “문무왕 원년”으로 보면 “신유년(661)”이 되고 “문무왕 2년”으로 보면 “임술년(662)”이 된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新羅文武王二年”이라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바로잡는다.

8) 좌평(佐平)은 백제 16관등에서 첫째 벼슬을 이른다.

9) 연구자에 따라 ‘도동음률(徒冬音律)’을 벼슬 이름으로 보기도 하고, 땅 이름으로 보기도 한다. 지명으로 보는 사람은 ‘도동음률(徒冬音律)’을 ‘도동음진(徒冬音津)’ 또는 ‘사동음진(徙冬音津: 徙+冬音津)’의 잘못으로 보기도 한다. 지명으로 보는 경우 ‘동음진(冬音津)’은 ‘탐진현(耽津縣)’의 백제 때 이름인 ‘동음현(冬音縣)’의 나루라고 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지명으로 보되, 『고려사』(권57, 탐라현)와 『동국여지승람』(권38, 제주목)에 따라 ‘도동음률(徒冬音律)’로 번역하였다.

10) 『고려사』(권55) ‘탐라현’ 조에는 “太祖二十一年”이라 하였으나, 『동국여지승람』(권38, 제주목, 건치현역)에는 “高麗太祖二十年”이라 하고, 『탐라지초본』에는 “高麗太祖二十年戊戌”이라고 하였다. ‘고려 태조 20년’은 “丁酉年(정유년)”이다. 『고려사』 기사를 믿는다면 “高麗太祖二十一年戊戌(고려 태조 21년 무술)”이 되는 것이다.

■ 耽羅誌草本(上)

때 강등하여 현(縣: 耽羅縣)으로 삼고, 현령(縣令)을 두었다.¹¹⁾ 고종(高宗) 때 부사(副使)를 두었다. 원종(元宗) 8년(1267) 정묘에 초적(草賊)인 문행노(文幸奴)가 반란을 일으키자, 부사(副使) 최탁(崔托)이 군사를 일으켜 그를 죽였다. 원종 11년(1270) 경오에 반적(反賊)인 김통정(金通精)이 삼별초(三別抄)를 거느려 진도(珍島)에 거점을 잡았다가, 다음해(원종 12년, 1271)인 신미년에 침략하였다. 그러자 성주(星主) 고인조(高仁朝)¹²⁾와 왕자(王子) 문창우(文昌祐) 등이 조정에 보고하였다. 3년이 지난 뒤인 계유년(원종 14년, 1273)에 왕이 김방경(金方慶)에게 명령하여, 그가 원나라 병사와 연합하여 그들을 토벌하여 평정하게 하였다. 다음 해 계유년(원종 14년, 1273)에 원나라가 초토사(招討使)를 두었다.¹³⁾

〈고려〉충렬왕(忠烈王) 원년(1275) 을해에 다시 ‘탐라(耽羅)’라 불렀다.¹⁴⁾ 〈충렬왕〉 원년(1275) 을해¹⁵⁾에 원나라가 ‘군민총관부(軍民總管府)’¹⁶⁾를 두었다. 〈충렬왕〉 3년(1277) 정축에 원나라가 ‘동아막(東阿幕)’과 ‘서아막(西阿幕)’¹⁷⁾을 세우고, 소·말·낙타·당나귀·양 등을 방목하고, ‘다루가치(達魯花赤)’¹⁸⁾를 보내어 그것을 감독하게 하였다. 〈충렬왕〉 10년(1284) 갑신에 원나라가 ‘총관부(總管府)’¹⁹⁾를 없애고 ‘탐라군민안무사(耽羅軍民安撫使)’를 두었다. 〈충렬왕〉 20년(1294) 갑오에 왕이 원나라 황제를 찾아뵙고 탐라(耽羅)를 돌려줄 것을 청하였다. 이에 원나라 승상(丞相) 완택(完澤) 등이 주청하고, 황제의 뜻을 받들어 도로 우리(高麗)에게 예속시켰다. 〈충렬왕〉 21년(1295) 을미에 〈탐라를〉 고쳐서 ‘제주(濟州)’라 하고,

11) 『탐라지초본』에는 “毅宗時降 爲縣 置令”이라 하였으나, 『고려사』(권57, 탐라현)와 『동국여지승람』(권38, 제주목)에는 “毅宗時降 爲縣令官”이라 하고, 『세종실록』 지리지 ‘제주목’ 조에는 “毅宗時 爲縣令官”이라 하였다.

12) 『고려사』(권31, 세31)에는 ‘고인단(高仁旦)’으로 표기하였다. ‘고인조’는 고려 충렬왕 때의 무신이다. 본관은 탐라이고, 탐라의 성주(星主: 후의 제주 牧使)를 지냈다. 원(元)나라가 탐라에 목축장을 마련하고 그곳에 ‘다루가치부(達魯花赤府)’ 및 ‘탐라총관부(耽羅總管府)’를 설치하였을 때, ‘총관행서부사(總管行署府事)’를 지냈다.

13) 『탐라지초본』에는 물론 이원진 『탐라지』에도 “翌年 甲戌(익년갑술)”에 원나라가 초토사를 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원종 15년(1274)이다. 그러나 이는 ‘원종 14년(계유) 6월의 잘못이다. 또한 『고려사(高麗史)』의 ‘다루가치(達魯花赤)’는 ‘招討使(초토사)’의 오기(誤記)이다. 『원고려기사(元高麗紀事)』 ‘탐라’, 『원사(元史)』 ‘세조본기, 10년 6월 무신’ 및 ‘탐라전(耽羅傳)’ 참조. 초토사(招討使)는 원나라 때에 난리나 폭동 따위를 진압하기 위하여 파견한 관리의 우두머리를 이른다.

14) 원나라가 시종 ‘탐라(耽羅)’ 혹은 ‘탐라국(耽羅國)’이라 부른 것은 ‘탐라’가 고려의 영토가 아니라 원나라의 직할지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15) 『탐라지초본』에는 “二年丙子(이년 병자)”라 하였으나, 이는 ‘충렬왕 원년(1275) 을해’의 잘못이라고 한다. 『원고려기사(元高麗紀事)』 ‘탐라’, 『원사(元史)』 ‘세조본기 11년 6월 무진’ 및 ‘탐라전(耽羅傳)’ 참조.

16) 『탐라지초본』에는 ‘軍民總官府(군민총관부)’로 표기하였으나, 이원진 『탐라지』에는 ‘軍民總管府(군민총관부)’로 표기하였다. ‘군민총관부’의 원래 명칭은 ‘탐라국 군민 도다루가치 총관부(耽羅國軍民都達魯花赤總管府)’이다. 『원고려기사(元高麗紀事)』 ‘탐라’, 『원사(元史)』 ‘세조본기 11년 6월 무진’ 및 ‘탐라전(耽羅傳)’ 참조. 2년 갑술은 원년 을해의 착오이다.

17) ‘阿幕(아막)’은 고려(高麗) 말엽(末葉) 위병의 하나를 이른다. ‘부대’나 ‘단체’, ‘州郡(주군)’ 등을 뜻하는 몽골어 음성 ‘A-mag’ 또는 ‘Ai-mag’의 차자표기라고 한다.

18) ‘達魯花赤(달로화적)’은 몽골어 음성 ‘darughachi’를 반영한 차자표기이다. 우리말로 ‘다루가치’라 하는데, 원래 ‘진압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다. ‘다루가치’는 중국 원나라의 벼슬 이름으로, 점령 지역의 백성들을 직접 다스리거나 내정을 간섭하는 벼슬 이름이었다. 고려가 원의 지배를 받을 때 다루가치가 배치되었다.

19) 『탐라지초본』에는 ‘總官府(총관부)’로 표기하였으나, 이는 ‘總管府(총관부)’의 잘못으로, ‘軍民總管府(군민총관부)’를 이른다.

목사(牧使)와 판관(判官)을 두었다. <충렬왕> 26년(1300) 경자에 동도현(東道縣)과 서도현(西道縣)을 두었다 【현촌(縣村)은 곧 귀일(貴日), 고내(高內), 애월(涯月), 곽지(郭支), 귀덕(歸德), 명월(明月), 신촌(新村), 함덕(咸德), 김녕(金寧), 호촌(狐村), 홍로(烘爐), 예래(猊來), 산방(山房), 차귀(遮歸) 등지이다. 대촌(大村)에는 호장(戶長)²⁰⁾ 3인과 성상(城上)²¹⁾ 1인을 두고, 중촌(中村)에는 호장(戶長) 3인을 두고, 소촌(小村)에는 호장 1인을 두었다. 옛말에 의하면, 신라가 고후(高厚)에게 벼슬을 내릴 때 촌(村)을 두었다. 고려 의종 때 또한 나누어 현(縣)을 두었다. 원종 때 삼별초(三別抄)²²⁾를 평정하여 전체를 합하여 한 주(州)로 삼았다. 이때에 이르러 또한 현촌(縣村)을 두었다고 하는데, 이치가 혹 그러하다.】

이 해(충렬왕 26년, 1300)에 원나라 황태후(皇太后)²³⁾가 또 황실마(廐馬)를 방목하였다.²⁴⁾ <충렬왕> 27년(1301) 신축에 원나라가 ‘군민만호부(軍民萬戶府)’를 두었다.²⁵⁾ <충렬왕> 31년(1305) 을사에 다시 <제주를> 우리(高麗)에게 되돌려 주었다.

충숙왕(忠肅王) 5년(1318) 무오에 초적(草賊)인 사용(士用)과 엄복(嚴卜) 등이 병사를 일으켜 난을 일으키자,²⁶⁾ 왕자(王子)인 문공제(文公濟) 등이 병사를 일으켜 그들을 모두 죽였다. 이 사실을 원나라에 보고하자, 원나라에서 다시 관리(官吏)를 두었다.

공민왕(恭愍王) 11년(1362) 임인에 원나라 목자(牧子)가 원나라에 호소하여 다시 만호부(萬戶府)를 둘 것을 주청하자, 원나라가 부추(副樞)인 문아단불화(文阿但不花)²⁷⁾를 정치사(整治使)로 삼았다 【아단불화(阿但不花)는 고려의 천예(賤隸)인 김장로(金長老)와 더불어 제주에 도착하여, 만호(萬戶) 박도손(朴都孫)을 곤장을 치고 바다에 빠뜨려버렸다.】 <공민왕>

20) 호장(戶長)은 고려시대 향리직의 우두머리. 고려 초에 지방통치체제 확립을 통한 중앙집권화정책의 일환으로 신라시대부터 지방에 세력을 떨치던 성주나 호족을 그대로 포섭하여 호장으로 개편한 데서 비롯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지방의 토호적(土豪的) 존재로서 상당한 세력을 가졌으며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던 속현(屬縣)을 직접 다스리기도 하였다.

21) 성상(城上)은 각 궁전과 관아에 속하여 그릇을 맡아보던 하인(下人)을 이른다. ‘잡자’라고도 하는데, 이는 ‘잡자’의 변음이 아닌가 한다.

22) 『탐라지초본』에는 ‘別抄(별초)’로 되어 있는데, 이는 ‘三別抄(삼별초)’를 이른다.

23) 『탐라지초본』에는 ‘奇皇后(기황후)’라 하였으나, 이때에는 ‘기황후’가 태어나지도 않은 때이다. 『고려사』(권55, 탐라현)과 『세종실록』 지리지 ‘제주목’ 조에는 ‘皇太后(황태후)’라 하였다. 당시 원나라의 황태후(皇太后)는 성종(成宗)의 모후(母后)인 유성황후(裕聖皇后)였다.

24) 『고려사(高麗史)』·『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는 ‘충렬왕 2년(1276) 8월 정해’에 처음 말(馬)을 방목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25) 『고려사(高麗史)』에는 충렬왕 27년 3월에 ‘탐라군민만호부(耽羅軍民萬戶府)’를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탐라지초본』의 ‘충렬왕 28년 壬寅’은 ‘충렬왕 27년 辛丑’의 착오이다. 또 『고려사』의 ‘3월’은 또 ‘7월’의 착오이다. 왜냐하면 고려에서 이를 설치해주도록 원나라에 요청한 것이 『고려사』 자체에도 ‘5월’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원사(元史)』 ‘성종본기’에는 ‘대덕(大德) 5년(충렬왕 27) 7월 무신(戊申) 조에는 ‘立耽羅軍民萬戶府’라고 하였다.

26) 『고려사』(권55)의 ‘탐라현’ 조와 『세종실록』 지리지 ‘제주목’ 조에는 ‘士用(사용)’과 ‘嚴卜(엄복)’으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고려사(高麗史)』·『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충숙왕 5년 2월 무신’ 조와 ‘무오’ 조에는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사용(使用)’과 ‘김성(金成)’으로 되어 있다.

27) 阿但不花(아단불화)는 몽골어 음성 ‘Ata’an-Bukha’를 반영한 차자표기라고 한다.

16년(1367) 정미에 원나라가 망하였다.

명나라 태조(太祖) 즉위년(1368)에 제주가 다시 우리(고려)에게 예속되었다. 당시 원나라 목자(牧子)들이 사나워서 국가에서 보낸 만호(萬戶)를 죽이고 배반하였다. 김유(金庾)가 목자를 토벌함에 이르러 왕이 〈명나라에〉 주청(奏請)하여 본국(本國: 고려)으로 하여금 스스로 관리를 임명하고 목자들이 기른 양마(良馬)를 가려 예전과 같이 바치도록 하니, 황제가 그것을 따랐다.²⁸⁾

〈공민왕〉 18년(1369) 기유에 김세봉(金世奉)을 안무사(安撫使)로 삼았다.²⁹⁾

〈공민왕〉 21년(1372) 임자에 석가을비(石加乙碑)와 초고도보개(肖故道甫介)³⁰⁾ 등이 스스로 동하치[東哈赤]와 서하치[西哈赤]³¹⁾라 일컬으며 관리(官吏)를 죽였다. 그러자 왕자 문신보(文臣輔)가 그의 동생 신필(臣弼)을 보내어 고려 조정에 보고하였다. 2년이 지난 뒤인 갑인년(공민왕 23년, 1374)에 왕이 도통사(都統使) 최영(崔瑩)을 보내어 하치[哈赤]를 토벌하여 없애고, 김종광(金仲光)을 만호(萬戶) 겸 목사(牧使)로 삼았다.

신우(辛禡: 우왕(禡王)) 7년(1381) 신유에 판관(判官)을 두었는데, 조선에서도 그것을 그대로 따랐다.

〈조선〉 태조(太祖) 6년(1397) 정축에 만호(萬戶)를 없애고 목사(牧使) 겸 첨절제사(僉節制使)를 두었다.

〈조선〉 공경(恭靖: 정종(定宗)) 2년(1400) 경진에 판관(判官)으로 교수(教授)를 겸하게 하였다.

〈조선〉 태종 원년(1401) 신사에 다시 안무사(安撫使) 겸 목사(牧使)를 두었다. 태종 2년(1402) 임오에 성주(星主) 고봉례(高鳳禮)와 왕자(王子) 문충세(文忠世) 등이 성주와 왕자의 작호가 분수에 넘치는 것 같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기를 청하였으므로 성주(星主)를 ‘좌도지관(左都知管)’으로 삼고, 왕자(王子)를 ‘우도지관(右都知管)’으로 삼았

28) 『고려사(高麗史)』·『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공민왕 16년 2월 계해’조 참조.

29) ‘안무사(安撫使)’는 지방에 변란이나 재난이 있을 때 왕명으로 파견되어 백성을 안무하던 임시직이다.

30) 석가을비(石加乙碑)와 초고도보개(肖故道甫介)는 『고려사(高麗史)』(공민왕, 열전)에는 ‘석질리필사(石迭里必思)와 초고독불화(肖古禿不花)’로 표기하고, 이원진 『탐라지』에는 ‘석가을비(石加乙碑)와 초고도보개(肖古道甫介)’로 표기하였다. 이로 보아 이름 ‘가을비(加乙碑)·질리필사(迭里必思)’와 ‘고독불화(古禿不花)·고도보개(故道甫介)’는 한자차용표기임을 알 수 있다. ‘肖古禿不花(초고독불화)’는 몽골어 음성 ‘Chogtu-Bukha’를 반영한 차자표기라고 한다.

31) 哈赤(합적)은 몽골어 음성 ‘Kha-chi’가 후대에 ‘Ha-chi’로 변한 것을 반영한 차자표기라고 한다. 우리나라 말로는 ‘하치’라 읽는다. 청나라 태조를 ‘누루하치(Nurhachi: 1559~1626.9.30.)’라 하는데, 차자표기에 따라 ‘努爾哈齊(노이합제)’ 또는 ‘努爾哈赤(노이합적)’, ‘奴兒哈赤(노아합적)’ 등으로 표기하였다. ‘哈赤[하치]’는 ‘牧人(목인)’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원사(元史)』 ‘병지, 마정(兵志馬政)’ 조에 의하면, “하치[合赤]는 ‘목인(牧人)’으로, 일명 ‘하라치[哈刺赤]’라고도 한다.”라고 하였다. 즉 ‘하라치’는 ‘흑마유(黑馬乳)’의 역언(譯言)으로, 궁중용의 빈마(牝馬)를 관장하며, 말 젖을 짜서 빚는 목인의 직명(일종의 군직)인 동시에 여러 개의 장막이 한 집단이 되어 거주, 유목하는 마을 이름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그들은 천·백호(千百戶) 중에서 선발되는데, 부자가 대를 물려가며 그 직을 맡는다고 하였다.

다. 태종 8년(1408) 무자에 동·서 아막[阿幕]을 없애고 감목관(監牧官)³²⁾을 두었다. 태종 13년(1413) 계사에 특별히 교수(敎授)를 두었다. 태종 16년(1416) 병신에 안무사(安撫使) 오식(吳湜)의 건의에 따라 정의현(旌義縣)과 대정현(大靜縣)을 두었다.

세종(世宗) 10년(1428) 무신에 감목관(監牧官)을 없애고 판관(判官)이 그것을 겸하도록 하였다. 세종 25년(1443) 계해에 안무사(安撫使)가 목사(牧使)와 지감목사(知監牧事)³³⁾를 겸하도록 하였다. 세종 27년(1445) 을축에 좌·우(左右) 도지관(都知管)을 없앴다. 읍인(邑人) 고승조(高承祖)를 삼읍도지상진무(三邑都知上鎭撫)로 삼았다 【성주·왕자의 호는 신라에서부터 비로소 봉하여 대대로 작호를 세습하였다. 고려에 이르러 연혁이 서로 이어졌으나, 난망이 서로 이어지면서 인심이 심하게 분리되어 잠깐 순종하였다가 잠깐 반역하기도 하였다. 나라에서는 그때마다 안무사(安撫使) 선무사(宣撫使)·순문사(巡問使)·지휘사(指揮使) 방어사(防禦使)·부사(副使) 목사(牧使)를 파견하였다. 원나라도 또한 초토사(招討使)·다루가치[達魯花赤]·정치사(整致事)·단사관(斷事官)·만호(萬戶) 등을 파견하여 불려 어루만지고 위로하였다. 성주·왕자로 하여금 각기 관아를 세워서 소관 지역을 나누어 다스리게 하니, 풍속을 유지하고 방물을 공헌하는 정성이 한결같았다. 조선에 들어와서는 그 본분을 잘 알아서 스스로 호칭을 낮추기를 요청하였으니, 족히 칭찬할 만한 일인 것이다. 그 뒤에 지관(知管)을 없애고 단지 고을 사람 가운데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상진무·부진무를 삼아서 방어의 일을 분담하여 처리하게 하였다. 전후 천여 년 사이에 반드시 주승(州乘)³⁴⁾이 있어서 당시의 일을 기록하였을 것이다. 조선 세종 17년(1435) 안무사 최해산 때에 관부의 화재로 문적이 모두 불타버렸으니, 애석한 일이다.】

단종(端宗) 2년(1454) 갑술에 안무사(安撫使)가 감목사(監牧事)를 겸하게 하였다.

세조(世祖) 12년(1466) 병술에 안무사(安撫使) 겸 감목사(監牧事)를 고쳐 진(鎭)을 설치하고 병마수군절제사(兵馬水軍節制使)가 목사(牧使)를 겸하게 하였다. 그리고 판관(判官)이 감목(監牧)과 절제도위(節制都尉)를 겸하게 하였다.

예종(睿宗) 원년(1469) 기축에 다시 목사(牧使)를 두어서 병마수군절제사(兵馬水軍節制使)를 겸하게 하고, 판관(判官)이 절제도위(節制都尉)와 감목관(監牧官)을 겸

32) '감목관(監牧官)'은 조선시대 지방의 목장 업무를 담당하던 종6품 관직이다.

33) '감목사(監牧事)'는 조선 초기에 제주도의 목장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감목관(監牧官)을 겸하는 제주 목사(濟州牧使)를 '지감목사(知監牧事)'로 겸칭하였다. 『세종실록』(권89, 22年 6月 庚辰 2번째 기사)에 "議政府據吏曹呈啓 濟州牧使兼監牧之號, 稱濟州道安撫使知監牧事. 二品以上則依都節制使知招討營田事例, 亦稱知監牧事, 其牧使職銜, 仍舊 從之"라고 하였다.

34) '주승(州乘)'은 '제주의 역사 기록'을 뜻한다.

■ 耽羅誌草本(上)

하게 하였다.

숙종(肅宗) 39년(1713) 계사에 목사(牧使)가 방어사(防禦使)를 겸하게 하고 【유서(諭書) 및 밀부(密符)를 내려 보냈다.】³⁵⁾ 교수(敎授)를 얹애고 판관(判官)이 겸하게 하였다.

정종(正宗 : 정조) 2년(1778) 무술에 목사(牧使)가 전라도수군방어사(全羅道水軍防禦使)³⁶⁾를 겸하게 하였다.

읍호 고증(邑號 攷證)

탐모라(耽毛羅) 【『북사(北史)』에 이르기를, “남쪽 바다 가운데에 탐모라국(耽毛羅國)³⁷⁾이 있는데, 이 땅에는 노루와 사슴이 많이 산다. 백제에 의탁해서 지낸다.”라고 하였다.】

탐부라(耽浮羅) 【『한문(韓文)』³⁸⁾에 이르기를, “바다 밖에는 여러 나라가 있는데, 유구(流求)·탐부라(耽浮羅)와 같은 나라가 이에 속한다.”라고 하였다.】

섭라(涉羅) 【『위서(魏書)』에 이르기를, “고구려 사자 예실불(芮悉弗)이 위나라 선무(宣武)에게 말하기를, 황금은 부여에서 나고, 진주는 섭라(涉羅)에서 나는데, 지금 부여는 물길에게 쫓기고 섭라는 백제에 병합되었다. 두 물건은 바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였다.】³⁹⁾

담라(儋羅) 【『당서(唐書)』⁴⁰⁾에 이르기를, “용삭 초(661년경)에 담라(儋羅)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 왕 유리도라(儒理都羅)가 사신을 보내어 입조하였다. 그 나라는 신라 무주(전남 광주) 남쪽 섬 위에 있다. 풍속이 허름하고 개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다. 여름에

35) ‘유서(諭書)’는 관찰사, 절도사, 방어사 등이 부임할 때 임금에 내리던 명령서를 이른다. ‘밀부(密符)’는 조선 시대에, 병란(兵亂)이 일어나면 즉시 군사를 동원할 수 있도록 내리던 병부(兵符)를 이른다. 유수(留守), 감사(監司), 병사(兵使), 수사(水使), 방어사(防禦使) 등에게 내려주었다.

36) 방어사(防禦使)는 조선 시대에, 각 도에 두어 병권을 장악하고 요지를 지키게 하였던 종이품의 무관 벼슬을 이른다.

37) 원문에는 ‘耽毛羅(탐탁라)’와 ‘耽毛羅國(탐탁라국)’으로 표기하였으나 이는 각각 ‘耽毛羅(탐모라)’와 ‘耽毛羅國(탐모라국)’의 오키로 보인다. 이 책의 ‘건치연혁’에서는 ‘耽牟羅(탐모라)’로 표기하였으므로 ‘耽毛羅(탐탁라)’를 ‘耽毛羅(탐모라)’의 오키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毛(탁)’은 자형상 ‘牟(모)’의 오키로 보는 것보다 ‘耽毛羅(탐모라)’의 오키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38) ‘한문(韓文)’은 ‘한유(韓愈)’의 시문집(詩文集)인 ‘한창려집(韓昌黎集)’을 이른다. 곧 ‘한문(韓文)’은 ‘한유(韓愈)’의 ‘한(韓)’과 ‘한창려집’을 뜻하는 ‘문(文)’을 결합한 말이다.

39) 『탐라지초본』에는 ‘北史(북사)’로 표기하였는데, 이는 『위서(魏書)』의 잘못으로 보인다. 『위서(魏書)』는 중국 정사(正史)의 하나로, 『북위서(北魏書)』라고도 한다. 이 『북위서(北魏書)』를 ‘北史(북사)’라 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 책의 ‘고구려’조에 “但黃金出自夫餘則涉羅所產今夫餘爲勿古所逐涉羅百濟所并”이라 하였다. 이 내용은 『三國史記』(高句麗本紀, 文惠王)에도 그대로 인용되었다.

40) 『당서(唐書)』는 중국 기전체(紀傳體) 사서인 24사(二十四史) 가운데 하나인, 구양수의 『신당서(新唐書)』를 이른다.

는 초집(새집)에서 살고 겨울에는 굴에서 산다. 처음에는 백제 부용국이였으나, 나중에는 신라의 부용국이 되었다.”라고 하였다. 동국방언을 보면, ‘섬(섬)섬/島)’을 ‘剌(섬)’이라 하고, ‘나라’를 ‘羅(라)’라고 한다. ‘담(耽)’·‘섬(涉)’·‘담(儋)’ 등 세 소리는 모두 ‘담(剌)’과 더불어 서로 같은 것이다. 아마 ‘섬나라’를 이르는 것이다. 배가 탐진(耽津)에 정박하였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이는 곧 전해서 모아진 것이 아닌가 한다.】

둔라(屯羅) 【『송사(宋史)』에 이르기를, “가우(嘉祐)⁴¹⁾ 중에 쑤저우(소주 蘇州) 쿤산현(곤산현 崑山縣)⁴²⁾ 바다 위에 배 한 척이 돛대가 부러져 바람에 표류하다가 해안가에 이른 적이 있었다. 배 안에 30여 명이 있었는데, 의관(衣冠)은 당나라 사람과 같고, 말은 통하지 않았다. 다닐 때는 기러기가 가는 것과 같이 서로 연이어서 다녔다. 하나의 글을 내어 사람에게 보이니, 그 글은 당나라 천수(天授) 중에 ‘둔라도(屯羅島)’ 수령 배용부위(陪戎副尉)에게 알린 조서(詔書)였다. 또 하나의 글은 고려에 올리는 표(表)인데, 또한 ‘둔라도(屯羅島)’라 일컬었다. 모두 한자를 쓴 것이라고 하였다. ○ 살피건대, 천수(天授)⁴³⁾는 고려 태조의 연호이다. 송나라 사람이 잘못된 것이다. 곧 천수의 연호[天年] ‘둔라(屯羅)’를 ‘탁라(毛羅)’의 잘못으로 생각한 것이다.】⁴⁴⁾

영주(瀛洲) 【영주(瀛洲)는 곧 삼신산(三神山)의 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금강산(金剛山)을 봉래산(蓬萊山)이라 하고, 지리산(智異山)을 방장산(方丈山)이라 하고, 한라산(漢拏山)을 영주산(瀛洲山)이라 한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후지산[富士山]을 영주산(瀛洲山)이라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다. 읍호(邑號)는 동영주(東瀛洲)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이는 한라산(漢拏山)을 이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의현 경에 따로 영주산(瀛洲山)이 있는데, 이는 하나의 산과 같은 것이나 이칭(異稱)이다.】

41) ‘가우(嘉祐)’는 중국 북송(北宋) 때 인종(仁宗)이 썼던 연호 중 하나로, 1056년부터 1063년까지이다.

42) ‘쑤저우(蘇州(소주)) 쿤산 현(崑山縣(곤산현))’은 지금 ‘장쑤성(江蘇省(강소성)) 쿤산 시(崑山市(곤산시))’라 한다.

43) ‘천수(天授)’는 고려 초기 태조 왕건(王建)이 썼던 연호이다. 왕건은 궁에 밀에 있던 여러 장수들의 추대를 받아, 918년(태조 1) 6월 왕위에 오르면서 국호를 고려(高麗), 연호를 천수(天授)라고 정했다. 933년까지 썼으며,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여 중국 연호를 쓰게 되면서 없어졌다.

44) 이와 비슷한 내용이 『몽계필담(夢溪筆談)』(권24, 雜誌 1)에 나온다. “嘉祐中, 蘇州崑山縣海上, 有一船桅折, 風飄抵岸. 船中有三十餘人, 衣冠如唐人, 系紅口角帶, 短皂布衫. 見人皆慟哭, 語方不可曉. 試令書字, 字亦不可讀. 行則相綴如雁行. 久之, 自出一書示人, 乃唐天祐中告授屯羅島首領陪戎副尉制; 又有一書, 乃是上高麗表, 亦稱屯羅島, 皆用漢字. 蓋東夷之臣屬高麗者.” 『몽계필담(夢溪筆談)』은 송(宋)나라의 학자 심괄(沈括: 호는 몽계옹(夢溪翁))이 저술한 일종의 박물지(博物誌)이다.

산천(山川)

한라산(漢拏山) 【제주 남쪽 20리에 있다. 운한(雲漢 : 구름·은하수)을 잡을 수 있다고 하여 붙인 것이다. 두무오름〔頭無岳〕이라고도 하고, ‘돛뿔〔圓山〕’라고도 하는데, 산봉우리가 평평하고 넓기 때문이다. 두무오름(가메오름: 釜岳)이라고도 하는데, 산봉우리에 소가 있어서 물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이〉 높아서 하늘을 찌르고 산세가 대단하여 수백 리에 걸쳐있다. 〈한라산에 이르는〉 길은 죽성촌(竹星村)⁴⁵⁾에서부터 3소장을 지나고, 숲 그늘과 무성한 밀림을 지난다. 밀림이 끝나는 곳에는 대나무와 향기로운 나무가 우거져 있다. 돌이 많은 좁은 길이 매우 험하나, 그것을 휘어잡고 의지하거나 기어올라서 꼭대기에 오른다. 〈꼭대기에 올라서〉 만약 크게 소리 지르면 구름과 안개가 사방을 둘러싼다. 〈음력〉 5월에도 눈이 내려 쌓여서 〈음력〉 8월까지 남아있으니, 가죽옷을 꺼입어야 한다. 춘분과 추분에는 노인성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비치는 별빛이 셋별과 같아서 병시에 나오고 정시⁴⁶⁾에 들어간다. 한라산 남쪽에서는 도처에서 모두 〈노인성을〉 볼 수 있다. 세종 조(世宗朝)에 역관(曆官)⁴⁷⁾ 윤사웅(尹士雄), 최천형(崔天衡), 이무림(李茂林) 3인을 보내어, 한라산(漢拏山)에서 극도(極度)⁴⁸⁾를 측량한 일이 『운관지(雲觀志)』⁴⁹⁾에 실려 있다.】

권근의 〈응제〉시(權近應製詩)⁵⁰⁾

蒼蒼一點漢拏山 시푸른 한 점 한라산이
遠在洪濤浩渺間 멀리 물결⁵¹⁾ 밖 아득하오.⁵²⁾
人動星芒來海國 별빛⁵³⁾ 따라 탐라사람 오고

45) ‘죽성촌(竹星村)’은 옛 지도와 문헌 등에 주로 ‘竹城(죽성)’ 또는 ‘죽성촌(竹城村)’으로 표기하였다. 지금 제주시 오등동에 있었던 중산간마을 중 하나이다.

46) ‘병시(丙時)’는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의 시간을 이르고, ‘丁時(정시)’는 12시 30분에서 1시 30분까지의 시간을 이른다.

47) ‘역관(曆官)’은 달력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벼슬아치.

48) ‘극도(極度)’는 더할 수 없는 정도.

49) 『운관지(雲觀志)』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조선 후기 정조 때의 천문학자 성주덕(成周惠: 1759~?)이 1818년(순조 18)에 엮은 천문학 책 『서운관지(書雲觀志)』가 전한다.

50) ‘응제(應製)’는 임금의 명에 의하여 시문을 짓는다는 뜻이다. 이원진 『탐라지』에는 ‘應製(응제)’로 되어 있고, 이원조의 『탐라지초본』에는 ‘應製詩(응제시)’로 되어 있다.

51) ‘홍도(洪濤)’는 큰 파도로, 『木革』에서 “洪濤瀾汗 萬里無際”라고 하였다.

52) ‘호묘(浩渺)’는 넓고 아득한 모양이다. 『宋之間』에 “浩渺浸雲根 煙嵐出遠村”이라 하였다.

馬生龍種入天閑 준마(駿馬)⁵⁴⁾는 궁궐의 어승마(御乘馬)⁵⁵⁾바쳐지네.
 地偏民業猶生遂 치우쳐진곳 땅이지만 백성들 살아갈만하고
 風便商船任往還 장삿배 바람 따라 오고 가네
 盛代職方修版籍 성대⁵⁶⁾에 직방⁵⁷⁾씨가 판적⁵⁸⁾을 짤 때
 此邦雖陋不須刪 이 섬나라 고루하지만 버리지 않았네.

김치의 시(金繼詩)⁵⁹⁾

石燈穿雲步步危 구름 사이 돌길 비틀비틀 걷는데,
 雨餘天氣快晴時 비 온 뒤라 날씨는 쾌청하네.
 山高積雪經春在 산 높아 쌓인 눈 봄까지 남고
 海濶長風盡日吹 바닷바람 종일 불어댄다.
 鶴駕不迷玄圃路 학 타고 가는 길⁶⁰⁾ 잃지도 않아
 鳳簫留待赤松期 봉소⁶¹⁾ 불며 적송자⁶²⁾를 기다린다네.
 從今欲試殮霞術 지금 손하술을 배우고자 하여
 歸去人間莫恨遲 인간으로 돌아감을 늦었다고 한탄 않는다.

김치의 시(金繼詩)

衆山如垓海如盃 뭇 산은 개미뿔 같고 바다는 술잔 같고

53) '인동성망(人動星芒)'은 사람이 움직이는 징조의 별빛. 별빛이 움직여서 사람들이... 신라 때 고후(高厚)·고청(高淸)과 그들의 동생이 배를 만들어 강진으로 들어 왔을 때 남쪽에 객성(客星)이 나타났다는 고사를 인용한 말(一本芒曰象). 高乙那 十五代孫 高厚高淸及季(失名) 兄弟三人 造船渡海 泊于耽津 盖新羅盛時也 予是 客星見南方 太史奏曰 異國人來朝之象也 未幾 厚等果至 『耽羅誌』. 芒은 象자로 된 것이 있다. 『心齋集』 15쪽.

54) '용종(龍種)'은 뛰어난게 좋은 말(駿馬·龍駒).

55) '천한(天閑)'은 천자가 말을 기르는 곳. 陸游(육유)의 감추(感秋)라는 시에, "古來眞龍駒 未必置天閑"이라 하였고, 楊載(양재)의 시에, "不至天閑天觀帝服 如此骨相何由知"라고 하였다.

56) '성대(盛代)'는 융성한 세대 즉 융성한 나라. 작자는 조선의 신하였으므로 자국을 높여서 호칭한 말.

57) '직방(職方)'은 官名(관명)이고, 職方氏(직방씨)는 주례하관(周禮夏官)에 속하는데, 天下九州(천하구주)의 지도를 장악하여 사방의 공물(貢物)을 취급한다.

58) '판적(版籍)'의 版은 국경, 籍은 호적 즉 수판적(修版籍)은 국경과 호적의 틀을 짤다. 방물수판적(方物修版籍)은 나라 안의 인구에 따라 지방에서 바쳐야 할 공물(貢物)의 틀을 짤다, 즉 제도를 정비한다는 뜻.

59) 이원진 『탐라지』에는 이 시의 제목이 "<등절정(登絶頂:한라산 절정에 올라서)>"로 되어 있다.

60) '현포(玄圃)'는 縣圃(현포)라고도 하는데, 崑崙山(곤륜산) 위에 있다는, 신선들이 사는 곳. 『水經(수경)』에 곤륜산은 3급으로, 下曰樊桐인데 一名板洞이라고 하며 二曰玄圃인데 一名閭風이라고 하며 上曰層城인데 一名天庭이라 하였다.

61) '봉소(鳳簫)'는 대로 봉황의 날개처럼 만든 악기.

62) '적송(赤松)'은 적송자(赤松子). 옛날 신선의 이름. 신농씨 시절에 비를 거느렸다. 『후한서(後漢書)』(張良傳)에, "원컨대 인간 세상을 버리고 적송자를 놀았으면(願棄人間事 欲從赤松子遊耳)"이라는 구절이 있다.

脚底長風萬里來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 가랑이 밑을 스치는 곳
直待峰頭明月夜 곧 바로 산머리에서 달 밝기를 기다리면
獨看玄鶴舞瑤臺 신선언덕에서 신선학이 추는 춤을 볼 수 있지.⁶³⁾

이원진의 시(李元鎮詩)

徙倚方巖霽色新 새롭게 개인 날 방암을 의지하여 바라보니
四環瀛海闊無津 넓어도 나루터 없는 사면의 영주바다
北辰遠處瞻宸坐 북두성 아득한 곳 임금님 궁궐 올려다 보일 듯
南極明時見老人 남쪽 하늘 맑을 때만 보이는 노인성
千里不愁常作客 천리 밖에 떠나와서 나그네 생활 근심 없음은
百年歡喜此尋眞 평생 잊지 못할 신선 땅을 찾았기 때문
香風遠來笙簫響 향기로운 바람에 메아리쳐 오는 신선의 피리 소리
回首中州去一塵 머리 돌려 바라보니 육지 땅이 티끌 같이 작구나

김치의 유산기(金緻遊山記)⁶⁴⁾

내 일찍이 한라산⁶⁵⁾은 바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듣고 한번 등정(登頂)하여 장하게 유람하고자 마음먹고 있었으나, 기회를 얻을 수가 없었다. 기유년(1609, 광해군 1) 초봄에 천관랑(天官郎)⁶⁶⁾으로 임금님의 은혜를 입어 특별히 제주통판(通判 : 판관)에 임명 받았다. 이 해 3월에 비로소 <제주로> 건너가게 되었다. 바닷길에서 멀리 한라산을 바라보니 그다지 험준(險峻)하지 않은 듯하였다. 기다랗고 커다란 산록(山麓)이 한 면에 가로질러 있을 뿐이었다. 몰래 스스로 이르기를, “세상에서 소위 영주(瀛洲)⁶⁷⁾라는 곳은 곧 이 산이니 삼신산(三神人)의 하나로 신선이 산다고 하여 명실상부(名實相符)한 게 아

63) 요대(瑤臺)는 신선이 사는 곳. 周나라 穆王이 西王母를 만났다고 전해지는 곳.

64) 이 시는 이원진 『탐라지』 ‘제영’조에 ‘遊漢拏山記(유한라산기)’로 실려 있다.

65) 제주도 중앙에 우뚝 솟은 1950m의 산이다. 예로부터 탐라의 진산(鎭山)으로서, 그 원산(圓山)·두무악(頭無岳)·부악(釜岳) 등으로 표기하였으나, 주로 ‘한라산(할라산), 한로산(한로산)’ 등으로 불렸다. 현재는 한라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이 한라산 국립공원은 시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66) 중국 주(周)나라 때 육관(六官)의 하나. 임금을 섬긴다는 뜻으로 관리를 일컫는 말이다. 이조(吏曹)의 이명(異名)으로도 쓰인다.

67) 동해 가운데 신선이 산다고 전해지는 산. 『열자(列子)』에는 발해(渤海) 동쪽 몇 억만리에 다섯 산이 있는데 대여(岱輿)·원교(員嶠)·방호(方壺)·영주(瀛洲)·봉래(蓬萊) 등 다섯을 가리킨다. 또 사기(史記)에는 서불(徐市)이 진시황(秦始皇)에 글을 올렸는데 “해중에 삼신산(三神山)이 있는데 봉래(蓬萊)·방장(方丈)·영주(瀛洲)라고 하며 신선이 사는 곳이다.”라고 하였다.

넌가! 언뜻 인정이란 귀로 듣는 것을 귀하다고 하고, 눈으로 보는 것은 천하다고 그럴 것인가! 〈산을〉 찾아가서 살피어 의혹을 깨뜨리고 싶지 않겠나.”라고 하였다.

부임하고 10여 일만에 마침 민응생(閔應生) 군과 함께 한라산의 승경(勝境)에 대해 말을 나누었다. 민 군(閔君)은 나에게 일러 말하기를, “만약 조만간 당신께서 틈을 타서 한번 오른다면 이 사람도 또한 따라 나서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나는 대답하기를, “선경(仙境)은 만나기 어렵고 인사(人事)는 어그러지는 것이니, 공무에 바빠 거의 겨를이 없다.”라고 하자, “옛 사람이 이르기를 공무를 다 마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치 관사(官事:관청일)를 다 완료하길 기다린다면 어찌 어리석은 일이 아납니까?”라고 하였다.

마침내 갈 계획을 결심하고 민 군과 이효성(李孝誠) 및 정기수(鄭麒壽) 등과 함께 말을 타서 성(城)을 나섰으니, 때는 마침 4월 초 8일이었다. 오던 비는 개이어 따뜻한 날씨에는 화창하고 들판은 손바닥 같은 데 예쁜 푸새가 펼쳐 있었다. 무쇠내[鐵川]⁶⁸⁾ 냇가의 물을 따라 말을 타서 올라가니 철쭉과 진달래가 바위 사이에서 피어 빛나며 눈으로 볼수록 조용히 읊으니 모두 그린 그림 가운데 있는 듯하다. 가다가 20여 리에 이르러 언덕가에 쉬면서 낭떠러지의 시냇물을 굽어보니 온갖 골짜기의 푸른 숲이 우거져 사랑스럽다. 얘기하며 옮겨질 때는 이미 정오(正午)가 되었다. 드디어 말을 타서 산으로 들어가니 한 줄기의 길은 마치 뱀처럼 얹혀 돌아 구부러졌다. 고대[苦竹:조릿대]는 땅을 덮고 교목(喬木:곧고 큰 나무)은 하늘을 가렸다. 비스듬히 모자를 쓰고 녹음(綠陰) 아래를 지나니 서늘한 바람이 솔솔 불어 나로 하여금 몸과 맘이 모두 상쾌함을 느끼게 하였다.

노로오름[獐嶽]⁶⁹⁾을 거쳐서 세진골[三長洞]⁷⁰⁾에 들린 다음 세진골[三長]에서 불레오름[浦涯岳]⁷¹⁾을 넘어 비틀거리며 남쪽으로 향하여 한 정사(精舍)⁷²⁾에 이르렀는데 높은 곳은 안개와 구름이고 얇은 아래는 푸른 바다를 압도(壓到)하니 이곳이 곧 존자암(尊者菴)⁷³⁾이다. 8~9칸이나 되는 판잣집은 띠로 지붕을 덮어 사치스럽지도 않고 더럽

68) 지금의 무수천(無愁川)을 이른다. 원 이름은 ‘무수내’로, 鐵川(철천)은 이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오늘날은 ‘光弔川(강령천)’이라고도 한다.

69) 장악(獐嶽)은 지금 애월읍 산간에 있는 ‘노로오름(노루오름)’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70) 삼장동(三長洞)은 지금 애월읍과 서귀포시에 걸쳐있는 표고 1,068m(말젓오름·죽은오름), 1,068m(셋오름), 1,132m(큰오름)의 세 봉우리 일대를 이른다. 이 세 봉우리를 ‘삼장악(三長岳:세진오름)’이라고 하고 이곳 골짜기를 ‘삼장동(三長洞)’이라고 하였다.

71) 포애악(浦涯岳)은 불레오름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서귀포시 하원동(河源洞)에 있는 표고 1,351m(동북쪽)와 1,326m(남서쪽)의 두 봉우리로 이루어진 산이다. 이 오름 아래쪽에 尊者菴(존자암)이 있는데, 부처가 와서 수행했던 오름이라는 데서 ‘佛來岳(불래악)’이라 하였다는 것은 억지이다. ‘佛來岳(불래악)’도 ‘불레오름’의 변음인 ‘불레오름’을 한자차용표기로 나타낸 것일 뿐이다.

72) 정사(精舍)는 학문을 가르치려고 베푼 집이다. 정신을 수양하는 곳을 지칭하나 불교에서는 범어(梵語)로 정련행자(精練行者)의 옥사(屋舍)라는 뜻으로 즉 중이 불도를 닦는 곳. 사원(寺院)의 별칭이라고 할 수 있다.

73) 서귀포시 하원동 산 1번지, 한라산 영실(靈室) 서북편 불레오름 서넛 자락 1,200고지에 위치한 암자로서 그 설치 연대는 알

지도 않았다. 한 노승〔胡僧〕이 문밖으로 나와 인사를 하고 맞아 선당(禪堂)⁷⁴⁾으로 안내하기에 그 스님의 이름을 물으니 수정(修淨)이라고 하였다.

내가 좌우를 돌아보며 일러 말하기를, “이 산은 아득히 멀리 바다 밖 2천 리나 떨어진 곳인데 <우리가 유람하는 것은> 실로 평생 꿈에서도 오지 못할 곳이거늘, 우리가 오늘 놀러 찾아온 것이 운수가 좋은 게 아닌가!”라고 하니, 모두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웃으며 하는 말을 끝맺지도 못했는데 산색(山色)이 갑자기 캄캄해지며 천둥소리가 바위를 울렸다. 모두 생각한다는 것은 다 헛되어 비어 버리고 불등(佛燈)만이 반짝거리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더니 짙막한 율시(律詩)를 읊으며 지어⁷⁵⁾ 민군에게 보였다.

새벽에 큰바람이 불어 그 성난 바람소리가 산악을 흔들더니 민군이 놀라서 일어나 창문을 열면서 말하기를, ‘풍세(風勢)가 몹시 사나워 날씨가 자못 침침하여 비록 산정에 오른다고 할지라도 멀리 바라보기란 어렵겠습니다. 후일을 기다려 유람하여도 늦지 않습니다.’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그대의 말은 참으로 옳다. 다만 옛 사람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묵묵히 기도하면 형악(衡岳)⁷⁶⁾의 구름도 견히게 된다.’라고 했으니, ‘정성을 드리면 잘 풀려 나갈 수 있다. 나의 현명함이 비록 만(萬)에 하나 미치지 못한다고 하지만 마음속의 정성은 옛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니 그대는 좀 천천히 기다리지.’라고 대답하였다. 동이 터 밝아오자 과연 바람은 잔잔해져 드디어 일찍 식사를 마쳐 갈 길을 재촉하였다.

스님 수정(修淨)으로 하여금 길을 안내하게 하니 겹겹이 쌓인 언덕과 오름이 겹쳐 길을 매우 위태로웠다. 말을 타기도 하고 그저 걷기도 하며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뺄뺄한 골짜기를 헤쳐 나으니 점차 아름다운 경지(境地)로 들어섰다. 6~7리(里)나 지나 영실(靈室)에 다다르니 골짜기가 자못 넓게 트여 바로 이곳이 존자암(尊者菴)의 옛터이다. 천길 푸른 절벽이 둘러 있어 마치 병풍처럼 우뚝하며 위로는 괴석(怪石)이 마치 나한(羅漢)⁷⁷⁾처럼 5백여 개의 모습이 드러났다. 아래로는 샘이 잔잔하게 졸졸 흘러 그 소리가 거문고 소리를 듣는 듯하였다. 스님 수정이 나에게 알리기를, ‘골짜기 속에는 흰 사슴〔白

수 없다. 존자암은 애초에 영실에 있었는데, 나중에 이곳으로 옮겼다.

74) 참선하는 곳.

75) 판관 김치(金緻)가 한라산에 대해 읊은 칠언율시(七言律詩) 한 수가 「등절정시(登絶頂詩)」라는 제명(題名)으로 오늘에 전하니 이때 지은 율시임이 틀림없다. 이 시는 제주의 선비들이 즐겨 읊어 이를 외우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오늘날까지 이 시를 외어 읊을 줄 모르면 제주의 선비가 아니라고 혹평해 왔다. 이 시의 전문을 읊어본다. 石磴穿雲步步危 雨餘天氣快晴時 山高積雪經春在 海闊長風盡日吹 鶴駕不迷玄圃路 風簫留待赤松期 從今欲試滄霞術 歸去人間莫恨遲

76) 일명 형산(衡山), 혹은 횡산(橫山)이라고도 한다. 중국 오악(五岳)의 하나로 남악(南嶽)을 지칭하며 호남성(湖南省)에 있다. 「개형산운(開衡山雲)」이란 속어는 “형산의 구름을 활짝 열어 제치면 확 트여 바라보게 된다.”는 뜻으로 “정성을 잘 드리면 좋지 않은 일도 잘 풀리게 된다.”는 말로 비유한다.

77) 범어(梵語)로 arhan(阿羅漢)이라고 한다. 소승(小乘) 불교의 수행자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에 있어 온갖 번뇌를 끊고, 사체(四諦)의 이치를 밝히어 얻어서 세상 사람들의 공양을 받을 만한 공덕을 갖춘 성자(聖者)를 말한다.

鹿)이 영주풀[瀛洲草]을 뜯어먹어 왕왕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본답니다. 실로 여기가 신선이 산다는 곳입니다.’라고 하였다.

드디어 나는 흥겨워 시(詩)로서 읊어 마치기도 전에 종자(從子)가 말하되, ‘여기에서 봉우리를 오르기까지는 아직도 멀어 오래 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여, 부득이 다시 골짜기를 나섰다. 골짜기 동남쪽 산자락에 한 석굴(石窟)이 있어 이름을 붙여 수행(修行)이라고 하였다. 옛날 한 도승(道僧)이 그 안에 살았다더니 무너진 온돌이 지금껏 남아 있다. 수행굴(修行窟)을 나서 10여 리 지나니 칠성대(七星臺)에 다다랐다. 이 대(臺)에서 동쪽으로 다시 5리쯤 지나 쳐다보니 석벽(石壁)이 깎아지른 듯 우뚝 서서 기동처럼 하늘을 떠받쳤다. 이것이 곧 이른바 <한라산의> 상봉(上峰)이다. 곧 말에서 내려 지팡이를 짚고 비틀비틀 밀고 당기며 올라가니 험한 돌길이 구름에 닿아 인적(人跡)이 통하지 않았다.

온 산이 모두 향나무요, 위로는 우거진 숲으로 해를 가리고 아래로는 둥글레나무가 바위 위로 얹혔다. 못 풀과 온갖 꽃은 그런 틈에 뿌리도 박혀 있지 못했으며 층층 봉우리와 절벽에는 얼음과 눈이 아직도 쌓여 있어 가죽 겹옷을 입었어도 추운 기운이 몸에 스며들어 움츠러져 실로 인간 세계가 아니로다. 정오(正午)에 비로소 정상 위에 닿아 혈망봉(穴望峰)⁷⁸⁾을 향하여 대좌(對坐)하였다. 이 봉우리는 하나의 구멍이 뚫려 건너편을 볼 수 있으니, 그런 까닭으로 지어진 명칭이다. 사면이 봉우리로 둘러 마치 성곽 속에 연못이 있는 듯, 그 깊이는 한 길 남짓[丈餘]이 된다. 이를 백록담(白鹿潭)이라 하였다. 전설에 의하면 못 신선이 이 연못에서 흰 사슴(白鹿)에게 물을 마시게 하였으니,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이때에 햇볕이 거울에 비추듯 하고 해색(海色)이 옷 다려 놓은 듯, 위아래로 맞닿아 가없이 아득한데 맑은 바람은 솔솔 불고 기특한 향기는 코를 찔렀다. 바위에 기대어 길게 휘파람 불며 망건(網巾)을 걸어 멀리 살펴 바라보니 동쪽과 남쪽은 영파(寧波)⁷⁹⁾·유구(琉球)⁸⁰⁾·남만(南蠻)⁸¹⁾·일본(日本)·마라(磨羅)⁸²⁾·지귀(地歸)⁸³⁾·무협(巫俠)⁸⁴⁾·송악

78) 한라산 꼭대기에 있는 봉우리 중 하나로, 구멍이 나서 그 구멍으로 다른 곳을 볼 수 있기 때문에 ‘穴望峯(혈망봉)’이라 하였다.

79) 중국어로 Ningbo(寧波), 옛 이름은 명주(明州). 중국 절강성(浙江省) 동부 원강(甬江)강 하류에 발달한 도시, 영소평야(寧紹平野)와 주산열도(舟山列島)의 산물의 집산지로서 주변의 천둥산(天童山)과 아육산(阿育山)은 명승지로 유명하다.

80) 일본 규슈(九州)의 남쪽에서 대만(臺灣)에 이르는 해상에 흩어져 있는 50여개의 섬으로 된 열도. 유구는 7세기 이후 중국·한국·일본 등과 교섭이 있었고 유구왕조가 1871년 이후 무너져 일본에 귀속되어 오키나와현(沖縄縣)이 되고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미국과의 격전지로 널리 알려졌다.

81) 남만(南蠻)은 예전에, 중국에서 남쪽의 오랑캐라는 뜻으로, 남쪽 지방에 사는 민족을 낮잡아 이르던 말이다.

82) 마라(磨羅)는 지금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에 있는 마라도를 이른다.

83) 지귀(地歸)는 지금의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에 있는 지귀도를 이른다.

84) 무협(巫俠)은 협곡의 이름이다. 중국 사천성(四川省) 무산현(巫山縣)의 동쪽에 있는데, 호북성(湖北省) 파동현(巴東縣)의 경계에 있다. 양안(兩岸)의 절벽으로 되어 매우 험준하며 서릉협(西陵峽)·동릉협(東陵峽)과 더불어 삼협(三峽)이라고 일

(松嶽 : 송악산) · 산방(山房 : 산방산) · 성산(城山)이요, 서쪽과 북쪽은 백량(白梁)⁸⁵⁾ · 청산(靑山 : 청산도) · 경두(鯨頭)⁸⁶⁾ · 추자(楸子 : 추자도) · 사서(斜鼠 : 사서도) · 비양(飛揚 : 비양도) · 화탈(火脫 : 화탈도) 등 크고 작은 여러 섬과 멀고 가까운 여러 산이 모두 손닿을 곳에 들어온다.

삼읍(三邑)의 보루(堡壘)가 솟발처럼 정립(鼎立)하고 바둑판같이 펼쳐져 또렷하게 내 눈 밑에 깔려 얹혀진 개미떼가 구릉(丘陵)에 기생(寄生)하는 듯하다. 다만 하늘은 더욱 높고 바다는 더욱 트였으니 형체는 더욱 작아지고 시야(視野)는 더욱 멀어만 가서 내가 오른 봉우리는 바로 하늘 끝 편편히 빈곳에 떠 있는 듯하다. 바람에 나부끼는구나! 마치 세속을 잊어버리고 홀로 신선이 되어 훨훨 나니⁸⁷⁾ 말로나 문자로 가히 형용할 수가 없다. 지난 번 맘속에 간직한 의혹은 통쾌히 풀릴 수 있어 비로소 그 실속과 명성을 믿게 되었다.

수정(修淨)이 나서면서 “예로부터 이제까지 이 산을 유람하는 사람 중에서 정상에 오른 사람의 수는 알 수 없지만, 늘 구름과 비바람으로 컴컴하여 지척(咫尺)을 가리지 못하니 모두 어쩔 줄 모르고 돌아 나섰습니다. 일찍이 승경(勝境)을 살살이 탐색한 이가 없는 데 이제 명석한 당신께서 왔기 때문에 구름과 안개가 걷히고 날씨가 쾌청하여 하늘과 땅의 신비함이 드러났습니다. 참으로 선골지인(仙骨之人 : 신선의 골격)이 아니면 어찌 이런 데 깎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놀이에 능히 갇출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좌중이 활짝 웃었다. 나도 무릎을 치며 탄식하여 이르되, “우리는 모두 속세의 사람으로 선경(仙境)을 밟아 수성(壽星)⁸⁸⁾을 굽어보며 인간의 탈을 벗어 삼생(三生)⁸⁹⁾의 빛을 झा아 내 가슴이 시원하다. 극히 흉중(胸中)이 넓어져 운몽(雲夢)⁹⁰⁾을 삼킬 듯 할 뿐만 아니라 얻은 바가 크지 않았겠는가!

걸어 왔다. 그러나 여기서 ‘巫峽(무협)’은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 있는 차귀도(遮歸島) 일대의 무협(巫峽)을 이른다. 지금 ‘눈섬(누운 섬)’이라 한다.

85) 백량(白梁)은 전라남도 해남에 있는 섬이다. 예전에 제주도에서 육지로 나가는 사람들은 정남풍(正南風)이 불 때 조천관(朝天館)이나 화북포(禾北浦)에서 배를 출발하였는데, 지금의 관탈섬 지경에서 서풍을 만나면 백량(白梁)으로 표류하였다고 한다.

86) 경두(鯨斗)는 전라남도 보길도(甫吉島)의 고래머리(鯨頭)를 이른다.

87) 소식(蘇軾)의 전적벽부(前赤壁賦)의 글 「여유세독립(如遺世獨立) 우화이등선(羽化而登仙)」이란 문귀에서 인용한 것으로 “세속의 일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일을 일체 버리고 돌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88) 수성(壽星)은 ‘남극 노인성(老人星)’을 이르는데, ‘남극성(南極星)’이라고도 한다. 한국과 중국에서는 ‘남극노인(南極老人)’ 또는 ‘노인성(老人星)’, ‘수성(壽星)’이라고 부르는데, 특히 한국에서는 남쪽의 수평선 근처에서 매우 드물게 볼 수 있다. 원래는 붉은 별이 아니지만, 지평선 방향의 두꺼운 대기층에 의해 푸른빛이 흡수되어 붉게 보인다. 예로부터 노인성이 인간의 수명을 관장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왕이 노인성을 향해 제사를 올리는 풍습이 있었다. 또한 노인성이 보이는 해에는 나라가 평안해진다고 믿었다.

89) 불교에서 흔히 쓰는 전생 · 이승 · 저승을 말하며 또 과거 · 현재 · 미래를 지칭하기도 한다.

90) 운몽(雲夢)은 운몽택(雲夢澤)으로서 중국 고대 호북성(湖北省) 남부에서부터 호남성 북부에 걸쳐서 있었다고 하는 9백리나 되는 대소택지(大沼澤地)를 말한다. 「탄약운몽자팔구(吞若雲夢者八九)」라는 구절은 중국 사마상여(司馬相如)의 자허부(子虛賦)란 글에서 인용한 것으로 “극히 가슴이 넓어진다”는 뜻이다.

원미지(元微之)⁹¹⁾의 시에, “내 옥황상제(玉皇上帝)의 향안리(香案吏)⁹²⁾일세, 귀양살이로 봉래산(蓬萊山)에서 살리라.”라고 하였으며, 간재(簡齋)⁹³⁾의 시에, “올해 귀양살이 아니었으면 이 기특한 일을 다투어 이루었으리.”라고 하였다. “〈원미지·간재〉 두 사람은 바로 오늘을 말한 것이리라.”라고 하고, 근체시(近體詩)⁹⁴⁾ 한 수를 지어 돌을 씻은 다음 써서 승적(勝迹: 뛰어난 자취)을 기록하고 꽃 자기(磁器) 사발에 술을 부어 실컷 취하려 하니 좌우는 모두 사양하여 마시지 않았다. 한 순배 돌아 마셔 멈추자 주방(廚房) 사람이 향기로운 잎을 따서 찻물을 끓여 내놓았다. 한 잔을 시음(試飲)했더니 청향(清香: 맑은 향기)이 뱃속에 스며들어 신선이 되고 바람을 타서 먼 곳을 노닐며 다니니 비록 경옥(瓊玉)같은 음료라도 이를 넘지 못할 것이다. 요리조리 다니고 있을 무렵 종자(從者: 심부름꾼)가 알리기를, “날이 벌써 저물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산 북쪽을 따라 부축하면서 내려와 늘 기봉(奇峰)과 험한 절벽을 만나면 지팡이에 의지하여 간혹 돌 위에 앉아 쉬고 나서 10여 리를 지나 비로소 말을 타고 천천히 내려왔다. 언덕 가의 그윽한 꽃은 울긋불긋 혹은 새하얗게 서로 비추고 이때에 진기한 길짐승과 괴이한 날짐승이 안개 자욱한 숲 속에서 지저귀며 날아갔다.

이생(李生: 李孝誠)이 나에게 일러 말하기를, “가지고 온 술을 다시 가지고 돌아갈 수 없습니다. 청컨대 잠깐 시냇가에 멈추어 다시 한 번 마셔 취하고 달빛을 밝으며 돌아가는 것이 또한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니, 나는 “그렇다.”라고 맞장구쳤다.

가시덤굴에 앉아 주량에 따라 마셨다. 마시고 드디어 서로 재촉하여 산을 내려오는데 고개를 돌려보니 헤어지기 섭섭한 듯하였다. 마치 친구를 이별하듯 유달리 그리워지는 감회에 젖어들었다. 소사(小使: 심부름꾼)가 갑자기 ‘저 해상의 신루(蜃樓)⁹⁵⁾는 역시 하나의 신기한 광경입니다.’라고 일러주었다. 내가 그곳을 보니 층층 누각(樓閣)이 우뚝 솟아올라 떨어지는 해와 없어지는 노을의 광채가 서로 비추어 없어졌다가 보이고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습이 (말로) 형용하기란 어려웠다. 모두 서로를 돌아보며, “생각건대 하늘이 임(판관 김치를 지칭)에게 속인(俗人)들이 볼 수 없는 경관(景觀)을 전부 보여 주

91) 당(唐)나라 원신(元愼)의 자(字)이다. 중국 하남(河南) 사람, 좌습유(左拾遺)를 배명(拜命)했으나 때때로 유배생활을 거쳤다. 백거이(白居易)와 병칭(並稱)되어 원백(元白)이라 일컬어졌다. 저서로 「원씨장경집(元氏長慶集)」이 있다.

92) 제사 지낼 때에 향로(香爐)나 향합(香盒)을 올려 놓는 상(床)을 향안(香案)이라 하고 그런 일을 맡은 벼슬아치를 향안리(香案吏)라고 말한다.

93) 송나라 진여(陳與義)의 호이다. 송나라 엽현(葉縣) 사람으로 자는 거비(巨非). 정화(政和)의 진사(進士)로 소흥중(紹興中), 참지정사(參知政事)를 지냈다. 시(詩)에 뛰어나 일찍이 「흑매(黑梅)」를 지어 휘종(徽宗)에게 알려졌다. 저서로 「간재집(簡齋集)」이 있다.

94) 고체시(古體詩)에 상대되는 말로써 율시(律詩)와 절구(絶句)를 통틀어 일컫는 금체시(今體詩)를 말한다.

95) 신기루(蜃氣樓), 곧 대기의 밀도의 분포가 비정상적이어서, 광선이 굴절하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 물상(物像)이 나타나 보이는 현상. 사막이나 해상, 그밖에 공기가 국부적(局部的)으로 또는 층을 이루어 온도차를 가지는 곳에 흔히 나타나는데 먼 곳의 육지·수목·가옥 등의 상(像)이 거꾸로 서거나 곧게 서서 아래쪽 또는 공중 높이 솟아 보인다.

려는 것이 아닙니까! 온갖 기기괴괴(奇奇怪怪)함이 기쁘고 즐거우며 놀랍고 두렵다는 것이 차례(次第 : 차례)에 모습을 드러내려 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참으로 임이 대단하신 것을 하늘이 알아주셨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손뼉을 치며 웃어댔다. 갑자기 어둠이 들자 새들은 모두 날아가고 산에서 달이 떠 드디어 주성(州城 : 제주성)으로 들어서니 성문은 닫아 있지 않았다. 며칠 뒤에 민 군(閔君)이 나에게, “앞서 한라산을 유람한 자취가 인멸(湮滅)되어 전하지 못할 수 있으니 임께서 글로 써서 오래 남게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자, 나는 문장이 졸렬하나, 사양하지 못하고 이 글을 썼노라.⁹⁶⁾

이원조의 기(李源祚記)

신선가(神仙家)에서는 한라(漢拏 : 한라산)를 영굴(靈窟 : 신성한 굴)이라고 여겨, 두루 널리 알려진 기이한 얘기들을 이 산에 갖다 붙인다.

이 산을 유람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날씨에 대하여 점을 쳐야 한다. 점을 치지 않으면 구름 기운이 뗏부리를 덮어버려서, 심지어 보이지 않기도 한다. 비록 점을 쳤다고 하더라도, 왕왕 골짜기의 안개가 솟아올라 잠깐 사이에 산이 가려 버린다. 기이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점을 쳐서 신선의 연분(緣分)이 있는지 없는지를 안다고 하지만, 신선이란 본디 없는 것이거늘, 연분의 징조를 어찌 경험할 수 있겠는가!

〈산이〉 지나치게 높으면 오르기를 꺼려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너무 멀리 있으면 어려움이 생겨나는 것이 이치이다. 거의 없을 유람을 하면서 꼭 알맞은 날씨를 만나게 되는 것은 크나큰 행운이다. 이와 같이 말하면 〈이 산을〉 보지 못한 진황(秦皇 : 진시황제)과 한무(漢武 : 한무제)를 가히 속일 수 있겠지만, 산 아래에 사는 나무꾼 더벅머리와 사냥꾼 지아비는 가히 속일 수 없는 것이다. 방사(方士)⁹⁷⁾와 기이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풍운(風雲)⁹⁸⁾은 족히 믿지 못하는 것이 이와 같다.

나는 일찍이 등산하는 것이 도를 배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 왔다. 孔子(공자)의 지위에 도달한 뒤에야 바야흐로 가히 태산(泰山 : 높고 큰 산)에 오를 수 있는 것이다. 이보다 밑에 있다면 비록 밝고 지혜롭기가 안연(顏淵 : 顏回)과 같다고 하더라도, 오창문(吳昌門)⁹⁹⁾ 앞에 있는 흰 말을 분별할 수 없었던 것이니, 역량(力量)에는 크고 작음이 있고, 안목(眼目)에는 높고 낮음이 있을 따름이다. 내가 제주에 부임하여 며칠 동안 잠자리를 망

96) 『유한라산기(遊漢拏山記)』는 한문 문장형태로 보아 「기(記)」에 해당되는데, 기(記)란 문장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직술(直述)하는 문장의 한 종류이다. 서사(敘事)를 주로 하여 의론을 어울려 표현하는 것을 변체(變體)라 한다.

97) 방사(方士)는 신선의 술법을 닮은 사람을 이른다.

98) 풍운(風雲)은 풍운조화(風雲造化: 바람이나 구름의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의 뜻을 나타낸다.

99) 『삼국지』 ‘손견(孫堅)’과 ‘방통(龐統)’ 관련 기사에서 ‘오창문(吳昌門)’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오군 창문(吳郡 昌門)’을 이른다. 곧 ‘창문(昌門)’은 전국시대 오군(吳郡) 서쪽의 외곽문으로, 춘추 말 오왕 부차(夫差)가 만든 성문을 이른다.

경루(望京樓)¹⁰⁰ 누각 위에 마련하였다. 앞쪽으로 한라산을 마주하고 있었는데, 책상 사이에 있는 듯, 심히 높고 험준해 보이지 않았으며 가히 가까이서 완상할 만하였다. 그 뒤 얼마 안 되어, 해지는 것을 바라보려고 사라봉(紗羅峰)¹⁰¹에 올라갔다. 괴이한 것은 내가 사라봉에 더욱 더 올라갈수록 한라산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이었다. 마치 공자를 ‘우러르면 더욱 높고, 뚫으려면 더욱 굳어져서’ 진정으로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보려면 안증(顏曾 : 顏淵과 曾子)과 같은 자질 이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과 유사하였다.

비로소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이미 탐라(耽羅) 바다를 건너 와서 한라산을 보지 못하면, 이는 스스로 보지 않으려고 의도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드디어 날씨에 대해 점을 치지도 않고서, 추분(秋分) 다음날에 하인 몇 사람과 기병을 이끌고 나섰다. 제주의 유생 김영락(金英樂)¹⁰²·막료 이인관(李仁觀)·정의성(丁義成)·이노하(李潞夏)와 아들 정상(李鼎相)이 따라 나섰다. 죽성촌(竹星村)¹⁰³에서 잠을 잤다. 닭이 세 번 울자 햇불로 행렬을 만들어 출발하였다. 산 가운데에 이르러 조금 쉬었는데, 장막을 세우고 앉았다. 이때 아침 해가 막 솟아올랐다. 넓은 바다는 끝이 없었다. 홀연 주자(朱子: 朱熹)의 ‘남방의 신 축융(祝融)¹⁰⁴이 바람을 몰고 다닌다.’는 구절이 떠올랐다. 임시 부엌에서 아침밥이 나왔다. 술이 한 순배 돌자 여러 사람들이 돌아보며 말하기를, “이게 인(獐)의 마른 고기와 옥구슬에서 나온 진액인가?”라고 하며, 서로 더불어 크게 웃었다.

말을 버리고 가마에 올랐다. 점차 수풀 속의 그늘 사이로 들어갔다. 모든 나무가 휘어늘어진 채 엷혀져 있었다. 풀과 나무가 무성한 사이로 옥구슬 같이 아름다운 꽃과 열매들이 있었다. 작거나 크며, 붉거나 검은 색깔이었다. 겨우살이(冬靑), 금령(金鈴), 소리쟁이[葦澄茄], 광나무 열매(女貞實)들은 모두 육지에서 희귀한 품목이다. 혹 괴이한 풀과 기이한 나무들이 있었지만, 이름을 알 수 없었다. 토박이들에게 물어 보았는데, 사투리를 써서 알아듣지 못하였다. 풀과 나무, 새와 짐승의 이름을 많이 알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웠다.

100) 망경루(望京樓)는 제주 성안에 있었던 누정 중 하나이다.

101) 사라봉(紗羅峰)은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오름을 이른다.

102) 김영락(金英樂)은 제주도 입도조 김인충의 14대손으로, 3형제인 김영업(金英業), 김영집(金英集), 김영락(金英樂) 등이 함께 1814년(순조 14) 어사 이재수(李在秀)가 베푼 문과 향시에 나란히 동방(同榜)으로 급제하였다. 당시 고시관은 고심 끝에 “문호(門戶)가 태성(太盛)”이라고 하여 막내 김영락을 탈락시키고 차점자로 다시 뽑았는데 이 또한 오도승방의 손자로 알려졌다. 이들은 1817년(순조 17) 전시(殿試)에 직부하여 병과(丙科)로 올라갔다. 김영집은 예조정랑을 거쳐 강원도 외양군 은계찰방을 역임하였으며, 김영업은 사헌부 장령을 거쳐 제주판관이 되었고, 김영락은 후진교육에 힘쓰며 문명(文名)을 떨쳤다. 모두 제주시 화북동 거로마을에서 태어났으며 통정대부 김익겸(金益兼)의 아들들이다.

103) ‘죽성촌(竹星村)’은 제주시 오동동 ‘죽성동’을 이른다. 대부분 옛 지도는 물론 오늘날에도 ‘竹城(죽성)’으로 쓰고 있는데, 이 책에는 ‘竹星(죽성)’으로 썼다.

104) 축융(祝融)은 祝融(축융)으로도 쓰는데, ① 불을 맡은 신. 화재. ② 여름을 맡은 신. ③ 남쪽 바다를 맡은 신 등의 뜻으로 쓰인다.

수 십 리를 나아가자 땅이 더욱 더 가파르고 길이 더욱 더 험해졌다. 가마를 매고 있는 병졸들이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었다. 아주 험하면 짚신을 신고서 걸었다. 따르는 사람[從者]들은 숨쉬기가 가빠지고 힘이 다하였기 때문에, 고개를 숙인 채 웅크려 쉬려는 뜻이 있었다.

나는 문득 떨쳐 일어서 앞으로 나아가 말하기를, “나를 따르는 이들이여! 우리가 걸을 길은 백 리인데, 반을 넘은 구 십 리쯤에 이르러 있소. 목표가 바로 머리 위에 있는 것을 보시오. 조금만 더 나아가면 그만두고자 하더라도 능히 그러할 수도 없소!”라고 하였다.

숲이 끝나자 길이 조금 넓어졌다. 온 땅에 고대(苦竹 : 조릿대)¹⁰⁵⁾가 가득 차 있었다. 뻗뻗하기가 방석과 같다. 어린 것들은 잔디와 같아서, 앉을 수 있는 깔개로 삼을 수 있었다. 어떤 향내 나는 이파리는 작지만 줄기가 뻗어서 땅을 덮으며 바위를 엮어매고 있었는데 열매가 검고 달았다. 영주실(瀛洲實)¹⁰⁶⁾이라고 불렀다. 이파리를 달여 차로 마신다. 맛이 심히 맵도록 시다.

꼭대기까지 거리가 겨우 몇 리 정도 남았다. 남쪽으로는 막히고 서쪽으로는 뚫려 있었다. <이곳은> 전체 산의 어깨뼈에 해당하였다. 멀리로는 작은 섬들이 벌려 서 있고, 가까이로는 구릉과 작은 산봉우리들이 겹겹이 서 있다. 아득히 희미하게 보이는 것들이 가까이 다가와 붙고, 답답하게 오므라들었던 것들이 시원스레 펼쳐졌다. 오르락내리락하는 굽은 길을 버리고서 평평하고 넓은 길을 밟고, 답답하고 울창한 곳을 벗어나서 밝고 넓은 곳으로 올랐다. 왔던 길을 되돌아보았다. 아득하여 마치 낭떠러지 골짜기에 떨어지는 듯했지만, 전체가 이미 <서로> 붙잡아서 자기를 위하는 듯하였다.

비로소 큰 길의 문[大道之門]을 알아 유람하고, 성인의 담장[聖人之牆]을 엿보는 것은 진실로 뜻을 세우는 확실함과 힘을 쓰는 근면함이 아니라 어떻게 백관(百官)의 부유함과 종묘(宗廟)의 아름다움만 볼 것인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은 단지 한 칸 사이를 채 도달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드디어 가마를 재촉하여 백록담(白鹿潭)에 올랐다. 백록담은 높은 꼭대기 위에 있다.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남쪽과 북쪽이 높고, 동쪽과 서쪽이 조금 낮다. 가로 세로 길이가 사면으로 모두 수 궁(弓)¹⁰⁷⁾을 넘는다. 깊이를 헤아리면 장(丈)¹⁰⁸⁾으로 가히 1백은 되지만, 물이 겨우 정강이를 적시는 얇은 경우가 전체 바닥의 5분의 1 정도이다.

105) 본문에는 ‘苦竹(고죽 : 고대)’로 표현하였다. 오늘날 사전에는 ‘苦竹(고죽)=왕대=참대’라 하였다. 그러나 이 글의 ‘苦竹(고죽)’은 ‘참대’나 ‘왕대’가 아닌 ‘조릿대’를 이르는 것이다. 이 ‘조릿대’를 제주어로 ‘ㄴ대’라고 한다.

106) ‘영주실(瀛洲實)’은 옛 문헌에서 자주 확인되는데, 현대국어 사전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다. 오늘날은 보통 ‘시로미 crowberry’, ‘암고란(岩高蘭·巖高蘭)’, ‘조이(鳥李)’라고 한다.

107) ‘궁(弓)’은 길이의 단위로, 여섯 자 또는 여덟 자 정도의 길이를 이른다.

108) ‘장(丈)’은 길이의 단위로, 10자 정도의 길이를 이른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선인(仙人)이 흰 사슴을 타고 이곳에서 노닐었다고 한다. 과연 누가 보았으며, 누가 이를 전한 것일까? 아래로 백록담 바닥의 진흙과 모래를 내려다보니, 여태 사슴 발자국들이 있었다. 아마 짐승 무리들이 와서 물을 마시던 것이리라.

산꼭대기에 물이 있다는 것은 천성(天性)이 아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움푹 패어 있다. 이는 음과 양이 서로 뿌리를 이루는 오묘함이다. 움푹 패어 있으므로 물을 기약하지 않지만 물이 저절로 모이게 된다. 그러므로 백두산의 천지(天池)나 태백산의 황지(潢池)가 모두 이런 부류이다. 유독 이 백록담에서만은 글로 꾸미기를 만드시 ‘신선(神仙)’으로 하였다.

얘기가 너무 과장되어 이를 괴이하게 여긴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대정현(大靜縣)에 있는 산방산(山房山)이 이 백록담에서 갈리어 내쳐졌으므로 드디어 우묵해져서 못으로 되었다고 한다. 또한 기이하지 않은가!

자리를 백록담 북쪽 제일 높은 곳에다 깔았다. 왼편과 오른편에 있는 여러 봉우리들이 혹 높기도 하고 혹 낮기도 하며, 이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였다. 모두 풍취가 백록담보다 못하므로 가히 생략할 만하다.

요리하는 사람에게 술을 내어 오게 하였다. 술이 조금 취하자 지팡이에 의지하여 두루 돌아보았다. 온 섬 전체의 4백 리가 손바닥의 손금 같았다. 구름바다가 만 리에 뻗어 있었는데, 눈이 더 이상 닿지 않는 데에 이르러서야 멎었다. 유연(柔軟)히 자득(自得)한 느낌이 들었다. 만물의 끝보다도 더 높이 솟구쳐서 티끌들을 다 털어내고 텅 빈 허공에 걸리어 있으니, 어느 것이 하늘이고, 어느 것이 사람인지 알 수 없었다.

증점(曾點：曾皙)¹⁰⁹이 공자에게 “기수(沂水)¹¹⁰에서 목욕을 하고 무우(舞雩)¹¹¹에 올라 시와 노래를 읊조리겠다.”라고 하던 일을 생각하면, 이런 기상이 있었으리라. 만약 공자를 따라 노닐게 하고, 태산(泰山)에 오르는 날이면, 그 펼쳐내는 것이 또한 반드시 성인의 마음에 상당함이 있을 것이리라.

조금 있으니 구름이 북쪽으로부터 다가와서 빠르게 바다를 지나쳤다. 바다 색깔이 혹 가려지기도 하고 혹 드러나기도 하였다. 여러 사람들이 날씨에 대해 점을 쳐서 알아보지 않았다고 하며 나를 탓하였다. 나는 말하기를, “어찌 마음 속상해 할 것이 있소? 잠깐 동안의 장애는 달관한 경치를 바라보는 눈을 능히 가릴 수 없고, 아래 세상의 나쁜 기운은 세상을 벗어나려는 의표(意標)를 꺾을 수 없소이다. 여러분들은 마침내 기이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 귀신이 내리는 재앙을 부르게 되는 경지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였소. 하물며

109) ‘증석(曾皙)’은 공자의 제자 중 한 사람으로, 증참(曾參)의 아버지.

110) ‘기수(沂水)’는 노(魯)나라 남쪽에 위치한 강 이름으로, 중국 산둥성에서 발원하여 강소성(江蘇省)으로 흘러들어간다.

111) ‘무우(舞雩)’는 ‘기우제를 지내는 곳. 또는 기우제를 지낼 때 춤을 추는 곳. 하늘에 제사하여 비는 곳’을 이른다. 여기서는 ‘산 위의 기우제(祈雨祭)를 지내는 곳’을 뜻한다.

처해 있는 땅이 이미 높고, 보는 바가 더욱 빠어나며, 밝고 밝음이 내 몸에 있고, 마음이 시원하게 밝아서, 절로 가히 팔방(八方)의 끝을 통찰할 수 있고, 하늘 밖까지 꿰뚫을 수 있으니, 무엇을 부러워하리오? 난새와 학을 멍에에 매어 타고 세상 밖에서 구름을 타고 노니는 것이라오. 앞의 것으로 말미암는다면 이는 눈에 있는 장애요, 뒤의 것으로 말미암는다면 이는 마음의 장애인 것이오. 이 두 가지 장애를 제거하여야 비로소 가히 산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소요하는 것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것이오.”라고 하였다.

여러 사람들이 혹 침묵하기도 하고 혹 그렇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이번 산행에서 또 한 익히 영실(靈室)의 경승에 대해 들었다. 돌 나한(石羅漢)들은 신들이 깎고 새겨서 만 들었다고 하였다.

경치를 유람하려는 이들은 산등성이를 넘어 우리러보아야 하고, 조금이라도 소란스러우면 비바람이 문득 일어 신령스럽고 기이하다고 하였다. 나는 이 말이 거의 괴이함에 가깝다고 생각하였지만, 여러 사람들은 맞다고 맞장구쳤다.

산을 내릴 때에는 남쪽과 서쪽으로 비스듬히 내려왔다. 돌길이 마치 사다리 같았다. 가마를 타고 십여 발을 디뎠지만, 몸이 마치 두레박을 끌어올리는 지렛대처럼 기울어졌다. 두 사람의 종에 의지하여 걸어 내려갔다. 초조하게 걷는 걸음걸이에 여러 번 구르고 여러 번 넘어졌다.

몇 리를 가자, 조금 넓은 곳이 나왔다. 바위에 의지하여 쉬었다. 뒤에 오는 이들은 여태 산허리에 있었는데, 마치 굴러 떨어질 듯, 걸려 있는 듯하였고, 험떡거리는 것이 사람 형색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을 향해 말하기를, “선(善)을 따르는 것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이 어렵고, 악(惡)을 좇는 것은 산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쉽소. 착한 마음을 버리고서 악한 마음에 나아가는 것은 그 어려움이 또한 이 같지 않으리오? 이미 다 높은 곳에 도달하였으므로, 밑으로 내려가는 형세라고 하더라도, 이미 익혀 익숙한 것을 버리고서 새롭고 기이한 것을 좇아 나아가며, 신선과 부처에게서 도를 찾고, 패설(稗說)에서 문채다움을 삼는 것은, 모두 마음과 힘을 굽어 사용하는 것이라오. 여러분들은 그 오늘의 유람으로써 경계를 삼으시구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미 출발하였으므로 마냥 쉬면서 멈출 수도 없었다. 혹 말에 올라타기도 하고, 혹 가마에 올라타기도 하면서, 골짜기와 구령을 넘고 넘어 수십 리를 갔다. 길가에는 울퉁불퉁한 바위들이 많아서 말 걸음도 절뚝거리고, 수레가 맞닿아 삐걱대었다. 느린 걸음으로 꼬불꼬불 피하였다. 대정현(大靜縣) 경계에 이르자, 후망을 보던 아전이 나와 알현하였다.

짐승 복장을 하였고, 털병거지[戎氈]를 쓰고 있었다. 가마 앞에 서서 길을 이끌었다. 한 마리 사냥개인 삼살개가 사나운 눈을 뜨고 쿵쿵 냄새를 맡으면서 그의 뒤를 따랐다.

산에서 방목되고 있는 마소 수십 마리가 떼를 지어 있다가, 사람의 행렬을 보고는 놀라 달아났다. 우뚝 서서 서남쪽의 큰 바다를 바라보았다. 더바섬[加波島], 송오름[松岳山], 마라섬[麼羅島], 지귀섬[知歸島] 등과 같은 여러 섬들이 큰 바다에 떠 있다가 숨어버리는 광경은 자못 기이하였다.

깎아지른 절벽에는 향나무들로 덮여 있었다. 굵은 아름드리 밑동 줄기들이 한쪽으로 쏠리어 굽어져 있었다. 위는 말라 있었고 아래로는 푸른 색깔이었다. 겨울과 봄에 눈에 짓눌리어서 생기가 퍼지 않았다. 그 사이로 철쭉들이 많았다. 키가 1자도 안 되어 보였다. 가지가 많아 땅을 덮고 있으므로 마치 방전(方氈)과 같았다. 삼사월에 꽃이 처음 피기 시작하는데, 온 산이 비단 무늬에 바둑돌을 놓은 듯이 눈부시고 아름다워서 죽히 사람의 눈에 꼭 들어온다. 멀고 험하며 궁벽한 곳에 떨어져 있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탐내어 현혹되기에 이르도록 하는 것은 이 때문일진저!

다시 방향을 되돌려 북쪽으로 몇 리를 갔다. 점점 산골짜기 물이 옥구슬 같은 울음소리를 내고, 소나무의 바람 파도가 골짜기에 용솟음치는 소리가 들렸다. 조금 정신을 깰 수 있었다. 수풀 틈새로 낭떠러지 위에 있는 우뚝 선 암석들이 거의 수백 개가 서있다. 혹 걸터앉아 있기도 하고 혹 쭈그러 앉아 있기도 한 것이 마치 사람 모습이었다.

낭떠러지가 완만한 곳에는 기이한 암석들이 늘어서 있었다. 사람 눈으로 보면 사람이고, 짐승 눈으로 보면 짐승이었다. 나한(羅漢)이라는 이름은 이 때문에 생긴 것이다.

절벽 앞에는 작은 언덕이 있었다. 대정현 사람들이 음식 대접을 하려고 장막[帟]을 이곳에다 가설하여 놓았다. 이미 자리에 나아가자, 대정현감[主倅]¹¹²⁾이 와서 알현하였다. 준비하여 오랜 시간 동안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들었다. 대정현은 3사(舍)¹¹³⁾ 거리에 있다. 산골짜기에 높이 건너질러 놓은 다리들이 여러 번 꺾이었다. 날은 이미 저물었고, 가까운 곳에 인가도 없었다. 부득이 노숙할 계획을 세웠다. 피곤한 아전들과 서너 마을의 백성 열 남짓한 사람들이 공역(供億)¹¹⁴⁾을 갖추어 내어 발사(芟舍)¹¹⁵⁾에 이바지하였다. 유람하는 것으로써 백성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어 가히 후회스러웠다.

저녁 식사 뒤에 달이 떴다. 막사 앞으로 나와 바위 면들을 살펴보았다. 푸르고 하얀 색깔을 띠어 가히 알아 볼 수 있었다. 정면으로 마주하여 곧바로 보자, 곧 고집스레 생긴 한 절벽이 견주어 자기보다 낮은 것들을 엿보고 있었다. 기이한 형상에 갑자기 정신이

112) '주倅(主倅)'는 대정현감을 이른다.

113) '사(舍)'는 거리의 단위로, 30리 정도의 거리를 나타낸다고 한다.

114) 공역(供億)은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이른다.

115) 발사(芟舍)는 풀 가운데 휴식처를 이른다.

홀려 멍청하게 낮이 나가 버린 것도 깨닫지 못하였다.

마침내 막사로 들어가서 등불을 걸고 산행을 기록하는 시(詩) 약간 수를 지었다. 이불을 둘러앉았지만, 바람 기운이 심히 살을 에는 듯이 지독하여 격막(膈膜)이 아려와 기운을 펼 수도 없었다. 밤이 깊어지자 능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옆 장막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코 골며 자는 소리가 들렸다.

이르기를, “일어나오, 일어나오! 오늘의 유람은 즐거웠소? 영실에 부는 바람은 어떠하오? 한라산의 구름은 큰 나무들을 옹기고서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니, 어찌 이른바 오백장군을 보았겠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공자님의 도(道)를 높고 멀다고 여기서 해 보지도 않은 채 힘써 도달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비유컨대 어제 산 중턱에서 뱅뱅 돌았던 일이오. 육예(六藝)¹¹⁶⁾를 낮고 쉽다고 생각하여 숭상하지 않고 대신 괴이한 책자와 기이한 패설(稗說)을 보기 좋아하는 것은, 비유컨대 오늘 영실에서 기이함을 뒤지는 일이오. 이를 알지 못하는 것은 비유컨대 가시나무 숲과 바위 사이에서 걸가지만을 뒤적이며 캄캄하게 찾는 것이오. 때로 비단 무늬의 철쭉과 신이 깎아 놓은 절벽을 보아 기이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람들이 거의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오. 또 비바람을 일으키는 신에 대한 얘기로써 위협하여, 나로 하여금 노숙하게 하며, 격막이 아리도록 하는 것은, 모두 이것이 신이 내리는 재앙의 빌미이며, 이것이 가히 징험인 것이오.”

드디어 한 떠들썩한 무리와 함께 앉아서 묘시(卯時 : 오전 6시)를 기다리며 남극에 있는 노인성(老人星)을 보려고 하였지만, 또 구름이 희롱을 부려 과연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해가 뜨자 조반을 재촉하였다. 말에 올라 뒷 구릉을 넘어 서북쪽으로 갔다. 금덕(今德 : 지금 유수암리)과 광녕(郭寧)¹¹⁷⁾ 경계를 지나 4소장(四所場)으로 나왔다.

길이 조금 평탄해졌다. 많은 나무들이 뺨뺨하게 우거져 있었고, 단풍잎들이 반쯤 물어져서 가히 사랑할 만하였다. 말 위에서 주자(朱子)가 지은 「무이도가(武夷權歌) 구곡(九曲)」¹¹⁸⁾을 암송하였다. ‘눈앞에 시원하게 뽕나무와 삼이 나타나니 평평한 하천 같이 보이네.(將窮眼豁然桑麻雨露見平川)’라는 구절에 이르자, 마음과 정신에 깨달음이 있어 쾌활하였다.

오시(午時 : 12시)에는 이생(利生)¹¹⁹⁾ 마을에서 말을 갈아탔다. 30리를 행보하여 서문(西門) 길을 따라 감영(監營)으로 되돌아 왔다. 해는 아직 포시(哺時)¹²⁰⁾가 안 되

116) 육예(六藝)는 고대 중국 교육의 여섯 가지 과목인 예(禮), 악(樂), 사(射), 어(禦), 서(書), 수(數)를 이른다.

117) ‘금덕(今德)’은 애월읍 유수암리 검은데기동네를 이르고, ‘광녕(郭寧)’은 애월읍 광령(光令)의 잘못이다.

118) 주자(朱子)가 53살이 되던 해에 자신이 개척한 학문의 새로운 영역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이때 무이산(武夷山) 계곡의 아름다움을 빗대어 자신의 학문적인 성취를 자랑하는 시를 10수 지었다. 이 시가 바로 「무이도가(武夷權歌)」 10수이다. 이 시는 무이산의 아홉 골짜기의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묘사해서, 흔히 「무이구곡가(武夷九曲歌)」라고도 부른다. 본문의 「무이도가(武夷權歌) 구곡(九曲)」은 이 시를 이른다.

119) ‘이생(利生)’은 제주시 해안동 위쪽 ‘이성리’에 있었던 옛 마을로, 다른 문헌에서는 주로 ‘이생리(伊生里)’로 표기하였다.

었다. 멀리서 한라산을 바라보니, 높이 은하수 속에 꽂혀 있었다. 역력한 것이 마치 손바닥을 보는 듯하였다. 영실을 되돌아보았지만 이미 볼 수 없었다. 촛불 시중꾼을 불리 붓을 잡고 이 기행문을 적고서 같이 노닐었던 여러 사람에게 보인다.

세미양오름[三義讓岳]¹²¹⁾ 【제주성 남쪽 15리에 있다.】

글월이오름[表岳]¹²²⁾ 【제주성 남쪽 20리에 있다.】

거친오름[荒岳]¹²³⁾ 【제주성 동남쪽 20리에 있다.】

반응오름[盤凝岳]¹²⁴⁾ 【제주성 동남쪽 20리에 있다.】

지기리오름[之奇里岳]¹²⁵⁾ 【제주성 동남쪽 22리에 있다.】

답인오름[踏印岳]¹²⁶⁾ 【제주성 동남쪽 25리에 있다.】

민오름[禿岳]¹²⁷⁾ 【제주성 동남쪽 25리에 있다.】

운우로악[雲雨路岳]¹²⁸⁾ 【제주성 동남쪽 25리에 있다.】

세미오름[思美岳]¹²⁹⁾ 【제주성 동남쪽 26리에 있다.】

갓구리오름[倒轉岳]¹³⁰⁾ 【제주성 동남쪽 30리에 있다.】

열안지오름[悅安止岳]¹³¹⁾ 【제주성 남쪽 20리에 있다.】

120) '포시(哺時)'는 신시(申時)로, 지금의 오후 4시 전후를 이른다.

121) '세미양오름'은 지지에 따라 三義讓岳·三義壤岳(삼의양악) 또는 三每陽岳(삼매양악) 등으로 표기하였다. 근래까지도 '三義岳(삼의악)' 또는 '三義讓岳(삼의양악)' 등으로 표기하다가, 오늘날 지도에는 '세미양오름'으로 바로잡혔다. 뒤에 나오는 思美岳(사미악)과 三美岳(삼미악)도 모두 '세미오름'의 차차표기이다. 그러니까 '샘'에 대응하는 제주어 '세미'의 차차표기로 '三義(삼의)', 四美(사미), 三美(삼미) 등이 쓰인 것이다.

122) 이 오름은 일찍부터 '글월이오름'이라 하여 '表岳(표악)'으로 표기하거나, '글로리오름'이라 하여 '並五里岳(병오리악)' 또는 '並岳(병악)'으로 표기하였다. 일제강점기부터 '개월이오름' 또는 '개월오름'으로 소리가 바뀌고 이것을 반영하여 '大月岳(견월악)'으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지도에는 '개월이오름'으로 바로 잡았다. 사실 이것도 본래 이름은 아니다.

123) '거친오름'은 예로부터 '荒岳(황악)' 또는 '巨親岳(거친악)' 등으로 표기하였으나, 오늘날 지도에는 '거친오름'으로 표기하였다.

124) '반응오름'은 예로부터 盤凝岳(반응악) 또는 盤凝岳(반응악) 등으로 표기하다가, '바농오름'으로 인식하고 '針岳(침악)'으로도 표기하였다. 오늘날 지도에는 '바농오름'으로 표기하였으나, 이는 원래 이름이 아니다.

125) '지기리오름'은 지지에 따라 之奇里岳(지기리악) 또는 地氣理岳(지기리악) 등으로 표기하였는데, 근래에는 '지그리오름'으로 소리가 바뀌어 전하고 있다.

126) '답인오름'은 '踏印岳(답인악)'으로 표기하였는데, '대내오름·대나오름'으로 부르고 '大川岳(대천악)·大乃岳(대내악)'으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근래에는 '절물'이 있는 오름이라는 데서 '절물오름'이라 하고 있다.

127) '뽕오름'·민오름은 지지에 따라 '禿岳(독악)' 또는 '文岳(문악)', '敏岳(민악)' 등으로 표기하였다. 근래에는 그냥 '민오름'이라 하고 있다.

128) 이 오름은 일찍부터 '雲雨路岳(운우로악)'으로 표기한 오름인데, 지금 어느 오름에 대응하는지, 원래 이름이 '구름비절오름' 정도였는지 등을 알 수 없다.

129) '세미오름'은 지지에 따라 泉味岳(천미악) 또는 思美岳(사미악), 三美岳(삼미악) 등으로 표기하였으나, 근래에는 '세미오름'이라 하고 있다.

130) '갓구리오름'은 지지에 따라 '巨口里岳(거구리악)' 또는 '倒顛岳(도전악)', '倒轉岳(도전악)' 등으로 표기하였는데, 조선 후기부터 '피꼬리오름'으로 인식하여 '鶯岳(앵악)'으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오늘날 지도에는 '갓구리오름'으로 바로 잡혔다.

131) '열안지오름[여란지오름]'은 지지에 따라 如亂止·如卵旨(여란지), 悅安止岳(열안지악) 등으로 표기하였는데, 조선 후기부터 '열안지오름'을 '列雁地岳(열안지악)'으로 표기하면서 '기러기'에 빗대어 해석하기도 하였다. 지금도 '열안지오름'으로

어스령이오름[御乘生岳]¹³²⁾ 【제주성 남쪽 25리에 있다. 그 꼭대기에 못이 있는데, 둘레가 백 보쯤 된다. 민간에서는 전해지기를, “이 오름의 아래에서 어승마(御乘馬)가 났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한다.】

장오리오름[長兀岳]¹³³⁾ 【제주성 동남쪽 45리에 있다. 무릇 네 봉우리 중 한 봉우리가 가장 높고 크다. 그 꼭대기에 용 못이 있는데, 지름이 50보쯤 되고, 깊이는 알 수 없다. 사람이 시끄럽게 떠들면 구름과 안개가 사방에서 일어나고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친다. 가물어서 기우제를 지내면 효험이 있다. 그 주변에 바다조개 껍질이 쌓여있어서, 민간에서 전하기를, “바다 물새가 물어다가 둔 것이다. 그 새는 ‘공공(貢貢)’하고 울기 때문에 공조(貢鳥)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골미[洞山]¹³⁴⁾ 【제주성 남쪽 25리에 있다. 무릇 아흔 아홉 골을 이룬다.】

높고메[高古山]¹³⁵⁾ 【제주성 서남쪽 40리에 있다. 두 봉우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

바리메[鉢山]¹³⁶⁾ 【제주성 서남쪽 45리에 있다.】

붉은오름[赤岳] 【제주성 남쪽 30리에 있다.】

산세미오름[活泉岳]¹³⁷⁾ 【제주성 남쪽 15리에 있다.】

노로손이오름[勞老客岳] 【제주성 남쪽 18리에 있다.】

사라오름[紗羅岳]¹³⁸⁾ 【제주성 동쪽 16리에 있다.】

벤틀오름[禾北岳]¹³⁹⁾ 【제주성 동쪽 14리에 있다. 오름 북쪽 바닷가에는 둘 봉우리가 기이하고 가파르게 서 있다.】

웬당오름[元堂岳]¹⁴⁰⁾ 【제주성 동쪽 20리에 있다. 산봉우리의 꼭대기에는 못이 있는

표기하고 있다.

132) ‘어스령이오름’은 예로부터 ‘御乘生岳(어승생악)’으로 표기하고, ‘御乘馬(어승마)’가 난 오름이라는 데서 붙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도 민간에서 ‘어스령이오름’ 또는 ‘어스령오름’이라 하므로, 이 음성형을 ‘御乘馬(어승마)’와 관련시키기는 어려움 것으로 보인다.

133) ‘장오리오름’은 일찍부터 長兀岳(장울악) 또는 ‘藏兀岳(장울악)’ 등으로 표기하였다. ‘물장오리오름, 테역장오리오름, 불칸데오름’ 등 세 오름을 아울러서 ‘장오리오름’이라 하였다.

134) ‘골미’는 ‘골피’라 하여 ‘洞山(동산)’으로 표기하였는데, 이 중 가장 머리에 해당하는 오름을 ‘골머리’라 하여 ‘谷頭(곡두)’ 또는 ‘洞頭(동두)’ 등으로 표기하였다.

135) ‘높고메’는 高古山(고고산)으로 표기하였다. ‘높구메’로 소리가 바뀌면서 高邱山(고구산)으로 표기하였는데, 근래에는 ‘노꼬메’를 ‘녹고메’로 인식하여 ‘鹿古山(녹고산)’으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요즘은 그냥 ‘노꼬메’라 하고 있다.

136) ‘바리메’는 鉢山(발산) 또는 鉢伊山(발이산)으로 표기하다가, 일제강점기부터 發伊山(발이산)으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요즘은 그냥 ‘바리메’라 하고 있다.

137) ‘산세미오름’은 活泉岳(활천악)으로 표기하다가, 소리가 ‘산시미오름’으로 바뀌고 이것을 반영하여 山心峰(산심봉) 또는 山心岳(산심악)으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요즘은 ‘산세미오름’이라 하고 있다.

138) ‘사라오름’은 지지에 따라 沙羅岳(사라악) 또는 紗羅岳(사라악)이라 하다가, 봉수를 설치한 데서 沙羅峰(사라봉) 또는 紗羅峰(사라봉)이라 하다가 紗羅峰(사라봉)으로 쓰고 있다.

139) ‘벤틀오름’은 ‘벨도오름’이라 하여 別刀岳(별도악) 또는 別刀峰(별도봉) 등으로 표기하다가, 禾北岳(화북악)으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데, 이름은 거북 못이다. 물풀들이 자라고, 거북과 자라 등도 있다. 크게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다.】

서모오름〔西山〕¹⁴¹⁾ 【제주성 동쪽 40리에 있다.】

간산오름〔笠山〕¹⁴²⁾ 【제주성 동쪽 52리에 있다. 산봉우리의 꼭대기에 연못이 있다.】

도도리오름〔道圓岳〕¹⁴³⁾ 【제주성 서쪽 15리에 있다.】

물메〔水山〕¹⁴⁴⁾ 【제주성 서쪽 28리에 있다.】

고내오름〔高內岳〕¹⁴⁵⁾ 【제주성 서쪽 38리에 있다.】

곽지오름〔郭支岳〕¹⁴⁶⁾ 【제주성 서쪽 45리에 있다.】

널개오름〔板浦岳〕¹⁴⁷⁾ 【제주성 서쪽 80리에 있다.】

체오름〔箕岳〕¹⁴⁸⁾ 【제주성 동남쪽 35리에 있다. 산 모양이 ‘체’(키)와 같다.】

세미오름〔三美岳〕¹⁴⁹⁾ 【제주성 동남쪽 41리에 있다.】

검은오름〔黑岳〕¹⁵⁰⁾ 【제주성 서쪽 50리에 있다. 산봉우리의 꼭대기는 평평하고 넓고, 왼쪽과 오른쪽은 골짜기를 이룬다.】

칠오름〔葛岳〕¹⁵¹⁾ 【제주성 동남쪽 20리에 있다.】

죽은민오름〔小禿岳〕¹⁵²⁾ 【제주성 남쪽 30리에 있다. 산봉우리의 꼭대기에는 못이 있다.】

돛오름〔猪岳〕¹⁵³⁾ 【제주성 동쪽 75리에 있다.】

140) ‘원당오름’은 일찍부터 元堂岳(원당악)으로 표기하였는데, 봉수가 있었기 때문에 元堂峰(원당봉)이라 하다가 元堂峰(원당봉)으로 굳어졌다.

141) ‘서모’는 ‘서모오름·서모름’이라고도 하는데 일찍부터 西山(서산) 또는 西山岳(서산악)으로 표기하였다. 그런데 조선 후기부터 갑자기 犀牛峰(서우봉)이라 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142) ‘입산’은 일찍부터 笠山(입산) 또는 笠山岳(입산악) 등으로 표기하였다. 표기로 볼 때 ‘간산오름>갓산오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조선시대에 봉수가 있었기 때문에 笠山峰(입산봉)이라 하다가 笠山峰(입산봉)으로 굳어졌다.

143) ‘도도리오름’은 지지에 따라 道道里岳(도도리악) 또는 道圓岳(도원악) 등으로 표기하고, 소리가 ‘도두리오름’으로 바뀌면서 ‘道頭岳(도두악)’으로 표기하였다. 봉수가 있었던 데서 道圓峰(도원봉) 또는 道頭峰(도두봉)이라 하다가, 지금은 道頭峰(도두봉)이라 하고 있다.

144) ‘물미’는 예로부터 ‘물피>물메’ 또는 ‘물피오름>물메오름’이라고 하여, 水山(수산) 또는 水山岳(수산악) 등으로 표기하였는데, 근래에서는 ‘물메초등학교’에서 그 이름의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145) ‘고내오름’은 일찍부터 高內岳(고내악)으로 표기하다가, 봉수가 있었던 데서 高內峰(고내봉)이라 하였다. 지금은 ‘高內峰(고내봉)’이라 하고 있다.

146) ‘곽지오름’은 郭支岳(곽지악)으로 표기하다가, ‘곽지오름’이 ‘과오름’으로 소리가 줄면서, 지금도 ‘과오름’이라 하고 있다.

147) ‘널개오름’은 지지에 따라 板浦山(판포산) 또는 板乙浦岳(판을포악), 板浦岳(판포악)이라 하였다. 지금은 한자음을 따라 ‘板浦岳(판포악)’이라 하는 경우가 많다.

148) ‘체오름’은 지지에 따라 ‘箕岳(기악)’ 또는 ‘體岳(체악)’ 등으로 표기하였다. 오늘날도 ‘체오름’이라 하고 있다.

149) ‘세미오름’은 지지에 따라 泉味岳(천미악) 또는 思美岳(사미악), 思未岳(사미악), 三美岳(삼미악) 등으로 표기하였다. ‘세미(샘)’가 오름이라는 데서 붙인 것이다.

150) ‘검은오름’은 지지에 따라 黑岳(흑악) 또는 今勿岳(금물악) 등으로 표기하였는데, 조선 후기부터 ‘금오름’이라 하여 ‘今岳(금악)’으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151) ‘칠오름’은 일찍부터 葛岳(갈악)으로 표기하였는데, 소리가 ‘칠오름’으로 실현되면서 ‘七峰(칠봉)’으로 쓰기도 하였다.

152) ‘죽은민오름’은 小禿岳(소독악)으로 표기하였는데, 민간에서는 그냥 ‘민오름’이라 하여 文岳(문악) 또는 敏岳(민악) 등으로 표기하였다.

다랑쉬오름[大朗秀岳]¹⁵⁴⁾ 【제주성 동쪽 80리에 있다.】

노로오름[獐岳]¹⁵⁵⁾ 【제주성 동남쪽 66리에 있다.】

상시오름[相時岳]¹⁵⁶⁾ 【제주성 서쪽 60리에 있다.】

감은데기오름[感恩德岳]¹⁵⁷⁾ 【제주성 서남쪽 34리에 있다.】

새벨오름[曉星岳]¹⁵⁸⁾ 【제주성 서남쪽 50리에 있다.】

【이상 검은오름[黑岳]에서 아래까지 옛날 목장이 있었다.】

영통오름[靈通岳]¹⁵⁹⁾ 【제주성 남쪽 15리에 있다.】

숨물골[滲水洞]¹⁶⁰⁾ 【제주성 한라산 서쪽에 있다.】

진모살[長沙]¹⁶¹⁾ 【제주성 동쪽 56리에 있다. 길이가 15리쯤 된다. 바다의 파도에 쓸린 모래가 조류에 의해 쌓였다가 햇볕을 쬌어 바람을 타고 날아들었다.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까지, 낮은 데서부터 높은 데까지 점점 쌓여 늘어나면서 풀과 나무를 덮어 쌓이면서 산을 이루었다. 만약 밭이나 밭이랑이 모래를 만나면 그 소재를 잃어버린다. 별방(別防 : 지금 하도리)에도 그런 곳이 있다.】

켓드르곶[猫坪藪]¹⁶²⁾ 【제주성 동남쪽 23리에 있다.】

김녕곶[金寧藪]¹⁶³⁾ 【제주성 동쪽 50리에 있다. 둘레가 50여리나 된다.】

어둔곶[暗藪]¹⁶⁴⁾ 【제주성 동쪽 95리에 있다. 둘레가 30여리나 된다.】

츠남곶[黏木藪]¹⁶⁵⁾ 【제주성 서남쪽 60리에 있다.】

153) '돛오름[돛오름]'은 일찍부터 猪岳(저악)으로 표기하였는데, 민간에서는 '돛오름[도오름]' 또는 '돛도름[돛도름]'으로 실현된다.

154) '다랑쉬오름'은 지지에 따라 多郎時岳(다랑시악) 또는 多郎秀岳(다랑수악), 大朗秀岳(대랑수악) 등으로 표기하였는데, 조선 후기부터 '드랑쉬오름'이라 하여 '月郎峰(월랑봉)'으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155) '노로오름'은 지지에 따라 獐岳(장악) 또는 鹿岳(녹악)으로 표기하였다.

156) '상시오름'은 '상시사리오름'의 줄임말로, 常時畝里(상시사리), 常時畝里岳(상시사리악) 등으로 표기하다가 相時岳(상시악)으로 표기하였다. 조선 후기부터 '츠남오름'이라 하여 眞木岳(진목악)으로 표기하였는데, 근래에는 '츠남오름'을 '츠나오름'천아오름'으로 인식하여 天娥岳(천아악)으로도 표기하였다. 제주시 한림읍 상가리에 있다.

157) '감은데기오름'은 지지에 따라 感恩德岳(감은덕악) 또는 黑德岳(흑덕악) 등으로 표기하였다. 소리가 '검은데기오름'으로 변하여 전한다. 조선 중기에는 '금물덕오름'이라 하여 金勿德岳(금물덕악)으로 표기하였다.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에 있다.

158) '새벨오름'은 지지에 따라 曉星五音·曉星吾音(효성오음) 또는 曉別岳(효별악), 曉星岳(효성악), 新星岳(신성악), 鳥飛岳(조비악) 등으로 표기하였다. 지금은 '새별오름'이라 하고 있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에 있다.

159) '영통오름'은 靈通岳(영통악)으로 표기하였으나, 조선 후기부터 '염통오름'이라 하여 '念通岳(염통악)'으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한편 '간열오름' 또는 '간형오름'이라 하여 '肝烈岳(간열악)' 또는 '肝血岳(간혈악)'으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160) '숨물골'은 제주어로 '숨골'이라 하는데, 滲水洞(삼수동)으로 표기하였다. 지금 '볼레오름' 가까이에 '숨은물벵디'라는 곳이 있는데, 이 일대를 이른 것으로 보인다.

161) '진모살'은 일찍부터 長沙(장사)로 표기하였다. 지금 구좌읍 김녕리 김녕해수욕장 일대를 이른다.

162) '켓드르곶'은 지지에 따라 怪叱坪藪(괴질평수) 또는 猫坪藪(묘평수) 등으로 표기하였다. 일제강점기부터는 '켓드르'에 형성된 古坪洞(고평동)으로 표기하고 있다. 제주시 고천읍 와흘리 고평동의 곶을 이른다.

163) '김녕곶'은 金寧藪(김녕수)로 표기하였다. 근래에는 '김녕곶'이라 한다. 김녕리 산간에 있는 숲을 이른다.

164) '어둔곶'은 暗藪(암수)로 표기하였다.

165) '츠남곶'은 黏木藪(점목수)로 표기하였다. 지금 한림읍 상대리 일대에 있었다.

개모살곶[盖沙藪]¹⁶⁶⁾ 【제주성 서쪽 70리에 있다. 둘레가 50여리나 된다.】

가락콧물[嘉樂泉]¹⁶⁷⁾ 【제주성 동남쪽 성 밖의 큰 돌 아래에 구멍이 있는데, 물이 솟아난다. 깊이는 한 길쯤 된다. 성 가운데에 물이 없어서 제주 사람들이 따로 겹성을 쌓아서 이곳에서 물을 길었다. 지금은 성안에 있다.】

말물[斗泉]¹⁶⁸⁾ 【제주성 서쪽 뽕문내[屏門川] 밖 50보쯤에 있다. 그 모양이 ‘말’과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민간에서 전하기를 “이 샘물을 마시면 능히 백 보를 날 수 있다. 호종조가 와서 그 기운을 눌러버리니 마침내 막혔다.”고 한다. 가물면 물이 맑고 투명한데, 비가 오려고 하면 금빛 기운이 수면에 뜬다.】

세월통[新月筒]¹⁶⁹⁾ 【제주성 동쪽 57리에 있다. 선석(船石) 가운데에 하나의 작은 구멍이 있는데, 겨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그 아래에 샘물 맥이 있는데, 사람이 그 가운데에 들어가서 작은 그릇으로 샘물을 떠서 마시면 그 맛이 달고 좋다.】

감은데깃내[感恩德川]¹⁷⁰⁾ 【제주성 서쪽 99리에 있다.】

【상시오름[相時岳]에서부터 여기까지 목장이 있다.】

등어리못[背池]¹⁷¹⁾ 【제주성 서쪽 35리에 있다.】

마리못[頭池]¹⁷²⁾ 【제주성 서쪽 21리에 있다.】

소못[牛池]¹⁷³⁾ 【제주성 서쪽 53리에 있다. 예전에 봉수가 있었는데, 폐지하였다.】

켄못[潸池]¹⁷⁴⁾ 【세속에서는 ‘고연못[古餘池]’이라고도 한다. 제주성 동쪽 30리에 있다.】

산젓내[山底川]¹⁷⁵⁾ 【제주성 동쪽 1리에 있다. 곧 가락콧물[嘉樂泉] 하류 2리쯤에 있다.

166) ‘개모살곶’은 지지에 따라 介里沙藪(개리사수) 또는 盖沙藪(개사수) 등으로 표기하였다. 지금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 다만 당시 排船浦(배령포: 한림읍 금릉리 포구)가 제주 서쪽 65리에 있었고, 板浦(판포)는 제주 서쪽 75리, 板浦池(판포약)은 제주 서쪽 80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인 월령리에 있었던 지명으로 추정한다.

167) ‘가락콧물’은 지지에 따라 嘉樂貴泉(가락귀천) 또는 嘉樂泉(가락천) 등으로 표기하였다.

168) ‘말물’은 일찍부터 斗泉(두천)으로 표기하였는데, ‘물’을 水(수)로 표기하지 않고 泉(천)으로 표기한 것은 솟아나는 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제주중학교에 있었던 물을 이른다.

169) ‘세월통’은 新月筒(신월통)으로 표기하였는데, 지금은 물통이 배워졌다.

170) ‘감은데깃내’는 感恩德川(감은덕천)으로 표기하였는데, 오늘날은 ‘자구내·자곶내’라 하고 있다. 조선 중기에는 ‘감물덕내’라 하여 ‘甘勿德川(감물덕천)’으로 표기하였다.

171) ‘등어리못’은 지지에 따라 等於里池(등어리지) 또는 背池(배지)로 표기하였는데, 지금 하가리에 있는 연화못(蓮花池)을 이른 것으로 보인다.

172) ‘마리못’은 지도에 따라 ‘馬里池(마리지)’ 또는 ‘頭池(두지)’ 등으로 표기하다가, 이 못 일대의 마을을 ‘연대마을’이라 하면서 ‘연대못’ 또는 ‘煙臺池(연대지)’라 하고 있다. 지금 제주시 외도2동에 있다.

173) ‘소못’은 ‘쉐못’이라고도 하는데, 牛池(우지)로 표기하였다. 이 못 바로 동쪽 언덕에 봉수대가 있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牛池煙臺(우지연대)가 있었는데, 이 연대를 봉수로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한림읍 귀덕2리에 있다.

174) ‘켄못’은 ‘고연못’이라고도 하는데, 潸池(저지) 또는 古餘池(고여지) 등으로 표기하였다. 지금 함덕리 산간에 있다.

175) ‘산젓내’는 山底川(산저천)으로 표기하였는데, 조선 후기부터 ‘산젓내’로 소리가 변하고 山地川(산지천)으로 표기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바다로 들어가면 건들개[健入浦]가 된다. 지금 제주성 안에 있다.】

벧뒹내[禾北川]¹⁷⁶⁾ 【제주성 동쪽 13리에 있다. 가물면 마르고 비가 오면 넘친다. 포구에는 후풍관(候風館)¹⁷⁷⁾이 있다.】

벧문내[屏門川]¹⁷⁸⁾ 【제주 서성 밖에 있다. 말류는 버렁개[伐浪浦]가 된다.】

한내[大川 대천]¹⁷⁹⁾ 【제주성 서쪽 2리에 있다. 말류는 한독잇개[大瓮浦]가 된다. 그 아래에 용소[龍淵]가 있는데, 깊이를 알 수 없다. 길이는 100여 보쯤 된다. 가물어서 기우제를 지내면 효험이 있다.】

조공내[朝貢川]¹⁸⁰⁾ 【제주성 서쪽 20리에 있다. 수정내[水精川]라고도 하고 도근내[都近川]라고도 한다. 제주 사람의 말은 더듬기 때문에 ‘조공(朝貢)’의 소리가 잘못되어 ‘도근(都近)’이라 한 것이다. 상류는 폭포를 이루어 물이 수십 자나 흘날리는데, 그 아래에서 스며들어 7-8리를 흐르다가 돌 틈에서 솟아나서, 마침내 큰 내를 이른다. 아래에는 깊은 못이 있는데, 수달과 같은 물상이 있어서 잠복하여 변화를 일으킨다. 사람에게 보물을 보였다가 손에 쥐고 못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말류는 조공내[朝貢川]가 된다.】

무수내[無愁川]¹⁸¹⁾ 【제주성 서남쪽 18리에 있다. 조공내[朝貢川]의 상류이다. 양쪽 언덕의 돌 벽이 기이하고 가파라서 뛰어난 경승지이다.】

이원진의 시(李元鎮詩)

登高南嶽舉深觴 한라산에 올라 잔을 기울이고,
川上歸來興更長 무수내 따라 흥겹게 내려오네.
滿眼黃花如昨日 지난 번 보았던 국화꽃도 또 피어
一樽仍作兩重陽 한 판 술자리로 두 번 중양절¹⁸²⁾ 맞소.

176) 이 내는 ‘벧뒹내’라 하여 別刀川(별도천)으로 표기하였는데, 禾北川(화북천)으로도 표기한 것으로 보아 ‘벧뒹내’가 ‘벧뒹내’ 정도로 소리가 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禾北川(화북천)은 別刀(별도)라는 이름 대신 禾北(화북)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177) 후풍관(候風館)은 배가 떠날 무렵에 순풍을 기다리는 관(館)을 이른다.

178) ‘벧문내’는 지지에 따라 屏門川(병문천) 또는 兵門川(병문천)으로 표기하였는데, 후자를 중시하여 ‘병사들이 드나드는 문’이 있었던 내라고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179) ‘한내’는 예로부터 ‘大川(대천)’으로 표기하였는데, 일제강점기부터 ‘漢川(한천)’으로 표기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漢川(한천)’은 ‘한내’의 한자차용표기 중 하나인데, 지금은 ‘한천초등학교’와 같이 고유명사로 굳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한내’라 부르는 경우도 많다.

180) ‘조공내’는 예로부터 ‘도근내’·‘도근내’라 하여 ‘都近川(도근천)’ 또는 ‘獨近川(독근천)’ 등으로 표기하였다. 그런데 ‘朝貢(조공)’을 하였던 내라는 데서 ‘朝貢川(조공천)’으로 부르기도 하고, ‘水淨寺(수정사)’ 가까이를 흐르는 내라는 데서 ‘水淨川·水精川(수정천)’이라고도 한 것으로 보인다.

181) ‘무수내’는 지지에 따라 水鐵川(수철천) 또는 無愁川·無數川(무수천) 등으로 표기하였다. 근래까지 ‘無愁川(무수천)’이라 하였는데, 오늘날 지도에는 ‘光弼川(광령천)’으로 표기하였다.

송담내〔松淡川〕【제주성 동쪽 13리에 있다. 이문경이 병사를 유인하여 불태우고 사로 잡은 곳이다.】

도서(島嶼) 【각 포구(浦口)를 덧붙인다.】

죽은화탈섬〔小化奪島〕¹⁸³⁾ 【제주성 서북쪽 바다 가운데에 있는데, 50리쯤 된다.】

큰화탈섬〔大化奪島〕¹⁸⁴⁾ 【제주성 북쪽 바다 가운데에 있는데, 100리쯤 된다. 그 꼭대기에 섬은 있으나, 나무는 없다. 큰 섬과 작은 섬 사이에 돌 벽이 마주보고 있는데, 파도가 몰아치며 삼킬 듯하여 배들이 많이 표류하거나 빠져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매우 어려워한다.】

소섬〔牛島〕¹⁸⁵⁾ 【제주성 동쪽 80리의 벨방진 예하에 있다. 둘레가 50리이다. 모양이 누워있는 소와 같다. 서남쪽에 굴이 있는데, 작은 배 하나가 들어갈 만하다. 조금씩 가까이 대면 대여섯 척은 들어갈 수 있다. 그 위에는 지붕과 같은 큰 돌이 있다. 만약 햇빛이 물결에 비치면 별빛같이 반짝이며 늘어놓은 것 같다. 기운이 매우 차고 서늘해지면 머리털이 쭈뼛해진다. 민간에서는 신룡(神龍)이 사는 곳이라 한다. 7~8월 사이에는 고기잡이 배들이 들어갈 수가 없다. 들어가면 천둥을 동반한 비바람이 크게 몰아쳐 나무가 뽑히고 곡식이 피해를 입는다. 그 위에는 닥나무가 많다.】

충암 김정(金冲菴淨詩)¹⁸⁶⁾

瀛洲東頭鰲柱傾 영주 동두는 자라¹⁸⁷⁾ 장단에 맞추어

182) 음력 9월 9일. 9일은 양수(陽數)인데 이것이 거듭되는 날.

183) '小化奪島(소화탈도)'는 '죽은화탈섬'의 차자표기로, 다른 지지에는 '소화탈도(小火脫島)'로도 표기하였다. 오늘날 지도에는 '작은과탈'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죽은관탈' 또는 '죽은관탈섬'으로 부른다. '작은'은 제주어 '죽은'을 표준어로 바꾼 것이고, '과탈'은 '화탈'의 변음이다. 한편 '관탈'도 '화탈'이 '과탈'로 변한 다음 다시 '관'을 벗은 섬으로 인식하여 '冠脫(관탈)'로 부르게 된 것이기 때문에 본래 이름과 다른 것이다.

184) '大化奪島(대화탈도)'는 '큰화탈섬'의 차자표기로, 다른 지지에는 '대화탈도(大火脫島)'로도 표기하였다. 오늘날 지도에는 '큰과탈'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큰관탈' 또는 '큰관탈섬'으로 부른다.

185) '牛島(우도)'는 민간에서 주로 '소섬'으로 부른다. 특이한 것은 제주어에서 '소(牛)'를 '쉐'라고 하는데, '쉐섬'이라고는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186) 이 시는 이원진 『탐라지』 '제영'조에 '김정(金淨) 우도가(牛島歌)'로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흔히 이렇게 알려 지고 있다.

187) 鰲자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출전인 『열자(列子)』 「탕문편(湯問篇)」의 구절을 옮겨 적는다.

발해(渤海)의 동쪽으로 몇 억만 리나 되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 곳에 큰 물 웅덩이가 있는데 실은 바닥이 없는 웅덩이

千年閼影涵重溟 오랜 세월 신비로운 그림자 깊은 바다에 잠겼네
 群仙上訴攝五精 신선들이 상소하여 오정이 끌어당겨
 鼯鼯一夜轟雷霆 하룻밤 세차게 천둥을 치네
 雲間霧廓忽湧出 구름이 걷히고 안개가 열려 홀연히 다시 솟아오르니
 瑞山新畫飛王庭 상서로운 산을 그림으로 그려 임금님께 바쳐졌네
 溟濤崩洶嚙山腹 넓은 바다 물결 꿈틀거리며 부서지며 산허리를 씹고
 豁豁洞天深雲扃 짙은 구름은 횡한 골짜기에 문고리가 되고
 積層縷壁錦纈殷 모질게 깎여진 층진 절벽¹⁸⁸⁾은 무늬 없는 하얀 비단인 듯
 扶桑日照光晶熒 동쪽에 해가 비치면 반딧불 같은 말끔함이어
 繁珠凝露濺輕裘 물 뿌려 적신 듯 이슬이 엉킨 듯 널려진 구슬들을
 壺中瑤壁躔列星 별 천지에 반짝 반짝 별들이 널려 있는 것 같구나
 瓊宮淵底不可見 못이 깊어 그 밑의 용왕궁은 볼 수 없지만
 有時隱隱窺窓櫺 어떤 때는 창틈으로 은은함을 엿볼 수 있기도 하니
 軒轅奏樂馮夷舞 헌원¹⁸⁹⁾씨 시절 음악을 연주하며 하백¹⁹⁰⁾이 춤을 추는 듯
 玉簫窈窕篠青冥 고요한 바다에서 피리 부는 신선¹⁹¹⁾이 오는 듯
 頑虹飲海垂長尾 무지개가 바다를 마시려 긴 꼬리를 드리운 듯
 羸鵬戲鶴飄翅翎 큰 봉새가 농탕치고 학이 날개를 나부끼는 듯
 曉珠明定塵區黑 캄캄한 인간 세계에 아침 구슬이 밝게 자리 잡으면
 燭龍爛燁雙眼青 약이 오른 용이 찬란하게 두 눈 알을 번쩍인다
 驂虯踏鯁多娉婷 참두와 답혼은 곱고 아름다운데

다. 그곳을 귀허(歸墟)라 부른다. 온 세상 팔방의 물과 은하수가 그곳으로 흘러들지만 물은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 그 까닭에 다섯 개의 산이 있는데 대여(岱輿)·원교(員嶠)·방호(方壺)·영주(瀛洲)·봉래(蓬萊)이다. 그 산들은 높이와 둘레가 삼만 리이며 그 꼭대기에는 구천 리 넓이의 평평한 곳이 있다. 산들의 중간 거리는 칠만 리인데 그 곳들은 이웃처럼 왕래하며 지낸다. 그 위에 누대(樓臺)·궁관(宮觀)은 금과 구슬로 장식되어 있고 새와 짐승들은 모두가 순백색이다. 구슬로 된 나무들은 모두가 떨기로 자라고 있고 그 꽃과 열매들은 모두 맛이 좋아서 그것을 먹으면 누구나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신선과 성인의 무리이다. 하루 낮이나 밤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런데 다섯 산의 뿌리는 연결되어 있지 않아 언제나 조류를 따라 오르내려 잠시도 멈춰 있는 일이 없다. 신선과 성인들은 이것을 근심하여 그 사실을 하느님께 호소하였다. 하느님은 사극(四極)으로 흘러가 버리어 여러 성인들이 살 곳을 잃을까 두려워하여 곧 우강(禺疆)에게 명하여 큰 자라 다섯 마리로 하여금 머리를 들고 그 섬들을 이고 있게 하고 6년 만에 한 번씩 교대하도록 하였다. 다섯 산은 이에 비로소 안정되었다. 그런데 용백의 나라(龍伯國)에는 거인이 있어서 발을 들어 몇 발자국 가지도 않아서 다섯 산이 있는 곳에 다다른다. 그들은 여섯 마리의 자라를 연달아 낚아서 지고 자기네 나라로 와서 그것을 주어가지고 뼈를 세며 작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여(岱輿)와 원교(員嶠)의 두 산은 북쪽으로 흘러가 대해 속에 가라앉았다. 옮겨오는 신선과 성인들이 헤아릴 수 없었다. 하느님은 크게 노하여 용백의 나라를 줄이어 좁게 만들고…….

188) 稜層은 모질게 깎여진 절벽.

189) 軒轅은 황제(皇帝)의 이름.

190) 馮夷는 물귀신 하백(河伯). 우사(雨師)의 이름. 음양을 맡아보는 천신.

191) 玉簫는 옥피리. 신선이 분다하여 신선을 뜻함.

天吳九首行崚嶒 아홉 머리¹⁹²⁾의 바다귀신은 이리 비틀 저리 비틀
 幽沈氷府囚百靈 고요하고 깊숙한 용궁에 온갖 신령 갇춰져 있는 듯
 太陰之窟玄機停 큰 그늘¹⁹³⁾의 현묘한 이치¹⁹⁴⁾ 저절로 멈춘 듯
 仇池禹穴傳神蹟 구지¹⁹⁵⁾ 우혈¹⁹⁶⁾과 같은 신령스러운 자취가 (이곳에) 전해오는데
 惜許絕境訛圖經 애석하게도 빼어난 지경(地境)을 도경¹⁹⁷⁾에 잘못 그려 냈구나
 蘭橈拏入懼神形 노 저어 잡아 들어가려니 신령의 형체 두렵고
 鐵笛吹裂老蛟聽 철 피리 불어 재끼려니 늙은 교룡이 들을 듯
 水湧雲暝悄愁人 소용돌이치는 물 어두운 구름바다가 사람을 근심스럽게 하여
 歸來恍兮夢未醒 돌아왔는데도 황홀한 꿈을 깨지 못 하네
 嗟我只道隔門限 아! 나는 다만 문지방이 가리었다고 말을 하는데
 安得列叟乘風冷 열자¹⁹⁸⁾는 어떻게 바람을 타 시원할 수 있었을까.

청음 김상헌의 시(金淸陰尙憲詩)¹⁹⁹⁾

曾讀冲菴七字詩 일찍이 충암의 일곱 자씩 된 시를 읽고
 始聞瀛海閼環奇 비로소 영주는 좋은 경치로 둘러 있음을 알아서
 常時每恨仙區隔 항상 신선 사는 곳이 멀리 있음을 한탄하다가
 今日還爲颶母欺 오늘은 도리어 회리바람이 나를 속여
 咫尺勝遊知有數 지척에 승지를 두고도 운수가 따라야 놀 수 있음을 알게 됐네
 平生壯觀更無期 평생 동안 장쾌한 놀이는 기약할 수 없게 됐으니
 淸都舊侶如相念 청도의 옛 벗들이 만약 서로 생각한다면
 應許他年夢裏窺 응당 다른 날 꿈속에라도 엿볼 수 있겠지

비양섬〔飛揚島〕²⁰⁰⁾ 【제주성 서쪽 60리의 명월진(明月鎭) 예하에 있다. 고려 목종 16

192) 九首는 九頭. 공공(共工)의 신하인 상류(相柳) 『山海經』 「海外西經圖讖」 유종원의 초해고문(招海賈文)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음. 天吳九首兮更迭迭怒.

193) 太陰之窟은 太陰. 땅속. 여기서는 陰의 기능(大一通之 太陰解之 :『莊子』 「徐天鬼」). 북극이라는 뜻도 있음.(絶小陽而登 太陰 : 「司馬相如傳」.

194) 玄機는 심오한 도리.

195) 九池는 감숙성 성현(成縣)에 있는 구유산(九維山) 정상에 있는 못.

196) 禹穴은 회계산(會稽山)에 있음. 우임금이 책을 두던 곳.

197) 도경(圖經)은 산수와 지세를 그린 책.

198) 列叟는 列子(列禦寇).

199) 金淸陰尙憲(김청음상헌)은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을 이른다. '청음(淸陰)'은 호이고, '상헌(常憲)'은 이름이다.

200) '비양도'는 지지에 따라 '飛揚島(비양도)' 또는 '飛揚島(비양도)'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비양섬' 또는 '비염섬' 등으로

■ 耽羅誌草本(上)

년²⁰¹⁾ 탐라의 바다 가운데서 산이 솟아났는데, 이것이 곧 이 섬이라고 한다. 그 위에는 살대가 많다. 옛날에는 염소 우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폐쇄되었다.】

건들개[健入浦]²⁰²⁾ 【제주성 동북쪽 1리에 있다. 민간에서는 고후가 신라에 조공할 때 이곳으로 돌아와 머물렀다고 한다.】

함덕개[咸德浦]²⁰³⁾ 【제주성 동쪽 31리에 있다.】

뒷개[北浦]²⁰⁴⁾ 【제주성 동쪽 40리에 있다.】

김녕개[金寧浦]²⁰⁵⁾ 【제주성 동쪽 50리에 있다.】

어등개[魚登浦]²⁰⁶⁾ 【제주성 동쪽 60리에 있다.】

돈의옛개[敦義嶼浦]²⁰⁷⁾ 【제주성 동쪽 72리에 있다.】

버렁개[伐浪浦]²⁰⁸⁾ 【제주성 서쪽 1리에 있다.】

한독잇개[大瓮浦]²⁰⁹⁾ 【제주성 서쪽 2리에 있다.】

도도릿개[道圓浦]²¹⁰⁾ 【제주성 서쪽 12리에 있다.】

조공개[朝貢浦]²¹¹⁾ 【제주성 서쪽 20리에 있다.】

귀일개[貴日浦]²¹²⁾ 【제주성 서쪽 25리에 있다.】

고넷개[高內浦]²¹³⁾ 【제주성 서쪽 35리에 있다.】

부른다. 제주시 한림읍 비양리에 있는 섬을 이른다.

201) 원문의 고려 목종 16년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목종 5년이 잘못으로 보인다. 목종 5년은 1002년이다.

202) ‘건들개’는 지지에 따라 健入浦(건입포) 또는 巾入浦(건입포)로 표기하였다. 지금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포구로, 지금은 제주항으로 개발되었다.

203) ‘함덕개’는 예로부터 咸德浦로 표기하였다. 지금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의 한 포구를 이른다.

204) ‘뒷개’는 지지에 따라 北浦(북포) 또는 北叱浦(북질포) 등으로 표기하였다. 지금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포구를 이른다.

205) ‘김녕개’는 金寧浦(김녕포)로 표기하였는데, 지금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의 한 포구를 이른다.

206) ‘어등개’는 지지에 따라 於等浦(어등포) 또는 魚登浦(어등포) 등으로 표기하였다. 지금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포구를 이른다.

207) ‘돈의옛개’는 지지에 따라 道衣離浦(도의리포) 또는 道衣灘浦(도의탄포), 敦衣嶼浦(돈의서포) 등으로 표기하였다. 지금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의 한 포구를 이른다.

208) ‘버렁개’는 지지에 따라 伐郎浦(벌랑포) 또는 伐浪浦(벌랑포) 등으로 표기하였다. 지금 제주시 용담1동의 한 포구를 이른다. 민간에서는 ‘부러리’로 실현된다.

209) ‘한독잇개’는 지지에 따라 大獨浦(대독포) 또는 大瓮浦(대옹포) 등으로 표기하였다. 지금 제주시 용담1동의 한 포구를 이른다. 지금 민간에서는 ‘한두기, 동한두기, 서한두기’라 부르므로, ‘한독이[한도기]’가 ‘한두기’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210) ‘도도릿개’는 지지에 따라 道道里浦(도도리포) 또는 道圓浦(도원포), 道頭浦(도두포) 등으로 표기하였다. 지금 제주시 도두동 포구를 이르는데, ‘도도리’가 ‘도두리’로 변하면서 차차표기로 ‘道頭浦(도두포)’로 바뀌어 정착하였다. 지금은 항구로 개발하면서 ‘도두항’이라 하고 있다.

211) ‘조공개’는 지지에 따라 都近川浦(도근천포) 또는 都近浦(도근포), 朝貢浦(조공포) 등으로 표기하였다. 지금 제주시 외도 1동과 내도동 경계 일대에 있는 포구를 이른다. 일찍부터 ‘도근내>도그내’라 부르고 ‘都近川浦(도근천포)’ 또는 ‘都近浦(도근포)’로 표기하였는데, 朝貢(조공)을 하던 포구라는 데서 ‘朝貢浦(조공포)’라 별칭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212) ‘귀일개’는 예로부터 貴日浦(귀일포)로 표기하였다. 지금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포구 중 하나를 이른다. 한때 이 포구 일대를 ‘貴日里(귀일리)’라 하였는데, 나중에 ‘上貴日里(상귀일리)>上貴里(상귀리)’와 ‘下貴日里(하귀일리)>下貴里(하귀리)’로 나뉘면서 ‘귀일개’라는 이름도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귀일중학교(貴日中學校)’라는 이름에서 ‘貴日(귀일)’이 남아 있다.

213) ‘고넷개’는 예로부터 高內浦(고내포)로 표기하였다. 지금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포구를 이른다.

돌덕개[歸德浦]²¹⁴⁾ 【제주성 서쪽 50리에 있다.】

독개[瓮浦]²¹⁵⁾ 【제주성 서쪽 75리에 있다.】

두뿔개[釜浦]²¹⁶⁾ 【제주성 서쪽 80리에 있다.】

【각 포구에는 옛날에 감고(監考)²¹⁷⁾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폐쇄하였다.】

물산(物産)

올벼[秬], 메기장[黍], 찰기장[稷], 기장[粱], 콩[大豆], 팥[小豆], 녹두[菉], 보리[大麥], 밀[小麥]

말(馬) 【원나라 지원(至元)²¹⁸⁾ 연간에 제주 땅을 방성 분야(房星 分野)라고 하여 다루가치(達魯花赤)를 파견하여 목장을 설치하였다.】

소(牛) 【검은 소, 황소, 얼룩소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뿔이 매우 아름다워서 뿔잔을 만든다.】

고라니[麂], 사슴[鹿], 노루[獐], 돼지[猪], 두더지[狸]

해달(海獺) 【큰 화탈섬[大化奪島]과 작은 화탈섬[小化奪島]에서 난다.】

진주(瓊珠) 【고려 충렬왕 2년(1276)에 임유간(林惟幹)을 보내어 진주를 채취하였으나 얻지 못하자, 민간인들이 보관하고 있던 1백여 매를 빼앗아 돌아갔다.】, 거북[玳瑁], 조개[貝], 앵무조개(鸚鵡螺) 【이상 세 종류는 소섬[牛島]과 대정현의 더바섬[加波島]에서 난다.】

사향뒤쥐[香鼠] 【체구가 매우 작고, 주둥이가 뽕족하며 꼬리가 가늘다. 그 냄새가 사향(麝香)과 매우 비슷하여 차고 다니면 향기가 오래 없어지지 아니한다.】

전복[鮑], 모시조개[黃蛤]

옥돔[玉頭魚], 은어[銀口魚]

214) '돌덕개'는 지지에 따라 石淺浦(석천포) 또는 歸德浦(귀덕포), 卜德浦·福德浦(복덕포) 등으로 표기하였다. 마을 이름이 '歸德里(귀덕리)'로 정착하면서 '귀덕 포구'라 하고 있다.

215) '독개'는 지지에 따라 獨浦(독포) 또는 瓮浦(옹포), 甕浦(옹포), 德浦(덕포) 등으로 표기하였다. 지금 제주시 한경면 옹포리 포구를 이르는데, 마을 이름을 甕浦里(옹포리)로 부르면서 '옹포 포구'라 하고 있다.

216) '두뿔개'는 지지에 따라 釜浦(부포) 또는 頭毛浦(두모포), 豆毛浦(두모포) 등으로 표기하였다. 지금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포구 일대를 이른다.

217) '감고(監考)'는 조선시대에 관아에서 포구(浦口)에 출입하는 배를 관리 또는 감독하던 관원을 이른다.

218) 지원(至元)은 중국 원나라 순제(順帝) 때의 연호. 고려 충숙왕 후(後) 4년(1335)~충혜왕 후(後) 원년(1340)에 해당됨.

상어(鮫魚) 【큰 것과 작은 것 등 두 종류 있으며 껍질이 견고하여 나무를 곧게 하는데 쓴다.】

갈치[刀魚], 고등어[古刀魚], 멸치[行魚], 문어(文魚)

망어(望魚)²¹⁹⁾ 【못 고기는 모두 난생(卵生)이지만 망어만은 태생(胎生)이다.】

생어(生魚)

소금(鹽) 【바닷가는 모두 암초와 여(嶼)로 이루어졌다. 무쇠[水鐵]가 생산되지 않아서 가마솥이 있는 자가 적기 때문에 소금이 매우 귀하다.】

미역[藁], 우무[牛毛]²²⁰⁾, 목의버섯[木衣], 표고[香簍]

유감(乳柑) 【크기가 이른 홍시만 하고 껍질은 얇고 녹색이며 씨는 작다. 맛은 달고 시원하며, 향기가 많다.】

대귤(大橘) 【크기가 유자만 하고 색깔은 누르고 껍질은 쭈글쭈글하다. 맛은 달고 조금 시며 씨는 작다. 수분이 매우 많다.】

별귤(別橘) 【크기가 달걀 큰 것만 하고 색깔은 담황인데 위는 넓고 아래는 줄아들어 마치 종지를 엮어 달아맨 듯하다. 그러므로 일명 병귤(瓶橘)이라고도 한다. 껍질은 얇고 씨는 작다. 향기는 유감(乳柑)과 같으나 단지 맛은 달고 시원한 것에 전연 미치지 못한다.】

당금귤(唐金橘) 【크기가 유감 만 하며 맛도 서로 비슷하다. 색깔은 누르고 윤기가 나며 껍질은 매우 얇다. 씨는 작고 드물다.】

동정귤(洞庭橘) 【크기가 당금귤(唐金橘)과 같고 색깔은 담황에 조금 푸른 기운이 있다. 신맛이 많고 단맛은 적다.】

소귤(小橘) 【크기가 오리 알 만하며 빛깔은 자금색(紫金色)이다. 바람과 눈을 맞으면 점차 붉은 껍질이 불어나지 않고, 맛이 달아지나 향기는 적어진다. 숙종 경오년(숙종 16년, 1690)에 연경(燕京)²²¹⁾으로부터 큰 감자(柑子)²²²⁾ 5개와 작은 귤 10개가 본도(제주도)에 보내지자, 과원에 심었는데, 경인년(숙종 36년, 1710)에는 처음으로 열매를 맺어 특별히 진상하였다.】

당유자(唐柚子) 【크기가 모과만 하며 용량이 한 되쯤 된다. 색깔은 담황에 껍질은 매우 두꺼우며 쭈글쭈글하다. 씨는 크고 향기가 많으며 맛은 달고 시다. 땅속 몇 자를 파서

219) 망어(望魚)는 ‘웅어’라고도 한다. 웅어는 멸치과의 바닷물고기이다. 몸의 길이는 22~30cm이다. 몸은 옆으로 납작하고 뾰족한 칼 모양이며, 비늘이 잘다. 몸빛은 은빛을 띤 백색이다. 봄과 여름에 강으로 올라와 산란한다.

220) ‘牛毛(우모)’는 ‘우무’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우뭇가사리를 끓여서 식혀 만든 끈끈한 물질로, 음식이나 약 또는 공업용으로 쓴다. 제주어로는 ‘우미’라 한다.

221) 연경(燕京)은 중국 베이징(北京)의 옛 이름이다. 옛날 연나라의 도읍이었으므로 이렇게 불렀다.

222) 감자(柑子)는 홍귤나무의 열매이다. 갈증과 술독을 풀어 주고 대변을 부드럽게 하는 데에 쓴다.

죽엽(竹葉)에 저장하면 5~6월까지 썩지 않는다고 한다.】

감자(柑子) 【크기가 달걀만 하며 색깔은 싯누렁고 껍질은 얇다. 씨는 많아서 한 과일에 16~7개의 알갱이가 들어 있다. 맛은 달면서 신 것이 서로 적당하다.】

금귤(金橘) 【당금귤에 비해 조금 작고 황색이며 껍질은 얇고 수분이 매우 적다. 맛도 역시 하품이다. 9월 초에 이미 익으며 만약 따지 않아서 새해의 봄과 여름에 이르면 씨가 없어지고 빛깔은 푸르러서 입에 가까이 할 수 없다. 가을이 되면 새로 열매 맺은 것과 함께 익는다.】

유자(柚子) 【크기는 작으나 색깔과 맛은 호남과 영남 지방에서 생산되는 것과 같다. 껍질도 달고 향내가 있어서 먹을 수 있다.】

산귤(山橘) 【크기가 감자(柑子)와 같고 껍질은 두껍지도 얇지도 않다. 뽕이 많아 마치 젓꼭지와 같다. 맛이 가장 뛰어나며 씨는 아주 많다. 이것으로 귤피(橘皮, 한약 재료)를 만든다.】

청귤(靑橘) 【크기가 산귤 만하다. 가을과 겨울에는 색깔이 푸르고 맛이 매우 시며 2~3월이 되면 신맛이 조금 적당해진다. 5~6월이면 묵은 열매는 황색으로 빛나고 새 열매는 파릇하여 고운데, 한 가지에 같이 있는 모습이 기이하여 볼 만하다. 7월이 되면 열매 속의 씨는 모두 수분으로 변하고 맛이 달다. 겨울이 되면 열매는 도로 파래지고 씨가 다시 맺는다. 맛은 매우 시어서 가을 열매와 다름이 없다. 이것으로 청피(靑皮, 한약 재료)를 만든다.】

지귤(枳橘) 【모양은 당유자(唐柚子)와 같고 껍질은 그다지 쭈글쭈글하지 않아서 8월에 따서 말려서 기각[只殼]²²³⁾을 만든다. 새봄이 오면 아주 잘 익어서 맛이 당유자보다 낫다.】

등자귤(橙子橘) 【산귤과 대동소이하다. 맛이 너무 시다.】

석금귤(石金橘) 【금귤보다 작으나 맛은 비슷하다. 씨가 크고 많아서 한 알갱이에 30여 개가 들어 있다.】

왜귤(倭橘) 【열매가 커서 당유자 다음이며 맛은 그다지 달지 않다.】

비자(榲子), 치자(梔子), 적율(赤栗 : 꾸지뽕나무), 가시율(可是栗: 가시밤)

보리실(菩提實 : 보리열매) 【두 종류인데 큰 것은 연자(蓮子 : 연밥)만 하며 가을에 열매 맺고 봄이 오면 익는다. 속전(俗傳)에 설사를 고친다고 한다.】

영주실(瀛洲實 : 영주 열매) 【한라산 위쪽에 있으며 잎이 가느스름하고 털방석처럼 땅

223) 枳殼(지각)은 '지각'으로 읽지 않고 '기각'으로 읽어야 한다. '기각(枳殼(지각))'은 탱자를 썰어 말린 약재로, 위장을 맑게 하고 대장을 순하게 한다.

■ 耽羅誌草本(上)

에 뻗는다. 열매는 검고 작으나 달다.】

녹각실(鹿角實) 【나무는 자단(紫檀)과 같고 잎은 적목(赤木 : 이깔나무)과 같다. 열매는 작으나 붉은 색이며 맛은 달고 미끌미끌하여 먹기에 좋다.】

무회목(無灰木 : 속칭 무낭) 【소섬(牛島)에서 난다. 바다 속에 있을 때는 부드럽고 연하여 물결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물 밖에 나오면 곧 딱딱하게 굳어진다.】 ,

산유자(山柚子), **이년목(二年木 : 종가시나무)**

노목(櫨木 : 거망웃나무) 【나무에 뇌향기(腦香氣)가 있다.】

만향목(蔓香木) 【한라산 정상에 있으며 모양은 자단처럼 보인다.】

청양(靑楊) 【나무는 버들과 같고 잎은 참솔나무와 같아서 가늘고 여리다.】

금동목(金桐木) 【잎사귀는 가죽나무와 비슷하고 껍질에 가시가 있다. 거문고를 만드는 재료이다.】

점목(黏木 : 츠남→참나무) 【껍질이 후박(厚朴, 한약재)나무와 같다. 나무를 두들겨서 즙을 취하여 물건에 바르면 새·쥐·벌레·뱀들이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

안식향(安息香) 【황칠나무의 즙이다.】

고련(苦楝 : 소태나무) 【뿌리와 열매가 모두 약용으로 쓰이며 열매는 금령자(金鈴子)라고 한다.】

해동피(海桐皮 : 엄나무 껍질), **팔각(八角 : 붓순나무)**

필징가(畢徵茄) 【『본초강목(本草綱目)』에 이르기를, 햇볕에 향한 것은 호초(胡椒)가 되며 맛이 뛰어나지는 않다.】

후박(厚朴 : 후박나무 껍질), **석곡(石斛 : 석곡풀)**, **촉초(蜀椒 : 산초)**

두충(杜冲) 【추자도에서 난다.】

천문동(天門冬 : 겨우살이)

맥문동(麥門冬) 【소섬(牛島)에서 나는 것이 비대하다.】

무환자(無患子) 【일명 목환자(木患子)라고 한다.】

영릉향(零陵香 : 헤초), **향부자(香附子 : 작두향)**, **만형자(蔓荊子 : 순비기나무)**, **반하(半夏 : 끼무릇)**, **백랍(白蠟 : 쥐똥나무)**

석종유(石鐘乳 : 돌고드름) 【재암(財巖)이란 굴속에서 난다.】

회향(茴香 : 회향풀)

오미자(五味子) 【색깔이 매우 검고 큰 것은 산포도와 같다. 맛은 또 질게 달콤하다.】

연복자(燕覆子) 【열매는 크기가 모과와 같고 껍질은 검붉으며 씨는 임하부인(林下夫

人)과 같은데 좀 크다.】

송기생(松寄生) 【한라산 높은 지대에서 난다.】

상기생(桑寄生 : 뽕나무 겨우살이)

토속(土俗)

일기가 항상 따뜻하다 흐린 날이 많고 맑은 날이 적다(天氣常暖 冬陰小晴) 【풀과 나무가 많아서 겨울에도 화려했고, 곤충과 벌레는 겨울을 지내도 죽지 않는다. 봄과 여름에는 구름과 안개로 어두컴컴하고 가을과 겨울이 되면 비로소 하늘이 맑아진다.】

흙의 성질이 뜨고 건조하다 경작은 많이 하나 수확은 적다(土性浮躁 多耕小穫). 【논은 매우 적고 밭에는 돌이 많고 메말라서 해를 걸러 가며 씨를 뿌리지만 수확이 또한 적다. 땅은 또 뜨고 건조하여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마소로 밭을 밟는다.】

산에는 사나운 짐승이 없다(山無惡獸) 【곰·호랑이·표범·이리와 같은 짐승과 황새와 까치와 같은 새는 없다.】

땅에는 난석이 많다(地多亂石) 【산과 평지를 논할 것 없이 돌이 많고 흙은 적다. 산골짜기에 흐르는 물은 모두 땅속으로 스며들어 흘러서 말라버린다. 밭을 개간하고 집을 짓고 분묘를 만드는 자는 반드시 돌을 모아 담을 쌓아서 우마의 출입을 막았다. 『동문감(東文鑑)』에 “백성들의 농토는 예전에 경계가 없어서 강하고 사나운 집안에서 날마다 잠식해 들어가므로 백성들이 이를 괴롭게 여겼다. 김구(金丘)가 판관이 되었을 때 백성들로 하여금 담을 쌓아 경계를 만들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우마로 둔을 짓는다(牛馬作屯) 【민가에서는 사사로이 기르는 우마를 모두 둔(屯)을 만들어서 방목한다. 밭을 밟거나 똥을 누어서 기름지게 하는 데에도 이용한다.】

방아질 할 때에는 반드시 민요를 부른다(杵磨必歌) 【노역하는 일은 여자를 시킨다. 다듬잇돌은 없고 나무절구가 있다. 여럿이 절구를 찼을 때에는 반드시 방아질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가락이 매우 애처롭다. 맷돌을 돌려가며 갈 때에도 또한 그러하였다.】

새를 엮어서 지붕을 덮지 않는다(茅茨不編)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에 “사람이 거처하는 집들은 모두 새로 이엉을 엮어서 지붕을 덮지 않고 굵은 줄로 긴 나무를 가로 맷고 눌러서 태풍의 피해를 막는다.”라고 하였다.】

그물을 사용하지 않는다(網罟不用). 【산은 험하고 바다는 깊어서 고기는 낚고 짐승은

쏘아 잡는다.】

길에는 점사가 없다(路無店舍) 【길을 갈 때에는 건량(乾糲)을 싸며, 저녁이 되면 시골 집에 투숙한다.】

고을에는 시장이 없다(邑無場市) 【재화(財貨)는 돈을 사용하지 않고 포목만을 사용하므로, 팔고 사는 것이 매우 어렵다.】

털모자와 정당 벌립(毛笠蘿冠) 【능히 비바람을 견뎌내게 한다.】

개 가죽 옷과 가죽 버선(狗衣皮襪) 【노숙할 때나 산행에 편리하다.】

풍속은 어리석고 검소하지만 예의와 겸손함이 있다(俗癡儉 有禮讓) 【땅은 척박하고 백성은 가난하여 입고 먹는 일이 매우 어렵다. 술은 온돌로 불을 넣지 않는다. 밥을 지을 때는 반드시 보리를 갈아서 한다. 남녀가 길에서 벼슬아치를 만나면 여자는 달아나 숨고 남자는 반드시 길가에 엎드린다.】

질병이 적고 장수하는 사람이 많다(少疾病 多壽考) 【제주 사람은 모진 병이 없어서 나이 80~90세에 이르는 사람이 많다. 100세를 넘는 자도 가끔 있다.】

남자는 적고 여자는 많다(少男多女) 【공물(公物)과 사물(私物)을 운반하며 파는 배들이 많이 표류하거나 물에 빠져 죽기 때문에 딸 낳는 것을 귀중하게 여긴다.】

물건은 등에 지고 머리에 이지 않는다(有負無戴) 【길이 험하여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여자들도 물건을 이지 않았다. 무릇 물을 길거나 물건을 운반할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등에 진다.】

제주 지방의 말은 알아듣기 어렵다(俚語艱澁) 【말소리는 앞이 높고 뒤가 낮으며 바늘로 찌르는 것과 같다. 또 특수한 소리가 많아서 알아들을 수 없다. ‘서울[京]’을 ‘tu나[西那]’라 하고, ‘숲[藪]’을 ‘고지[高之]’라 하며 ‘산’을 ‘오름[兀岬]’이라 하는 따위가 모두 이와 같다.】

길쌈과 채집을 업으로 삼는다(織採爲業) 【이 땅이 누에치기와 솜타는 일에 적합하지 않아서 여인들은 양태를 틀고 망사리를 맺어 미역을 따고 전복을 캐는 것을 업으로 삼았다. 겨우 열 살이 되면 이미 잠수의 기술을 배운다.】

경직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不貴京職) 【『주기(州記)』에 “서울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벼슬살이가 어렵다. 제주사람으로 재주와 명망이 있는 자는 관아에서 일보는 것을 영광으로 삼고 경직(京職)이 귀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음사를 숭상한다(多尙淫祀) 【산과 숲, 내와 못, 물가와 평지, 나무와 돌 따위에는 모두 신사(神祠)가 있다. 매해 정월 초하루로부터 보름날까지 남녀 무당이

함께 신을 모시는 깃발을 높이 세우고, 악귀를 쫓는 나희(儼戲)를 벌이면서 징과 북을 앞세워서 마을에 드나들면 마을 사람들이 다투어 재물과 곡식으로 제사를 지낸다. 또 봄가을에는 무리를 지어 광양당(廣壤堂)과 차귀당(遮歸堂)에서는 술과 고기를 갖추어서 신에게 제사한다. 또 뱀들이 마룻대와 들보에 모여 열기설기 얹히는데, 제사 때에 나타나지 않으면 상서롭게 여긴다. 토착민들이 회색 뱀을 만나면 차귀(遮歸)의 신이라 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목사 이형상(李衡祥) 때에 이르러서 음사(陰祀)를 아울러서 훼손하였는데, 이때부터 그런 풍속이 조금 그쳤다.】

관직(官職)

목사(牧使) · 판관(判官) · 현감(縣監) 2원(員)

교수(教授) 1원(員) 【판관(判官)이 으레 겸한다.】

만호(萬戶) 1원(員)

감목관(監牧官) 4원(員) 【3원(員)은 두 현(현감)과 목관(牧官: 판관)이 겸하고, 1원(員)은 산장(山場)이다.】

심약(審藥) 1원(員), 검률(檢律) 1원(員), 한학(漢學) 1원(員), 왜학(倭學) 1원(員), 조방장(助防將) 8원(員)

씨족(氏族)

고(高) 【상고하건대, 『동사(東史)』에는 양(梁)을 만이라 하고 고(高)를 성주(星主)라 하였다. 「구지(舊誌)」에는 고(高)를 성주라 하고 양(梁)을 왕자라 하며 부(夫)를 도상(徒上)이라 하였다. 「양씨보(梁氏譜)」에는 또 양(梁)을 성주라 하고 부(夫)를 왕자로 하였다. 그 말이 한결같지 않아서 정확히 증빙하기가 어렵다. 대체로 여러 문적(文蹟)을 참고해 보니, 애초에 땅에서 나올 적에 양(梁)을 만으로 삼은 것 같고, 그 뒤 나라를 세울 적에 고씨(高氏)를 실제의 성주로 삼았다. 그러므로 건치(建治) 항목에 양씨(梁氏)를 먼저 쓰고 고씨(高氏)를 뒤에 썼으며, 씨족(氏族) 항목에는 고씨(高氏)를 먼저 쓰고 양씨(梁氏)를 뒤에 썼다. 열람하는 자가 이를 상세히 하기 바란다.】

■ 耽羅誌草本(上)

양(良), 부(夫) 【신라 열종(烈宗) 때에 탐라 임금으로서 양탕(良宕)과 부계량(夫繼良)을 보내니 신라왕이 기뻐하여 양(良)이란 성씨를 양(梁)으로 고치게 하고 부(夫)란 성씨를 부(浮)로 고치게 하였다.】 ※ 註 : 이 부분은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에서 발간한 영인본에는 원문이 없으나 이 책의 영인본(影印本) 부분 32쪽에 게재된 한문을 번역하였다.

문(文) 【고씨(高氏)의 사위로 고씨(高氏)를 이어 왕자가 된 자가 있었다.】

정(鄭), 김(金), 이(李), 안(安), 현(玄), 함(咸), 양(楊), 박(朴), 임(林), 유(兪), 주(周), 조(趙), 송(宋), 홍(洪), 서(徐), 최(崔), 오(吳), 차(車), 지(池), 한(韓), 백(白), 남(南), 황(黃), 모(牟), 허(許), 장(張), 임(任), 변(邊), 좌(佐), 초(肖), 강(康), 강(姜), 진(秦), 공(孔), 추(秋), 기(奇), 황보(皇甫), 구(具), 여(呂), 목(睦), 주(朱), 권(權), 윤(尹), 원(元), 성(成), 배(裴), 손(孫), 정(丁), 심(沈), 노(盧), 유(劉), 유(柳), 천(千), 우(禹), 표(表), 전(田), 전(全), 조(曹), 곽(郭), 신(申), 신(愼), 하(河), 위(魏), 빈(賓), 대(對) 【명(明)나라 초에 운남(雲南)을 평정하고 양왕(梁王) 가족을 제주에 옮겼다.】

방리(坊里)²²⁴⁾

좌면(左面) 【18개 동(洞)이 있다. 동쪽으로 첫 머리는 25리의 거리이며, 끝나는 지점은 55리에 이른다.】

중면(中面) 【25개 동이 있다. 동쪽으로 첫 머리는 15리의 거리이며, 서쪽으로 거리는 끝나는 지점까지 20리이다.】

신우면(新右面) 【18개 동이다. 서쪽으로 첫 머리는 25리의 거리이며, 끝나는 지점까지는 55리에 이른다.】

구우면(舊右面) 【17개 동이다. 서쪽으로 첫 머리는 60리의 거리이며, 끝나는 지점까지는 80리에 이른다.】

4개 면에는 예전에 도약정(都約正) 【1인】 , 약정 【동·서 각 2인】 , 직월(直月) 【동·서 각 3인】 이 있었다. 김치(金緻) 판관 때에 처음 설치하였으나 중간에 폐지되었다. 지금은 풍헌, 약정, 농감(農監)이 있고, 각 마을에는 동장, 존위(尊位), 경민장(警民長), 기찰장(機察將) 등의 소임이 있다.

224) 『탐라지초본』에는 '防里'로 표기하였으나, 이는 '坊里'의 오키이므로 바로잡는다.

호구(戶口)

호수는 7,017호이고, 인구는 47,489명 【남자 21,443명, 여자 26,046명】이다. ※ 註 : 인구의 남녀 통계를 합치면 47,489명으로 되어 있어 이를 바로 잡는다.

도로(道路) 【원(院) · 참(站) 포함】

동쪽으로 정의현(旌義縣) 경계까지 80리이고, 서쪽으로 대정현(大靜縣) 경계까지는 90리이다. 남쪽으로 한라산(漢拏山)까지 20리이고 북쪽으로 바다까지는 2리이다.

동북쪽으로 화북진(禾北鎭)까지는 10리이고, 조천진(朝天鎭)까지는 30리, 별방진(別防鎭)까지는 80리, 수산진(水山鎭)까지 1백리이다. 서쪽으로 애월진(涯月鎭)까지 50리이고, 차귀진(遮歸鎭)까지는 1백리, 모슬진(募瑟鎭)까지는 1백리이다. 남쪽으로 서귀진(西歸鎭)까지는 80리이고, 동쪽으로 김녕원(金寧院)까지는 50리이다. 서쪽으로 이왕원(利往院)까지는 40리이고, 남쪽으로 제중원(濟衆院)까지는 35리이다.

교량(橋梁)

산젓내드리〔山底橋〕 【동성(東城) 안에 있다. 목사 김정(金儼)이 광제교(光霽橋)로 명칭을 고쳤다. 다리 위에는 지주암(砥柱巖)이 있는데 조천석(朝天石)이란 세 글자를 새겼다.】

가락곶내드리〔嘉樂橋〕 【남성 안에 있다.】

함덕드리〔咸德橋〕 【제주성 동쪽 35리에 있다.】

성지(城池)

제주읍성은 돌로 쌓았는데, 그 둘레가 5,489자이고 높이는 11자이다. 격대(擊臺)가

■ 耽羅誌草本(上)

27개소, 타첩(塔堞)은 404개소이며, 동·서·남 세 문이 있다. 북쪽 수구(水口)에는 홍문(虹門, 虹霓門)이 있다 【목사 이원진(李元鎭)이 세웠다.】

성 안에는 간성(間城)이 있다 【목사 김영수(金永綬)가 쌓아서 산저천(山底川, 산짓내)의 범람을 예방하였다.】

옛날 성안에는 먹는 물이 없었는데, 을축년(명종 10, 1555)에 목사 곽홀(郭屹)이 동성(東城)을 물려 쌓았으므로 가락콧물[嘉樂泉]이 지금은 성 안에 있다. 또 산저물[山底泉 산저천]이 있다.

단묘(壇廟)

사직단(社稷壇) 【남성 밖 5리쯤에 있다.】

풍운뇌우단(風雲雷雨壇) 【사직단 옆에 있다. 계미년(숙종 29년, 1703)에 목사 이형상이 일의 성격이 중대하므로 주군(州郡)에서 감히 마음대로 할 것이 못 된다고 하여 장계(狀啓)를 올려 휘철시켰다. 기해년(숙종 45, 1719)에 목사 정석빈(鄭碩賓)이 백성들의 호소에 따라 이치를 따져 장계를 올려서 다시 설치하였다.】

한라산신묘(漢拏山神廟) 【남성 밖 20리쯤에 있다. 예전에는 묘(廟)가 없었으며, 한라산 정상에서 제사를 지냈으나 사람들이 많이 얼어 죽었으므로 목사 이약동(李約東) 때에 이곳에 창건하였다.】

포신묘(酺神廟) 【예전에는 소림과원(小林果園) 가운데에 있었으나 지금은 한라산신묘(漢拏山神廟) 옆으로 옮겼다.】

성황사(城隍祠) 【서성 밖 2리에 있다.】

여단(厲壇) 【성황사 옆에 있다.】

독신묘(蠶神廟) 【남성 안에 있다.】

삼성단(三姓壇) 【남성 밖 모흥혈(毛興穴)에 있다. 병술년(중종 25, 1526)에 목사 이수동(李壽童)이 단을 쌓고 조그마한 비석을 세웠다. 정축년(숙종 23, 1697)에 목사 유한명(柳漢明)이 단(壇) 동쪽에 신실(神室)을 창건하였다. 신묘년(영조 47, 1771)에 목사 양세현(梁世絢)이 외장을 쌓고 소나무를 심었다. 별도로 전사청(典祀廳)을 세워서 동짓날에 제향을 지냈으며 향청(鄕廳)이 주관하여 설행하였다.】

해신사(海神祠) 【화북진(禾北鎭)에 있다. 경진년(순조 20, 1820)에 목사 한상묵(韓象

默)이 창건하였고, 신축년(헌종 7, 1841)에 중수(重修)하여 액자를 게시하였다.】

학교(學校)

향교(鄕校) 【훈장(訓長) 1인. 장의(掌議) 2인. 유사(有司) 4인. 예전에는 가락천(嘉樂川) 서쪽에 있었다. 임오년(선조 15년, 1582)에 목사 김태정(金泰廷)이 가락천 동쪽의 고령밭(古齡田)으로 옮겼는데, 무신년(현종 9년, 1668)에는 목사 이인(李瑔)이 다시 가락천 서쪽으로 옮겼다. 갑진년(경종 4년, 1724)에 불이 나자, 목사 신유익(愼惟益)이 도로 가락천 동쪽의 옛 터로 옮겼다. 그 뒤 30년²²⁵⁾이 지난 을해년(영조 31년, 1755)에 목사 홍태두(洪泰斗)가 제주 남성(南城) 밖 5리쯤에 옮겨 지었는데, 정해년(순조 27년, 1827)에 목사 심영석(沈英錫)이 향교의 터가 불길하다고 하여 다시 제주성 서문(西門) 밖 2리로 옮겼다.】²²⁶⁾

심연원의 명륜당중수 서(沈連源明倫堂重修序)

나는 가정(嘉靖) 갑오년(중종 29년, 1534) 가을에 이 고을 목사로 임명되었다.²²⁷⁾ 부임한 뒤에 먼저 향교에 나아가 삼가 선성(先聖: 孔子)을 알현하고 물러나 명륜당에 앉아서 제생(諸生: 학생)들을 가까이 불러 그들의 학업을 물어보았다.²²⁸⁾ 건물을 돌아보니, 무너지고 내려앉아 비가 새고 휘어져 학문을 닦을 만한 장소가 못되었다. 이에 교수 김양필(金良弼)군과 함께 개연히 탄식하고 곧 중수할 뜻을 가졌다.

3년이 지난 병신년(중종 31년, 1536) 가을에 재목을 모으고 기와를 구워서 명륜당의 옛 터를 헐어서 구조를 고치고 들보를 보수하여 올리니, 넓고 앞이 탁 트여 막힘이 없었다. 동서로는 곁방을 꾸며서 재생(齋生)들이 기숙하는 곳으로 삼았다. 예전의 규모에서는 부엌이 명륜당 옆에 가까이 있어서 아침저녁 밥을 짓는 연기로 눈을 뜨지 못하였으니, 역시 강청(講廳) 동쪽에 별도로 짓게 하였다. 재려(齋廬: 齋舍)의 지붕과 벽이 무너져

225) 원문에는 20년으로 되어 있으나 30년이 착오이므로 바로 잡는다.

226) 향교를 서문 밖으로 옮긴 것은 이행교 목사 때의 일이다. 심영석 목사는 광양의 향교 터가 “불길하다” 하여 옮길 것을 조정에 건의하여 허락까지 받았으나 갑자기 교체됨에 따라 후임 목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227) “목사로 임명되었다”는 ‘符竹’을 풀이한 것으로, 지방관의 직무나 권한을 이루는 말이다. 중국 한(漢)나라 때에 ‘竹箭’을 지방관의 ‘符節’로 사용한 데서 유래하였다. 『한서(漢書)』文帝紀에 ‘二年九月 初與郡守爲銅虎符竹使符〔顏師古注〕銅虎符第一至第五 國家當發兵遣使者 至郡合符 符合乃聽受之 竹師符 皆以竹箭五枚 長五寸 鐫刻篆書第一至第五’라 하였다.

228) “그들의 학업을 물어보았다”는 ‘叩其所業焉’을 풀이한 것이며, 『남사록(南槎錄)』 등에는 ‘考其所業焉’으로 되어 있다.

난잡해진 것도 모두 보수하여 검은 칠과 흰 칠을 바르고 단청을 하니 환하게 새로워졌다. 성전(聖殿：大成殿)과 동서 양무(兩廡)의 안석(案席)과 자리²²⁹⁾가 오래되어 썩은 것은 모두 바꾸어 새롭게 하였고, 안팎 담장이 허물어진 곳도 쌓아서 높이였다. 뜰의 담장 밑에는 꽃과 대나무를 심었다.

또 성(城) 안의 향학당(鄉學堂)은 예전에는 정해진 곳이 없어서 혹은 주사(州司)에 기탁하거나 군아(軍衙)를 임시로 쓰기도 하였다. 이제 성(城)의 남문루(南門樓)²³⁰⁾ 옆의 청풍대(淸風臺) 곁에 그윽하고 조용하며 앞이 탁 트인 밝은 땅을 얻어서 별도로 몇 칸 집을 세워 학장(學長)으로 하여금 공생(貢生)과 동몽(童蒙)들을 모아 가르치게 하였다.

대체로 이번의 공사는 지금의 교수 이희서(李羲書)²³¹⁾ 군이 실제로 감독하고 공정(工程)을 관장하여 한 달 만에 신기하게 완공하였다. 이에 가을(8월) 상정일(上丁日)의 석채(釋菜)²³²⁾에 세 고을 수령과 고을의 기로(耆老：원로)들을 모아 낙성식을 하였다. 무릇 공장(工匠：匠人)으로 이 일에 종사하였던 자들에게도 모두 음식을 대접하였다. 술이 한 차례 돌자 곧 이어 제생(諸生)들에게 말하기를, “이른바 명륜(明倫)은 사람의 도리를 강의하여 밝히는 것이다. 전(傳)²³³⁾에 말하기를, ‘삼대(三代：夏·殷·周)의 학교는 모두 인륜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대체로 학문하는 방도는 이에서 벗어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본원이 효제(孝悌)에 있을 뿐이다. 만일 효제의 행실을 잘 닦지 아니한다면, 이 명륜당에 올라와서 아침저녁으로 글을 읽고 외운다 하더라도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하물며 이 고을은 바다 밖에 멀리 떨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실로 신령스럽고 특이한 지역이니, 그 산천의 맑고 좋은 기운이 어찌 빼어난 이를 길러내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러니 고려 때에는 고유(高維)²³⁴⁾와 고조기(高兆基)²³⁵⁾ 같은 이가 있었고, 우리

229) “안석과 자리”는 ‘几席’을 풀이한 것으로, 『탐라지(耽羅志)』 등에는 ‘筵席’으로 되어 있다.

230) 『탐라지』 등에는 남문루(南門樓)가 남문숙(南門塾)으로 되어 있다.

231) 교수 이희서(李羲書)는 『탐라지』 등에 이의영(李義英)으로 기록되어 있다.

232) 공자의 제사는 2월과 8월의 상정일에 거행된다. 이 때 짐승의 희생(犧牲)과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지내는 큰 제사인 석전(釋奠)과 소나 양 따위의 회생을 생략하고 다만 약식으로 소채(蔬菜) 따위로 간소하게 지내는 석채(釋菜)가 있었다.

233) 전왈(傳曰)의 전(傳)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을 쓴 서책이다. 여기서는 『맹자(孟子)』를 가리킨다. 등문공장(藤文公章, 上)에 ‘設爲庠序學校以教之 庠者養也 校者教也 序者射也 夏曰校殷曰序周曰庠 則教三代共之 皆所以明人倫也’라 하였다. 또 『좌씨전(左氏傳)』·『공양전(公羊傳)』·『곡량전(穀梁傳)』 같이 성인(聖人)의 경전을 해설한 것도 전(傳)이라 하였다.

234) 고려 시대의 문신.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郎平章事)인 조기(兆基)의 아버지. 처음 빈공시(賓貢試)에 합격한 뒤 정종 11년(1045) 남성시(南省試, 國子監試)에 장원하고 이듬해에 이인정(李仁挺)의 방에 제3인으로 합격하여 벼슬에 나아갔다. 문종 11년(1057)에 우습유를 거쳐 문종 24년(1070)에 비서소감(秘書少監)으로 동북로 병마부사(東北路兵馬副使)를 지냈다. 탐라(耽羅, 제주) 고씨(高氏)로서 맨 처음에 관직에 오른 사람이다. 『고려사(高麗史)』 참조.

235) 고려 시대의 문신, 초명은 당유(唐愈), 호는 계림(鷄林). 비서소감 유(維)의 아들이다. 예종 2년(1107)에 문과에 급제하여 대관(臺官)이 되고, 이자겸(李資謙)이 실각한 뒤 그에게 동조한 조신(朝臣)들의 파직을 상소하다가 좌천되기도 하

조정(朝廷: 朝鮮)에 들어와서는 또 고득중(高得宗)²³⁶⁾ 부자가 있었다. 모두가 이 고을에서 빼어나고 걸출하여 그 이름이 조정의 반열에까지 드러났다. 그 뒤로 50여 년 사이에는 적적하여 소문이 없는데다가 이들을 계승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어찌 한낱 두 세 사람의 수치라고만 하겠는가. 나아가서는 또한 이 고을의 큰 수치인 것이다. 진실로 명륜당에서 도덕을 이야기하고 그 밖의 일은 학문에 힘써 크게 성취함이 있어야 다른 날에 향리에서 몸을 일으키고 조정의 관리가 되어서 선정(先正: 先賢)의 업적을 따르게 될 것이니, 어찌 이 명륜당에 광영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제생들이 모두 응답하여 말하기를 “웁습니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전말을 기록하여 제생들의 학규로 삼는다.

신유익의 기(愼惟益記)

갑진년(경종 4년, 1724) 봄에 탐라 성 안의 화재로, 초가 40여 채가 불타고 사람도 남녀를 합하여 43명이 사망하였다. 때는 정월 21일이었다. 제주는 바다가 가까워서 모진 바람이 자주 분다. 하루 전날에 큰 바람이 서남쪽에서 불어와 나무를 뽑고 돌을 굴리더니, 이 날에 이르러서는 불길이 치솟고 바람이 강해지면서 회오리바람이 갑자기 온갖 사물을 흔들어 움직였다. 이도리(二徒里) 서쪽 지경에서 산저문(山底門) 안까지 몇 리 사이에 좌우로 인가가 이어져 고기비늘처럼 죽 늘어섰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문묘는 성의 한 가운데인 여염집이 매우 분잡한 곳에 있었는데, 큰 불길이 감돌면서 기세가 매우 위급하였다. 나는 판관 이성좌(李聖佐)와 함께 서문 위에 있다가 급히 군인을 동원하여 물을 길어 대비하였다. 밤 이경(二更, 9시 전후)에 명륜당 서각(西角)의 처맛널에 불뚝이 튀어 불이 붙었는데, 불꽃이 튀면서 번쩍번쩍 빛나고 불에 그을린 기와가 어지럽게 날리면서 잠깐사이에 정전(正殿)으로 번졌다. 병사와 장교, 아전과 관노 등 둘러 서서 지키는 자가 수십 백인이었으나 감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나는 판관과 의논하여 건장하고 용감한 장교와 병사로 하여금 재실(齋室)을 지키던 유생들과 함께 화

었다. 의종 때 수사공상주국(守司公上柱國) 정당문학 판호부사(政堂文學 判戶部事) 중서시랑평장사(중서시랑평장사) 겸 서북면(西北面) 병마판사(兵馬判事)를 역임하였다. 오언시(五言詩)에 뛰어났다. 작품으로는 '진도벽파정(珍島碧波亭)' 등이 있다. 『고려사(高麗史)』 참조.

236) 조선 초기의 문신. 자는 자부(子傅). 본관은 제주. 봉지(鳳智)의 아들. 태종 14년(1414) 문과에 급제하여 호조 참의에 이르렀으며, 세종 20년(1438)에 종마진공사(種馬進貢使)로 명(明)나라에 다녀왔고, 세종 21년에는 일본통신사(日本通信使)가 되어 부사 윤인보(尹仁甫), 서장관 김몽례(金蒙禮)와 함께 경도(京都)에 이르러 아시카가(足利義教)와 [大內持世]의 서계(書契)를 가지고 돌아왔다. 세종 23년에는 다시 성절사(聖節使)로 명나라에 다녀왔고 이후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등을 역임하였다. 장자 태필(台弼)은 문종 때 증광시(增廣試)에 정과(丁科)로 급제하여 벼슬이 감사(監司)에 이르렀고, 차자 태익(台翼)은 단종 때 갑술시(甲戌試)에 정과(丁科)로 급제하여 벼슬이 첨정(僉正)에 이르렀다. 3자 태정(台鼎)은 세조 때 기묘시(己卯試)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여 벼슬이 봉정시(奉正寺) 정(正)에 이르렀다.

염을 무릅쓰고 위판(位板)을 받들어 피하게 하였다. 밤 삼경(三更: 12시 전후)이 채 못 되어 정전과 명륜당(明倫堂)·재사(齋舍)·강청(講廳) 등이 일시에 불타버렸다. 동서 양무(東西兩廡)는 정전과 두세 걸음 거리이지만 정전에 가까운 남쪽이 조금 낮아서 바람이 향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면하였다. 그렇지만 제기·상탁·관복·서적 등에 이르러서는 하나도 남은 것이 없었다.

아! 통탄스럽다. 사가(史家)가 궁궐과 전우(殿宇)를 기록하면서 화재를 언급한 것이 얼마나 되겠는가라는 문묘(文廟)가 불탔다는 말은 예전에 듣지 못하였다. 이것은 서적이 있는 이래로 아직 없었던 변괴인 것이다. 다음날 아침에 관관 및 유생들과 함께 오성(五聖)²³⁷과 16철(哲)²³⁸의 신위를 받들어 동무(東廡)에 임시로 봉안하고, 동무의 여러 위판은 서무에 같이 봉안하였다. 화재가 일어난 연유를 갖추어 적어서 급히 조정에 보고하였다. 나는 생각하건대, 성묘(聖廟)는 일의 체모(體貌)가 지극히 엄하고 또 공경스러우니, 그 터를 택하는데 있어서도 그윽하고 고요하며 높고 넓어서 탁 트인 장소에는 합당하고, 민가 주위의 닭과 개소리가 시끄럽게 떠들썩한 장소에는 합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하늘과 땅의 온갖 신들이 옹호하여 좌우할 수는 없으나 우리 부자(夫子, 공자)의 문묘를 보전하려는 것이니, 분명하지 않는 이치를 구명하여 헤아리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인사(人事)가 미진한 것도 어찌 말할 만한 것이 없겠는가. 하물며 새로 화재의 참변을 겪어서 사람과 신이 상심하여 기가 꺾였음에 있어서라! 불에 탄 재를 쓸어내고 중수한다면 어찌 상정(常情)이 편안하겠는가. 여러 사람이 내 말을 옳게 여겼다. 마침내 땅의 길흉을 판단하는 몇 사람을 불러 모아서 날마다 함께 나가 성 안팎에서 두루 물색하였으나 한 군데도 뜻에 맞는 곳이 없었다. 비로소 『여지(輿誌)』를 내놓아 이를 상고하고 가락천 위의 옛 터를 얻었다.

대체로 한라산의 동쪽 기슭으로부터 북으로 꺾이어 구불구불 뻗어나가다가 한데 쪼여서 합쳐진 웅장하고 두터움이 광양(廣壤)과 더불어 나란히 달리고 운주당에 이르러서 하나의 큰 능선이 형성되었다. 깊숙하고 그윽한 동굴(洞)을 이루고 아름다운 골짜기(壑)를 이루었다. 연이어진 높고 험준한 산마루가 수려하게 빼어나고 물과 암석이 맑고 기이하였다. 앞서 이른바 그윽하고 고요하며 높고 넓어서 탁 트인 곳이 여기에 갖추어진 것이다. 허물어진 섬돌과 파손된 벽돌이 가시나무와 덩굴 사이로 보였다 말았다 하였다. 나아가 살펴보니, 집을 세웠던 방위는 조사하여 알아낼 수 있었다. 문묘 터를 반드시 해를 향하는 곳으로 쓰는 것은 남쪽으로 향하여 위치하고자 하는 것이니, 부자(夫子, 孔子)

237) 다섯 성인(聖人) 즉, 공자(孔子)·안자(顏子)·증자(曾子)·자사자(子思子)·맹자(孟子)를 말한다.

238) 공자의 제자인 안연(顏淵)·민자건(閔子騫)·염백(冉伯)·중궁(仲弓)·제아(宰我)·자공(子貢)·염유(冉由)·계로(季路)·자유(子游)·자하(子夏) 등 10철과 주돈이(周敦頤)·장재(張載)·정호(程顥)·정이(程頤)·소옹(邵雍)·주희(朱熹) 등 송조육현(宋朝六賢)을 말한다.

를 높이는 예(禮)가 진실로 그러하였다. 그러나 지형은 곳에 따라 다르다. 내지(內地)의 주·현(州縣)에서도 남향(南向)하는 제도를 따르지 못한 곳이 또한 많다. 남향하는 제도만을 굳건히 지켜서 연이어 있는 산봉우리가 조산(朝山, 명당의 앞쪽에 보이는 상봉우리)을 누르고, 흐르는 물의 형세가 뒤쪽(북쪽)을 향하였는데도 집이 앞은 형국이 비틀어졌는지 바른 지, 안정되었는지 기울었는지를 미처 돌아볼 겨를이 없었으니, 그 또한 이에 대한 지식이 알았던 때문이다. 지난날에도 여러 번 짓고 여러 번 옮긴 일이 어찌 없었겠는가. 감여(堪輿, 풍수지리)의 설은 충분히 논의할 수 없다 하더라도 천추에 걸쳐 세사지널 땅을 또한 어찌 구차하다고 하여 영구한 계획을 세우지 않겠는가. 의논이 정해지자 마침내 의논한 것을 열거하여 조정에 청하였다. 검하여 몇 가지 일이 있었으니, 이미 장인(匠人)들을 산으로 들여보내어 채목 수천 그루를 벌채하였다. 문지도리·문지방·문미·서까래 채목은 헤아릴 수 없었다. 기와 가마 세 곳을 설치하여 4만여 장의 기와를 얻었고 철물 약간 근(斤)을 내지에서 사들이는 등 몇 달 안에 조치하여 거의 변통하였다. 그러나 가을이 되어도 조정의 명령이 내려오지 않았다. 마침내 사람을 보내고 예조에 공문을 보내어 알아보니, 대체로 장계(狀啓) 말미에 덧붙여 요청한 미곡과 서적과 노비 등의 일은 묘당(廟堂, 의정부)에서 다시 보고하여 ‘일체 시행하라’는 허락을 받았으나, 장계의 원본은 묶어서 높은 시렁 위에 놓아두었기 때문에 당해 관청에서는 막연히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9월 그믐날에 향축(香祝)²³⁹⁾이 비로소 내려왔으므로 마침내 많은 장인들과 약속하여 토신제(土神祭)를 지내고 날짜를 잡아 일을 시작하였다. 때는 마침 한 겨울인데도 날씨가 그다지 춥지 않아서 장인들의 손도 얼어 터질 걱정이 없었다. 백성으로 공사에 나온 사람들은 아들이 아버지를 좇는 것과 같이 하였다. 비로소 내가 고을 사람 중에 재능이나 인망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감독의 소임을 맡기고자 하니,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양금(梁岑)과 고상원(高尚元)이 아니면 불가하다.”고 하므로 두 사람에게 힘써 일을 주관하게 하였더니, 공장(工匠)의 능부(能否)를 살펴 일을 시키고 일꾼의 많고 적음에 따라 공정을 부과하였다. 양곡(糧穀)·철물(鐵物)·신탄(薪炭)의 수요가 많아졌으나 창고를 관리하는 데에만 오직 힘써서 조금도 낭비가 없었으니, 빚지지 않고 기여하였다고 할 만하다. 관관은 날마다 공사장에 나아가 몸소 판대기와 가래로 흙을 다루며 권하니, 바람과 추위에도 조금도 해이하지 않았다. 마음을 써서 역시 부지런히 하였던 것이다.

다음해 2월에 대성전과 명륜당이 이루어졌으므로 3월 상정일(上丁日)에 명륜당의 대

239) 향축(香祝)은 향과 축문이다. 문묘를 창건하거나 중수, 혹은 이건할 때 그 사유를 신위에 고하는데, 그때 쓰이는 축문은 예조(禮曹)의 서리(書吏)가 왕명을 받들어 지방의 향교에 전달하는 것이 상례(常例)였다. 향축이 전달되어야 비로소 신위를 옮겨 다른 곳에 봉안하고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청과 동서 협실(夾室)로 〈위판을〉 옮겨 봉안하였다. 정전에 옮겨 봉안하지 아니하고 명륜당에 옮겨 봉안한 것은 장차 양무(兩廡)를 세울 적에 시끄러울 것을 염려한 것이다. 그 날로 옛 양무의 낡은 재목을 철거하여 묘정(廟庭)의 동서쪽에 옮겨 세웠다. 마룻대와 들보·문간 가운데 썩어서 무너진 것은 모조리 새 재목으로 바꾸었으며, 신문과 향문, 동서 각문(角門) 및 동서의 재사(齋舍)·강청·전사청·주고(酒庫)·공수청(供需廳) 등을 차례로 세웠다. 그 규모와 제도는 모두 예전의 향교를 모방하였는데, 짜임새의 치밀하고 화려함이 더한 것은 있어도 미치지 못한 것은 없었다. 담장은 높고 뜰과 집은 넓고 밝으며 섬돌과 벽돌은 가지런히 정돈되어 견고하고 치밀하였다. 지난날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보례(簠簋)·변두(籩豆)·존작(尊勺)·궤안(几案)과 같은 것도 이때에 이르러서 또 대충 마련하였다.

4월 마지막 정일(丁日)에 오성(五聖) 이하의 위판을 정전과 양무에 봉안하여 일상의 예법대로 고유제(告由祭)를 지내었다. 유생 4백여 명이 정전과 양무 사이를 오르고 내렸으나 명륜당과 재사(齋舍) 안에서는 자태가 온화하였다. 혹 탄식하는 자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말하기를 “뜻밖에 오늘은 융성한 때의 기상을 다시 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나는 제생들에게 간곡하게 말하였다. “선대의 유학자(儒學者)가 우리 유도(儒道)의 성쇠를 논하기에 앞서 말하기를, “진(秦)나라에서 서책을 불태운 것²⁴⁰⁾은 우리의 유도가 불의 재앙을 입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서책(書冊)은 도를 기록하기 위한 것이고, 사묘(祠廟)는 신주를 모시기 위한 것이다. 화기(火氣)가 재앙을 알리자 삼정(三精, 해·달·별)도 빛깔이 변하였다. 우리들이 높이 받들어 의지하는 것으로 말하면, 어찌 사묘(祠廟)만이 중요하겠는가. 옛 성인(聖人)을 위하여 도통(道統)이 끊어진 학문을 계승하고 만세(萬世)를 위하여 태평성세를 여는 것을 논하면서부터²⁴¹⁾ 비로소 사묘에 미치지 못하는 서책이 없게 되었다. 서책은 불탔지만 유도는 불타지 않았던 것이다. 벽서(壁書)²⁴²⁾가 있기 때문이다. 화재의 참화를 씻어내니 건물은 장대하고 아름다움을 다했다. 놀랍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픈 정감(情感)이 누그러지고 기뻐서 손뼉 치며 축하하는 소리가 일어나니,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이 어찌 행여 성현(聖賢)들이 남긴 경적(經籍)을 바라보는데 그칠 뿐이겠는가.

운수가 한 번 막히고 한 번 터지는 것이 항상 변하지 아니하는 몇몇한 하늘의 도리〔天

240) 진시황(秦始皇) 34년에 이사(李斯)가 진언(進言)하여 시·서·백가(詩書百家)의 서책을 불태우고 남은 것은 의약(醫藥)·복서(卜筮)·종수(種樹)의 서책뿐이었다고 전한다. 시황은 또 유자(儒者)를 구덩이에 묻어서 죽였으므로 이 사실을 분서갱유(焚書坑儒)라 한다.

241) 『근사록(近思錄)』 위학류(爲學類) (96)에 ‘橫渠先生曰 爲天地立心 爲生民立道 爲往聖繼絕學 爲萬世開太平’이라 하였다.

242) 벽서는 공자의 집 벽 속에 도배되어 진화(秦火)를 면하고 전한(前漢)의 노(魯)의 공왕(恭王)에 의해 발견된 『고문상서(古文尙書)』와 『효경(孝經)』 등을 말한다. 『한서(漢書)』 예문지(藝文志)에 ‘古文尙書者 出孔子壁中 武帝末 魯恭王 壞孔子宅 欲以廣其宮 而得古文尙書禮記論語孝經 凡數十篇’이라 하였다.

道]라고 한다면, 인사(人事)가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는 것도 이에 따르기 마련이다. 지난번에 화재를 만난 것은 곧 온 섬의 막힌 운수가 극한에 이른 것이며, 터진 운수가 돌아와 재앙이 복으로 바뀌는 계기는 오늘부터 시작될 것이니, 제생들은 노력하라.”고 하였다.

학교를 설치하는 것은 인륜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인륜에는 다섯 가지가 있으나 부자유친(父子有親)과 군신유의(君臣有義)가 더욱 중요하다. 진실로 이것을 먼저 밝힌다면 그 나머지 세 가지²⁴³⁾도 확충하여 능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늘이 준 어진 성품은 한데 치우치거나 거칠어지는 구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가을에 처음 국상이 났을 때에 도민들은 가족옷과 삼베옷을 입은 장수와 병사로부터 아래로는 부녀자와 어린이, 노복에 이르기까지 그 어버이를 위해 곡을 하는 것처럼 달려와 소리 내어 울지 않은 이가 없었고, 장삿날이나 초하루보름까지 모두 그러하니, 나는 이것으로 이곳 사람들의 부자(父子)의 은혜가 돈독함을 알았다. 효심이 순수하고 예의를 좋아하며 스스로 제 몸을 삼가고 풍속에 모범이 되었다. 남은 힘으로는 학문을 연구하여 성현의 지극한 의론(義論)에 깊이 잠긴다면, 진실로 단절된 학통[絕學]²⁴⁴⁾을 제창하여 밝힐 수 있고, 민건(閩建)을 추종(追踵)하고 거기에 물들어 잃어버리지 않고서야 구양첨(歐陽詹)²⁴⁵⁾과 구문장(邱文莊)²⁴⁶⁾과 같은 부류의 인물²⁴⁷⁾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생들은 힘써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니, 모두 절하며 응답하기를 “감히 명령하신 대로 부지런히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나는 당세(當世)의 존귀한 사람의 글을 받아서 이 사실을 기록하고자 하였으나 제생들이 나에게 요청하기를 “사실을 그대로 적는 글은 실상을 조사하는 것을 귀히 여기지만 화려한 것을 귀히 여기지는 않습니다. 화재가 난 이래로 재앙을 근심하고 고통을 아파하는 형편과 공사를 경영하고 주선한 사적(事蹟)은 대체로 공장(工匠)과 사민(士民)들이 함께 분주하게 일하는 모습을 친히 나아가 목격하지 않고는 상세히 기록할 수가 없습니

243) 나머지 세 개는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이다.

244) “단절된 학통[絕學]”은 주공(周公)의 도(道)와 맹자(孟子)의 학통을 말한다. 이들 학통이 한·당(漢唐) 시대의 훈고학(訓詁學)으로 단절되었다가 송대(宋代)에 이르러 성리학(性理學)으로 부활된 것이다.

245) 당(唐)나라 천주(泉州) 진강(晉江) 사람이다. 자는 행주(行周), 정원(貞元) 연간의 진사(進士)로 한유(韓愈)·이관(李觀) 등과 함께 급제하였다. 민인(閩人)으로 진사에 급제한 사람은 구자첨이 처음이었다. 벼슬은 국자감 사문조교(國子監四門助教)에 이르렀다. 산문(散文)에 뛰어났다. 저서로는 『구양행주집(歐陽行周集)』이 있다.

246) 구문장(邱文莊)은 곧 구준(丘濬)으로 명(明)나라 광둥성(廣東省) 경산현(瓊山縣, 海南島 소재) 사람이다. 구(邱)는 공자의 이름인 구(丘)를 피해서 쓴 것이고, 문장(文莊)은 그의 시호이다. 자를 중심(仲深), 호를 경산(瓊山)이라 하였다. 경태(景泰) 연간의 진사로 벼슬은 문연각대학사(文淵閣大學士)에 이르렀으며, 주자학에 정통하였다. 저술로는 『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주자가례의절(朱子家禮義節)』·『주자학적(朱子學的)』 등이 있다.

247) 구양첨과 구준은 모두 변방사람이다. 그러나 구양첨은 민인(閩人)으로 처음으로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고, 구준은 섬(海南島) 사람으로 정승의 반열에까지 올랐다. 즉, 여기서는 변방 혹은 섬사람임을 개의치 말고 학문에 열중하라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보아진다.

다. 원컨대, 공께서는 기어코 이 사실을 기록하여 주시되, 한 마디 말로 은혜를 베풀어 잠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나 또한 조용히 생각해 보니, 화재는 이유 없이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허물은 장리(長吏, 여기서는 목사)에게 있었다. 그러나 화재가 처음 났을 때에 유강능(劉江陵)의 고사(故事)²⁴⁸⁾처럼 오랫동안 정성을 들여 머리를 조아리지 못하고 위판을 받들어 옮기기에 이르렀다. 또 제생과 더불어 같이 머리를 태우고 이마를 데어가며 불을 끄지 못한 것이 마음속에 부끄럽고 두려워 깊은 연못과 깊은 골짜기에 떨어진 것만 같았다. 오직 밤낮으로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재목을 구하고 양식을 모아 줄지에 큰 공사를 마침으로써 조금은 고을 사람들에게 보답한 것 같이 생각되었다. 사람들이 이 글을 짓게 한 것은 혹 나의 본심을 살피지 못한데다가 지나치게 더 포장(鋪張)되었으니, 마침 그 죄를 더하기에는 충분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감히 분수에 넘치고 건문이 좁은 것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대강을 간략히 기술하는 것이다. 그 건물의 굉장하고 웅장한 모습과 내와 산의 맑고 빼어난 풍치는 후세의 군자를 기다리고자 한다.

이행교의 기(李行敎記)

정해년(순조 27년, 1827) 중추(8월)에 내가 탐라 임소(任所)에 부임하였더니, 전 목사 심영석(沈英錫) 공이 향교를 옮겨 세우는 일로 이미 장계를 올려 허락을 받았으나 뜻하지 않은 일로 경체(徑遞, 교체)²⁴⁹⁾되었다.

내가 전 목사에게 향교를 옮겨 세우는 사유를 물으니, 말하기를 “광양의 옛터는 산을 향하고 바다를 등져서 땅의 형세가 뒤 바뀌었고, 모진 비바람으로 건물이 번번이 허물어져 수리하는 일이 없는 해가 없었다. 섬 안의 청금(靑衿) 수천백 인이 부임 초에 일제히 하소연하였는데, 대체로 이들이 말하는 취지는 이미 70여 년이나 오래된 내용이었다. 사망한 사람들이 한탄을 품었을 뿐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들도 우울해 하였다. 나의 8대조 의정공(義政公, 李由義)께서 이곳에 부임하였을 때 명륜당을 창건하여 크게 향교에 공(功)이 있었으니, 아버지가 일을 시작하고 자식이 계승하는 뜻으로 책임을 맡았던 것이다. 나 또한 지난 일을 생각하여 감동하고 조상의 뜻과 사업을 이을 뜻이 있어, 땅을 측

248) 후한(後漢)의 유곤(劉昆)이 강릉 현령(江陵縣令)이 되었을 때 현(縣)에 해마다 화재가 발생함으로 곤(昆)이 불을 향하여 머리를 조아리자 비를 내려서 바람을 그치게 하였다는 고사, 『후한서(後漢書)』 유림(儒林) 유곤전(劉昆傳)에 ‘爲江陵令 時縣連年火災 昆輒向火叩頭 多能降雨止風’이라 하였다.

249) 경체(徑遞)는 영전이나 좌천이 아니면서 임기 중도에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한 갑작스러운 체대(遞代)를 말한다. ①피체(避遞, 上官과 친척 관계여서 피해야 할 경우), ②혐체(嫌遞, 상관과 先世에 혐의스러운 관계가 있는 경우), ③내체(來遞, 새 수령이 갑자기 補外되어 오는 경우), ④소체(疏遞, 상소하여 체대를 빌어 임금의 윤허를 얻는 경우), ⑤유체(由遞, 말미를 받아 본가에 돌아가서는 임지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이 경체에 속한다.

량하고 터를 잡는데 땅을 날을 허비하여 제주성(濟州城) 서쪽에 한 좋은 땅을 얻었다. 한라산의 한 가닥이 북쪽으로 달리다 동쪽으로 감아 도니, 산세가 멀리 둘리어지고 흐릿하게 별이 벌려 있어 바둑돌이 놓여 있는 것 같고, 바다 빛이 깊이 잠기어 큰 파도와 성난 물결을 보지 못하였다. 문채가 빛나고 확 트이어 유쾌하며 사방을 끌어안아 마음이 너그럽고 온화하니, 성묘의 신주를 모실 곳으로는 더없이 합당하였다. 이에 많은 장인들을 감독하고 독려하여 며칠 안으로 완공하려고 기약하였었다.”고 하였다. 나는 이에 응답하여 말하기를 “고을의 큰 일이 이보다 더한 것은 없으니 감히 받들어 주선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공이 떠난 뒤에 도감(都監) 정원집(鄭遠集), 훈장(訓長) 오점(吳靄), 장의(掌議) 현언범(玄彦範)·김응길(金應吉) 등으로 하여금 힘을 다하여 일을 주관하게 하니, 10월 모일에 비로소 정전과 동·서무를 세웠고, 그 나머지 당실(堂室)과 재사(齋舍)·포방(庖房, 부엌)도 차례로 새로 짓는데, 감독을 기다리지 않고 백성들이 모두 기꺼이 부역에 종사하였다. 겨울철 날씨가 화창하고 따뜻하여 모두들 추위에 손 틀 염려 없었다. 반년 만에 서까래에 흙이 올라가니 눈 깜짝할 사이에 새가 날개를 편 것 같은²⁵⁰⁾ 아름다움이 거의 만물을 창조하는 것처럼 서로 이어지며 완공되었다. 그 다음 해 5월에 낙성연을 베풀어 백성들과 즐겼는데, 전 목사와 자리를 같이하여 기쁨을 나누지 못한 것이 한스러웠다. 마침내 이러한 사실을 여기에 기록해 둔다.

이원조의 삭강절목(李源祚朔講節目)

선비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글을 읽고 행실을 닦아 나라를 향해서는 충성과 의리를, 가정에 있어서는 효성과 우애로써 백성들의 모범이 되는 것이다. 글을 읽는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옛사람의 가르침을 배워서 지혜를 열고 눈을 밝게 하여 건문을 넓히고 경험을 징험하여 선비의 이름과 실상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다. 글을 읽은 효과가 있음이다. 사부(詞賦)와 공령(功令)이 본래 급한 일은 아니나 이미 입신출세와 관계되는 길임으로, 글을 읽는데 온 정신을 다 기울일 걱정이 많은 것이다. 이것은 내지(內地)의 유생들도 똑같이 빠지는 것으로 여기서 빼내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목사도 과거 출신으로 반세상을 기송(記誦)과 사장(詞章)에 전념해 왔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일찍이 부형(父兄)과 사우(師友)를 따라 옛 사람이 학문하는 방법을 얻어들었으니, 정무를 보는 바쁜 중에도 전연 포기한 적이 없었다. 저녁 해가 뽕나무와 느릅나무에 걸려 있으니, 얼굴에 죄명을 자자하고 코를 베어도 돕지 못하여 마음속으로 몰래 자신을 꾸짖으며 매양 뜻

250) “새가 날개를 편 것 같은” 내용은 ‘鳥革’을 풀이한 것이다. 『시경(詩經)』 소아 사간(小雅斯干)에 ‘鳥革翬飛’라 하였다. 새가 날개를 편 것 같이 꿩이 나는 것 같이 궁실(宮室)이 아름답게 훌륭한 모양이라는 뜻이다.

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를 암송하였다. 이제 이 고을에 부임해 와서 외람되이 귀감이 되는 소임을 맡고 시문을 짓거나 서화를 그리고 시험을 치르는 기회를 얻어서 고을의 여러 수재와 유람할 적에 식견의 해박함과 재예의 민첩함은 비록 내지에 양보한다 하더라도 질박하고 중후하며 순진하고 진실 되어 질박함이 많고 화려함이 적으나 왕왕 “단 것이라야 조화의 맛을 받을 수 있고 흰 빛이라야 채색(采色)을 받을 수 있다.”²⁵¹⁾는 즉, 선량한 사람은 학문을 닦아 도에 나아갈 수 있는 자태가 있으니, 곧 그 단점이 도리어 장점이 되는 것이다. 지금은 여름 학과가 이미 끝나고 가을 농사철이 점차 다가오니 과목을 독려하는 방법은 풍속에 따라 바꾸어서 고치지 않을 수 없다. 10월부터는 한 달에 세 번 고강(考講, 시험)을 시행하도록 규례를 작성하여 먼저 반포하였다. 잠시 10일의 학업을 접어두고 독서를 하는데 적당한 세 때의 겨를²⁵²⁾을 엄중히 하달하니, 떨치고 일어나 권장하고 지도하는 방법은 단지 날마다 이들에게 시험을 보이는 것과 같을 뿐 아니라 한날 실속은 없이 겉만 화려하여서는 전연 실효가 없을 것이다. 용감하게 새로운 규칙을 쫓아 한결같이 넓은 습속을 고치기를 깊이 제생들에게 바란다.

一. 접유(接儒)는 60인으로 이미 인원이 정해져 있으나 만약 강(講)²⁵³⁾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접내(接內)·접외(接外)를 막론하고 융통성 있게 선발하되, 나이 50세 이하에서 15세 이상을 연령에 따라 별도로 기록하고 강안(講案)을 만들어서 각각 그 읽은 글을 아래에 기록한다.

一. 회강(會講) 장소는 향교 명륜당으로 정하고 서책(書冊)·포진(鋪陳, 자리)·벼루 및 책상 등의 모든 도구는 장의(掌議)가 미리 등대하며, 고강 일자는 매월 초10일, 20일, 그믐날로 정한다.

一. 훈장(訓長)은 강을 받는 날마다 참석하여 좌정(坐定)하되, 전임(前任)과 미임(未任)을 막론하고 나이가 많고 문학(文學)이 있는 자로 다시 직월(直月) 2인을 뽑아 강 받는 일을 주관하게 한다.

一 제생(諸生, 학생)은 10일 안에 읽을 책의 어느 대문에서 시작하여 어느 대문에서 그칠 것(自止)을 예정하고 각각 그 읽은 내용 아래에 표지를 붙여 강에 임할 때에 추첨

251) “단 것이라야 조화(調和)의 맛을 받을 수 있고 흰 빛이라야 채색(采色)을 받을 수 있다.”는 구절은 『예기(禮記)』 예기(禮器)에 ‘君子曰 甘受和白受采 忠信之人 可以學禮(군자가 말하기를, 단 것이라야 화미(和味)를 받고 흰 빛이라야 채색을 받는다. 충신(忠信)한 사람이라야 예(禮)를 배울 수 있다.)’에서 유래한 말로, 선량한 사람이라야 학문을 닦아 도(道)에 나아갈 수 있음을 비유한 말이다.

252) “독서를 하는데 적당한 세 때의 겨를”은 ‘삼여(三餘)’를 풀이한 것이다. 즉, 한가한 때로 겨울은 한 해의 나머지, 밤은 하루의 나머지, 음우(陰雨)는 한 철의 나머지는 뜻이다.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왕숙전(王肅傳)에 ‘明帝時大司農弘農董遇等 亦歷注經典 頗傳於世(注, 魏略曰 董遇善治老子 云云 苦渴無日 遇言 當以三餘 或問三餘之意 遇言 冬者歲之餘 夜者日之餘 陰雨者時之餘也)’라 하였다.

253) 강(講)은 읽은 글을 스승이나 시관 앞에서 외우는 것이다.

하도록 한다.

一. 강을 받는 날마다 강에 응하는 제생은 건복(巾服)을 갖추고 기한에 따라 일제히 모여 목사가 나갈 때는 동서로 나뉘어 섬돌 아래에서 공경히 맞이하고, 목사가 성묘(聖廟)에 나아가 전배(展拜, 참배)할 때는 제생이 들어가 참여하며, 목사가 명륜당으로 물러나 앉으면 훈장·직월·장의는 동쪽 섬돌 아래에 서고, 제생은 서쪽 섬돌 아래에 서서 서로 향하여 읍하고 차례로 읍양(揖讓)하면서 명륜당에 오르는데, 훈장·직월·장의가 앞서 나아가고 제생은 정중하게 나아가 목사를 향하여 재배하며, 목사는 서서 답하고 읍한다.

一. 강을 할 때에는 책상을 명륜당 가운데에 설치하여 목사는 북벽(北壁)에 앉고 훈장·직월·장의는 동벽에 앉으며, 제생은 서벽에 앉는데 자리가 부족하면 서쪽으로 부터 남쪽으로까지 자리를 정하여 앉은 뒤, 직월 1인이 책상 앞에 나아가 소리를 높여 주부자(朱夫子)의 백록동규(白鹿洞規)²⁵⁴를 읽으며, 제생은 송구해 하며 들은 뒤 개강(開講)한다.

一. 개강할 때 직월이 강안을 가지고 차례로 호명하면 목사는 추첨하여 40세 이하는 배강(背講)하고, 40세 이상은 면강(面講)으로 정하는데, 강은 오로지 음성(音釋)에 주안점을 두지 않고, 오직 문의에 환히 통하고 구독에 아주 능숙한 자로 이들을 추첨하여 고하를 정한다.

一. 제생은 강 받는 날을 당하여 실제로 병이나 탈이 있으면 반드시 단자를 훈장에게 올리고, 만일 이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하고 모탈(謀頃)을 칭탁하는 경우에 접유는 태료(太料)를 내게 하고 접외는 벌지(罰紙) 1권을 바치게 한다.

一. 강을 받는 유생이 1차에 거불(居不, 불합격)이면 벌지 10장을 내게 하고, 2차에 거불이면 접유는 태료를 내게 하고 접외는 벌지 1권을 바치게 한다. 3차에도 거불이면 하초(夏楚, 회초리)의 형으로 다스린다. 그러나 1차에 순통(純通)이면 상지(賞紙) 10장을 주고, 2차에 순통이면 상지 1권을 준다. 3차에도 순통이면 접외는 급료를 주고 접내는 상지 1권 10장을 준다.

一. 접유는 각기 글을 읽을 장소가 있으나 사학(四學, 4학당)의 경우에는 유명무실하니 찾아오는 사람을 맞이해 들일 수 없다고 한다. 학유(學儒)는 향교에서 회독(會讀)하는 것만을 허락하고 접외도 각각 글 읽는 장소를 나누어 거처하게 하며, 접내와 접외를 막론하고 만일 집에 있으면서 글을 읽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줄 것이다.

이 학규의 여러 조항은 모두 옛 사람들이 이미 시행하였던 법이다. 신상필벌(信賞必

254) 송(宋)나라 주희(朱熹)가 남강군(南康軍)의 장관이 되어 백록동 서원이 황폐한 것을 보고 그것을 복구함과 동시에 학규를 만들어 시행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백록동규(白鹿洞規)이다.

罰)과 권선징악(勸善懲惡)은 죄인을 검거하고 압송하기 위해 목에 칼을 씌우고 몽둥이질 하는〔鉗鎚〕 형구에 불과할 뿐이다. 만일 참된 마음으로 학문에 뜻을 두고 오로지 독서에 만 마음을 두어서 밤낮으로 고찰하고 힘써서 먼 훗날에 오래도록 효과를 거두려고 한다면, 각각 당사자 스스로가 힘쓰는 데에 있을 뿐이며 타인이 얻어주는 것은 아니다. 진실로 원하건대, 제생들은 각기 스스로 부지런히 힘써서 혹여 오래 들뜨는 일이 없도록 하고 독서할 때에는 깊이 생각하고 반복하여 그 취지를 구명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의심되는 것이 있으면 다시 더 사색(思索)하되, 사색이 통하지 아니하면 서로 변론하며 강의하는 날을 기다렸다가 질문하여 바로잡는다. 또 독서에는 반드시 그 자구(字句)를 줄이고 그 횃수를 늘려서 힘써 두루 미치게 하고 관통하게 하여야 비로소 유익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곧 내가 선배들에게 들은 것으로 강의 규정 외로 더 넣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제생들은 이를 암송하고 써서 한 통을 각 재(齋, 학교)의 벽 위에 게시하여, 항상 눈으로 보며 살피어 영구히 실천할 자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굴림서원(橘林書院) 【선조 정축년(10년, 1577)에 판관(判官) 조인후(趙仁後)가 처음으로 충암(冲菴) 김정(金淨)의 사묘(祠廟)를 건립하였다. 현종 을사년(6년, 1665)에 판관 최진남(崔鎭南)이 제주성 남쪽의 장수당(藏修堂) 북쪽으로 옮겨 세우고 굴림서원이라고 이름하였다. 그 뒤 규암(圭菴) 송인수(宋鱗壽), 동계(桐溪) 정온(鄭蘊),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을 추향(追享)하였다. 숙종 임술년(8년, 1682)에 사액(賜額)하였다. 을해년(숙종 21년, 1695)에 또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을 추향하였다. 훈장이 1인, 장의가 1인, 유사(유사)가 2인이다. 능료를 받는 학생〔付廩接生〕은 20인이다.】

임제의 충암묘기(林悌冲菴廟記)

예전의 사묘(祠廟)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었다. 공(功)이 보상을 받을 만하면 사묘를 세웠고, 덕(德)이 세상 사람을 경계할 만하여도 사묘를 세웠다. 그 사묘라는 것이 대개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도록 도모함으로써 공경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그 영령(英靈)과 정상(精爽)이 천추만대에 걸쳐 제사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에 틀림없다.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죽는 것은 기수(奇數, 運數)와 관계가 있는 것이다.

선생은 중종조(中宗朝)에 이 고을에 유배되었다가 얼마 안 되어 사사(賜死)되었으니, 선생의 사후(死後) 59년은 곧 금상(今上, 宣祖)의 즉위 11년(1578)이다. 사문(斯文) 조후(趙侯)²⁵⁵는 이곳에 통판(通判, 判官)으로 부임하여 폐막을 바로 잡고 쇠잔한 것을

소생시켜 크게 백성들을 교화시킬 때, 고로(故老)들에게 물어서 선생의 유지(遺址)가 성내 동남쪽 모퉁이에 있음을 알고 관아가 파한 여가를 이용하여 지팡이에 짚신을 신고 찾아가 창연히 슬퍼하며 말하기를, “선생의 배움은 추로(鄒魯, 孔子와 孟子)를 따랐고 뜻은 화훈(華勳, 重華와 放勳)에 매몰했으나, 뜬 구름이 해를 가리어 유자(游子)는 돌아가지 못하고²⁵⁶⁾ 그 품은 뜻을 간직한 채 갑자기 〈변방에서〉 절명하였으나 풍속이 다르고 어리석어 추모할 줄 모르고 차귀(遮歸)와 광양(廣壤)에서는 한갓 음사(淫祠)만을 숭상하니, 이것은 이곳 백성의 불행일 뿐 아니라 곧 우리 유도(儒道)의 불행이다.”라고 하였다.

하물며 선생은 인(仁)에 살고 의(義)를 따랐으니 덕(德)이 지극함이요, 나약함을 분기케 하고 탐욕스러움을 청렴케 하였으니 공(功) 또한 크도다. 공과 덕이 이와 같이 사묘를 세울 만하므로 이에 절제사(節制使)²⁵⁷⁾와 의논하여 장인들을 고용하고 재물을 모아 사묘 3칸을 지었는데, 겨우 두어 달 만에 단청과 옷칠이 으늑해지고 담장이 둘러져서 마치 밀려오는 하얀 물결의 꼭대기가 백마(白馬)를 방불케 하였다. 그 사이에 후(侯, 趙仁後 판관)는 다시 관노(官奴) 한 사람을 묘지기(廟直)로 삼았다. 또 약간의 곡식을 주교(州校, 鄕校)에 비치하고 해마다 백성에게 이자를 받아서 전채(奠采)의 비용을 만들어 봄가을로 향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였으니, 후(侯)의 뜻이 참으로 부지런했다 할 것이다.

아아! 기묘(중종 14년, 1519)의 참화(己卯土禍)²⁵⁸⁾를 차마 말할 수 있겠는가. 승냥이와 이리떼는 입술을 다시고, 도깨비는 요사하게 북을 치며 천聰(天聰)을 속이니, 혈육이 착한 무리는 점점 쇠락하여 을사(명종 즉위년, 1545)의 변(乙巳史禍)²⁵⁹⁾에 이르러는 사림(士林)으로 남아난 자 없으니, 대체로 우리 유도(儒道)의 막힘이 극에 달함이다.

255) '사문(斯門) 조후'의 사문은 유생(儒生)이 유학(儒學)을 달리 부르는 말로 사학(斯學)이라고도 한다. 간혹 유학을 하는 선비를 가리키기도 한다. 여기서는 후자이다. 조후는 조인후(趙仁後) 판관을 뜻한다. 그는 선조 10년(1577)에 부임한 뒤 1년이 못되어 사임하였으나 부임한 지 수 개월 안에 한 지역이 크게 다스려졌다고 한다. 때문에 그가 떠날 때는 士女가 길을 막고 호응하여 마치 부모를 이별하는 모습과 같았다고 한다.

256) “뜬 구름이 해를 가리워 유자는 돌아오지 못하고”는 ‘浮雲蔽白日 游子不復返’을 풀이한 것이다. 이 구절은 중국에 전해오는 오언고시(五言古詩) 중의 일부를 인용한 것으로, 객지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생각해서 지은 것이라 한다. 여기서는 무고에 의해 애매하게 류배된 충신의 심정을 표현한 것으로 임금을 백일(白日)에, 간신을 부운(浮雲)에 비유하고 있다.

257) 『관풍안(觀風案)』에 따르면, 당시의 절제사는 임진(林晉)이다. 그는 선조 10년(1577) 8월에 부임하고 동왕 12년 12월에 사임하기까지 2년여를 재임하였다.

258) 중종 14년(1519) 기묘에 일어난 사화. 도학의 이념을 정치에 구현하려고 노력한 조광조(趙光祖)·김정(金淨)·김구(金絿)·김식(金湜) 등과 현량과(賢良科) 출신의 신진 사류들을, 훈구파인 남곤(南袞)·심정(沈貞)·홍경주(洪景舟) 등이 조광조 일파가 반역을 꾀한다고 무고하여 몰아낸 사건으로, 조광조는 사사되고 그밖에 70여 명의 신진 사류들이 화를 입었다. 『중종실록』□14년 12월 기축조,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중종조고사본말 기묘사화 참조.

259) 명종 즉위년(1545) 을사(乙巳)에 명종의 외숙 윤원형(尹元衡)이 인종의 외숙 윤임(尹任) 일파를 제거하기 위하여 일으킨 사화. 중종 때부터 반목해 오던 이들은 인종의 즉위로 인하여 윤임 일파가 집권하였으나, 인종의 갑작스런 승하로 인하여 명종이 즉위하자, 윤원형이 권력을 잡고 정순봉(鄭順鵬)·임백령(林百齡)·정언각(鄭彦愨) 등과 공모하여 윤임 일파와 계림군 류(桂林君 瑠)를 죽이고 인종 때에 등용된 많은 현류(賢類)를 귀양 보내거나 삭직(削職)시켰다. 『연려실기술』□명종조고사본말 을사사화 참조.

천운(天運)이 호전되어 소인이 물러나고 군자가 돌아오니, 성명(聖明, 中宗)께서 나라를 어거하여 청론(淸論)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부월(斧越)을 가함에 저승과 이승을 가리지 않으니, 이 사묘의 건립을 진실로 늦출 수가 없었다. 후(侯)가 변방에 도덕의 가르침을 심은 것은 더욱 중한 일이니, 후(侯)의 일이 참으로 훌륭하다 할 것이다. 아아! 선생이 죽고 나니 도(道)가 한 번 막히고, 선생의 사묘가 한 번 세워지니 도가 한 번 터졌도다. 이 어찌 삶과 죽음이 기수와 관계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후(侯)의 이름은 인후(仁後)요, 자는 유부(裕夫)이며 기군(箕郡) 사람이다. 금성(錦城)의 임제(林悌)는 절제영(節制營)에 아버님을 뵈러왔다가 훌륭한 사업을 보게 되어 후(侯)의 뜻을 기리는 것이다. 또 후(侯)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기록하고 또 사묘의 배향을 노래하니, 때는 만력(萬曆) 무인(선조 11년, 1578)이다. 노래는 이러하다.

좋은 술과 누런 감자(柑子)요, 해산물과 산나물이네.

내 옷을 깨끗이 하고 오랫동안 서성거리니, 안개 낀 물결이 나를 근심케 하네.

임은 드높게 신령(神靈)의 모습 드러내어, 푸른 교룡(蛟龍) 타고 구름 위에 올랐네.

한 번 웃으시고 묘당(廟堂)에 드니, 맑은 향 연기 가로 나부끼네.

고향을 길이 하직하고, 먼 나라에 슬픔만을 남겼네.

바람과 우레 소리 만 리 밖에 이르고, 불꽃이 한 번 튀면 갔다가 돌아오네.

남쪽 바다 진압하여 흐름을 편케 하고, 배들로 하여금 길을 잃지 않게 하네.

평생 화목한 기운 일으키니, 해마다 풍년 들고 백성들은 편안하였네.

영혼이 묘당에 있어 기뻐하고, 우리들에게는 대대로 복되게 하네.

계수나무가지를 꺾어드리고자 하니, 중화(重華, 堯)는 이미 돌아감을 애도하네.

공자(公子)를 생각하니 말을 못하고, 포구 끝을 바라보니 근심어린 구름뿐이다.

최진남의 기(崔鎭南記)

나는 을사년(현종 6년, 1665) 봄 2월에 이 고을의 통판(通判)으로 임명되었으나, 5월이 넘어서야 비로소 바다를 건널 수 있었다. 부임한 다음 날에 먼저 향교에 나아가 삼가 문묘를 알현하고 이어 충암선생묘(冲菴先生廟)를 참배할 때 배례하는 여가에 건물을 돌아보니, 세월이 이미 오래 되어 허물어지는 것을 면하지 못하였다. 또 그 터가 좁은데다가 성묘(聖廟, 文廟)의 신문(神門) 밖에 치우쳐 있으므로, 서원을 세워 학문을 닦는 곳으로는 실로 적합하지 않았다. 곧 옮겨 세울 뜻을 가지고 있었으나 합당한 터를 얻지

못하여 항상 마음이 개연하였다.

하루는 제생들에게 고강할 일로 인해 장수당에 갔다. 이른바 장수당은 곧 이회(李禧) 공이 이 섬을 안무(按撫)할 때 학생들을 위해 세운 것으로, 필경 이곳에 장수당을 창건하여 스승과 학생들의 강론 장소로 삼았다면, 어찌 지경이 으늑하고 넓은 것을 취한 것이 아니겠는가. 마침내 학생들을 가까이 불러 그들의 학업을 묻고 그들과 함께 뒷 기슭에 올라가 보니, 한라산의 정맥(正脈)이 춤을 추듯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며 뻗어 내려와 이곳에서 한데 어우러져 언덕을 이루었다. 아래로는 바다에 임하였고 옆으로는 맑은 시내를 끼고 있었다. 바람에 불리어 울리는 대나무 소리는 통소 소리처럼 상쾌하고 굴림(楸林)이 무성하여 요요적적 하였으며, 닭 우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맑고 시원한가 하면 텅 비고 넓어 실로 성(城) 안의 하나의 별천지였다. 이에 그 좋은 곳을 얻은 것을 기뻐하였다.

마침내 서원을 옮길 계획을 정하고 3년이 지난 정미(현종 8년, 1667) 봄 3월에 장인을 불러 모우고 계획한 대로 좋은 날을 택하여 집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때에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주리는데, 토목 공사를 일으키는 것은 오직 백성들만 병들게 할 것이 염려되었다. 그러므로 재목을 모으는 일은 왕래하는 상선(商船)에 양식을 지급하고 여러 섬에서 재목을 벌채하여 바다로 띄어오게 하였고, 일꾼을 모으는 일은 절제사 홍우량(洪宇亮) 공과 상의하여 영(營)·목(牧)에 번(番)을 서며 일정한 직업 없이 놀고 지내는 사람들을 가려내어 양식을 지급하고 고용하였다. 백성으로 이 공사에 나온 사람들은 고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겨우 한 달이 지나 공사를 마쳤다. 담이 둘러지고 단청과 옷칠을 하니 환히 빛났다.

신위(神位)를 옮겨 봉안(奉安)할 때에는 제기(祭器)와 탁상(卓床) 가운데 여러 해가 되어서 파손된 것들도 역시 고쳐서 새롭게 하였다. 이내 서원의 이름을 판자에 새기고 내걸어서 굴림서원(楸林書院)이라 하니, 대체로 그 곳에 굴림이 있는 데서 취한 것이다. 묘지기 14명을 모집하여 그들의 신역을 면제시켜 교대로 숙직케 하였다. 또 원장(院長) 1인, 유사(有司) 2인을 정하여 서원 내의 모든 일을 주관하게 하였다. 또 유생 중에 배울 만 한 자를 뽑아 따로 기록하여 원적(院籍)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어진 이를 존경하고 추향(趨向)할 바 있음을 알게 하였다. 무릇 유생 가운데 이 원록(院錄)에 들어있는 자는 명심하여 배우는 자의 도리를 다해야 하지 않겠는가.

아아! 선생의 사적은 만력(萬曆) 무인(선조 11년, 1578)의 건묘기(建廟記)²⁶⁰⁾에 간략히 기재되어 있으니, 오늘에 이르러 다시 거론할 필요는 없다. 다만 선생은 본 고을

260) 임제(林悌)의 '충암묘기(沖菴廟記)'를 말한다.

에 유배되자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변방의 특이한 풍속을 글을 읽는 고을로 크게 변화시킨 것은 무엇 때문인가. 선생의 덕이 지극하였기 때문이다. 뒷사람들이 공경하여 사모함이 그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에 서원을 옮겨 세운 전말을 간략히 기록하여 뒷날의 관망(觀望)에 대비하고자 한다.

권진응의 기(權震應記)

제주성 동성(東城) 굴원(橘園) 옆에 사묘(祠廟)가 있다. 바로 충암(沖庵) 김정(金淨), 규암(圭菴) 송인수(宋麟壽), 동계(桐溪) 정온(鄭蘊),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을 제사하는 곳이다. 다섯 선생은 혹은 관리로써 혹은 유배되어 전후하여 이 땅에 와서 거처하였는데, 비록 그때는 극도로 곤궁하면 다시 형통하게 되는 차이가 있었다고 하지만 섬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그 어진 덕은 한 가지였다. 섬사람들이 충암묘를 세우고 조정에 사액을 요청하자 굴림이라는 원호(院號)를 내리고 관(官)에서 그 제사에 관여하였는데, 뒤에 또 네 선생을 추가하여 제사지낼 것을 청하였다.

아아! 정덕(正德, 명나라 武宗의 연호) 기묘년(중종 14년, 1519)에 충암이 먼저 북문(北門)의 화²⁶¹⁾를 당하였고, 가정(嘉靖, 명나라 世宗의 연호) 정미년(명종 2년, 1547)에 규암(圭菴)이 또 벽서(壁書)의 화²⁶²⁾를 당했으며, 갑인년(광해군 6년, 1614)에는 서궁(西宮)의 변²⁶³⁾으로 동계(桐溪)가 10년 동안 귀양살이를 하였다. 병자년(인조 14년, 1636)의 천번(天飜, 병자호란)의 날에는 청음(淸陰)이 눈 덮인 움막에서 절의를 다해 대의를 밝혔고,²⁶⁴⁾ 우리 우암(尤菴) 선생과 같음은 주자(朱子)의 학문

261) 북문의 화는 조선 중종 때 남곤(南袞)이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밤중에 비밀히 경복궁의 북문인 신무문(神武門)을 열게 하고 들어가서 화를 일으킨 데서 온 말로, 기묘사화를 그 경로로 보아 일컫는 말이다. 『중종실록』 15년 4월 경오조 참조.

262) 벽서의 옥이라고도 하며, 명종 2년(1547) 양재역(良才驛) 벽서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옥사를 말한다. 을사사화의 한 여파로 정언각(鄭彦懋)이 발견하여 임금에게 올린 벽서에 “여자 임금이 위에서 정권을 잡고 간신 이기(李己) 등이 아래에서 권력을 농락하니, 나라가 망하는 것을 서서 기다리는 격이다.”고 하였다. 이로 인하여 권신 윤인경(尹仁鏡)·이기·정순봉(鄭順朋) 등이 빈청(賓廳)에 모여서 죄인의 성명을 거짓으로 적어 올려 봉성군 완(鳳城君 阮)·송인수(宋麟壽) 등은 사사되고 이언적(李彦迪)·유희춘(柳希春) 등은 유배되었다. 『연려실기술』 명종조고사본말 을사사화(附)정미 벽서지옥 참조.

263) 서궁의 변은 광해군 2년(1610)에 정온이 왕대비(인목대비)를 폐위하자는 논의의 부당성을 주장하다가 유배된 사건이다. 같은 해에 정온은 영창대군이 강화부사 정항(鄭沆)에 의해 피살되자 격렬한 상소를 올려 정항의 처벌과 당시 일어나고 있는 폐모론의 부당함을 주장하였다. 이에 광해군은 격분하여 이원익(李元翼)·심희수(沈憲壽)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온을 국문할 것을 명하고 이어 제주도에 위리안치하도록 하였다. 정온은 그 뒤 인조반정 때까지 10년 동안 유배지에서 학문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중국 옛 성현들의 명언을 모은 『덕변록(德辨錄)』을 지어 이것으로 자신을 반성하였다.

264) 김상헌이 청(淸)나라의 출병 요구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던 사건. 그는 인조 14년(1636) 예조 판서로 있을 때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주화론을 배척하고 끝까지 주전론을 펴다가 인조가 항복하자 안동(安東)으로 은퇴하였으며, 인조 17년(1639)에는 청나라가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요구한 출병을 반대하는 상소를 하였다가 청나라에 압송되었다가 6년 뒤

을 강의하고 그 뜻을 밝혀 강상(綱常)의 중요함을 짚어졌으며, 척사부정(斥邪扶正)으로 소인(小人)의 무리에게 원수로 질시되어 끝내 기사(己巳)의 화²⁶⁵⁾를 당하였다. 군자가 하늘[聖君]을 만나지 못한지도 오래되었다. 다섯 선생은 시종 액을 당할 운명이었으니, 아아! 슬픈 일이다.

나는 신묘년(영조 47년, 1771) 봄에 말 한 마디가 죄가 되어²⁶⁶⁾ 대정현에 위리안치 되었다가 이미 풀려난 뒤에 개연히 그 유적을 찾았으니, 우옹(尤翁)의 적려지(謫廬址)이다. 드디어 비석을 세우고 비문을 새겼다.²⁶⁷⁾ 이른바 판서정(判書井)에 이르러서는 충암의 옛 자취를 살펴보고았는데, 그 나머지는 아는 사람이 없었다. 굴림사(橋林祠)를 참배하고 물러나와 제생(諸生)에게 말하기를, 오직 이 다섯 선생의 족적이 이른 문정(門庭)이 각기 다르다고 하지만, 요컨대 모두가 하늘의 이치를 밝히고 인심을 바로 잡아 사문(斯文)에 공이 있었다. 하물며 푸른 바다 수천 리 밖에서 나란히 자취를 남기고 함께 한 사묘에 봉향(奉享)된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다. 본도(本島)는 고·양씨(高良氏) 이후부터 인문(人文)이 갖추어지지 못했으니, 어쩌면 하늘의 뜻이 여러 선생으로 하여금 이곳을 다스리고 가르쳐서 마치 기사(箕子)가 조선에 와서 했던 것²⁶⁸⁾과 같이 하고자 하였을지도 모른다. 이제 섬사람들이 강상(綱常)이 있음을 알게 된 것은 나는 저 다섯 선생의 힘이라고 알고 있으니, 섬사람들은 언제까지나 잊지 아니하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다.

옛날에 주공(周公)이 동방(東方)에 있을 때, 그곳 동인(東人)들은 구역(九域)의 시를 읊었고, 소공(召公)이 남방(南方)을 다스릴 때 그곳 남방 사람들은 감당(甘棠)의 시를 읊었다.²⁶⁹⁾ 이제 섬사람들이 암송하고 복종하는 유풍이 또한 주(周)나라 사람에게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어진 은택이 자연스레 사람들을 감동시킨 것 같이 예와 지금이 다르지 않는 것은 나 또한 그 누가 시켜서 그러했는지를 알지 못하겠다.

에 풀려 귀국하였다.

265) 기사의 화는 조선 숙종 15년(1689) 기사일에 소의(昭儀) 장씨(張氏) 소생의 아들을 원자로 삼으려는 숙종의 뜻에 반대한 송시열(宋時烈) 등 서인 일파가, 이를 지지하는 남인 일파에 의하여 화를 당한 사건을 말한다. 『숙종실록』 22년 2월 계사조 참조.

266) 권진웅의 자는 형숙(亨叔), 호는 산수헌(山水軒)이며 경상도 안동 사람이다. 그는 시강원(侍講院) 자의(諮議)로 있을 때 시사(時事)에 관한 상소문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탕평책에 적대되는 것이라 하여 제주 대정현에 유배되었다. 배소는 지금의 안덕면 창천리 강필발(姜弼發)의 집이며(이곳을 滄洲精舍라 하였다.) 여기서 그는 지방 유생들을 교화시켰다.

267) 제주시 이도 1동 1421번지 오현단(五賢壇) 안에 있다.

268) 기사는 중국 은(殷)나라의 현인(賢人)으로, 주(周)나라의 무왕(武王)이 은나라를 멸하자 서기전 1100년 경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기사조선(箕子朝鮮)을 세웠다고 한다.

269) '구역의 시'는 『시경(詩經)』 빈풍(邠風)에 나오는 시로, 잠시 머물고 떠나는 귀인에 대한 섭섭한 정을 노래한 것인 듯하다. 그런데 『모서(毛序)』에는 대부(大夫)들이 주공(周公, 이름은旦)의 덕을 칭송하고 이를 맞이들이고자 하는 노래라 하였고, 주자(朱子)는 동방 사람들이 주공이 떠나지 말기를 바라는 뜻이라 하였다. 본문에서는 주자를 따르고 있다. '감당의 시'도 『시경』 소남(召南)에 나오는 시로, 소공(召公)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그가 쉬어 간 일이 있는 감당나무를 아끼며 부른 노래다. 중국 섬서성 위수 북쪽에 소(召)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무왕(武王)의 친척이며 공신인 희석(姬奭)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를 소공이라 불렀다. 그리고 이 소공의 교화가 위수 남방에 미쳐 이런 노래들이 불려진 것이라고 한다.

사묘가 오래 되어 무너졌는데도 고을 선비들의 힘이 피폐하여 수리할 수가 없었다. 내가 장보(章甫)들에게 권하여, 여러 군부(郡府)에 서신을 발송하여 재물을 요청케 하고, 임진(영조 48년, 1772) 10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다음해 2월에 마치니 윤환(輪奐)이 일신되었다. 다섯 선생을 크게 제향하는 장소가 이로부터 폐해지지 아니함을 바랄 수 있을 것이다. 서원의 유생들은 내가 이 공사에 관여하였음을 듣고 나에게 그 일을 기록하도록 청하였다. 양세현(梁世絢) 목사가 실제로 이 공사를 주관하였고, 서원의 유생 정태로(鄭泰老)·강봉서(姜鳳瑞)가 처음부터 끝까지 공사를 감독하였다고 한다.

장수당(藏修堂) 【제주성 남과원(南果園) 동쪽에 있다. 현종 경자년(원년, 1660)에 이회(李禧)가 처음 세웠는데, 지금은 굴림서원 강당이 되었다.】

이회의 기(李禧記)

무술년(효종 9년, 1658) 봄에 제주 목사의 자리가 비자 효종대왕은 “해외의 창생(蒼生)이 조정의 은택을 입지 못하고 있다.”라고 깊이 염려하고, 대신들에게 명하여, “문관(文官) 중에서 택하여 천거하라.”라고 하자, 대신들은 회(禧)에게 명령을 받도록 하였다.

나는 같은 해 4월에 고을에 도착하였는데, “임금의 덕화(德化)를 선양하고자 하면 학교를 일으키는 것만 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선 삼읍의 교생을 모아 고강(考講)하였더니, 손수 농사를 짓는 여가를 틈타 「사서(四書)」·「소학(小學)」을 읽어서 음독(音讀)과 훈석(訓釋)에 통하는 자가 많았다. 그 글 읽는 소리가 맑고 명랑하며 기질이 밝고 뛰어난 자로 20인을 뽑아 관(官)에서 책과 양식을 지급하고 초옥 6칸을 향교 옆에 지어서 그들로 하여금 머물러 살게 하였다. 또 일찍 경서를 읽은 자를 차출하여 훈장(訓長)²⁷⁰⁾으로 삼아 이들을 가르치게 하였다. 나도 매월 삭망에 몸소 더불어 강론하고 그 능부(能否)를 상벌하니, 사람들이 모두 스스로 분기하여 궤궤한 흉년에도 대단한 병고(病苦)가 있지 아니하면 감히 물러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와 같이 한 지 2년이 되자 20인 중에서 혹자는 사서 일경(四書一經)을 읽고, 혹자는 사서 이경을 읽는가 하면, 혹자는 사서삼경(四書三經)을 익히 암송하니, 비록 양남(兩南, 경상도와 전라도)의 문사(文士)로 평소 문학(文學)에 종사한 자라 하더라도 이에 더할 나위가 없었다.

270) 훈장은 일반적으로 서당의 교사를 지칭하기도 하나, 여기서는 학장(學長)·사장(師長)과 같은 의미로 씌어졌다. 순조 30년(1830) 10월 이예연(李禮延) 목사 때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각면훈장설치절목(各面訓長設置節目)』에 의하면, ‘卽開 各面訓長設置 在於故洪尙書按州之日 而中間廢而不行云’이라 하여 홍(洪) 상서(尙書)가 제주를 다스릴 때에 각면(面)에 훈장을 설치했다고 하였으나 그 정확한 연대를 고증하기가 어렵다.

토민(土民)인 진사 김진용(金晉鎔)은 여러 번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합격하지 못하고 식년(式年) 강경(講經)의 연획(連劃)²⁷¹⁾으로 참봉(參奉)에 보임(補任)되었으나 벼슬을 사양하고 농병(農病)으로 스스로 세상을 피하여 산야에 운둔한 자이다. 그는 옛 사람의 글을 많이 읽었으므로 좌수로 삼았다. 나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김진용이 나를 찾아와 말하기를, “사도(師道, 使道)께서는 부임한 이래로 제생들을 불러 모아 권과(勸課)함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제생이 또한 쫓아 교화되고 힘써 배워서 문학이 크게 변했으니, 덕(德)을 크게 입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와 같이 해놓고 버리고 돌아간다면, 제생들은 다시 의지하여 귀의할 곳이 없어 모두가 배움을 포기하고 돌아가 농사를 짓게 될 것이니, 어찌 애석함이 크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내가, “어찌하면 좋겠느냐.”라고 하자, 김진용은 말하기를, “주성(州城) 남쪽에 폐허가 된 집터가 하나 있는데, 예전에 판윤(判尹)을 지낸 고득중(高得宗)의 옛 집터입니다. 고(高) 판윤의 두 아들이 모두 문과에 급제하여 조정에 그 이름을 날리니, 평소 명당으로 일컬어졌습니다. 만약 이 곳에 두어 칸 집을 지어 책을 읽고 학문하는 곳(藏修)으로 삼고 얼마간의 책과 양식을 마련해 주면,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훌륭한 일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므로, 김진용과 함께 가서 살펴보니, 한라산의 정맥이 꾸불꾸불 북으로 달리다가 한데 어우러져 언덕을 이루었다. 앞에는 큰 바다가 임하여 좌우를 품고 있으니 명당이라 하는 것도 과연 빈말은 아니었다.

이에 장인을 부르고 재목을 모아 학사(學舍) 12칸을 짓고 장수당(藏修堂)이라는 편액을 내걸었다. 동몽(童蒙) 15인을 더 뽑아서 앞서의 20명에 더하여 합치니 35명이 되었다. 또 본 고을에는 적곡(糶穀)의 3분모(三分耗)²⁷²⁾가 있는 외에, 또 300섬의 모곡(耗穀)을 회록(會錄)하는 일이 있으니, 곧 다른 고을에는 없는 일이다. 그 연유를 조정에 문서로 보고하고 감해 줄 것을 요청하여, 거주하며 공부하는 학생들의 양료(糧料)로 삼게

271) 연획(連劃)은 시험성적을 표시하는 방법의 하나로, 1획·2획의 순으로 표시하였다.

272) ‘적모 3분모’의 적모는 곧 환곡이며 3분모는 환곡의 이자, 즉 모곡(耗穀)이다. 원래 모곡은 비모(費耗), ·서작모(雀鼠耗)라고도 불렀듯이 그 수취가 환곡에 대한 소정의 이자라기보다는 원곡(元穀)을 보관하고 출납할 때에 생기는 자연적인 소모를 보충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 액수는 시기에 따라, 혹은 환자(還上)하는 기관에 따라 각기 달랐는데, 조선 초기 의창(義倉)에서는 1섬에 3되를, 사창(社倉)에서는 3말을, 군자곡(軍資穀)의 조적(糶糶)에서는 4말을 각각 수취했었다. 그러다가 성종 때 사창이 폐지되고 의창과 군자곡의 모미(耗米)도 수취하지 못하게 하자, 이들 미곡의 조적을 담당 관리하는 수령들이 그 원곡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곡을 회수할 때 대출량의 10분의 1을 모곡으로 징수하는 관례가 생기게 되었고(이를 1分耗라 한다), 나아가 명종 때에 이르러는 이를 공식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모곡의 일부를 재정에 흡수하는 회록법(會錄法, 회록이란 수입으로 하여 회계에 드는 것)을 시행하였으니, 명종 9년(1554)에 제정된 호조(戶曹)의 일꾼모회록(一分耗會錄) 즉, 모곡의 10분의 1인 1섬당 1되 5홉을 호조에서 받아 사용케 하는 제도가 그 효시였다. 이러한 회록법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며 재정이 궁핍하여지자 더욱 확대되어 모곡의 10분의 3을 더 받아쓰게 되었고[三分耗會錄], 뒤이어 정부의 각 기관들에게도 원곡을 설치하여 그 모곡의 일부를 수령에게 받아 경비에 쓰게 하였다. 이리하여 조선 후기에는 각 관부의 경비가 대부분 이에 의존하는 실상을 이루어 이른바 환정(還政)의 폐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제주도의 경우, 이러한 삼분모회록 제도가 언제부터 생겨났는지는 고증할 길이 없으나 그 모곡 가운데 약 3백 섬을 회록하고 있었던 것이며, 결국 이 3백 섬을 조정에 아뢰어 거학(居學)의 양료(糧料)로 대체코자 한 것이다. 민족문화추진회, 『우서』(2) 1989. p. 57.

하였다. 또 그것으로도 부족할 것을 염려하여 콩[太] 150섬, 밭벼[田米] 50섬, 보리[牟] 50섬, 목면(木綿) 2동(同)을 변통하여 지급하고, 배 한 척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육지에 나아가 계속하여 양식을 사들이게 하였다. 유사(有司) 두 사람을 차출하여 그 일을 주관하게 하고, 창시(創始)의 본말을 간략하게 기록한다.

용주 조경의 기(龍洲趙綱記)

탐라는 남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 땅은 사방이 4백 리이고 두 현(縣)이 예속되었으니, 자그마한 제후국(諸侯國)의 하나라고 할 만하다. 우리 태종(太宗)²⁷³⁾ 때부터 성주(星主)가 참월하던 내토(內土)를 버리고 영토를 바쳐 마침내 항복하자 주(州)로 삼고 관리를 두어서 다스렸다. 그 지역의 먼 것과 주민의 많은 것과 육해의 은성함과 체통의 존귀함은 여러 고을에서 이와 같은 곳이 없었다. 다만 수천 리의 험한 파도를 건널 때에 그 수재(守宰)된 자가 모두 낙심해 하며 부들부들 떨며 두려워하고, 이리가 뒤를 돌아보듯 몹시 두려워서 숨을 죽이며 살 수 없을 것같이 여긴다. 그러나 부임함에 이르러서는 연회와 오락이 아니면 곧 주구(誅求)로 일삼는다. 이로 말미암아 제주 백성들은 세상에 유례없이 문명의 덕화를 입지 못하였다.

효종 9년(1658)에 연성(延城) 이후(李侯)로 제주 목사를 삼았는데, 후(侯)는 아침에 명령을 받고 저녁에 출발하면서도 난색해 하는 낌새가 없었다. 대체로 후(侯)는 운수가 좋을 조짐의 부서(符書)를 새롭게 풀이하고 돌아가니, 자리가 따듯해질 겨를이 없다. 재주 없는 내가 이 소식을 듣고 부러워하며 말하기를, “동서남북에 무슨 일이나 오직 명령대로 따르는 자는 후(侯) 그 사람뿐이다.”라고 하였다. 후(侯)는 바다를 건넌지 3년이 지나자 재주 없는 나에게 서신을 보내어 다음과 말하였다.

“내 비록 미련한 사람이지만 서울을 떠나던 날에 삼가 임금님이 내린 교서를 읽어 보니, ‘학교를 일으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였었다. 내가 삼가고 두려워하며 처음으로 공무를 보았는데, 문무의 빈속(賓屬)과 두 현감·교수·장고(掌故)·기석(耆碩)·유류(儒流)가 다 있었다. 내가 말하기를, ‘학교는 왕정(王政)의 근본이다. 나는 왕명을 받고 이 땅을 맡아 다스리는데, 만일 왕정의 근본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스린다면 죄를 뒤집어씌운다 하더라도 그 구실을 찾을 수 있겠는가.’ 내가 이 고을 인사들을 관찰해 보니, 치아가 어긋나고 뺨과 아래턱이 쪼으며 입술이 드러나고 백발이며 장신이어서 서울과 다른 점이 별로 없다. 그런데 공거(公車)의 선발이 어찌

273) 태종은 헌묘(獻廟)를 번역한 것이다. 일부 번역문에 헌묘를 태조로 번역한 것이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 태조의 묘호(廟號)는 태묘(太廟)이다. 헌묘에 대해서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도 자주 나온다.

해서 이렇게 적은가. 진실로 어부나 상인의 이득을 조금씩 먹어 들어가는데 빠져들어 떨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아니면, 굽은 활을 발로 밟고 당겨서 속히 바로잡으려고 하다가 돌이키지 못한 것은 아닌가. 아니면, 고을을 다스리는 자가 공령(功令)을 널리 장려하는 방도를 잊었던 것인가.’라고 하니, 자리에 앉아 있던 진사 김진용이 일어나 대답하기를, ‘합하(閣下)의 말이 모두 옳습니다. 시골 사람은 꺼리어 싫어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고을은 비록 벽지라고 하지만 한라산이 진산(鎭山)이 되고 옥을 품은 바다로 둘러싸여, 빛나는 영예와 상서로운 기운이 다섯 가지 색채로 서로 어우러지는데, 단사(丹沙)·석영(石英)·귤유(橘柚)·주수(珠樹)·한혈마(汗血馬)와 같은 것들을 홀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인재의 배출을 유독 산물(產物)에 양보하겠습니까. 지난날에 고씨(高氏)의 부자형제가 문학과 명위(名位)로서 찬란하게 빛났던 것이 여러 세대인데, 진실로 그 연유를 구명해 보면, 이유의(李由義)와 최해산(崔海山)이 학교를 세우고 학문을 일으켜 가르친 때문이었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도지개 옆에는 굽은 나무가 없다.’고 하였으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뒤에는 그렇지 아니하여 임금의 근심을 나누는 수령으로서 대개는 무예가 있고 장건하며 엄하고 혹독했던 자가 열 가운데 그 반을 차지하였습니다. 간간이 문신 관리가 파견되었지만 대부분의 무지한 제주 사람들은 무를 숭상하고 문을 업신여깁니다. 이제 천행으로 합하께서 크게 한숨 쉬며 탄식하고 학문을 일으키는 은혜를 입었으니, 참으로 새끼 개미가 어미 개미의 하는 짓을 본 따서 쉬지 않고 흙을 날라 마침내 개미 둑을 쌓는 것처럼, 사람도 항상 성현의 가르침을 명심하고 그 지덕을 닦아 대성할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선비를 양성하고자 하면 학사(學舍)가 없을 수 없고, 학사를 세우고자 하면 그 적합한 장소를 고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향교 서쪽에 있는 과원 동쪽에 적합한 땅이 있는데, 곧 예전에 한성 판윤(漢城判尹)을 지낸 고득중(高得宗)의 옛 집터입니다. 고씨의 가족이 모두 벼슬길에 올라 서울로 이사하고 그 땅은 공지로 변했습니다.”

나는 기뻐하여 드디어 김진용을 데리고 그 터를 조성하니, 그 터는 한라산의 정맥에 웅거하여 앞이 탁 트여 밝고 넓었으며, 장소가 으늑하고 지세가 높은가 하면 성(城)과 이웃하여 지경이 조용하였다. 북으로는 큰 골짜기에 임하였는데, 물의 끝을 볼 수가 없어서 배우는 사람들은 큰 물결을 보게 될 것이니, 이곳을 버리고 어디가 적합하며, 좌우의 학교인들 무엇이 이보다 더하겠는가. 이리하여 학사를 짓기 시작하였는데, 김진용으로 하여금 그 일을 주관하게 하였다. 재목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고 물으니, 산에서 벌채하고 바다로 띄워 와서 이것을 자재로 사용할 것이라고 하였고, 기와는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고 물으니, 질그릇을 만드는 점토가 이지러지지 아니하므로 이것을 사용할 것이라

고 하였고, 일꾼은 어떻게 동원할 것이냐고 물으니, 노는 사람을 고용할 것이라고 하였고, 벽 바르는 사람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고 물으니, 흙손을 사용하는 자가 온다고 하였다. 공사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못되어 마룻대와 들보·문지도리와 문지방이 각각 제자리를 찾아 눈앞에 우뚝 솟으니, 상쾌히 거문고를 타며 시를 읊는(학문에 힘쓰는) 장소가 되었다. 공사를 마치자 나는 외람되이 그 학사에 이름을 붙여 장수당(藏修堂)이라 하였다. 대체로 『예기(禮記)』 학기(學記)에 ‘배운 것을 마음에 간직하여 이것을 익히고 실천하며, 멀리 유람하여 건문을 넓히고 쉬면서 힘을 기른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고을 인사로는 고협(鼓篋, 학생)과 봉액(縫掖, 유생)은 말할 것도 없고 아래로는 이노(里老)·저수(杼首)·전준(田畯, 농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감탄하고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이것은 우리들 백년에 아직 들어보지 못한 성대한 일입니다. 어쩌면 성인(聖人)이 위에서 화육(化育)하여 피아(彼我)의 차별 없이 똑 같이 사랑하는 덕화(德化)를 넓히는 데 내외가 있을 수 없음을 우리 후(侯)께서 이를 계승하여 선양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나는 이에 고을 사람들이 성인이 정한 규칙에 순응하는 것을 줄길 것이다. 그러니 역시 강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삼읍의 교생과 유생으로 하여금 책을 끼고 강의에 응하게 하되, 그 중 가장 뛰어난 자로 20인을 선발하였다. 또 유자(孺子, 어린 아이) 중 가르칠 만한 자로 16인을 선발하고 매월 초하루보름에 내가 반드시 관대를 하고 유생들이 강(講)하는 것을 들어서 그 능부를 상하로 평가하여 선을 권장하고 악을 뉘우치게 하니, 사람들이 각각 스스로 삼가 힘쓰고 배를 조리면서도 글 읽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1년이 되기도 전에 경서(經書)를 배로 읽은 자가 열에 6~7명이나 되었다. 나는 또 사서·삼경·소학·통감 등으로 분별하였는데, 권질(卷帙) 모두를 혹은 열 번, 혹은 아홉 번, 혹은 네 번이나 읽은 자는 이에 책이 없음을 걱정하지 않았다. 나는 또 학업이 “윤문(尹文)이 다섯 되는 법만 마련되면 오래 굶주려도 충분하다.”는 고사(古事)를 본받을 수 없을까 염려하였다. 또 본전이 될 늪미(廩米)를 상의하여 비치하고, 관저미(官儲米) 수백 섬을 떼어 내어 학량(學糧)으로 충당하였다. 큰 거룻배 한 척을 제하여 학사로 이적(移籍)하고, 재물을 저축하였다가²⁷⁴⁾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 또 이것으로도 부족할 것을 염려하여 오래도록 이어나갈 조처를 마련하려고 왕에게 건의하여 ‘사용하지 않은 군식(軍食, 軍資穀) 3백 섬을 나누어서 학문에 힘쓰는 학도들을 넉넉하게 하겠다.’고 요청하자, 왕이 이에 따랐다. 이윽고 임기가 만료되어 제주를 떠날 날이 며칠 남지 않았을 때, 김진용이 나에게 느닷없이 말하기를 ‘세상의 일에는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라고 하자, 모두가 한 마디 하기를 ‘문옹(文翁)이 촉(蜀)을 유학에 의한 교화로써 다스리니 잠총(蠶叢, 蜀)이

274) “재물을 저축하였다”는 ‘廢居’를 풀이한 것이다. 본 『담라지초본(耽羅誌草本)』에는 ‘廣居’로 되어 있으나 『용주유고(龍洲遺稿)』에는 ‘廢居’로 되어 있으므로 바로잡는다.

실로 문헌의 나라가 되었고, 자후(子厚, 柳宗元)는 유주(柳州)의 자사(刺史)가 되자 손가락으로 그려 보이며 친절히 가르쳐 문사(文詞)를 이루었다. 형산(衡山)과 상수(湘水)에서는 진사(進士)에 천거된 자가 많았다. <문옹과 자후> 두 사람이 능히 변방 사람의 풍속을 바꾸었는데, 지금까지 간책(簡策, 서적)이 전해 온다. 하물며 우리 후(侯)께서는 학궁(學宮)을 세워서 글 읽는 습속을 진작시켰고 전곡(錢穀)을 넉넉히 하여 가난한 선비를 양성하였다. 기타 정사(政事)인들 후(侯)를 대면하여 말 같은 것을 주고받을 여지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나는 머뭇거리며 감당할 수 없어서 말하기를, ‘나의 정사가 어찌 옛 사람에게 미칠 수 있겠는가.’ 하니. 김진용 등이 또 말하기를, ‘장수당의 모습을 어찌 문식 없이 금후에 볼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합하께서 한 마디 남겨주신다면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령 친아버지가 자식을 중매하는 것을 혐오하는 것처럼 원하옵건대, 서울로 가시더라도 옛일을 돈독히 하여 능히 바른 말을 할 사람을 위촉케 하십시오.’라고 하니, 나는 여러 사람의 뜻을 멀리하지 못하였다.

얇고 작은 종이에 글자를 쓰는 것이 집사에게 누가 되지 않겠는가. 집사는 나와 교유한 것을 어찌 욕되게 하겠으며, 또한 이번의 일을 어찌 사사로이 하겠는가. 실로 임금님의 전교(傳敎)를 해빈에 선포하는 것은 진실로 군자의 낙도(樂道)인 것이니, 집사는 쓸데없이 사양하지 마십시오.”

아아! 재주 없는 내가 붓과 벼루를 불태운 지 오래다. 돌아보건대, 일찍이 백성을 교화하여 훌륭한 풍속을 이루었다는 말을 개연히 여겼는데, 아직도 가슴속에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 남아 있다. 결국 조그마한 명성으로 반복하여 말하면, 젊었을 때 『동국여지지(東國輿地誌)』²⁷⁵⁾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 기록에 ‘제주의 풍속이 어리석고 검소하며 예양이 있다.’고 하였다. 예양은 진실로 공궤(孔軌)의 한 맥이고 검소한 것은 단릉씨(丹陵氏, 堯임금)의 유풍이 아니겠는가. 제주는 특히 바다 밖에 있어서 아득히 티끌세상과 서로 더함이 없고 혼돈이 아직 뚫리지 아니하고 소박함이 흠어지지 않아서 그러한 것인가. 스스로 그러하지는 아니한 것이다. 대체로 누군가가 말하기를, ‘아버지와 스승, 인자와 현자의 교화가 단지 서쪽에만 미치고 동쪽에는 밀려오지 아니한 것인가. 하물며 아조(我朝)의 임금님들이 서로 계승한 덕이 해외에 미친 지 현재 3백년에, 제주 백성 가운데 하루라도 느닷없이 교화를 따르지 않는 자가 있었는가. 쉬이 부릴 수 있는 백성이라 할 것이다. 이제 후(侯)가 제주를 다스림에 진실로 순풍이 불었다. 그러나 제주의 유생들로 하여금 그 이목을 새롭게 하여 시·서(詩書)의 가르침을 좇아 목이 마르면 물을 찾는 것처럼 기필코 후(侯)가 학교를 돈독히 한데서 시작되지 않은 것이 없으니, 그 공이 어찌

275) 『동국여지지(東國輿地誌)』는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을 가리킨다.

■ 耽羅誌草本(上)

백성을 다스리고 풍속을 바꾼 것에 그칠 뿐이겠는가. 후(侯)의 이름은 회(禧)요, 자는 자방(子方)이다. 삼사(三司)의 관직을 두루 역임하고 비복(緋服, 堂上官의 관복)을 하사 받아 백성을 다스린 지 여러 해이다. 모두 대단하다는 소문이 있었다. 김진용은 근엄함이 조덕(趙德, 唐의 進士)과 한결같으니, 적의함을 본받아 함께 기록해 둔다.

상현사(象賢祠) 【굴림서원 곁에 있다. 평정공(平靖公) 이약동(李約東), 만오(晩悟) 이회(李禧)의 위패를 모시기 위해 현종 기유년(10년, 1669)에 세웠다. 병와(瓶窩) 이형상(李衡祥), 노봉(蘆峰) 김정(金儼)은 순조 기묘년(19년, 1819)에 추향되었고, 참봉(參奉) 김진용(金晉瑑)은 신묘년(순조 31년, 1831)에 추향되었다.】

이원조 기(李源祚記)

제주의 굴림서원 옆에 있는 사묘(祠廟)에는 앞뒤하여 제주목사가 되어 선정(善政)을 베풀었던 사람들을 배향하고 있다. 나는 제주영(濟州營)에 부임하였을 초기에 먼저 굴림서원을 배알하고 뒤에 사묘를 참배하였다. 이때 고을 사람들에게 간곡하게 말하기를, “평정공(李平靖公) 이약동(李約東)은 곤궁하면서도 지조를 지키고 백성들을 잘 어루만졌다. 그는 돌아갈 때 갑옷을 〈바다에〉 던지고 채찍을 〈관아의 기둥에〉 걸어놓았다. 만오(晩悟) 이회(李禧)는 처음으로 유교를 일으켰고 장수당을 창건하여 학문을 일깨웠으니, 지금의 굴림서원 강당이 곧 그것이다. 섬 풍속이 귀신을 숭상하고 부처에 절을 하며 명복을 빌었으므로 음사(淫祠)와 범우(梵宇, 佛舍)가 섬 전역에 산재하였다. 병와(瓶窩) 이형상(李衡祥)이 추려내어 휘철시키고 크게 개벽시키니, 비로소 풍속이 바로 잡혔다. 노봉(蘆峰) 김정(金儼)은 성심으로 백성을 사랑하여 삼천재(三泉齋)를 세웠고, 백성들을 동원하여 화북포(禾北浦)에 방과제를 쌓았으니, 뱃사람들이 입은 은혜와 공덕은 더욱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이다. 제주 사람 김참봉(이름은 진용)은 만오공이 목사로 있을 때에 조주(潮州)의 조덕(趙德)²⁷⁶⁾이 되었으므로 추후에 사묘에 올려 함께 봉향하였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들 4현은 모두 동향(桐鄉)의 사랑이 있으므로 초향(蕉享)의 대열에 오르는 것이 마땅하나, 지방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대(世代)로써 정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였다.

향인(鄉人)들이 모두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바로 잡을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276) ‘유주(柳州)의 조덕(趙德)’의 유주는 조주(潮州)의 착오이다. 조덕은 중국 당나라 해양(海陽) 사람으로, 조주의 자사(刺史)가 된 한유(韓愈)가 조덕을 초청하여 해양 현위(縣尉)의 아관(衙官)으로 삼고 오로지 학사(學事)에 전념케 하였는데, 이때부터 조주 선비들의 문학과 행실이 독실하였다고 하며, 당시 사람들이 그를 천수(天水)선생이라 하였다고 한다.

또 말하기를, “서원과 사당은 경중의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별사(別祠)에 서원의 이름을 붙이거나 제주 목사를 지낸 사람을 향현(鄉賢)이라 하는 것은 시종 미안한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니, 고을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그러하오나 이들을 존경하는 것은 사정이 각기 다르고 특히 어리석어 미처 틈을 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여러 사람에게 물어서 편액(扁額)을 상현사(象賢祠)라 하여 게판(揭板)하니, 여러 유생들이 나에게 그 사실을 기록하도록 요청하였다. 나는 웃을 여미고 다시 말하기를, “사현(四賢) 중에 영남(嶺南) 출신이 셋이니, 혹은 향정(鄉井, 同鄉)으로써 혹은 사계(事契, 情誼)로써 평소 우리러 사모하였던 바다. 지금 이 고을에 와서 외람되이 여러 선배의 뒤를 쫓아 어리석고 무능함을 크게 걱정하여 학문을 일으키고 풍속을 바로잡아 궁핍한 백성들을 이미 풍요하게 만들었으니, 네 사람에 대해 무슨 말로 채워야 할 것인 지, 고을 사람들의 요청이 그치지 않으니, 이를 쓰는 뜻을 부끄럽게 여긴다.”라고 하였다.

삼성사(三姓祠) 【동성 안에 있다. 숙종 임오년(28년, 1702)에 목사 이형상이 창건하였다. 양·고·부(梁高夫) 삼을나(三乙那)를 제사지냈다. 성주(星主) 고후(高厚), 왕자(王子) 고청(高淸), 도내(徒內) 고계(高季, 失名) 등을 배향(配享)하였다. 정조 을사년(9년, 1785)에 사액하였다. 장의가 1인, 유사가 2인이다. 순조 계미년(23년, 1823)에 목사 이원팔(李元八)이 따로 접생 10인을 두었다. 그 뒤에 삼천서당(三泉書堂)에 합쳤다.】

이형상의 상량문(李衡祥上樑文)

어여차! 자(子)·축(丑)·인(寅)의 원회(元會)가 각기 다르니, 천황(天皇)·지황(地皇)·인황(人皇)이요, 공(功)·덕(德)·절(節)에 보답할 세 가지가 있으니, 상사(上祀)·중사(中祀)·하사(下祀)이다. 예전부터 이 사전(祀典)을 중히 여겼으니, 진실로 이제야 이 사묘를 세우게 되었다.

오직 우리 영주(瀛洲)는 삼신산(三神山)의 하나이고 구한(九韓) 중의 넷째이다. 폭원(幅員)이 4백 리에 별자리는 저(氏)와 심(心)의 중간을 가르고, 수로(水路)가 6천리에 땅은 소주(蘇州)와 항주(杭州) 밖에 접하였다. 문적이 없어서 탁라(毛羅)가 어느 곳인지 고증할 수는 없으나 인물이 상생(相生)하고 있는 이것이 내력이다. 오직 모흥혈(毛興穴)이 있는데 이것이 입으로 와전된 것이다. 땅에서 양(良)·고(高)·부(夫)가 솟아났다는 것은 설사 기화(氣化)의 이치로 징험할 수 없지만 백(伯)·중(仲)·계(季)로 나누어진 것은 또한 사리와 이치가 그리 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석함(石函)의 세 자매를

배필로 삼은 것은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마는 망아지·송아지와 오곡이 반드시 여기에서 나왔음은 상상이 된다. 그림으로 전하는 칠성(七星)에서 도읍(都邑)을 정한 경계를 볼 수 있고 평을 받치러 세 번이나 통역(通譯)했으니²⁷⁷⁾ 탐라(耽羅)라는 이름이 칭해질 만하다. 이들이 모두 도민(島民)들에게는 비조(鼻祖)가 되는데 어찌 후손으로 묘제(墓祭)를 늦추겠는가. 티끌에 묻힌 삼성혈 옆에는 돌로 만든 신단(神壇)이 있다고 하지만 구름에 쌓인 곽외(郭外)의 밭에 어찌 사우(祠宇)가 없겠는가. 만일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황야의 향불이 처량할 것이니 어찌 감히 잊겠는가. 한길에서 듣고 보아 얻은 지식으로 매물된 고령(高齡)의 대지(大地)를 바라보니 독생(篤生)의 옛터가 가까이 있다. 중의(僉議)에 물어 허물이 없으니 소문을 듣고 일어서는 자 많았고, 음사(淫祠)를 철거하고 공사를 재촉하니 며칠 안 되어 완공되었다. 동경(東京, 경주)에 묘우(廟宇)를 세운 것은 오로지 혁거세(赫居世)를 제사하기 위함이고 남한(南漢)에서 유상(遺像)을 바라본 것은 온조(溫祚)를 위한 사당이다. 어찌 이것이 한낱 일도(一島)의 사론(土論)이겠는가. 그 의의를 거슬러 올라가면 감동이 일어나고, 나아가서는 또한 세 고을 백성들의 뜻이 그 근본을 알아 성의를 다함이다. 이것이 이른바 시조묘(始祖廟)의 창시이니, 누군가 육위(六偉)의 노래를 부름이 당연하다 하지 않겠는가.

들보를 동쪽으로 던져라. 붉은 해 솟아오른다. 바다 동쪽에 연원을 거슬러 보답할 뜻 생각하매, 이 세상 어떠한 물이라도 동쪽으로 흐른다.

들보를 서쪽으로 던져라. 저녁노을 비스듬히 강당 서쪽을 비친다. 삼천의 약수(弱水)가 눈을 피로케 하는데, 서왕모(西王母)는 언제 다시 잔치를 베풀까.

들보를 남쪽으로 던져라. 자자한 향명(香名)이 북두(北斗)의 남쪽에 있다. 천 길의 한라산이 우뚝 서 있어 전일의 풍화가 주남(周南)에 있었음 생각한다.

들보를 북쪽으로 던져라. 망망한 대해 북을 향해 울부짖는다. 화탈(火脫)은 멀리 추자(楸子)에 연이었으니, 마치 성수(星宿)가 북두에 돌린듯하다.

들보를 위로 던져라. 밤마다 정기가 산위 달에서 빛나니, 약 캐러 온 진(秦)의 동자들이 간 곳을 묻지 마라. 이 가운데 가기(佳氣)가 아침마다 오른다.

들보를 아래로 던져라. 겹쳐진 구름과 푸른 기운이 모두 따라 내려온다. 신산(神山)의 우뚝한 파도소리 울먹이고, 의기(義氣)는 천추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엎드려 원하옵건대, 상량한 뒤로 백성은 근본에 보답함을 알고, 선비는 나아갈 방향을

277) “평을 받치러 세 번이나 통역을 했으니”라는 이 내용은 ‘雉獻三譯’을 풀이한 것이다. 『한서(漢書)』 평제기(平帝紀)에 ‘元始元年春正月 越裳氏重譯獻白雉一黑雉二 詔使三公以薦宗廟’라 하였고, 그 注에 ‘師古曰 譯謂傳言也 道路絕隔 故累譯而後乃通’이라 하였다. 즉, 먼 지역의 외국인의 내조(來朝)에 관한 기록이다. 여기서는 고후(高厚)·고청(高淸) 등 3 형제가 신라에 내조한 사실을 가리킨다.

알게 되며, 세월은 무궁토록 복지(福地)를 보호하고, 제물을 향기롭게 하여 신도(神道)가 이르게 하며, 후손들로 하여금 명심해 봉행토록 하여 주십시오. 찬(贊)에 이르기를, “선대의 공덕을 본받는다면 다행이겠다.”라고 하였다.

삼천서당(三泉書堂) 【동성 안의 산저교(山底橋) 위에 있다. 영조 을묘년(11년, 1735)에 목사 김정이 창건하였다. 따로 존현당(尊賢堂)을 세워서 숙사(塾師)로 하여금 거처하게 하였다. 부름접생이 20인이다.】

김정의 상량문(金倣上樑文)

“당(黨)에는 상(庠)이 있고 집에는 숙(塾)이 있다.”²⁷⁸⁾고 하였으나 대체로 천 년 동안에 미쳐 겨를을 내지 못하였다. 그 뿌리를 복돋우고(학교의 토대를 마련하고) 그 가치를 활달하게 하고서는 다행히 오늘에야 알맞은 장소를 얻게 되었다. 온 마을이 바람에 불리듯 쓸려 쫓으니, 공사가 구름과 같이 일어났다.

돌아보건대, 이곳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활 쏘고 말 달리던 고을인데, 아아! 성군(聖君)이 다스리는 시대의 문명한 지역으로 바뀌었다. 예전에는 굉유(宏儒)·석사(碩士)가 혹은 좋은 운수를 타고 고귀한 지위나 명예를 얻었으나, 지금에 이르러서는 더러운 악습과 퇴폐한 물결이 점차 사그라져 떨치지 못하니, 그 쇠하고 성하는 당연한 이치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나아가서는 또한 훈계하여 인도하는 어그러진 방법에 말미암은 것이리라.

교궁(校宮, 鄉校)이 없지 아니하나 다만 문식(文飾)에 따라 종사할 뿐이며, 저 원우(院宇, 書院)가 있으면서는 이에 순서대로 선발하고 때때로 추천하였다. 이에 근거하면 아무 것도 없으니, 어떻게 동몽(童蒙)을 길러 계발(啓發)할 것인가. 가르치는 일은 빠질 수 없으니, 실로 순서를 좇아 기운을 내어 진작시키기가 어렵다.

정원 20명에 대해서는 수요에 따라 누료(廩料)를 지급하라는 조정의 명령이 있었다고 하지만 계승해 내려온 지 백년에 가까운데, 그 좋은 규정을 부연하여 확대하지 못하고

278) 『예기(禮記)』 학기(學記)에 “옛날의 가르치는 것에는 집(家)에 숙(塾)이 있고 당(黨)에 상(庠)이 있고 주(州)에 서(序)가 있고, 국(國)에 학(學)이 있다.”고 하였다. 집에 숙(塾)이 있다는 ‘숙(塾)’은 25집이 모여 사는 마을(閭)의 학교로, 마을 입구에 있는 문 옆에 숙(塾)이라는 학교가 있었다. 집에 있는 학생들이 모두 이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가(家)로 표현한 것이나 실은 여(閭)에 있는 학교다. 당은 5백 호의 마을이고, 주는 2천 5백 호의 마을이다. 국(國)은 천자의 도읍지와 제후국의 서울로, 여기에 있는 학(學)은 곧 대학(大學, 國學)을 말한다. 『맹자(孟子)』 등문공장구(藤文公章 上)에는 상(庠)과 서(序)를 소학교의 명칭으로 규정짓고, 하(夏)에 교(校), 상(商)에 서(序), 주(周)에 상(庠)이라 하여 예기와 다르게 표기하였다.

여염집에 기식함에 이르렀다. 실로 선비를 대우하는 참된 예의가 아니다. 뛰어난 영재를 보살핌이 이와 같은 데 하물며 한갓 초야의 백성이겠는가. 교수관을 혁파하였으니, 저 몽매한 동자(童子)가 가련하다. 마을에는 예양(禮讓)의 풍습이 적고 집에서는 글 읽는 소리가 그치었다. “어려운 때일수록 여유 있게 행동한다.”고 하였으니, 먼저 마음은 간절 하여도 뜻대로 되지 못하였다. 벼슬의 임기가 만료되어 기일이 촉박함에 비로소 착수하여 분발하였다.

저 연당(蓮堂)의 옛 터를 살펴보니, 학사(學舍)의 신축 부지로 더욱 적합하였다. 마을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 실로 성(城) 안에 있는 시가(市街)이면서 산림(山林)이요, 샘과 돌이 맑고 그윽하니 어찌 저절로 된 땅 속의 신비가 아니겠는가. 파문혀 말랐던 두 우물이 나오니 막혔다가 통하는 것이 기(氣)이런가. 백년에 걸친 흥폐를 상고함에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이치인 것이다.

우선 큰 집을 지어서 훌륭한 선비들로 하여금 모여 살게 하고 다음으로 조그만 서재를 마련하여 준수한 자들이 모두 들어오도록 허락하였다. 이는 대체로 예전에 가르치던 제도를 본 뜬 것이니, 혹 뒤에 올 새로운 규정을 말하지 말라. 미간(楣間)에 ‘삼천(三泉)’이라 새긴 편액을 게시한 것은 “과감하게 실천하면서 묵묵히 덕(德)을 기르는” ‘몽상(蒙象)’을 취했음이고, 뜰아래에 두 우물(麗澤)을 판 것은 “친구들과 강습하는” ‘태사(兌辭)’를 실천함이다. 이예(吏隸)가 각각 재물을 염출하였으니 자손이 그 길(吉)함을 만날 것이요, 장사(將士)가 다투어 공사에 나갔으니 문무가 서로 교제함을 알겠다. 일반 대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동(大同)으로 결정하였으니, 어찌 거북점(龜卜)과 시초점(筮占)²⁷⁹⁾에 기대하겠는가. 옛 것을 참고하였으나 특이한 일은 아니니, 그 규모가 또한 대단하였다. 사람들이 기꺼이 공사에 참여하니 하늘에 뜻이 있는 것과 같다. 추운 겨울에 그 따뜻한 선율(旋律)을 머금고 봄바람에 화기(和氣)가 애애하도다. 이에 들보를 들어 좋은 노래를 부른다.

들보를 동쪽으로 던져라! 해 뜨는 곳이 한 눈에 볼 수 있는 거리에 있고, 창문에 비친 아침 햇살 거울 같이 밝으니, 이 마음을 이끌고 더불어 한가지로 하였고다.

들보를 서쪽으로 던져라! 가락천이 독 하나를 사이에 두고, 중간에 두 못이 있어 서로 점점 배어들어가니, 역경(易經)에서 취한 뜻이 후진을 가르쳐 인도할 만하도다.

들보를 남쪽으로 던져라! 임금님의 덕화가 충만하여 천지간 도처에 널리 퍼지고, 몇 길이나 되는 담장(宮牆)은 공자의 문묘(文廟)이니, 모름지기 독실하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앞장 서 참배하네.

279) 거북점(龜卜)과 시초점(筮占)은 학교를 세우기에 적합한 장소임을 말하는 것이다.

들보를 북쪽으로 던져라! 수구(水口)의 홍문(虹門)이 얼마나 가까이 맞닿았는가. 홍문 밖의 그대들은 큰 바다를 보고 있으니, 장부의 마음이 차례로 본받게 되리로다.

들보를 위쪽으로 던져라! 하늘과 바다가 서로 이어져 흰빛만이 반짝이고, 장안이 하늘 아래 멀리 있다고 말하지 말라, 푸른 하늘과 이 해는 원래 둘이 아니로다.

들보를 아래쪽으로 던져라! 저 샘의 근원을 바라보니 잠시도 저버릴 수 없고, 새벽에 일어나고 밤늦게 자는 훈계를 마음속으로 길이 인정하니, 조용하나 그 움직임이 밤낮을 겹하였네.

엎드려 아뢰옵건대, 상량한 뒤에 영재가 구름과 같이 일어나고, 태평한 운수가 하늘에 열리어, 먼저 아는 사람이 뒤늦게 아는 사람을 깨우치어 문교가 크게 열리고, 아름다운 풍습이 예전의 풍습을 혁파하여 영세토록 나날이 새로워지기를 기약하노라.

이원조의 중수기(李源祚重修記)

노봉(蘆峰) 김 공(金公: 김정)은 우리 영남의 선배이다. 여러 주군(州郡)을 맡아 다스렸는데 이르는 곳마다 치적이 ‘최(最)’로 보고되었다. 내가 탐라에 부임한 것은 공으로부터 대략 백여 년 뒤가 된다. 즉, 공을 굴림서원에서 배알하고 삼천서당에 물러나 앉아 재(齋, 서당)의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학생들은 모두 주리(州里)에서 뺀어난 사람들로 공이 〈서당을〉 창시할 때의 일을 말하였다. 학생들은 가르쳐 인도하는 요령을 터득하는 데에 힘을 다하였다.

대개 섬 풍습이 황방하고 유학이 무지하여, 청금(靑衿)을 나누어 등록한 뒤에 교생과 원생은 각기 돌아가 의지할 곳이 있으나, 이 밖에는 몸을 의탁할 곳이 없어서 비록 배우려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떨쳐 일어날 실마리를 권하여 독려하는 데는 인색하였다. 이것이 서당을 설치하게 된 까닭이다. 그 뒤 경전에 통하고 문장에 능한 선비는 향교·서원의 선비와 더불어 서로 우열을 가릴 수 없고, 향시(鄕試: 初試) 합격자의 정원을 독점하여 상상(上庠: 成均館)에 오르는 자가 이따금 그 속에서 많이 나왔다. 이것은 예전의 대학(大學)과 소학(小學)이 남긴 뜻이며 그 효과를 속일 수 없었음이 이와 같았다.

아아! 뒤에 오는 자가 많이들 이름만을 사모하여 실적을 남기려고 매양 학교 하나씩을 창설하여 스스로 많은 것을 앞서서 구하려고 하였으니, 그 모양 그대로 4면에 두루 퍼져 있고 곳곳마다 건물이 거칠어졌는데, 도리어 이 서당의 경우에는 기울어 허물어지고 썩어서 무너지도록 방치하여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무엇 때문인가.

나는 이 때문에 개연히 처음 동몽을 만났을 때에 즉시 수리하려고 생각하였으나 마침

흥년이 들어 힘이 부치므로 단지 예전 그대로 수선하여 서까래와 기와만을 바꾸어서 힘 써 비바람을 감싸는데 그쳤으니, 이 어찌 선배의 사적(事蹟)을 계승하고 제생의 바람에 부응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제생으로 말하면, 이미 집이 있어서 거처할 만하고, 능료가 있어서 먹을 만하고, 책이 있어서 읽을 만하니, 장차 어떻게든 전후의 목사가 항상 생각하며 기대하고 바란 뜻을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군자에게 있어 귀중하게 여기는 일은 장차 사람이 되는 길을 배워서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친족과 화목하며 신중히 벼를 사귀고 어른을 공경하되, 오직 훈고(訓誥)를 익히고 사부(詞賦)를 짓는 것으로 일 삼지 않고서야 비로소 선비 된 명목에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며 목사 된 자 또한 더불어 광영이 있을 것이다.

재(齋)는 가락천(嘉樂川) 위에 있는데 좌우의 원천(源泉)으로 해서 그 이름이 유래한 것이다. 『역경(易經)』에 이르기를, “산 아래에서 솟아 나오는 샘물이 몽매하니 군자는 바르게 기른다.”고 하였고, 맹자는 이르기를, “사단(四端)의 확충은 샘이 처음 솟아나는 것과 같다.”²⁸⁰⁾고 하였으며, 부자(夫子, 孔子)는 이르기를, “우물은 아홉 길[仞]을 뚫어도 샘물 나오는 데까지 가지 못했으면 그것은 우물을 포기한 것과 같다.”²⁸¹⁾고 하였다. 옛 사람들이 샘에 관해 말한 것이 셋이니 배움의 시작과 끝이 갖추어진 샘이다. 이미 제생들에게 말하고 드디어 기록하여 삼천서당중수기(三泉書堂重修記)로 삼는다.

좌학당(左學堂) 【제주 동쪽 70리 거리의 세화촌(細花村)에 있다.】

우학당(右學堂) 【제주 서쪽 60리 거리의 명월리(明月里)에 있다. 부름집생이 각 5인이다. 순조 신묘년(31년, 1831)에 목사 이예연(李禮延) 창건하였다.】

남학당(南學堂) 【제주 남쪽 10리 거리의 오등촌(吾等村)에 있다.】

서학당(西學堂) 【제주 서쪽 40리 거리의 상가촌(上加村)에 있다. 부름집생이 각 5인이다. 순조 계사년(33년, 1833)에 목사 한응호(韓應浩)가 창건하였다.】

향학당(鄉學堂) 【제주성 남문 안에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하였다.】

월계정사(月溪精舍) 【명월성(明月城) 서쪽에 있다.】

김녕정사(金寧精舍) 【김녕포(金寧浦) 위에 있다. 예전에는 월계정사를 서학(西學)이라 하고 김녕정사를 동학(東學)이라 하였다. 지금은 모두 폐지하였다.】

280) 『맹자(孟子)』공손축장구(公孫丑章句 上6)에는 ‘凡有四端於我者 知皆擴而充之矣 若火之始然 泉之始達’이라 하여, “대체로 자기에게 이 네 가지 단서가 있는 사람이면 다 그것을 확충시킬 줄 알게 마련이다. 그것은 불이 처음 타오르고 샘이 처음 솟아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281) 『논어(論語)』에는 이 문구가 보이지 아니하나 『맹자』진심장구(盡心章句 上29)에는 맹자가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孟子曰 有爲者 辟若掘井 掘井九仞而不及泉 猶爲棄井也’라고 하여, “인의를 지향하고 사는 사람은 우물을 파는 것과도 같다. 우물을 아홉 길 뚫어도 샘물 나오는 데까지 가지 못했다면 그것은 우물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였다.

『탐라지(耽羅誌)』 권(卷) 2

공해(公廨)

영주관(瀛洲館) 【제주성 북쪽 성 안에 있다.】

존경각(尊敬閣) 【목사 김정(金儼)이 객사정청이 제도(制度)가 협소하고 규모가 미비하여, 하나의 작은 각을 조성했는데, 북벽 아래에 자리 잡았다. 내부는 종으로 바르고, 외부는 대나무로 엮어 둘러쳤다. 앞에는 지게문을 닫고 발을 드리워서, 하례 때 쓰는 향축을 모시는 곳으로 삼았다.】

청음 김상현의 시(金淸陰詩)

白蠟籠紗照壁紅 하얀 촛불이 화살통과 벽에 빨강게 비치는데
愁人睡起錦屏空 덩그런 비단 병풍에 일어나 앉아 시름 짓는다
夜來孤夢輕滄海 간 밤 꿈에는 푸른 바다를 가벼이 여겨
千里還家不待風 천리 밖의 집으로 돌아갈 바람을 기다리지 않았으니

이원진의 시(李元鎮詩)

地若萍浮積水中 물에 떠 있는 부평초 같은 땅의 모양새
瀛洲異境問青童 청동²⁸²⁾에게 물어 보는 영주의 기이한 경치
山高窟秘千年凍 천년 세월의 높은 산이며 신비한 동굴
海闊壽含萬里風 넓은 바다에는 아득히 바람을 머금은 파도
誰識漆園來傲吏 누가 알리오 칠원²⁸³⁾의 오만한 관리임을
自疑句漏臥仙翁 나 자신이 바로 구루²⁸⁴⁾에 누워 있는 신선 아닌가
王京迢遶空回首 아득한 서울을 향하여 다만 머리 돌려 바라보나니
唯見祥雲一朵紅 오직 상서로운 한 무더기 구름이 붉게 보일 뿐

282) 청동(靑童): 신선의 시중을 드는 아이.

283) 칠원(漆園): 장자(莊子)가 벼슬하던 고을.

284) 구루(句漏): 중국 진(晉)나라 갈홍(葛洪)이 신선술을 수련하던 곳. 즉, 선계를 뜻한다.

대일관(大一觀) 【영주관 동쪽에 있는데, 어제(御製)와 어필(御筆)을 봉안(奉安)하는 곳이다. 효종 을미(285)년에 능원군(286) 보(備)가 목사에게 글을 보내어 말하기를 “선조 때에 어서와 역대 임금의 어제를 간행한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잘 보관하여 오래도록 세상에 전할 계책을 생각해 보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주는 멀리 바다 가운데 위치하여 위급한 사태가 없었고, 또한 병화가 미치는 곳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에 〈어제와 어필〉 각 1건을 보내니 특별히 관청에서 보관하여 대대로 진귀한 보물로 삼기 바라며, 병풍용으로 16장을 아울러 관에 보내니, 웃어른(목사)이 그 것을 서로 전하게 하면 그것 또한 후세에 전하는 한 가지 방도이다.”라고 하였다. 그 뒤에 숙종과 영조 두 임금 때에 어필과 어제를 아울러 보관할 궤책을 만들어 연회각의 벽 위에 보관하였다. 계축년(정조 17년, 1793)에 어사 심낙수(287)가 서면으로 보고하여 대일관을 세우고, 유사 1인을 정하여 그로 하여금 관장하게 하였다. 앞뒤의 윤음과 교서 일체를 봉안하였다.】

심낙수의 기(沈樂洙記)

성상(정조) 17년(1793) 계축 겨울에 어사가 되어서 탐라에 들어가 도민을 위무하라는 명을 받았다. 신이 이 명을 받고 임금이 내린 문서를 받들어 바다를 건너 부임 하였다. 이 곳 원로들이 둘러서서 윤음(288)을 듣고 나서 말하기를 ‘우리 제주는 바다 사이에 두고 서울과는 수 천리 거리인데, 어사께서는 임금님처럼 가까운 곳에서 성대하게 임해야 할 것인데, 〈그러하지 못해서〉 우리들의 생명은 오직 임금님께 달렸을 뿐입니다. 임금님의 글이 내려와 별과 같이 밝게 구석구석까지 비추는데, 예부터 그것을 받들어 모실 곳이 없으니, 어사께서 그것을 지어 도민들로 하여금 용마루에 어린 무지갯빛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앙모하여 의지하게 하고, 또한 수령들로 하여금 눈을 들어 거기에서 경계하고 살피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이에 서로 다투어 나무와 흙을 운반하여 며칠 안 걸려 건물을 지으니, 원로들이 말하기를 ‘공사가 이미 이루어졌으니 이름을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285) 본문에는 ‘孝廟乙亥’로 되어 있으나, ‘乙亥’는 ‘乙未’(효종6년, 1655)의 오키이므로 바로 잡음. 효종 재위 연간에는 乙亥년이 없음.

286) 조선 인조의 동생, 1632년(인조 10)에 대군(大君)으로 進號, 그의 청아 근실한 생활은 종실의 모범이 되었고, 그의 죽음에 왕도 진히 조상했다 함.

287) 심낙수(1739~?)는 조선 정조 때의 문신이다, 1793년(정조 17) 이철운(李喆運)목사를 탄핵한 상소문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안핵어사(按覈御使)로 내려왔다가 현지에서 목사로 승진되었다. 그는 진상을 조사하여 이철운 목사를 파직하도록 하고, 이듬해 제주에 큰 기근이 들자 기민 구제에 만전을 기했다.

288) 윤음(綸音), 윤발(綸發), 윤지(綸旨)라고도 한다. 『예기(禮記)』의 ‘王言如絲 其出如綸 王言如綸 其出如紉’에서 나온 말로 천자나 국왕의 조서(詔書)를 말한다.

신이 말하기를 “『서경』에 이르기를, 만백성들로 하여금 ‘위대하도다, 임금님의 말씀이 시여!’ 라고 말하도록 하시고, 또 ‘일관되도다, 임금님의 마음이어!’ 라고 말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예전의 학자가 이를 풀이하여 말하기를, “임금은 그 마음이 일관되기 때문에 하는 말이 위대하고, 만 백성은 그 말의 위대함을 보고 그 마음이 일관됨을 안다.”라고 하였다. 우리 성상께서는 진실로 일관하여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한결같이 위대한 칙령을 내리시니, 너희들이 지극히 어리석을지라도 그 위대하고 일관됨을 알 것이다. 따라서 받들어 모실 건물의 이름을 마땅히 대일로 하되, 당이나 각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 이는 섬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곳이기 때문이다.

『역경』에 이르기를 “중정(中正)으로 천하를 본다.”라고 하였는데, 예전의 학자가 이를 풀이하여 “중정의 덕은 백성을 위하여 천하를 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역경』 서괘에도 이르기를, “누관(樓觀)에서 관(觀)이라는 것은 아래로 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중정(中正)에도 또한 대일(大一)의 뜻이 있는 것이니, 마땅히 관(觀)으로 칭해야 한다고 하였다. 원로들이 말하기를 “어사께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도 맞힐 수 있습니까?”라고 하였다.

드디어 현관을 대일관으로 하고, 임금의 윤음을 받들어 모시었다. 신이 가만히 생각 하건데 요 임금의 말씀이 천하에 유포되고, 우 임금의 명령이 사해에 미치게 된 것 또한 대일(大一)이 아님이 없다. 문제(文帝)가 산둥(山東)에 보낸 조서(詔書)와 광무제(光武帝)가 하서(河西)에 보낸 그러한 조서들이 지금까지도 칭송되고 있는데,²⁸⁹⁾ 이제 섬 안의 대일관은 산둥이나 하서와 비교할 바는 되지 않겠는가? 하늘의 덕 또한 위대하고 일관될 뿐이라고 할 수 있으니, 위대하다는 것은 예외가 없다는 것이고, 일관되다는 것은 유구하다는 것이다. 오직 성인만이 위대할 수 있고 일관될 수 있음을 만세에 전하여 능히 이어지게 하는 것은 영원히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여기에 기초를 둔 것은 섬 안의 대일관뿐이 아니겠는가?

원로들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노래를 지어 부르고 싶으나 글을 지을 수가 없으니 어사께서 어찌 우리들을 위하여 말로 표현해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드디어 그들을 위해 송(頌)을 지었다.

惟天浩浩 오직 하늘은 높고 높아
其大無外 크고 커서 벗어날 수 없도다
得一成數 한 번 운수를 얻은 뒤

289) 본문의 文帝之山東은 전한의 제5대 황제 문제가 산둥에 있었던 제(齊) 나라의 왕 유양(劉襄)에게 조서를 보낸 고사를 인용한 것이고, 光武之河西는 후한의 광무제 유수(劉秀)가 하서지방 평정 때 이 곳의 실력자였던 두융(竇融)에게 조서를 보낸 고사를 인용한 것임.

■ 耽羅誌草本(上)

衍爲元會 변성하여 조회를 받았도다.
 惟后法天 오직 제왕은 하늘을 표준으로 하여
 一以包大 한결같이 백성을 감싸야 하도다
 既大且一 이미 하나로 (감쌌을) 위대하게 하였으니
 民其求賴 백성들은 영원토록 그에 힘입었도다
 大一其觀 그 집 이름을 대일관이라 하고
 翼彼丹繪 공익을 저와 같이 아름답게 꾸몄으니
 大哉一哉 위대하도다! 그 한결같이 (감싼) 덕이여
 民說以兌 백성들이 만족하여 기뻐하니
 洋洋大化 교화가 거침없이 퍼지리로다
 瀛海一帶 큰 바다로 둘러쌓인 이곳에
 大來一運 (우리 임금께서는) 크고 큰 운수를 얻어
 萬歲亨泰 오래도록 태평을 누리소서

연희각(延曦閣) 【목사의 집무처이다.】

심연의 시(沈演詩)

九十韶光病裡過 구십일춘광²⁹⁰⁾ 병으로 앓아
 黃簾深鎖使君家 사또²⁹¹⁾의 방 누런 주렴으로 가려
 忽驚佳節當今夕 좋은 계절이라 문득 놀랐소
 强把閑愁坐晚衙 저녁 관아에 앉으니 내 시름 붙들겠네
 翠黛滿堂渾似雨 비오듯 푸른 아지랑이²⁹²⁾ 가득
 彩燈懸樹亂如花 매달린 등불 꽃처럼 반짝거려
 明年此日知何處明年 이때에 나는 어디 있게 될까?
 爲酌金樽酌歲華 술잔을 따르니 세월이 가네.

이원진의 시(李元鎮詩)

昔過方丈向蓬來 지난날 지리산을 넘어 금강산으로

290) 소광(韶光)은 봄날 어딘가의 景色. 또는 春光. 九十은 봄 3개월 90일을 뜻함.
 291) 사군(使君)은 목사·어사, 부사 등 지방에 내려온 높은 관리를 부르는 말. 사또.
 292) 취대(翠黛)는 멀리 보이는 푸른 산 경치. 눈썹을 그리는 먹 또는 붓.

今到瀛洲又快哉 이제 한라산에 이르니 상쾌하네.
 可但人間傳吏隱 옹지! 인간 세상 벼슬아치 되어
 只應天上錄仙才 다만 하늘의 신선 안에 기록하련다.
 扶桑曙色穿霞入 해돋이 서광, 노을 뚫어 들어오고
 碣石濤聲挾雨來 갈석산 파도소리에 비마져 오네
 已接廬敖遊汗慢 여산에 온 듯, 탁 트여 오만해졌소.²⁹³⁾
 仍留紫氣共徘徊 상서로운 기운마져 함께 맴돌아 드네.

이경억의 시(李慶億詩)

聞說瀛洲在海中 듣건대 영주섬은 바다 가운데 있다하니
 至今民物似秦童 지금도 풍속은 진나라 동자가 왔을 적과 같구나
 城邊細雨四時瘴 성 가의 이슬비는 사계절 장기를 띠고
 山上孤雲何處風 산 위의 외로운 구름은 언제 바람에 날리려나
 騾牝三千多產水 좋은 말 삼천 필²⁹⁴⁾이나 많이 생산 되던 곳
 人生七十未稱翁 사람들 칠십 세 되어도 늙은이라 부르지 않는다네
 南維更覺催秋序 남쪽 지방인데도 문득 가을이 오니
 野橘霜前半面紅 들밭의 귤은 서리 오기 전에 반이나 익었네

이선의 시(李選詩)

海外魚龍窟 바다 밖 큰 용이 살고 있는 굴
 天中日月臨 하늘 위에는 해와 달이 비치고
 此詩曾有夢 이 시를 일찍 두 번이나 꿈꾸었으니
 今役豈無心 이번의 직무를 어찌 무심히 하겠는가
 觸目渾如舊 눈에 부딪히는 건 모두 예스러워
 乘危謾整襟 위험²⁹⁵⁾한 곳에 오니 부질없이 옷깃을 여민다
 行藏知己定 나아가고 감추는 일²⁹⁶⁾ 이미 정하여졌으니

293) 한만(汗漫)은 방만하여 치밀함이 없음. 들떠 있어 절심함이 없는 아주 넓은 모양.

294) 내빈삼천(駝北三千) : 광해군 때 김만일이 말 3,000필을 바쳤던 일을 가리킨다.

295) 승포(乘苞) : 출전이 확실치 않다. 오기(誤記)인 듯하다.

296) 행장(行藏) : '용행사장(用行舍藏)'을 줄여서 쓴 말. 세상에 쓰이면(나라에서 부르면) 나아가서 벼슬하고, 세상에서 버리면 감추어(숨어서) 나아가지 않는다.

■ 耽羅誌草本(上)

異事入孤吟 특별한 일로 들어와 홀로 읊조리노라

정서의 시(鄭曙詩)

轅門無一事 군문에는 아무 일도 없어
 秋日掩重扃 가을날 빗장을 거둬 걸었네
 造士興文教 선비를 기르려고 문교를 일으키고
 治民行謐寧 백성을 다스려 편안함을 기다린다
 琴徽和玉柱 거문고 발에 옥주를 조화시켜
 觥錯任銀瓶 은병을 기울여 술잔을 나누기도
 況值黃花節 향차 중양절을 맞이하였으니
 何妨醉復醒 취했다가 깨어난들 어떠랴

최계옹의 시(崔啓翁詩)

海中仙府靜無喧 바다 속의 신전 고장 고요하여 시끄러움 없으니
 鶴舞空庭日欲昏 해 기우는 비인 뜰에 학이 춤춘다
 白首迂人何所事 늙어가는 우랄한 벼슬아치 무엇을 할 것인가
 玄琴一曲感君恩 거문고나 뜯으며 임금님 은혜 감사할 밖에

김수익의 시(金壽翼詩)

濛濛微雨曉來過 몽몽한 가는 비가 아침에 지나가니
 官柳新粧萬井家 관청 버들과 모든 집들²⁹⁷⁾ 새로 단장한 듯
 水驛春歸稀雁信 물가 역에 봄이 왔으나 소식은²⁹⁸⁾ 뜸하고
 苔庭吏散鬧蜂衙 이끼 뜰에 아전들 흩어지니 벌집²⁹⁹⁾ 시끄럽다
 支離絕域三年客 초라한 절역에서 삼년 묵은 나그네
 悵悵孤城四月花 처량한 외로운 성에 사월에 핀 꽃
 回首秦京今夕戲 서울로 머리 돌려 희롱하는 오늘 밤

297) 만정가(萬井家) : 정(井)은 동네의 뜻. 따라서 '만정가'는 모든 동네를 뜻한다.

298) 안신(雁信) : 편지. 한(漢)나라 소무(蘇武)가 흉노에 잡혔을 때 기러기발에 편지를 묶어 보내어 소식을 전했다는 고사에서 연유된 말이다.〈『한서(漢書)』 소무전(蘇武傳)〉

299) 봉아(蜂衙) : 꿀벌이 벌집을 드나드는 것에 대해 벼슬아치가 관아에 드나드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九街燈花爛繁華 모든 거리의 등불이 찬란하고 변화하다

이익한의 시(李翊漢詩)

仲冬雲物滯殊方 얼어붙은 한겨울 이역 땅에 머물더니
有日陽生刻漏長 어느 날 양기가 생겨나며 때 시각이 길어지네
壯士樽前抽白羽 장사는 술동이 앞에서 화살[白羽]을 뽑고
美人簾下照紅粧 주렴 밑엔 미인의 붉은 단장 비친다
波聲滿室身疑泛 물결 소리 방에 가득하니 이 몸은 물에 떠있는 듯
橘影侵床夢亦香 귤 그림자 상에 비추어 꿈마저 향기로우나
萬事不如歸去早 모든 일 일찍 마치고 돌아가
故山明月任徜徉 고향 산천 밝은 달 아래 배회하는 것만 못 하리

심낙수의 시(沈樂洙詩)

夢中三十七年前 삼십 칠년간의 꿈같은 생활
風送飛牆大海邊 큰 바닷가로 바람이 돛을 날리었네
歷歷漢拏雲外岵 구름 밖에는 또렷한 한라산
依依嘉樂樹間川 나무 사이엔 희미한 가락천
伏波古廟征蠻路 남쪽으로 가는 길엔 장군의 옛 사당³⁰⁰⁾
石馬荒祠泝峽船 물을 거슬러 오르면 석마가 있는 삼성사³⁰¹⁾
萬事人生先有定 인생의 모든 일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
今來裘帶詠寒天 지금도 대물리는 일로 읊조리는 추운 날씨³⁰²⁾

심영석의 시(沈英錫詩)

靑蓮浪說骨霜鰲 푸른 연꽃³⁰³⁾이라 함은 헛된 말 골상³⁰⁴⁾은 분명 자라

300) 복파(伏波)는 波將軍을 줄여 쓴 말. 한나라의 장군 마원(馬援)의 별칭. 수군이 강성하여 파도를 잠재운다는 뜻으로 쓰는 수군의 별칭. 伏波故廟는 추자도에 있는 최영장군의 사당.
301) 석마(石馬)는 선이 타는 말이라는 뜻도 있다(魏 張掖郡 刪丹縣 有石馬七 其一仙人騎之). 묘 앞에 돌로 만들어 세운 말. 泝: 물 거스를 소. 물 내려 흐를 소
302) 구(裘)는 대물릴 구(箕裘). 갓옷 구.
303) 청련(靑蓮): 감여가(堪輿家)들은 제주 섬이 연꽃이 뜬 것 같은 형국이라 말하기도 한다.
304) 원문의 '상(霜)'은 '상(相)'의 오기인 듯하다.

■ 耽羅誌草本(上)

背上瀛洲自在高 등 위에는 자연히 높은 영주산
 五百秦童何處去 진나라 동자 오백 명³⁰⁵⁾은 어디로 갔지만
 庶幾仙子此中遭 신선들은 거의 이곳에서 만날 수 있네
 天開別界千年國 하늘이 열어준 별천지에 천년 된 나라³⁰⁶⁾
 海送神京萬折濤 바다에서는 신인의 서울로 파도를 꺾이어 보낸다
 方丈蓬萊曾有見 방장산 봉래산을 다 보았으니
 三峯攬把一詩毫 세 봉우리를 모두 헤아려 시 한 수 적노라

이원조의 시(李源祚詩)

金輪湧海最先紅 황금빛 해 바다에서 솟아올라 가장 먼저 밝는 곳
 有閣延曦面向東 연희각은 동쪽을 향해 있으니
 吸霞尙能清俗慮 노을을 마시며 오히려 세속근심 맑힐 수 있고
 負暄長自皦微衷 따스한 별을 쬌며 흐려지는 마음 밝힐 수 있는 곳³⁰⁷⁾
 農民麻麥須時雨 농민의 삼 보리는 알맞은 비를 따르게 하고
 估客帆檣祝順風 상객의 돛대에는 순풍을 빌어본다
 爲將非材爲吏拙 장군이 됨에 재주 없고 관리일은 졸렬하여
 日邊回首祇童童 머리 돌려 해를 바라보니 어쩔 줄 몰라

이원조³⁰⁸⁾의 기(李源祚記)³⁰⁹⁾

“연희각은 예전의 기(記)가 없어서 각을 세운 연월이 상세하지 않고, 현판도 누가 이름을 짓고 누가 쓴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바다로 막혀 거칠고 순박한 땅에 문헌이 없으니 개탄스럽다. 내가 영문에 부임할 때는 마침 봄과 여름이 바뀌는 계절이어서 독기를 품은 안개로 하늘이 흐리고 흠비가 내려 비오는 날이 많고 맑은 날이 적었다. 연희각 또한 겹처마에 지붕의 모서리가 길고,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높고 탁 트이며 상쾌하게 보

305) 진동오백(秦童五百) : 진시황(秦始皇)이 불사약을 캐러 보낸 동남동녀 오백 명을 일컫는다.

306) 천년국(千年國) : 오래된 나라, 즉 탐라국(耽羅國)을 뜻한다.

307) 부暄(負暄)은 양지에서 햇볕을 쬌는 일. 宋나라의 가난한 농부가 봄볕을 쬌면서 세상에 이보다 더 따스한 것은 없으리라 생각하고서 임금에게 사퇴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

308) 이원조(李源祚)는 1841년(헌종 7) 3월에 목사로 부임하여 1843년 봄 기근이 심하였으므로 조정에 아뢰어 연해곡(沿海穀) 2,500석을 들여다가 구제하였고, 우도와 가파도에 입주하여 개간하는 것을 조정에 아뢰어 도민의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제주에 관한 기록도 많이 남겼는데, 「耽羅錄」, 「耽羅誌草本」, 「耽羅關報錄」 등이 있다.

309) 『탐라지초본』은 이원조가 쓴 것이므로, 책의 내용에는 그냥 ‘기(記)’라고만 되어 있다.

이지 않았다. 새벽에 일어나 관아에 앉아 쌓이고 뒤섞인 문서를 붓을 들어 결재를 하다 보면 기력이 다 하고 정신이 울적하였다. 이미 어두운 구름이 흩어지고 아침 해가 솟아 오르니 창문을 통하여 들어온 붉은 햇살이 영롱하게 비치는데, 놀랍게도 미개한 남쪽 지방을 개척하라는 뜻이 있는 것 같다.

매일 어둑새벽에 낫을 씻고 머리를 빗어서 단정히 앉아 오늘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다시 반복하여 헤아리고 결정하여 장차 지휘명령을 내리고자 하였다. 그런데 마침 한 줄기의 햇빛이 알맞게 새어나와 그것을 쪼이다 보면 정신이 각성되어 새롭게 깨닫지 않은 적이 없고, 마음이 섬뜩하여 두렵지 않은 적이 없었다. 마음이 가다듬어져서 숨겨져 보이지 않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마음의 찌꺼기들이 깨끗이 씻기어졌다. 이러한 생각은 대부분 이 때에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옛 사람들이 <연희각이라고> 이름을 지은 의미가 여기에서 취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경우와 부합될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되었으니, 예사로운 현판의 제목과 비교할 일이 아니다. 하물며 천리나 되는 바다로 서울과의 거리가 동떨어지게 머니, 매일 밤마다 궁궐을 그리워함은 소식(蘇軾)이 해남도(海南島)에서 궁궐을 그리워함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갑자기 상서로운 구름이 해를 가리니 하늘이 지척에 닿은 듯하다. 마음에 부족하나마 나라를 떠돌아다니는 늙은이가 바닷가를 골라서 성상에게 하례하고, 이 당의 이름을 연희로 하였으니, 이는 밖에 나와 있는 신하가 임금에 향한 정성을 표하는 것도 될 것이다. 드디어 써서 벽에 게시하였다.

홍화각(弘化閣) 【연희각 남쪽에 있다. 세종 을묘년(17년, 1435)에 목사 최해산³¹⁰⁾이 창건하였다. 옛적에는 안무사가 정무를 보는 곳이었으나 지금은 영리청으로 쓰고 있다.】

최해산의 시(崔海山詩)

擎嶽嵩高枕海頭 높이 솟은 한라산 밑 바다 머리를 베개 삼아
孤城突兀峙南州 뽕죽이 드러난 외로운 섬 남쪽 고을
齊風靡斷幾千載 제나라 풍속 끊기지 않은지 몇 천 년이던가
鄉學重興已四秋 향학을 중흥함에 네 해가 흘렀네

310) 최해산(1380~1443)은 조선 초기의 무신이다. 본관은 영주(永州), 부친 최무선(崔茂宣)과 함께 화약 및 신화기 개발에 공을 세웠다. 1434년(세종 19) 10월 이봉(李鵬)의 후임으로 제주 목사로 도임하고, 1437년(세종 19) 2월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이배(移拜)되었다. 1435년(세종 17) 실화로 모든 문적이 소실되자, 그 후 정각(政閣)을 건립하여 홍화각(弘化閣)이라 편액하였다. 재임 중 교육·농사·마정(馬政)·군정(軍政) 등 온갖 분야를 정립시켜 명환(名宦)으로 칭송되었다.

■ 耽羅誌草本(上)

鑿井耕田蒙帝力 임금님 은혜 힘입어 백성은 샘 파고 밭 갈며
 去奸辨曲蕩民愁 간사함 쫓고 곡절 가려 백성 근심 씻어 주어
 嘗聞出谷遷喬木 골짜기 벗어나 큰 나무에 날았다는 소문 들림은
 弘化應傳自我侯 널리 교화를 퍼신 우리 목사로부터일세

이약동의 시(李約東詩)

曾聞海上岳無頭 일찍이 바다 위에 머리 없는 산이 있다고 들었는데
 州枕靑山海帶州 푸른 산을 베개 삼고 바다로 떠 두른 고을일세
 香透疎簾知近橘 향기가 성긴 발로 스며 굴밭이 가까이 있음을 알겠고
 風生虛閣覺今秋 빈 누각에 바람이 스쳐가니 가을임을 알겠네
 伊誰不極當時樂 누군들 이때의 행락을 즐겨하지 않으리오
 却恐多添異日愁 문득 훗날 근심이 많이 겹쳐질 것을 두려워하네
 細柳甘棠無箇事 세류영과 감당 같이 백성을 위하지 않았는데도
 傍人錯道武陵侯 옆 사람들은 잘못 알고 무릉후라고 칭하네

김태정의 시(金泰廷詩)

骨相何曾類虎頭 어찌나 골상³¹¹⁾은 무인 닮았던지
 濫蒙恩擢鎮雄州 거진[雄鎮]³¹²⁾ 지키라는 특명을 입어
 一心戀主危樓曉 누각에 올라 일편단심 님 그리며
 雙鬢思親滿鏡秋 아버지 생각에 구레나룻 거울로 보오
 孤枕未能成去夢 돌아갈 꿈 못 이루는 잠자리
 深樽那得洗羈愁 취했다고 나그네의 설움³¹³⁾ 씻을 수 있을까?
 長風波浪還爲祟 높은 파도 바람에 물귀신 되누나
 本不圖封萬戶侯 본시 만호후로 봉해지길 바라지 마오.

고득종의 시(高得宗詩)

311) 골상(骨相)은 뼈의 생김생김을 보고 운명을 점쳐 내는 일.

312) 웅주(雄州)는 큰 고을.

313) 기수(羈愁)는 객愁(객수). 나그네의 설움.

漢拏山上駕鰲頭 큰 자라 머리 위로 한라산이 솟아있고
 山下城居作巨州 산 아래 성안에는 큰 고을을 이루었네
 鼓角五更無事曉 고각꾼들 밤새 일없이 새벽이 밝아오고
 謳歌十里太平秋 노랫소리는 십리까지 태평한 세월이니
 甘棠惠化醫民瘼 감당의 교화로써 백성들 고통 치유하고
 細柳威風破賊愁 세류영의 위풍으로 외침근심을 없앴네
 傑閣翬飛宏制度 웅장한 누각에서 제도를 넓혔으니
 後人應說益陽侯 후세의 사람들 응당 익양후를 말하겠네³¹⁴⁾

고득중³¹⁵⁾의 기(高得宗記)³¹⁶⁾

제주는 멀리 남해의 가운데 있으며 큰 산이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솟아 있어 이름하여 한라(漢拏)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은하수를 붙잡을 수 있다 하여서다. 다른 이름으로는 원산(圓山)이라고도 하거니와 그것은 활 모양으로 굽어져서 둥근 모양이기 때문이다. 고을의 이름은 제주이며, 병신년(태종16, 1416)에 세 지경으로 나누어졌는데 동쪽을 정의(旌義)라 하고 서쪽을 대정(大靜)이라 하여 나누어 다스렸다. 옛날에는 동영주(東瀛州), 탁라(毛羅) 혹은 탐라(耽羅)라고도 불리었으며, 시대에 따라 개칭된 것이 사적(史籍)에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처음에는 사람이 없었는데 신의 아들 3인이 땅에서 솟아났다. 신라시대에 처음으로 복속하여 해마다 공물을 바쳤는데 지금까지 천백 년에 이른다.

조선 왕조에 이르러 임금께서 베푸는 문명의 교화와 회유의 덕을 더욱 입어 풍속이 바뀌고 백성의 편안함이 정착된 지 이미 오래 되었다. 계축년(세종 15, 1433)에 이르러 그 해 가을부터 다음 해 여름까지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어 산천이 메마르고 온갖 식물이 시들어버려 사람은 굶주리고 말은 죽어가니 그 수를 알 수 없었다. 임금께서 심려하셔서 조정의 신하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제주지역은 우리에게 복속된 이래 좋은 말과 기이한 공물들을 산출하여 국가에서 힘입음이 있었다. 땅이 척박하여 백성들은 가난하며 해구(海寇)는 연이어 침범하고 초적(草賊)은 암암리에 일어나니 진압하고 방어

314) 익양후(益陽侯) : 쑤나라 卞敦의 호. 戰功을 많이 세워 安陵亭侯에 封해졌다가 다시 益陽侯에 봉해짐. 외치에 능숙한 사람을 뜻함.

315) 고득중(1388~1452)은 조선 전기의 문신이다. 태종 13년(1413) 효행으로 천거 받아 직장(直長)이 되고, 이듬해 알성문과(謁聖文科)에 급제하여 대호군(大護軍)·예빈시판관(禮賓寺判官) 등을 지낸 다음, 1427년(세종 9) 문과중시(文科重試)에 급제. 1437년 중추원첨지사(中樞院僉知事)가 되었다. 벼슬은 한성판윤(漢城判尹)에 이르고, 문장과 서예에 뛰어났다.

316) 『탐라지초본』에는 ‘記(기)’라고만 되어 있다.

함이 어려운데, 내 본래부터 그 지킴을 어렵게 여기고 있었다. 근래에 기뻐서 해마다 흉년이 계속되어 구걸하고 굶주리는 백성들이 많아 내 대단히 불쌍히 여기노라. 또한 바다로 막히고 더욱이 조정에서 멀리 있으니 백성들이 기뻐하고 슬퍼함과 정치를 잘하고 못함을 어찌 내 귀와 눈이 그곳까지 미쳐 알 수 있겠는가? 마땅히 양부(兩府)³¹⁷⁾의 어진 문무관 중에서 재략과 위엄과 은덕이 모두 뛰어난 사람을 신중히 간택해서 보고하라.”라고 하셨다.

이에 전 공조참판 익양(益陽)³¹⁸⁾ 최해산(崔海山)을 천거하여 보고하니 임금께서 마음속으로 기뻐하면서 윤허하고 갑인년(세종 16년, 1434) 가을 8월 7일에 명을 내려 도안무사 겸 판목사(都安撫使兼判牧事)로 임명하였다. 공은 명령을 받은 날에 궁궐에 나가서 임금께 사례했으며 조금도 꺼리는 기색이 없었다. 날을 잡아 떠나서 배에서 내리는 즉시 우선 흉년을 구제하는 정치에 마음을 집중하였다. 불쌍히 여기고 슬퍼하고 따듯하고 너그럽게 여기는 마음으로 위로하여 민생을 진휼하니, 신음하던 자들이 변하여 선정을 구가하게 되었고 굶어 죽어가던 사람들이 수명을 다 누리게 되었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자세히 처리하고 옥사(獄事)는 지체 없이 판결하여 교화를 선양하니 백성들이 예의를 알게 되었다. 말 기르는 기술, 적을 막을 준비, 흥학(興學), 권농, 재해 구제, 백성을 다스리는 법도 등에 이르기까지 빈틈이 없었다. 또 신을 섬김에 있어서는 정성 들여 마음을 가다듬고 잡념을 없이 하였고, 모든 제사에 있어서는 마음을 다하고 차례에 따라 〈제사를〉 지냄으로써 신을 극진히 모셨다. 다음 해에 이르러 비바람이 때에 맞추어 순하고 곡식이 잘 익었다. 백성들은 즐거워하면서 배를 두드렸고 말이 크게 번식하였으니 우리 전하께서 어진 신하를 간택하신 은혜가 깊고 지극하신 것이다.

공(公)은 인화(人和)를 모아 일을 함으로써 관사가 무너진 것을 수리하려 했고 그 일을 중히 여겼는데 여가를 내지 못하였다. 마침 영청(營廳)이 실화(失火)되어 거처할 곳이 없음을 한탄하시고 다만 머리 깎인 자(죄수)와 번(番)을 서는 무리들을 시켜서 무너진 절에서 채목과 기와를 얻어다가 우선 거처할 방과 거문고 타는 방, 욕실, 주방, 복도를 일으켜서 그 자리에 갖추었다. 조금 서쪽에 집 3칸을 세워 정사를 보는 당으로 삼고, 좌우에 각각 복도를 두어 방을 나누어서 문서보관소로 삼았다. 또 그 서쪽에 3칸의 누각을 세워 겹쳐마로 보충하니 그 규모는 넓고 조밀하며 그 제작 기법은 장엄하고 화려하였다. 그 곳에 있으면 높고 크게 느껴지며, 바라보면 환하게 붉은 색을 칠하였으니 빛나는 모양이 가히 불만하였다.

317) 양부(兩府)는 조선시대 때 동반(東班)의 의정부(議政府)와 서반(西班)의 중추부(中樞府)의 합칭이다. 곧 문·무의 양부를 지칭한다.

318) 익양(益陽)은 현재 경상북도에 있는 영천군의 별호였다. 다른 별호로는 영양(永陽)이었다.

그 남쪽에 관관[半刺]이 정치를 돕는 당을 두었고, 그 북쪽에 헌마(獻馬)를 기르는 마구간을 두었으며 동쪽에는 관영(官營)의 창고를 두고 서쪽에는 온돌방을 두어 진상할 물품을 저장하였다. 또 그 남쪽 밖에 따로 누문을 지어 밑으로는 출입할 수 있게 하고, 위에는 종과 북을 매달아 시간을 알리는 설비를 두었다. 동쪽의 약(藥) 창고와 서쪽의 독기 보관소[蠹所]가 동서로 대치(對峙)하게 하여 모두 울타리를 두르니 잘 다듬어지고 견고하였다. 집은 계산해서 모두 206칸이고, 매 집마다 별도로 세워 서로 닿지 않도록 한 것은 화재에 대비하려는 까닭이었다. 그러한 경영과 위치와 제작은 타당하였으니 이 모두가 공의 지시와 계획에서 나온 것이었다.

공이 하루는 누각 위에 나와 앉아서 고을의 원로들을 소집하여 낙성식을 하고 또한 건물에 이름을 지을 것을 의논하였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제주성은 북으로 큰 바다에 면하고 있어서 넓고 넓은 모습은 한눈에 천리를 볼 수 있고, 남으로는 높은 산을 대하고 있어 그 웅장함이 늘 한 모습입니다. 겨울에는 혹독한 추위가 없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많으며 집집마다 굴과 유자요, 곳곳마다 준마[驍驪]³¹⁹⁾들이 있습니다. 바람에 흐르는 구름의 형상과 달빛에 맺힌 이슬 모양이 아침저녁으로 변화하여 천태만상을 이룹니다. 이곳에 왕명(王命)을 받들고 오는 자가 여기에 올라 쉬면 산의 푸르름과 파도 소리가 항상 책상 위에서 부서지고, 신기한 꽃과 특이한 풀들이 한 눈에 모두 모여듭니다. 옛날에 누각이 있어 만경(萬景)이라 불린 것이 이것입니다. 다행스럽게 이제 누각이 세워졌으니 마땅히 만경이라는 이름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내가 누각을 세운 것은 경치를 즐기려 함이 아니며 놀고 구경하기 위함도 아니다. 옛날 문왕(文王) 때에 주공(周公)³²⁰⁾은 안을 다스렸고 소공(召公)³²¹⁾은 밖을 다스렸는데 교화가 사람들에게 미침이 바람이 번지듯 해서 당대의 사람들이 덕화에 고무되어 그 기질을 고치지 아니함이 없었으니 어찌 두 분이 서로 도와 널리 교화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지금 밝으신 임금님께서 위에 계시고 임금을 보좌하는 어진 신하들이 서로 화합하고 공경하여 급히 어진 자를 구하여 보내어서 밖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러나 아직 <임금의> 혜택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덕화가 흡족하지 못한 것은 위임 맡은 사람이 혹 그러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고, 받들어 행함 또한 그러한 이치를 다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무릇 이러한 근심을 나누어 가진 자가 이 누각에 올라서 편안하게 놀지 않고 방종스런 욕심을 없이 하여 위임받은 책임을 다 할 것을 생각하고 항상

319) 화류(驍驪)는 준마(駿馬)를 지칭하는 말, 원래는 주무왕(周武王)이 천하를 주유(周遊)할 때 탔다는 8준마의 하나.

320) 중국 주나라의 정치가. 문왕(文王)의 아들이며 무왕(武王)의 동생, 이름은 단(旦). 무왕을 도와 은(殷)을 멸망시키고 무왕이 죽자 성왕(成王)을 도와 주왕실의 기초를 튼튼히 하였음.

321) 중국 주나라의 정치가. 이름은 석(奭), 별명은 소백(召伯), 주 무왕의 아우로 형제인 주공과 더불어 조카 성왕(成王)을 도와 주나라의 기초를 닦음.

임금의 덕화를 넓히며 백성들의 실정에 통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주나라의 정치를 오늘에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며, 제주의 백성들은 당연히 무궁하게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한 즉 어찌 이 누각을 홍화로 이름 짓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듣는 자들이 모두 절하고 사례하여 말하기를, ‘공께서 지으신 이름은 능히 후세의 계승자들로 하여금 더욱 힘쓰는 바가 있게 할 것이며, 우리 백성들이 영구히 인화(仁化)를 입는 일이 더욱 보장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드디어 물러나서 나에게 홍화각(弘化閣)이라는 세 글자를 쓰도록 청하여, 그것을 걸어 놓고 또한 기록을 남겨 후세에 전할 것을 청하였다. 나는 이 고장 사람으로서 의리상 사양할 수 없어서 보잘 것 없고 졸렬함을 헤아리지 않고 기(記)를 쓴다.】

이원조의 중수기(李源祚重修記)

홍화각은 옛적에 절제사³²²⁾가 집무하던 곳이다. 선덕³²³⁾ 갑인년(세종 16년, 1434)에 처음 세웠고, 그 후 215년이 지난 무자년(인조 26년, 1648)에 중수하였으며, 전·후에 모두 기(記)가 있다. 숙종 계사년(39년, 1713)에 방어영³²⁴⁾으로 승격되어 따로 정아를 설치하게 되니, 이에 홍화각은 영리청이 되었다. 순조³²⁵⁾ 기축년(29년, 1829)에 절도사 이행교³²⁶⁾가 이 영에 부임하여³²⁷⁾ 거대한 집채가 무너지려는 것을 걱정하고 고적이 없어지는 것을 슬퍼하여, 옛 것을 따라 고쳐 세우니 아름답고 새롭게 되었다.

기축년부터 지금까지 이미 13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중수>기가 없으니, 여러 아전³²⁸⁾들이 막료들에게 부탁하여 <중수기>를 요청하였다. 나와 이행교 절도사는 평소 아는 사이로 그에게는 무기를 다루고 글을 쓰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스스로 쓰지 않고 뒷 사람을 기다린 것이 기이하게 여겨진다. 다만 ‘홍화’라는 이름을 생각해 보면 임금의 덕화를 널리 퍼라는 책임을 받은 것이지, 죽간에 글자를 기록하는 것이 임무가 아니므로 어찌면 마땅

322) 절제사(節制使)는 조선시대 각 지방에 두었던 정3품 무관직으로, 거진(巨鎭)을 맡아 다스렸다.

323) 본문의 정통(正統)은 명나라 영종(英宗)의 연호로 1436년에서 1449년까지임. 갑인년(세종 16, 1434)은 정통 연간이 아니라 명나라 선종(宣宗)의 선덕(宣德) 9년에 해당되므로 기산 착오에 의한 오기(誤記)로 보임.

324) 방어영(防禦營)은 방어사가 지휘하는 군영을 말함. 방어사는 각 도에 배속되어 요지를 방어하는 병권을 가진 종2품의 벼슬로 병마절도사 다음의 직위임.

325) 본문의 순종(純宗)은 순조(純祖)로 바로 잡음. 순종 재위 연간(1907~1910)에는 기축년(己丑年)이 없음.

326) 이행교(李行敎)는 1827년(순조 27) 8월에 목사로 도입하여 1830년(순조 30) 3월에 체임하였고, 그는 광양에 있었던 제주향교를 지금의 용담동으로 이설하였으며, 판관 이의겸(李義謙)이 음탕하고 어리석으므로 아뢰어 파직시키기도 하였다.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떠난 후에 선정비가 세워졌다.

327) 순조 기축년(己丑年)은 이행교(李行敎) 목사의 부임 연도가 아니라 홍화각 중수 연도를 표기한 것으로 보임. 그의 부임 연도는 본서 관안(官案)조에 ‘李行敎丁亥八月到任庚寅三月遞歸’라 하여 정해년(순조 27, 1827)에 부임했음을 밝히고 있음.

328) 아전(衙前)은 중앙과 지방의 관청에 속해 있던 하급관리. 일명 인리(人吏) 또는 서리(胥吏)라고도 함. 지방 수령(守令)이 집무하는 정청(政廳)의 바로 앞에 그들이 근무하는 청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전(衙前)이라는 이름이 생김.

한 것이다. 고치려 한 것은 고적이 없어지는 것을 〈설명하기〉 어려웠고, 옛 것을 그대로 따라 세우려 한 것은 의미가 부합되지 않음으로써 그 설명이 어려웠을 것이다.

아! 나는 말할 수 있다. 옛날에는 재능을 가리고 문벌을 가리지 않았으니, 아전을 거쳐 녹봉 2,000석의 구경³²⁹)에 오르는 자가 적지 않으니, 어찌 홍화가 아니겠는가? 더 말할 필요 없이 우리 조정의 지위가 높은 관료들은 모두 우아한 것을 좋아하고 사무에는 멀리하여, 비교하고 조사해서 종합하여 정리하는 일들은 오로지 서리에게 위임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주·군에서 더욱 심하다. 서리로서 마땅한 사람을 얻지 못하면, 의사소통을 가로 막고 함부로 농간을 부리며, 남의 의사에 따라 살아가는 데 익숙하여 윗사람의 은덕을 펴지 못하게 하고, 백성의 속사정을 드러내지 못하게 한다. 위에 있는 사람이 비록 널리 교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하여도 다스려질 수 없으니, 그러한 관계가 더욱 중요하지 않겠는가? 세상에서 백성을 잘 다스려서 이름난 사람들은 때때로 아전을 엄히 단속하고 모질게 대하였다. 임금님의 덕화를 뿜으나 달성하지 못하면, 백성의 사정과 형편을 살피는 일을 그들에게 책임지워서 기한내로 서류를 갖추도록 구박을 하고, 온갖 형구로 그들을 위협하여 훌륭한 재능을 기르고 착한 마음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니, 나는 마음속으로 이를 개탄하는 바이다. 하물며 이 고을에 부임하는 사람들은 바다로 막히고 천리나 멀리 떨어져 있는 한 지역의 중요한 일을 전담 하는데, 완고하고 어리석은 군중의 우두머리(아전)에게 의지하여, 아침저녁으로 보좌받으면서 정성들여 공물을 바치고,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는 일까지도 오로지 아전들에게 의지한다.

이러하니 이 당에 거처하면서 이 이름을 그대로 따른다고 과연 그 의미가 부합되지 아니하고, 그 설명이 어찌 어렵다고 할 것인가? 드디어 그 말을 적어서 벽에 걸어 놓고 모든 아전들로 하여금 항상 보고 반성하게 하였다. 또한 재간 있는 장인들이 부지런히 측량하여 지어서 칸살의 엽이 배치가 치밀하니, 그 당시 일을 주관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능력을 자랑하여도 이는 실없는 말이 아니다“ 하였다.

애매헌(愛梅軒) 【홍화각 동쪽에 있었으나 지금은 폐지되었다.】

김태정의 시(金泰廷詩)

凍雨霏霏不肯晴 차가운 눈비 겹 겹 같지 않아
寒潮和霧撼荒城 황성의 바다 안개 내 마음 흔드네

329) 구경(九卿) : 의정부(議政府)의 좌·우참찬(左右參贊)과 6조 판서(六曹判書) 및 한성판윤(漢城判尹)을 지칭함.

■ 耽羅誌草本(上)

扶筇獨訪梅消息 혼자 지팡이 짚고 매화 찾아가
折得孤枝望玉京 꽃가지 꺾어 들고 옥경을 바라보네

이원진의 시(李元鎮詩)

梅花初發小軒頭 난간 마루에 일찍 매화 피었소
酷愛清香入酒甌 귀엽다! 꽃내음 내 술잔에 드네
忘却此身留海國 잠깐 잊었네! 내 탐라에 왔음을...
雪中詩興似楊州 쌓인 눈에 흥은 양주³³⁰) 고사와 같네.

이익한의 시(李翊漢詩)

日日孤襟向北開 날마다 북쪽을 향해 외로운 마음을 펼쳐 보는데
五雲何處望蓬萊 오색구름 쌓인 어느 곳이 봉래산인지
玉京消息春來少 서울 소식은 봄이 들면서 적어지고
惟有寒潮寂寞回 싸늘한 파도 소리만 적막하게 들려올 뿐

홍중징의 시(洪重徵詩)

空庭寥落但莎平 고요한 비인 뜰 평평한 잔디밭
詩興難尋一徑行 지름길 걸어 봐도 시흥 찾기 어렵구나
惆悵弄珠今不見 구슬놀이 지금은 할 수 없어 찻찻하지만
等閑凡卉豈關情 평범한 풀이 어찌 마음을 움직이겠는가

우련당(友蓮堂) 【홍화각 남쪽에 있다. 중종 병술년(21년, 1526)에 목사 이수동³³¹)이 성안에 물이 없어서 못을 파서 물을 저장하여 연꽃을 심고 집을 지었다. 그 후 목사 양대수³³²)가 시끄러운 개구리 소리를 듣고, 그것을 싫어해서 못을 메워서 평지로 만들어버렸

330) 양주(楊州)는 揚州. 중국 강남의 주명으로, 옛날 9주의 하나다.

331) 이수동(李壽童)은 중종 21년(1526) 4월에 목사로 도임하여, 1528년(중종 23) 12월에 떠났다. 그는 삼성혈을 성역화 하고, 별방·수산·서귀·동해·명월 등의 방호소에 과원을 조성하여 민폐를 없애는데 앞장섰다. 형조참의를 배명하여 떠났다.

332) 양대수(梁大樹)는 선조 25년(1592) 3월에 목사로 도임하여, 임진왜란에 대비하여 성지를 보수하고 순시하다가 낙마하여 동년 6월 순직하였다.

다. 노봉 김정(金儼)³³³때 중수하여 꽃과 대를 심고 이름을 고쳐 향의실이라 하여 공물을 봉진하는 처소로 삼았다.】

이원진의 시(李元鎮詩)³³⁴

納涼虛閣雨初收 바람 쏘러³³⁵ 간 누각엔 비가 개어
鳥下苔階興轉幽 이끼 낀 섬돌 아래 흥취 그윽하네.
竹島清陰移菡萏 죽도 그늘진 곳에 연꽃³³⁶ 옮겨
鏡中添作小瀛洲 거울 같은 못에 작은 영주³³⁷를 만들었네.

김정의 향의실기(金儼享儀室記)

『서경』에 말하지 않았는가? “공물을 바치는 데는 예절이 많아야 하는데, 예절이 물건에 미치지 못하면 불향(不享)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임금께 바치는 것을 향이라 하고, 예를 갖추는 것을 의라 한다. 『맹자』에 이르기를 “공경(恭敬)이라는 것은 폐백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폐백을 보내기 전에 먼저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탐라는 바다 밖의 먼 변방으로 세(稅)와 부(賦)는 없고 오직 토산물을 바치는데, 그 포함되는 것이 1백 품목에 이른다. 해마다 40 차례나 운반하여 바치는데, 매번 일을 맡아보는 당(堂)에서 봉하는 일을 한다. 소란스럽게 정성을 드러보지만 일에 익숙하지 못하고, 아전들은 삼가서 봉하지 않으며, 또한 봉하는 일을 마치면 외청의 잡물 속에 보관하는데 무례하고 방자함이 또한 심하다.

나는 을묘년(영조 11, 1735)에 이곳에 목사로 부임 하였는데, 향의에 결함이 많음을 개탄하여 망하례를 올리기 위해 존경각을 설치하고, 전문에 배례하기 위해 오리정을 세웠으나, 유독 공물을 포장하거나 광주리에 넣는 의식을 위해서는 대비하지 못한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포정문 서편에 우련당이 있는데 중국어 통역관이 빌려 쓴 지가 몇 십 년이 되었기에 새 집을 지어서, 그들을 옮겨 살게 하였다.

333) 김정(金儼)은 영조 11년(1735) 4월 제주 목사로 부임하였다. 그는 삼천서당(三泉書堂)을 제주성 동문 안에 세워 교육을 장려했고, 화북포(禾北浦)에 방축을 쌓아서 포구를 이용하는 데 편리하게 만들고자 목사 스스로 돌을 져 나르며 독려하였다. 영조 13년(1737) 9월에 관에서 사망하였다.

334) 나중에 우련당(友蓮堂)이라는 제목을 향의실(享儀室)로 바꾸었다.

335) 납량(納涼)은 바람을 쏘임.

336) 함담(菡萏)은 연꽃 봉오리를 이른다.

337) 영주(瀛洲)는 제주의 별칭. 신선이 사는 물가.

그 당을 비우게 하여 살펴보니, 제도가 지극히 묘하고 단장도 기이하였다. 다만 기와가 날려서 서까래가 썩었고, 연못이 없어졌으며, 담장이 무너지고, 더러운 것들이 눈에 가득하여 거처할 수가 없었다. 마침내 기와를 고치고 서까래를 바꾸었으며 벽에는 붉은 칠을 하였다. 연못은 파서 다시 연꽃을 심고, 오래된 매화를 용처럼 못 위에 덮어지게 하여 겹으로 심었다. 담장 아래에는 푸른 대나무 1백 그루를 심었는데, 모두가 마당을 가득하게 하였다. 〈우련당이〉 고요하고 적막하며 깨끗하고 그윽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혼쾌히 새로워지라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

드디어 10월 초하루에 굴과 유자를 이곳에서 경건하게 포장하도록 하여 포장된 것을 동쪽 방에 보관하니, 조용하면서 한가하고 정결하면서 숙연하니 임금님께 공물을 바치는 일도 거의 대비되었다. 〈이 당에 심어 놓은〉 저 식물 중에는 공물에 함께 할 만한 것이 없으나, 연꽃에서는 솟아오르는 꽃다운 향기를 맡는 것을 사랑하고, 매화에서는 국에 소금을 치는 것이 중대함을 생각하게 하고, 대나무에서는 그 한겨울의 추위에 견뎌내는 곧은 절개를 만들게 하니, 모두가 공물을 바치는 정성에 보탬이 되는 것이다. 그 애완물들을 바라보면서, 한가할 적에는 잠시 틈을 내어 맵시를 내고 흥미를 부쳐보는 것도 어떠하겠는가? 이에 그 집의 액자를 고쳐서 향의라 하니, 뒷사람들이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닌가? 이에 기록한다.

찬주헌(贊籌軒) 【관덕정 남쪽에 있는데, 판관³³⁸⁾이 목사의 분부를 기다리던 곳이다. 지금은 폐지되었다.】

양심당(養心堂) 【망경루 아래에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되었다.】

굴림당(橘林堂) 【연희각 동쪽 과원 가운데에 있다. 영조 계해년(영조19년, 1743)에 목사 안경운³³⁹⁾이 고쳐지었다.】

청심당(淸心堂) 【애매헌 동쪽에 있다. 숙종 갑신년(숙종 30, 1704)에 목사 이희태³⁴⁰⁾가 창건하였다. 영조 병오년(영조 2, 1726)에 군기청이 화재로 훼손되자, 이 당으로 옮겨 세우고 세병헌이라 하였다.】

공제당(共濟堂) 【연희각 동남쪽에 있는데, 곧 목사의 군관청이다. 옛날에는 군관의 수

338) 조선시대 주요 지방관의 속관으로 민정의 보좌 역할을 담당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각 도와 대도호부(大都護府)에 판관을 설치하였으나 후기에는 경기·평안도를 제외한 각 도 및 수원(水原)·강화(江華)·광주(廣州)·춘천(春川) 등의 유수영(留守營)과 제주(濟州)·경성(京城)·청주(淸州) 등 특수지에만 설치하였다.

339) 안경운(安慶運)은 영조 16년(1740) 6월에 제주 목사로 부임하여 영조 19년(1743) 3월에 체귀하였다. 그는 교학을 장려하여 삼성사(三姓祠)에 재생(齋生)을 두으로써 서원(書院)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340) 이희태(李喜泰)는 숙종 29년(1703) 6월에 제주 목사로 부임하여 숙종 30년(1704) 10월에 체귀하였다. 관기장살사건(官妓杖殺事件)으로 유배되었다.

가 15인이었으나 어사 이경억이 조정에 보고하여 10인으로 줄였다.】

좌·우위랑(左右衛廊) 【옛날 객사문 밖에 있었는데, 목사 김석철³⁴¹⁾ 때 관덕정 동쪽으로 옮겨 세웠다. 호남 원병이 이곳에 와서 머물렀다. 원병을 파한 뒤에 본 영에는 각 반 및 기병, 보병, 궁시인, 취수군, 뇌라장 등이 모두 이곳에 머물렀다.】

역학당(譯學堂) 【왜학과 함께 이 당을 썼다. 배번자는 3명이고, 학생은 34명이다.】

검률당(檢律堂)³⁴²⁾ 【심약³⁴³⁾과 함께 이 당을 썼다.】

진무청(鎭撫廳) 【배번자는 66인이다. 기수와 함께 이 청을 썼다.】

훈련청(訓練廳) 【곧 옛날의 출신청이다. 좌·우별장이 있는데, 좌별장은 곧 출신³⁴⁴⁾중에서 차출한다.】

교련청(敎鍊廳) 【곧 옛날의 기패청이다. 행수가 1인, 교련관이 13인이다. 숙종 임오년(숙종 28년, 1702)에 따로 설치하였다.】

대변청(待變廳) 【곧 옛날의 금군청이다. 행수가 1인, 외병방이 1인이다. 선조 기해년(선조 32년, 1599)에 따로 설치하였다.】

무학청(武學廳) 【배번자는 83명이다.】

정갑청(定甲廳) 【정로위와 갑사가 함께 근무하는데, 배번자는 132인이다.】

아병청(牙兵廳) 【본래는 2초인데, 목사 김여수³⁴⁵⁾ 때 1초를 가설하고, 이인³⁴⁶⁾ 때 1초를 가설하여 모두 4초이다. 난후영장이 4인인데, 공무를 분담하여 6번으로 윤직한다.】

인리청(人吏廳) 【배번하는 향가리³⁴⁷⁾는 79인이다.】

주사(州司) 【호장³⁴⁸⁾이 근무하는 곳이다.】

지인방(持人房) 【현재 수는 88명이다. 이상은 모두 좌·우위랑에 있다.】

세병헌(洗兵軒) 【곧 군기 대청이다. 새과원(新果園) 남쪽에 있다. 감관이 1인이다.】

341) 김석철(金錫哲)은 중종 6년(1511) 1월 제주 목사로 부임하여 중종 8년(1513) 6월 체귀하였다. 그는 전임 목사의 실정으로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고, 방어 시설을 정비하였으며, 정원루(남문)를 창건하였다. 한성부 좌윤으로 승진하여 자리를 옮겼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주의 어려운 사정을 아뢰어 시정하도록 하였다.

342) 검률당(檢律堂) : 검률(檢律)이 근무하던 관아(官衙). 검률은 조선시대 형조 율학청(律學廳)에 소속된 종9품의 관직으로, 유수부(留守府)와 각 도에 1명씩 배치하여 지방의 사법행정사무를 보게 하였다. 특히 전라도에는 2명을 두고, 그 중 1명을 제주에 파견하였으나 광해군 10년(1618) 이후 조정에서 파견이 중단되었다.

343) 심약(審藥)은 조선 시대의 외관직(外官職)으로, 각 도에 두었던 동반(東班)의 종9품직인데, 궁중에 바치는 약재를 검수하는 일을 맡아 보았다. 이들은 전의감(典醫監)·혜민서(惠民署)의 의원 중에서 임명하였다.

344) 출신(出身)은 조선시대 문과(文科)·무과(武科)·잡과(雜科)에 합격자로서 임관되지 않은 자를 말함.

345) 김여수(金汝水)는 인조 25년(1647) 5월에 제주 목사로 도임하여 인조 27년(1649) 9월에 체귀하였다.

346) 이인(李麟)은 현종 8년(1667) 6월에 도임하여 현종 10년(1669) 이곳에서 졸하였다. 그는 김상헌(金尙憲)의 남사록(南槎錄)을 간행하여 세상에 전하였고, 마경무와 애매헌도 중수하였다.

347) 향가리(鄕假吏)는 향리(鄕吏)와 가리(假吏)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향리는 그 지방 출신으로 대대로 아전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 가리는 다른 지방에서 와 임시로 근무하는 아전을 말한다.

348) 호전(戶典)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향리의 우두머리.

신찬의 기(申續記)

“탁라는 남쪽의 변경으로서 거친 바다에 끼어 있고 오랑캐의 땅과 이웃하여 익새를 새긴 배들이 줄을 있고 있어서 그 훼손(虺毒)이 우려되니 끊임없는 경계와 대비가 그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주(州)의 영(營)에 비축된 병기가 적지 않지만 세월이 오래 지나서 모두 낡고 파손되었다. 무(武)에 대한 준비가 이렇게 소홀하니 어찌 군무를 주관하는 자의 당연한 걱정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 임금이 즉위하여 3년이 지난 신묘년(효종 2, 1651)에 황려(黃驪)³⁴⁹⁾ 이 상공(李相公: 이원진)이 이곳에 부임하여 파손된 것은 재생시키고 폐단은 개혁하여, 다스리고 이루는 제도를 정하였다. 무기가 파손된 것을 개탄하고 먼저 보수할 계획을 세워서 막부의 비장(裨將)³⁵⁰⁾ 신밀(愼謐)에게 명하여 병선과 군기(軍器)를 관장하는 일을 맡도록 하였다. 일의 시작부터 여러 공장(工匠)들이 힘과 기술을 다 바쳤다. 쓸 수 없는 활과 화살은 새로운 것으로 바꾸고 현 갑옷은 꿰매어 수선하였다. 창과 화포에 이르기까지 수리하지 않은 것이 없고 정성 들여 꿰매고 맞추었으니 옛 것에 비하여 더욱 빛났다. 1년이 걸려서 그 일이 끝나고 수선된 병기들은 군기고(軍器庫)에 보관하였다. 군기고는 관덕정 밑 좌위(左衛)의 북쪽에 있는데 집 모양이 새가 날개를 편 형상이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지은 지는 이미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이름이 붙여지지 않고 있었다.

이제 상공께서 그 이름을 세병헌(洗兵軒)이라 하였으니, 상공의 뜻이 어찌 물을 끌어들여 갑옷과 병기를 닦았다는 데 있지 않겠는가. 아아! 병기로써 나라를 지키려면 미리 준비하여 근심을 없게 해야 한다. 전날의 파손되고 부서진 병기들이 상공을 만나서 비로소 수선되고, 다섯 포구(5개의 수전소)의 함선과 병사도 정비되어 온갖 병기가 다 구비되었다. 이로써 적을 맞게 되면 어떠한 적인들 상대하지 못하겠는가. 그러한 즉, 단지 병기를 사용해서 적의 능멸을 막을 뿐만 아니라, 장차 병기를 닦아 두고 사용하지 않는 데까지 이를 것이다. 상공의 공적이 여기에서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더 나가서는 조정에서 상공에게 국가의 중신으로 제수해 준 고마운 뜻까지도 저버림이 없었다.

나는 서생(書生)으로서 병(兵)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사또 상공께서 병기를 수선한 공적이 후세에 전해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글 솜씨가 미천함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대략을 진술하니 후세 사람들이 알아서 따르고 힘쓰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349) 여주(驪州)의 옛 이름.

350) 감사(監司), 유수(留守), 병사(兵使), 수사(水使), 해외사신(海外使臣) 등에게 따라 다니는 관원의 하나.

장춘원(藏春院) 【기생과 악인들이 악기를 연습하는 곳이다. 새과원[新果園] 서쪽에 있다.】

습마방(習馬房) 【망경루의 동북쪽에 있다. 도습마가 2인이다. 주로 체임진상마를 길들여 기른다.】

찰미헌(察眉軒) 【판관의 관아이다. 남쪽 성 안에 있다. 순조 경오년(10년, 1810)에 판관 손응호³⁵¹⁾가 중수하였다.】

향사당(鄕社堂) 【찰미헌의 서북쪽에 있다. 숙종 신미년(17년, 1691)에 판관 김숙(金束)이 창건하였다. 좌수³⁵²⁾가 1인, 별감³⁵³⁾이 3인이다.】

총물당(攄物堂) 【찰미헌 북쪽에 있다. 본부 육방³⁵⁴⁾이 있는 곳이다.】

누관(樓觀)

관덕정(觀德亭) 【홍화각 남쪽에 있다. 세종 무진년(30년, 1448)에 목사 신숙청(申淑晴)³⁵⁵⁾이 창건하였고, 판액은 안평대군이 썼으며, 성종 경자년(11년, 1480)에 목사 양찬(梁贊)³⁵⁶⁾이 중수하였다. 정자 뒤뜰에는 옛날에 돌로 쌓은 사대(射臺)가 있다.】

신석조³⁵⁷⁾의 기(辛碩祖記)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³⁵⁸⁾ 고득중 상공(高相公)이 나에게 말하기를, “나의 고향 제주는 비록 먼 곳에 있으나, 특별히 임금님의 너그러운 보살핌을 받아, 가르치고 다스리니 학문과 예술 등에 관한 일이나 군사에 대한 준비가 모두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안무사영(安撫使營) 남쪽에 사청(射廳)이 있는데, 그 한 구역은 바로 사졸(士卒)

351) 손응호(孫應虎)는 순조 9년(1809) 1월 제주 판관으로 도입하여 순조 11년(1811) 9월에 떠났다.

352) 좌수(座首)는 조선 시대 때 부·목·군·현(府牧郡縣)에 두었던 향청(鄕廳)의 우두머리

353) 별감(別監)은 향청(鄕廳)의 좌수(座首) 버금 자리.

354) 육방(六房) : 조선시대 지방 관청에 두었던 이방(吏房)·호방(戶房)·예방(禮房)·병방(兵房)·형방(刑房)·공방(工房)의 총칭. 향리(鄕吏)들이 지방관을 보좌하며, 그 실무를 각각 분담하였다.

355) 신숙청은 1447년 6월부터 1449년 7월까지 제주목사로 재직하였다.

356) 양찬은 1478년 10월부터 1481년 7월까지 제주목사로 재직하였다.

357) 신석조는 조선 초기의 문신·학자로 자는 찬지(贊之), 호는 연빙당(淵氷堂)이다. 대사헌·판찰사·한성부윤·개성유수 등 재임하였다. 성품이 온순, 근엄하며 학문에 뛰어났고 문장이 능하였으며, 의방유취·경국대전 편찬에도 참여하였다. 저서로는 『연빙당집』이 있다. 시호는 문희(文僖)이다.

358) 동지중추원사는 조선 초기 중추원(中樞院)의 종2품 벼슬.

을 훈련하는 곳이다. 예전에는 집이 없어서, 단지 보기에 장엄하게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추위나 더위를 가려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모두 한스럽게 여겼다. 지금 안무사 신숙청 후(辛侯)께서 부임하여 정사를 맡은 이듬해인 무진년(세종 30년, 1448)에 농사가 잘되어 풍년이 들자, 일손을 모집하고, 재목을 모으고, 기와를 굽고, 돌을 쌓아 대(臺)를 만든 다음, 그 위에 새 정자를 세워서 이름을 관덕(觀德)이라 하였다. 대저 기둥으로 세운 것은 세 개이나, 앞뒤로 보강하고, 좌우에 날개를 달아 넓게 하고, 단청을 얹게 하니, 널찍하고 선명하며 크고 아름다운데다 정자의 법도에도 알맞아서, 참으로 한 고을의 볼거리가 되었다. 고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경사로 여겨, 모두 이러한 사실을 기록하여 뒤에 오는 사람에게 보이기를 원하였다. 편액을 쓰는 일은 내가 이미 안평대군에게 요청하여 맡겼으며, 안무사의 수제(首題) 7언 4운(七言四韻)의 장구(長句) 1편을 문설주 사이에 걸었는데, 조정의 높으신 벼슬아치들이 소문을 듣고, 이에 화답(和答)한 것이 무릇 몇 수가 되므로 이를 기록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대는 나를 위하여 그 전말을 써 주시오.”라고 하였다.

나와 고득중 상공(相公)과는 옛날부터 얹은 교분으로 대대로 알고 지내온 터이며, 안무사 신숙청 공(公)도 또한 우리 종친(宗親)이니, 의리로 보아, 글을 잘못한다는 이유로 사양할 수가 없었다.

일찍이 『예경(禮經：禮記)』의 ‘사의편(射義篇)’을 보니, 이르기를, “활을 쏘는 것은 훌륭한 덕을 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한 문장에서 말한 것은 성인(聖人)의 사례(射禮)에 대한 마음 씬씀이가 지극함이다.

대개 천하가 태평하면, 사례(射禮)를 예의(禮義)에 응용하는 것이니, 이는 대사(大射)와 향사(鄉射)³⁵⁹를 행하는 까닭이, 용모와 태도를 배우고 기예를 익히기 때문이며, 천하에 변란이 있으면, 싸워 이기는데 사례(射禮)를 응용하는 것이니, 이는 과녁을 뚫는 힘을 길러 외적을 막아내고 적을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바로 이제 성군(聖君)이 재위에 있어 태평성대가 계속됨에, 문교(文教)의 성함이 예전보다 탁월하며, 사방이 편안하고 조용하므로 오병(五兵)³⁶⁰을 시험하지는 않는다. 다만 편안하다고 하여 위태함을 잊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더욱 무예와 전술을 익히고 병사의 훈련과 무기에 힘쓰며, 항상 적군이 대문 안 뜰에 있는 것처럼 해야 한다.

359) 대사(大射)와 향사(鄉射)는 곧 대사례(大射禮)와 향사례(鄉射禮)를 말하는 것으로, 『예기(禮記)』 사의편(射義篇)에 의하면, 제후(諸侯)의 사례인 대사례에는 연예(燕禮)가 선행되고, 경·대부(卿大夫)의 사례인 향사례에는 향음주례(鄉飲酒禮)가 선행된다고 하였다. 즉 연례는 군신(君臣)의 예(禮)를 밝히는 것이고, 향음주례는 장유(長幼)의 차례를 밝힌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

360) 오병은 과(戈)·수(殳)·극(戟)·추모(酋矛)·이모(夷矛) 다섯 가지 무기 또는 5위(전·후·좌·우·중위)를 말한다.

수령은 모두 군사의 통솔과 훈련의 직책을 띠고 있으니, 무기와 군사를 다스리어 비상 사태에 대비하는 계획을 철저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물며 제주는 예전의 탐라이다. 멀리 바다 한가운데 있어 본토와 인접하지 않았으니, 무비(武備)를 더욱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신숙청 후(侯)가 이 정자에 힘쓴 것은 마땅한 일이고, 더구나 ‘관덕정(觀德亭)’이라고 편액하였으니, 그 활 쏘는 것은 과녁을 뚫는데 있지 않고, 나아가고 물러서는 행동거지에서, 그 덕행(德行)을 살피고 예악(禮樂)을 강조하는 것이다. 가히 삼대(三代)³⁶¹⁾의 활 쏘는 뜻을 얻었다 하겠다.

대저 정자를 짓는 데는 마땅함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짓는 때를 놓치면, 불만한 가치가 없다. 지금은 군사의 위용과 상태를 검열하는 곳을 진실로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때이며, 풍년을 만난데다, 사람들이 하고자 하기 때문에, 재물도 상하지 않고 백성들도 해롭지 않을 것이다. 전날에 없던 새 정자를 짓고, 그 아름다운 이름을 게시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이름과 뜻을 되새기며, 사례(射禮)에 뜻을 다하여 자신에 바른 도를 구하고, 나라가 편안해지는 공에 이르게 함이다.

이 정자의 건립은, 본디 놀고 잔치하는 장소로 간주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도리를 닦는데 관련이 크다. 이 때, 고을 사람들이 감동하여 일어나 서로 경하며, 이를 기록하여 잊지 않으려 하였다.

후(侯)의 이름은 숙청(淑晴)이며, 지략(智略)을 갖춘 장수로서 널리 알려졌다. 또한 시(詩)와 예(禮)를 좋아하였고, 누차 외적을 진압하여 명성과 치적이 성대하였다. 이러한 행동거지로 보건대, 그 사람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상공(相公)의 이름은 득종(得宗)이며, 신라에서 일컬은 성주(星主)의 후예이다. 두 번이나 문과에 합격하여³⁶²⁾ 일찍이 추부(樞府)³⁶³⁾에 올랐다. 대를 이어 고을 일을 주관하였고, 고을 사람들의 사정을 잘 알아서, 그들을 위안함을 즐거움으로 삼았기에, 이번 일이 이룩된 것이다. 또 왕실(王室)의 글씨를 얻어서, 그 정자에 편액하니, 고을의 영광이요, 주위의 이목(耳目)을 끌게 되었다.

또 그 사실을 기록하여 영원히 전하기를 도모함이 이와 같이 지극하니, 이를 더욱더 기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정자의 훌륭한 경치에 관해서는, 내 비록 멀리 있으니, 다른 날 우연히 한 번 가서 볼 수 있게 되면, 조용히 읍양(揖讓)하고, 술잔을 높이 들고, 과녁을 펼치고, 바람을 마주하여 읊조리며 감상한 다음, 좌우를 취하여 부를 짓고, 제현

361) 삼대는 중국의 하·은·주의 세 왕조.

362) 고득종은 1414년 알성문과 을과와 1427년 문과중시 을과 두 차례 급제하였다.

363) 여기서는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를 뜻한다.

(諸賢)의 군옥(群玉)³⁶⁴ 뒤에 매어 놓으려 한다. 이것으로 기(記)를 삼는다.

서거정³⁶⁵의 중수기(徐居正重修記)

좌주(座主)³⁶⁶ 남원군(南原君) 양성지 판상(梁判相)³⁶⁷이 서거정(徐居正)에게 이르기를, “나의 아들 찬(瓚)이 제주목사가 되어 관덕정(觀德亭)을 중수하였으니, 청하건대, 선생이 기(記)를 지어서 빛나게 해 주시오.”라고 하였다.

내가 생각하건대, 제주는 본래 옛날의 탁라국(毛羅國) 곧, 우리 동방의 구한(九韓) 가운데 하나이다. 신라 때에 비로소 조회(朝會)하였고, 고려 초에 항복하여, 나라가 없어지고 현(縣)이 되었다. 고려 말년에 기황후(奇皇后)가 빌리어 목장(牧場)을 두었는데, 명(明)나라 때에 이르러 다시 우리나라에 예속시켰다.

대개 제주는 바다 한가운데 있고 땅의 너비가 거의 5백 리이다. 주민은 8~9천 호이고, 기르는 말이 또한 수만 필이나 되며, 그 산물(產物)의 풍부한 것이 다른 고을의 배가 된다. 이 고을이 또 일본(日本)과 서로 이웃하였으니, 방어에 대비하는 계책이 실로 번거롭다. 또 조정에서 제주목사를 선발할 때에 매년 적합한 사람을 얻기가 어려웠다. 지금 양찬 후(侯)가 먼저 선발되어 바다를 건너는데 평탄한 길과 같이 여겼고, 불평의 기색이 없었으니, 후(侯)의 어짊인가?

고을에 부임하자, 마음속에 정성스럽게 간직했던 임금의 덕을 널리 펴고, 백성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급무(急務)로 삼아서 위로하여 다스린 지 3년에 사람들이 크게 화목하였다.

이때에 호족(豪族) 고윤(高潤)³⁶⁸ 등 수십 명이 청하기를, “관덕정(觀德亭)은 실로 고을 사람들이 활 쏘는 것을 익히는 곳인데, 해가 오래되자 기울고 허물어져서 활쏘기를 익힐 곳이 없으니, 진실로 우리 고을의 흠이라 생각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양찬 후(侯)가 말하기를, “그렇다”라고 하고, 판관(通判)³⁶⁹ 하주 공(河公澍)³⁷⁰과 의논하여

364) 군옥은 여럿이 지은 주옥같은 시와 문장들을 말함.

365) 서거정은 조선 초기(1420~1488)의 문신·학자이며, 자는 강중(剛中), 초자는 자원(子元), 호는 사가정(四佳亭) 혹은 정정정(亭亭亭),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366) 좌주는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자기를 뽑아준 시관(試官)을 높여 부르던 칭호로, 은문(恩門)이라고도 한다.

367) 양성지(1415~1482)는 조선 전기의 문신·학자로, 본관은 남원(南原), 자는 순부(純夫), 호는 눌재(訥齋)·송파(松坡), 1471년(성종 2) 좌리공신(佐理功臣)3등으로 남원군(南原君)에 봉해졌다. 시호는 문양(文襄)이다. 춘추관기주관(春秋館記注官) 겸 고려사수사관(高麗史修史官)으로 『고려사』 개찬(改撰)에 참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세종실록』과 『예종실록』 편찬에도 참여하였다. 1481년(성종 12) 홍문관대제학(大提學)으로 『동국여지승람』 편찬에 관여하였다. 학문과 문장이 뛰어났으며, 저서로는 『눌재집(訥齋集)』이 있다.

368) 고윤은 고인충(高仁忠)의 아들이다. 세종 때에 선공직장(繕工直長), 옥천군수를 역임하였다. 나중에 충북 금산(錦山)으로 옮겨서 살았다.

369) 통관은 판관(判官)의 별칭이다.

재목을 모으고 장인(匠人)들을 모집하여 짓기 시작하였다. 엮어 만든 지 한 달을 넘기지 않고 완성을 알려왔다.

이에 활쏘기를 익히는 장소가 갖추어지고 무비(武備)가 더욱 엄해졌으니, 공은 먼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 하겠다. 하물며 이 정자를 지은 것이 놀고 구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래 무예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제부터 고을 사람들은 날마다 여기에서 활 쏘는 것을 익히되, 한갓 과녁을 쏘는 것만이 아니라,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것을 익히고, 한갓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것만 익힐 것이 아니라, 싸우고 진(陣) 치는 것을 익힌다. 그래서 적(敵)이 침입하는 사변이 있을 때에는 세 고을의 군사를 동원하여, 상산(常山)³⁷¹⁾의 형세를 이루어서 수군·육군·보병·기병이 각각 죽을 힘을 다하여 싸워, 적의 머리를 베어, 이것으로 부모와 처자를 구출하고, 이것으로 한 고을을 보존하며, 이것으로 나라의 간성(干城)이 되어, 죽백(竹帛)³⁷²⁾에 공명을 세운다면, 어찌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한갓 무비(武備)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이 고을 사람 가운데 문장(文章)을 일삼아서 세상에 명성을 드날린 이가 평장사 고조기(高平章兆基)³⁷³⁾로부터 내려와서 고득종 선생(高先生得宗)·좌윤(左尹) 태필(台弼) 4형제에 이르러 모두 입신양명(立身揚名)하여 청직(淸職)·현관(顯官)을 지냈다. 다른 세 고을의 자제도 고향에 있을 때는 공물을 바치는 데에 힘썼고, 조정에 들어오면 숙위(宿衛)에 오직 근면하니, 그 풍속의 순후(淳厚)함이 국내의 여러 고을과 견줄 수 있는 것이다.

양찬 후(侯)가 문벌(門閥)의 자손으로서 무사(武事)를 익히어 훌륭한 재능이 있으며, 우연히 우리 열성조(列聖朝)가 알고 연이어 지방관에 임명하였다. 그의 명성과 공적은 삼척(三陟)과 웅천(熊川)의 재임 때, 사람들이 모두 자자하게 칭송하였고, 지금도 멀리 떨어져 있는 제주에서 이름을 날리어, 그 성취한 것이 이와 같이 탁월하니, 어찌 아름답지 않은가. 후(侯)의 자(字)는 여옥(如玉)이며 남원군의 셋째 아들이다.

정인지³⁷⁴⁾의 시(鄭麟趾詩)

綸巾羽扇閱佳兵 윤건³⁷⁵⁾ 쓰고 부채³⁷⁶⁾ 들어 열병하네

370) 하주는 1469년 8월부터 1772년 7월까지 제주 판관으로 재임하였다.

371) 회계(會稽) 상산(常山)에 뱀이 있는데, 머리를 치면 꼬리가 이르고 꼬리를 치면 머리가 이르고 허리를 치면 머리와 꼬리가 함께 이른다. 예전의 진세(陣勢)에 많이 활용되었다.

372) 예전에는 문자를 기록할 때 죽간(竹簡)이나 목간(木簡)을 사용하였는데, 진(秦)나라 때에 와서 백(帛)으로 대신하였다. 문서에 기록되는 것을 의미한다.

373) 고조기에 대해서는 이 책의 '제주목, 인물' 조를 참조할 것.

■ 耽羅誌草本(上)

身作長城鎮下情 장성거진 민정 몸소 아오
 約束行時潮鱷徙 서약할 때³⁷⁷⁾ 큰 물결³⁷⁸⁾ 잔잔하네
 威稜振處楚氛清 당당한 위풍³⁷⁹⁾ 남방의 재앙³⁸⁰⁾ 맑아
 千林迸火霜柑影 굴빛은 온 수풀에 불붙듯³⁸¹⁾
 萬鼓齊搥海浪聲 북소리 둥둥 물결 노래인가³⁸²⁾
 朝暮炊烟桑柘外 이른 저녁 뽕나무³⁸³⁾ 밖은 밥 짓는 연기
 分明畫出歲豐平 세세연년 풍년 드니 한 화폭일세.

이약동의 시(李約東詩)

安不忘危要鍊兵 평온한 때 위태로움을 잊지 않아 병사를 훈련하고
 愧無仁政治人情 어진 정치가 백성들의 마음에 젖어들지 못함이 부끄러우나
 耕田鑿井民熙皞 배고프면 밭 갈고 목마르면 샘을 파서 백성들 살리는 복희씨 때와 같고
 放馬投戈海晏清 바닷가 평온하니 병기는 던져두고 말은 놓아먹이고
 花柳爭妍深淺色 꽃과 버들 질고 열은 빛이 서로 아름다움을 다투고
 管絃交作短長聲 부는 악기 타는 악기의 길고 짧은 소리가 어우러진 가운데
 張帳揖讓兼酬酢 과녁을 펴고 서로 사양하며 술잔을 주고받아
 將士還同樂太平 장사들이 돌아와 태평성대를 함께 즐기네

김석철의 시(金錫哲詩)

聖代如今不用兵 태평성대가 되어 지금까지 병기를 쓰지 않았으니
 務推仁恕結人情 인과 서를 미루어 백성들의 뜻을 맺음에 힘써야겠네.
 豈惟夷虜懷恩信 오랑캐들은 어떻게 은혜와 믿음을 품었는지
 已見江河載晏清 이미 강하가 편안하고 맑음이 시작되었네.

375) 윤건(綸巾)은 비단으로 만든 두건. 교전할 때에는 군사들이 투구 안에 바쳐 쓰고 평시에는 투구를 벗고 윤건만 쓴다.
 은자가 쓰는 두건.

376) 우선(羽扇)은 깃으로 만든 부채. 군사를 지휘할 때 씀.

377) 약속(約束)은 법령에 의해 단속함.

378) 악조(鱷潮)는 큰 물결. 큰 난리를 뜻함.

379) 위릉(威稜)은 신령의 위력인데, 뜻이 바뀌어 흔히 임금의 위광을 뜻한다.

380) 초분(楚氛)은 남쪽지방의 변란을 뜻함.

381) 병화(迸火)는 세차게 불어 번지는 불.

382) 파(搗)는 槌(추)의 오자인 듯.

383) 상자(桑柘)는 뽕나무나 산뽕나무를 이른다.

貫革爭看君子射 관혁에는 군자다운 활 솜씨를 다투어 볼 수 있고
投壺仍聽雅歌聲 투호에는 고상한 노래 소리를 따라 들을 수 있네.
輕裘緩帶鈴齋下 가벼운 갖옷 느슨한 띠로 호위하는 병사들³⁸⁴⁾과
坐見東溟鏡面平 동쪽 넓은 바다의 평평한 물결을 앉아서 바라보네.

심연원³⁸⁵⁾의 시(沈連源詩)

敢擬胸藏百萬兵 가슴속에 십만 병을 품었다 감히 의논할 수 없는
書生不合鎮邊情 선비가 변방 진영의 실정에는 합치되지 않지만
推誠正欲民心洽 정성으로 내 마음을 미루어 민심이 합해지고
宣化聊期海甸清 바다 고을³⁸⁶⁾을 선정을 펴³⁸⁷⁾ 밝혀 보려 기대한다
日照牙旗飜火烈 아병기³⁸⁸⁾는 햇빛에 불꽃 같이 나부끼고
風傳畫角動龍聲 고각은 용이 움직이는 소리 같이 바람 따라 들려온다
醉來起立東南望 취한 뒤 일어서서 동남쪽을 바라보니
千仞圓山眼底平 천길 한라산³⁸⁹⁾이 눈앞에 펼쳐졌네

이희용의 시(李希雍詩)

北關分憂按重兵 임금님의 근심을 나누려고³⁹⁰⁾ 군사를 살피면서
撫綏那得協群情 어떻게 어루만져야 많은 이들의 정난을 도울 수 있을지
旌旗影裏軍容整 깃발 그림자 속에 군용은 정비되고
鼓角音中海宇清 고각 소리에 바다고을³⁹¹⁾ 말끔하여
自喜聖恩推盛化 반가운 것은 임금님의 은혜 미루어 교화되어
任看邊圉溢歡聲 별방의 환호하는 소리 넘침을 보고 있으니
高亭兀坐吾何事 높은 정자에 꼴꼴이 앉아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喚取尖頭頌太平 침두목로³⁹²⁾를 끌어 당겨 태평성대를 칭송할 밖에

384) 영재(鈴齋)는 장수가 집무하는 곳을 鈴閣이라 하고 장수를 따라다니며 호위하는 군졸을 鈴下라 하는데 영하의 뜻을 합쳐서 시격에 맞추어 쓴 듯.
385) 심연원에 대해서는 이 책의 '제주목, 명환'조를 참조할 것.
386) 해전(海甸)은 바다 고을을 뜻함.
387) 선화(宣化)는 선정을 펴, 덕화를 선포함.
388) 아기(牙旗)는 아병 즉, 목사(大將)가 직접 거느리는 군사들의 여러 가지 깃발.
389) 원산(圓山)은 한라산의 별칭.
390) 분우(分憂)는 지방관. 왕의 근심을 나눈다는 뜻으로 일컫는 말.
391) 해우(海宇)는 바다 경계 안. 제주를 뜻함.

민회(393)의 시(閔暉詩)

海國千年百萬兵 오래된 바다나라 많은 병사들
 亭前觀德亦風情 정자 앞에서 무예 거름 또한 멋일세
 山橫刀岳穿空碧 한라산은 비스듬히 푸른 하늘을 뚫었고
 泉出嘉羅徹底清 가락천³⁹⁴에 샘이 솟아 밑이 보여 말끔하네
 朝暮烟中城四面 사면을 두루 성엔 아침저녁 연기자욱
 古今人裏角三聲 군사들 속에서는 예나 이제나 고각소리
 將軍申令分明在 장군의 엄한 명령 분명히 있어
 誰道轅門事不平 군문(軍門)³⁹⁵이라 말을 하나 일은 평온치 못하네

조사수의 시(趙士秀詩)

未有胸中范老兵 가슴속에 범노병³⁹⁶과 같은 병술(兵術)이 없으면서
 欲將何事鎮夷情 어떻게 하면 장차 변방의 군정을 누를 수 있을는지
 少時氣節山同峻 젊은 시절엔 기세가 산 같이 높았지만
 晚歲襟懷水共清 나이가 늙어가니 마음 속은 물과 같이 맑기만
 憂國百年無寸補 평생 나라 근심하였으나 재량으로 보탠 게 없고
 臨民三月但虛聲 도임하여 3개월이 되었지만 헛된 명성 뿐
 巡遊到處天恩足 순력³⁹⁷하여 보면 가는 곳마다 임금님 은혜 흡족하여
 不用離騷學屈平 이소경을 읽고 굴원³⁹⁸을 배울 필요없겠네

이민성의 시(李民成詩)

詩書卻縠不專兵 시서 병법을 오로지 익히지 않았는데
 緩帶輕裘伐虜情 가벼운 옷에 느긋이 띠를 두르고 오랑캐를 정벌하다니

392) 침두(尖頭)는 침두목로(尖頭木驢)의 준말. 성(城)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병기의 한 가지.

393) 민회에 대해서는 이 책의 '제주목, 명환'조를 참조할 것.

394) 가락(嘉羅)는 嘉樂泉을 平仄 때문에 羅로 바꾸어 썼다. 민간에서는 '가락쑈물'이라고 한다.

395) 원문(轅門)은 軍門, 鎭營의 門, 관청의 외문.

396) 범노병(范老兵)은 병사 다루기에 익숙한 범씨 향우가 아보(亞父)라 불렀던 범증(范增)인 듯.

397) 순유(巡遊)는 순력(巡歷).

398) 굴평(屈平)은 굴원.

庾亮樓中秋月白 유량의 다락 속에는 환한 가을 달
 劉琨城上暮笳清 유곤³⁹⁹⁾의 성 위에는 맑은 고각 소리
 雍容儒雅看尊俎 선비들은 조용히 제사 예법 익히면서
 振作威稜廳鼓聲 임금님 위광⁴⁰⁰⁾ 진작 시키는 북소리를 듣는다
 待得政成歸去後 정사 끝나침을 기다려 돌아간 뒤에
 名垂海竭與山平 공평했다는 높은 명성 바닷가 마를 때까지 드리워졌으면

김상헌의 시(金尙憲詩)

試拔愁城按酒兵 수성⁴⁰¹⁾ 함락을 시험하려고 술 병사⁴⁰²⁾를 안무(按撫)하면서
 當杯先起故鄉情 술잔을 마주 하니 고향 생각 먼저 난다
 羅紉押座留人醉 비단⁴⁰³⁾이 드리워진 자리에 사람들을 취하는데
 星漢低蒼滿意清 처마 밑 은하수는 모든 이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官舍橘林秋後色 관사의 귤림에는 가을이 지나야 불만하고
 擎峯笙鶴夜來聲 한라산의 신선이 타고 다니는 학은 밤이 되어야 소리를 낸다
 何緣共着麻姑老 무슨 인연으로 마고 선녀⁴⁰⁴⁾와 같은 자리에 머물러서
 坐見桑田極望平 앉아서 동쪽의 지극히 평평한 바다를 보는지

김치의 시(金繼詩)

白髮窮途阮步兵 늘그막에 부름을 받았으나 길어 험하여 돌아온 완보병⁴⁰⁵⁾은
 世間榮辱摠忘情 세간의 영화와 욕됨 모두 잊고 살아나서
 自憐病裡無筋力 병든 몸에 근력이 없어 스스로 애처로움을 느끼지만
 且喜尊中有濁清 술 동이에 청주와 탁주가 있어 또한 다행스러운 일
 千里湖天迷客夢 천리 밖 남쪽 물가⁴⁰⁶⁾에서 나그네의 희미한 밤잠에서

399) 유곤(劉琨)은 진나라 때의 장군. 자는 월석(越石).

400) 위릉(威稜)은 신령의 위엄, 전의하여 임금의 위광.

401) 수성(愁城)은 근심 걱정이 싸인 곳. 혹은 처지.

402) 주병(酒兵)은 근심 걱정을 몰리치는 것은 술이므로 일컫는 말.

403) 나구(羅紉)는 비단을 뜻함.

404) 마고녀(麻姑女)는 마고 선녀. 고여산(姑餘山)에서 도를 닦아 상전이 백해되는 것을 세 번이나 보고 봉래산으로 가는 물이 절반이나 얕아짐을 보았다고 함.

405) 완보병(阮步兵)은 죽림칠현의 한 사람인 완적(阮籍)이 일찍이 보병교위(步兵校尉)를 지냈음으로 붙인 별명. 완적이 늘 그막에 부름을 받았으나 길이 궁하여(窮途) 통곡하여 돌아왔다고 한다.

406) 호천(湖天)은 중국 남쪽 지방에 오호(五湖)가 있음을 빌어다 쓴 말.

■ 耽羅誌草本(上)

一年官閣聽潮聲 일년 내내 관각에서 들물 소리를 들었으니
 蠻鄉秋色催遲暮 남쪽 지방 가을 경치 저물어 감을 재촉하는데
 強就新詩寫不平 억지로 새로운 시상을 끌어내어 불평하는 말 적어본다

심연의 시(沈演詩)

從來儒者乃知兵 본래부터 유자인데 병법을 어찌 알리
 漫向臺亭寫客情 공연히 정자에 올라 나그네 회포 시로 쓰네
 踈雨過時無限好 끝없이 좋은 것은 지나가는 성긴 비
 纖歌響處有餘清 더 없이 맑은 것은 가는 노래⁴⁰⁷⁾의 메아리
 浮雲萬里中原色 멀리 펼쳐진 구름은 중원과 한 가지 빛
 落日孤城大海聲 지는 해 외로운 성엔 큰 파도 소리만
 一臥蠻鄉驚歲晚 남쪽 고을에 온 뒤 해가 지남에 놀라면서
 白頭深覺負生平 백발이 되어 평생 품은 뜻 저 바람을 깊이 깨닫네

김수익⁴⁰⁸⁾의 시(金壽翼詩)

西南獨鎮再觀兵 서남쪽의 홀로 있는 진영⁴⁰⁹⁾이라 군사들을 자주 열병하고
 每趁春秋戒賊情 봄가을 매양 적의 정세를 나아가 살펴해보지만
 自愧金城方略乏 성곽은 쇠 같으나 군사 쓰는 계략이 부족함이 부끄러우니
 安能玉塞虜氛清 어찌 옥 같은 변방에 오랑캐의 먼지를 씻을 수 있겠는가
 病添衰髮千莖雪 늙은 몸에 병이 겹쳐 머리는 천 가닥 희어지고
 門掩滄波萬里聲 문을 닫아도 넓은 바다 물결 소리 멀리 들려 와
 遲暮倦游思恨切 관리생활 싫증이 나⁴¹⁰⁾ 저녁이면 물러갈 생각만 간절하니
 男兒壯志負生平 남아의 장한 뜻을 평생토록 빛을 졌네.

407) 섬가(纖歌)는 미상. 『濟州風土記』에 나오는 春歌가 아닌가 함.

408) 김수익(金壽翼) 1600(선조 33)~1673(현종 14). 조선후기의 문신, 인조·효종 때의 제주목사. 본관은 안동, 자는 성로(聖老), 호는 청악(靑岳), 아버지는 김광휘(金光晈)이며 1624년 사마시에 합격, 1630년 별시문과에서 병과로 급제하였다. 1649년(인조 27) 9월에 목사 김여수(金汝水)의 후임으로 제주에 도임하고 1651년(효종 2) 7월에 파직되어 떠났다. 특히 정의현감 안집(安緝)의 모함으로 파면되어 도민들이 애석함이 더욱 컸다. 목사김공수익□□비(牧使金公壽翼□□碑)가 현재 조선 비석거리에 남아 있다. 김수익은 1666년 여주목사(驪州牧使)에 임명되어 잠시 있다가 벼슬을 내놓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시호는 충경(忠景)이요, 제서로는 『남악집(南岳集)』이 있다.

409) 독진(獨鎭)은 외로운 진영(鎭營). 제주진관을 뜻함.

410) 권유(倦游)는 관리생활에 싫증이 남.

이원진의 시(李元鎮詩)

觀德由來寓習兵 관덕이라는 이름은 군사 훈련에서 유래된 말
 至今猶見古人情 지금도 옛 사람들과 같이 하고 있는데
 回頭碣石寒陰散 갈석산⁴¹¹⁾으로 머리를 돌리면 음산한 기운 흩어지고
 縱目扶桑曙氣清 눈을 돌리면 해 뜨는 곳에 아침 기운 말끔하다
 羿穀欲凋鷄宿色 좋은 활⁴¹²⁾ 과녁판 맞추려니 계속의 빛 감돌고
 鐵弧已卻馬潮聲 쇠시위 튕기니 들물 소리 들리는 듯
 當年國恥那堪說 그 때의 부끄러운 일⁴¹³⁾ 어찌 차마 말을 하리
 斗膽輪困尙未平 간덩이 크게 엉켜 아직 펴지지 않았네.

김응남의 시(金應南詩)

瀛海漫天未見涯 신선 물가 하늘에 닿아 끝을 볼 수 없고
 蓬山東去路非賒 봉래산은 동쪽과의 거리가 멀지 않네
 瑤臺笙鶴月明夜 요대에는 피리 부는 학 달 밝은 밤에
 開盡碧桃千樹花 많은 나무에 벽도화가 피어 있는 듯

이선의 시(李選詩)

不才啣命此觀兵 재주가 없는데 어명을 받아 병사들을 살피며
 堪愧書生鎮邊情 서생이 변방을 살피게 되어 자못 부끄럽구나
 燕垓卽今方戰急 연대에는 바로 지금 전쟁이 다급한데
 海山何許更塵清 해산인들 어찌 전쟁먼지 맑다 할까
 風雲黯慘旌旗色 세상이 어지러우니 깃발의 빛마저 암담하고
 日月廻旋鼓角聲 밤낮 고각소리는 되돌아든다
 三尺龍泉空在手 삼 척의 용천검이 손에 있으나
 鯨鯢未斬恨難平 큰 고래를 베지 못하여 평정되기 어려움 한스럽구나

411) 갈석(碣石)은 산 이름. 소재는 일정치 않다.

412) 예(羿)는 하나라 때 유궁국(有窮國)의 왕으로 활을 잘 쏘았던 사람.

413) 당년국치(當年國恥)는 정묘호란.

이의철의 시(李宜哲詩)

雲裏俞音報逐臣 구름 속 유음이 쫓겨난 신하에게 전해짐은
 濟州春色轉秋新 제주의 봄빛이 초가을로 접어들 때
 虛(雪)霜寒晝橘林雨 굴림에 비 내리면 낮에도 헛서리 싸늘하고
 環佩香飄錦席塵 금석에 먼지 끼면 환패에도 향기 감돈다
 晚景光華供薄窻 아름다운 늦가을 빛은 쫓겨 온 이에게 이바지하니
 寸心惶感欲忘身 황공스런 작은 마음 자신을 잊게 하여
 判書故井尤翁宅 판서의 옛 우물 우암의 집에
 前輩遺風被後人 선배의 남긴 풍류 후배에게 미치네

홍중징의 시(洪重徵詩)

書生豈合強論兵 서생이 어찌 억지로 병법을 의론할 수 있을까
 祗解雍容鎮衆情 다만 조용히 많은 사람의 마음을 눌러줄 뿐
 卯酒欲防茅瘴苦 아침술로 칙칙한 기운의 괴로움 막으려 하고
 午茶偏愛橘香清 낮차는 귤향기 맑은 차를 유독 사랑해
 流星破的囊韃列 과녁 뚫은 화살은 동개와 나란히 있고
 緩帶開衙鼓角聲 한가히 열린 관아엔 고각소리가
 但使玉關還入早 다만 변방 지키는 이를 일찍 들어오게 하니
 不妨人笑政平平 정사가 공평한지 사람들이 비웃어도 꺼려하지 않겠네

조관빈의 시(趙觀彬詩)

千里客初至 먼 곳 나그네 처음 왔을 때
 一年春已生 일 년 중 봄이었는데
 聽歌春巷暮 날 저무는 골목에서 방아소리 들었고
 觀射獵場晴 맑은 날 수렵장에서 활 쏘는 것을 보았지
 仙嶽撐天黑 신선산은 어두운 하늘을 받쳤고
 靈星燭地明 신령한 별은 땅에 밝게 비치는 곳
 橘林香不盡 굴림에 향기 다하지 않으니
 遙挹五賢名 아득한 오현의 이름 뇌이어 본다

안경운의 시(安慶運詩)

白面迂儒未曉兵 백면의 우활한 선비 병법을 알지 못하는데
 戎衣强着愧中情 억지로 군복 입으니 마음이 부끄럽다
 旗旌拂拂雲容豁 깃발 나부끼는 곳 시원한 구름
 鼓角騰騰海氣清 고각소리 등등한데 말끔한 바다기운
 明月滿弦誇健習 달 밝은 밤 화살 당겨 익힘을 자랑하고
 流星破的聳歡聲 화살이 과녁을 뚫을 때 환호의 소리
 北望宸極知何處 북쪽을 바라보면 궁궐은 어느 쪽인지
 遠客羈懷自不平 먼 곳에서 평온하지 않은 나그네 감회

김영수의 시(金永綬詩)

西去南來尺劍遊 서쪽으로 갔다 남쪽으로 와서 긴 칼 들고 노니는데
 暮年宦酒細傾憂 늙그막 관청술 기울여 자잘한 근심 달랜다
 鍾鳴故國三千歲 삼천년 오랜 나라에 종이 울리고
 島屹重溟五百秋 오백년 가을 바다에 우뚝한 섬
 牽進驕驄疑漢渥 끌려 보내는 화류마는 한악과 같고
 包盈橘柚等楊州 싸 보내는 귤 유자는 양주와 같다
 悠悠往跡山河在 유유한 옛 자취는 어느 곳에 있는지
 皓首殘孫淚下收 머리 하얀 후손들은 눈물 거둔다

이원조의 시(李源祚詩)

百年東國久銷兵 우리나라에 백 년 동안 병화가 사라져
 信義猶能固衆情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과 의리 굳어졌네
 近日繭絲憂稅重 요즘에는 세금이 무거운지 근심하고
 常時裘帶事譚清 항상 갓옷을 두고 맑아질 일을 이야기 한다
 靑油幢裏烟霞色 청유당 속은 선계의 아지랑이 같고
 粉黛筵前鼓角聲 화장한 이들 자리에도 고각소리 들린다
 怪事邊門委白面 괴이하게도 변방 영문을 백면서생에게 맡겨

■ 耽羅誌草本(上)

張候聊自飾昇平 휘장을 펼쳐 자못 태평성대를 꾸몄구나

망경루(望京樓) 【연희각 동북쪽에 있다. 명종 병진년(11년, 1556)에 목사 김수문(金秀文)⁴¹⁴이 세웠다. 현종 무신년(9년, 1668)에 이인(李瑔)⁴¹⁵이 고쳐 세웠다.】

심연의 시(沈演詩)

望京樓上望秦京 망경루에 올라 서울을 바라보니
滄海茫茫極目平 망망한 넓은 바다 눈끝이 평평하다
靜夜月明人散盡 달 밝은 고요한 밤 사람들 흩어진 뒤
獨憑虛檻聽潮聲 홀로 비인 난간 의지하니 들리는 물결소리

이원진의 시(李元鎮詩)

幾荷天恩獲壯遊 유쾌하게 놀 수 있는 천은을 몇 번 져는가
蓬萊勝跡又瀛洲 봉래산 절승을 보고 다시 영주로 왔으니
雲收嶽色秋侵座 구름 걷히면 산 경치가 앉은 자라로 닦아오고
月滿濤聲夜入樓 달이 쌓인 파도 소리는 밤 다락으로 들어온다
句漏已期砂就竈 구루산⁴¹⁶ 단사 굽는 곳으로 나가기를 기약하면
鬱林惟待石安舟 뱃뚝한 숲엔 오직 앉혀진 돌배가 기다린다
時攀絕頂開雙眼 때로는 절정에 올라 두 눈을 떠서 보면
南極星輝海上浮 노인성 별 빛이 바다 위로 솟는다

이희의 시(李禧詩)

長白白華漢嶠嶺 장백 백화 한교령을
謁來三載已三遷 모두 다녀 삼 년 동안 세 번을 옮겼네
東西南北惟君命 동서남북을 다넘은 오직 군명을 따라

414) 김수문(金秀文)은 1555년 3월부터 1557년 10월까지 제주목사로 재임하였다. 관리로서 근면, 절검하고 특히 치민에 힘쓰며, 평소 책 읽기를 좋아하였다. 제주와 서북 지방에서 군공을 세우기도 하였다.

415) 관안(官案)에 의하면, 이 시기의 제주목사는 이인(李瑔)이다. 이연(李演)은 이인의 오기임.

416) 구루(句漏)는 句漏山(구루산). 광서성에 있는 경치 좋은 산. 진(晉) 나라 갈홍(葛洪)이 단사를 굽는 곳. 백사(白沙)가 많이 난다.

險阻艱難只任天 험하고 어려움은 모두 하늘에 맡긴다
 庶使蠻鄉知禮讓 다행히 남녘 고을에 예의를 알게 했고
 終教頑俗學歌絃 고집스러운 풍속 가르쳐 현가를 배우게 하니
 凶年不殺皆吾后 흉년에 죽지 않게 함은 우리 임금 덕이라고
 日暮杵謳祝萬年 저물녘 방아소리에 만수무강을 비네

이익한의 시(李翊漢詩)

醉後閑眠依小樓 취한 뒤에 다락을 의지하여 한가히 잠이 드니
 世間榮辱等浮謳 세상의 영화와 욕됨 들 뜬 노래와 같아
 天邊危石仙人掌 하늘가의 뾰족한 돌 신선의 손바닥 같고
 欄外孤帆楚客舟 난간 밖의 외론 돛대 남쪽 나그네의 배
 京洛歸心隨塞鴈 서울로 돌아가고픈 마음 북쪽 기러길 따르는데
 江湖清興夢春鷗 강호의 맑은 흥취는 봄 갈매기의 꿈
 詩翁氣力方知健 시 짓는 늙은이 기력이 아직은 건강하니
 無限風光句裡收 무한한 풍광을 구절 속에 담아야지

정필녕의 시(鄭必寧詩)

故人逢絕域 친구를 먼 객지에서 마주치니
 良晤卽清遊 만남이 바로 흥겨운 놀이
 山牧西宛馬 기르는 말은 서완국의 종자이며
 波通越客舟 물 위를 다니는 건 남쪽나라 배
 林菁猶瘴氣 숲에는 칙칙한 기운
 天地已涼秋 천지엔 이미 서늘한 가을
 遷北君恩重 북쪽으로 옮기라함은 임금님 은혜
 滄溟視淺流 넓은 바다가 얕은 물과 같구나

정운경의 시(鄭運經詩)

少歲蓬弧志 어린 땐 활쏘기에 뜻이 있었고

■ 耽羅誌草本(上)

殊方作遠遊 유다른 지방에 멀리 노니네
山風橙落石 산엔 바람 불어 굴이 바위에 떨어지고
浦雨客藏舟 포구엔 비 내려 배를 감춘다
日浴丹霞曙 신선안개에 목욕한 해 새벽에 뜨고
天高碧海秋 하늘이 높으니 바닷고을에도 가을이라
歸人須及早 돌아갈 사람 때가 이른 걸 보니
時序火星流 계절은 화성이 흐를 때이로다

홍중징의 시(洪重徵詩)

暫趁公餘此一遊 공사를 끝내면 잠깐 이 곳에 들러 놀며
八牕高閣俯長洲 누각의 여덟 창으로 물가를 내려다본다
神人窟宅三生夢 삼생의 꿈은 신인이 솟아난 굴집에서
湖海風流百尺樓 바다의 참뎃은 높은 다락이라야 제격
把酒欲呼南極老 술잔을 들면 남쪽의 노인성을 불러보고 싶고
憑欄最喜北來舟 난간을 의지하면 북쪽에서 오는 반가운 배
宸居迢遞知何處 아득한 궁궐은 어느 곳인지 알만하여
指點祥雲五色浮 오색구름 떠 있는 곳 가리켜 본다

안경운의 시(安慶運詩)

刺史當年辦壯遊 자사가 되어 와서 이 놀이를 마련했는데
元龍千尺壓河洲 높직한 원룡의 평상이 물가를 누를 듯
南來絕域非吾土 머나먼 남쪽지방은 나의 땅이 아니어서
北望神京起此樓 북쪽 서울을 바라보는 곳에 이 다락을 세웠구나
羈緒欲寬無好酒 나그네 마음 풀려하나 좋은 술이 없었는데
鄉書時得有孤舟 외로운 배에서 고향편지를 얻었네
日邊何處長安是 하늘가의 장안은 어디쯤인지
極目祥雲點點浮 눈을 돌리니 상서로운 구름 점점이 떠있네

윤식의 시(尹植詩)

不用凭欄作勝遊 난간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즐거운 놀이 할 수 있고
 長安北望隔炎洲 북쪽의 장안은 남쪽 고을과 떨어져 있는 곳
 孤城日落依南斗 외로운 성에 해 떨어지면 남극성 의지하고
 高處寒生想玉樓 높은 곳은 서늘하여 옥루를 상상해 본다
 渺渺雲濤圍似帳 아득한 구름 물결은 둘러친 휘장 같고
 搖搖棟宇寄如舟 흔들리는 기둥은 배에 붙어 있는 듯
 簷頭曉旭扶桑近 처마의 아침해는 부상에 가까워
 悅觀神京瑞氣浮 신경에 떠있는 상서로운 기운을 보는 듯

이병연의 시(李秉淵詩)

白首青邱試遠遊 늙은 몸을 신선 언덕에 멀리 노닐어보라고
 長風吹我到瀛洲 긴 바람 나에게 불어 영주에 이르렀네
 鼉鼉背上曾何國 큰 자라 물 위에 어떤 나라가 있었는지
 橘柚林端忽此樓 밀감 숲 끝에 문득 세워진 이 다락
 北望星辰雙鳳闕 북쪽 별자리에 쌍봉을 부는 궁궐이 보이고
 南來天地一漁舟 내려온 남쪽 땅은 한결같은 고깃배
 職方不出輿圖內 바치는 공물은 나라 안과 다름이 없으니
 敢曰將從魯叟浮 감히 노나라 노인이 띄운 뗏목을 따르겠다 말하네

윤명훈의 시(尹命勳詩)

幾度騷人此地遊 시인은 이곳에 몇 번을 노닐었는지
 故園千里隔滄洲 천리 고향은 넓은 바다로 막혀 있어서
 時將幽興聊呼酒 때때로 흥취 일면 술을 부르고
 每引羈愁更上樓 나그네 시름지면 다락으로 오른다
 心逐曉雲西去鴈 마음이 따르는 건 새벽구름에 가는 기러기
 眼穿斜日北來舟 눈이 뚫는 것은 북쪽에서 오는 배
 神京瞻望欄頭立 서울을 바라보려 난간머리에 서있으니

■ 耽羅誌草本(上)

點點青山海外浮 보이는 건 바다 밖의 점점 푸른 산

이수봉의 시(李壽鳳詩)

米船大小集禾浦 크고 작은 쌀배 화북포에 모여 드니
 絶海年年民免飢 바닷고을 해마다 주림을 면하는 백성들
 一搗一聲感恩淚 한 번 찼는 소리마다 은혜 감동한 눈물
 春歌千杵月明時 방아노래 천 공이는 달이 밝아 오를 때
 八十九十人百千 팔십 구십 노인은 백 명 또 천 명
 蹲蹲回舞鼓闐闐 흔들흔들 돌아가는 춤에 북소리 둥둥
 一星南極明孤島 남극성 별 하나가 외로운 섬을 비취
 遙祝吾王萬萬年 우리임금 만수무강 축원을 하네

김영수의 시(金永綬詩)

快閣登臨愜壯遊 시원한 다락에 높이 오르니 놀기에 마음 맞아
 三山人說在瀛洲 사람들은 삼신산이 영주에 있다 한다
 少時龍劔衝牛宿 젊은 시절 용천검으로 대장군도 업신여겼고
 晚歲金丹夢玉樓 늙어서는 금단 굶는 옥루를 꿈꾸었지
 客館多年無好味 별 맛 없이 객사에 머무른 오랜 세월
 重溟何日有歸舟 언제면 넓은 바다에 돌아갈 배 띄울런지
 北瞻宸極心逾耿 임금님 계신 북쪽을 올려다보면 마음이 번쩍
 紫氣遙連禁苑浮 아득히 떠 있는 자색 기운은 궁궐에 이어진 듯

이량재의 시(李亮載詩)

南來初辦丈夫遊 남쪽에 와서 처음으로 대장부 놀이 열었는데
 滄海茫茫不見洲 넓은 바다 망망하여 물가를 볼 수 없구나
 吳楚界分工部句 남쪽나라 경계는 두보의 시구 같고
 魚龍波撼仲宣樓 넓은 바다 파도는 중선루를 흔든다
 神京望眼頻依斗 서울을 그리워 북쪽으로 돌려지는 눈

故里歸心一繫舟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매인 배의 마음
忽念千村憂杼軸 문득 여러 마을 백성살림 근심 되어
細傾官酒橋香浮 곶향기 뜬 관주를 기울인다

이양정의 시(李養鼎詩)

一棹長風辦壯遊 노 한 자루로 바람을 타고 장한 놀이 갖추려고
君恩授鉞到瀛洲 임금님 은혜로운 부월을 받고 영주에 이르렀네
宦同賓日隣桑島 관리는 빈 일과 같아 해 뜨는 섬을 이웃하고
跡似侯仙上畫樓 자취는 사선과 같아 그림다락에 오른다
海外行裝惟古劍 해외에서 가진 것은 옛 칼 하나 뿐
世間消息杳孤舟 세상소식 전할 외로운 배 묘연하다
徘徊永夜瞻宸極 밤새도록 서성거리며 북쪽을 올려다보니
雲際祥光萬里浮 구름 끝에 상서로운 구름 만 리 밖에 떠있구나

이우진의 시(李羽晉詩)

滄溟無盡大方遊 끝없이 넓은 바다 큰 지방에 노닐면서
更上朱欄臨碧洲 다시 주란에 올라 푸른 물가를 내려다 본다
日出霞光通紫極 해 뜨는 곳 노을빛은 궁궐에 이어졌고
天寒霜氣渺瓊樓 싸늘한 하늘에 서리 기운은 경루에 아득하다
二三州是魚龍窟 두세 고을은 물고기의 소굴이요
四百年來橘柚舟 사백년 동안 곶유를 바치던 배
多意漢拏山影入 한라산 그림자 드리우면 많은 생각은
此身渾與列仙浮 내 자신이 여러 신선과 함께 떠 있는 듯

한정운의 시(韓鼎運詩)

天遣衰翁此地遊 하늘이 보낸 쇠약한 늙은이 이곳에 노닐고
由來吾道付滄洲 우리 도의 유래는 창주에서 흘러와서
耽羅古國千秋月 탐라 옛 나라에 오랜 세월 비친 달

■ 耽羅誌草本(上)

節制新營百尺樓 절제사 새 군영에 백 척의 다락
 春挹老人相勸酒 봄 맞은 노인은 서로 술을 권하고
 晚移仙侶與同舟 늦게 옮겨가는 신선들 무리지어 함께 탄 배
 雲濤一望無終極 바라보면 구름과도 끝이 없는데
 浮世餘生轉覺浮 들뜬 세상 남은 생애마저 들뜬 듯

조정철의 시(趙貞喆詩)

七八年來萬里遊 칠팔 년 동안 만 리를 돌아다녀
 蓬萊餘債又瀛洲 봉래의 남긴 빚으로 다시 영주에
 男兒眼力方無地 남아의 안력을 붙일 곳이 없는데
 仙吏笙歌更有樓 신선된 관리는 피리소리에 다락으로 오른다
 澹泊寒輝山吐月 담박하고 싸늘한 빛에 산은 달을 토하고
 依微暝火海通舟 희미하고 따듯한 불빛에 배는 바다로
 滄桑欲向麻姑問 세상이 바뀐 일을 마고할미에게 묻고 싶으나
 不盡雲霞處處浮 끝없는 구름안개 곳곳에 떠있어서

이재수의 시(李在秀詩)

天借吾生作遠遊 하늘이 나를 먼 곳에 노닐게 하니
 經春擁節在瀛洲 봄 지나서 부절을 안고 영주에 이르렀네
 巨鰲背上遙瞻岵 큰 자라 등 위에 멀리 뭇부리 보이고
 朱鳥光中暮依樓 상서로운 빛 속에 저물녘 다락에 의지하였네
 王事多艱南渡海 남쪽에 내려온 뒤 어려운 왕사 많은데
 家音久阻北來舟 북쪽배 내려와도 집소식 오래 막혀
 詩思滿處鄉思滿 시흥 가득한 곳에 고향생각 가득하여
 頻使佳人大白浮 가인을 시켜 자주 술잔을 뜨게 한다

백영진의 시(白泳鎭詩)

不是風流耽勝遊 풍류를 좋아하여 탐라에 노닐러 온 게 아니라

王恩攸暨到瀛洲 임금님 은혜 두터워 영주에 이르렀네
 三韓古事憑無跡 삼한의 옛 일은 의지할 자취가 없고
 千里奇觀幸有樓 천 리의 기이한 경관 바라볼 다락이 있네
 簷底平臨南起岳 처마 밑엔 나즈막히 남쪽 산 솟았고
 欄頭指點北來舟 난간머리에서 북에서 오는 배 가리킬 수 있는 곳
 四方八面都環海 사방 팔면이 모두 바다로 둘러 있는데
 依斗亭亭日夜浮 북두성은 까마득하게 밤낮 떠있구나

심영석의 시(沈英錫詩)

登樓北望眼逾迷 다락에 올라 북쪽을 보니 눈은 더욱 희미한데
 秋水連天一色齊 가을물 하늘에 이어져 한결같은 빛
 古藪千年多馬畜 많은 말은 오랜 세월 묵은 곳에서
 新柑八月有鶯啼 새 귤은 피꼬리 우는 팔월 달에야
 長風渡海中間息 바다 건너는 긴 바람 중간에 끊기었고
 積氣專峯首尾低 봉우리엔 오로지 기운이 쌓여 머리꼬리 낮아졌다
 去去那堪京國戀 갈수록 느는 서울생각 어찌 참으리
 強聽絲管橋林西 억지로 음악소리 들어 본다 굴림 서쪽에서

이예연의 시(李禮延詩)

白頭餘脉漢拏巔 백두산맥 끝의 한라산 봉우리
 勢鎮南維不動遷 남방을 지켜 움직이지 않는 그 형세
 百劫難沈高出輿 오랜 세월 잠기지 않아 땅 위에 높이 솟았고
 一拳如削直撐天 주먹 같이 깎이어 바로 하늘을 받쳤네
 鰲浮瀛海三千界 영해에 뜬 큰 자라는 삼천세계에
 雁拖滿湘廿五絃 상수에 가득한 기러기는 이십오일 밤
 其上老人星夜夜 그 위에 밤마다 뜨는 노인성이
 九重長照萬斯年 궁궐에 길이 비쳐 만 년을 누렸으면

박장복의 시(朴長復詩)

天濶城孤海上秋 바닷가 외로운 성 시원한 가을하늘
望京樓外水悠悠 망경루 저 너머엔 유유히 흐르는 물
潮聲萬里風來處 먼 곳 바람 불어오는 곳 물결은 어지럽고
月色三清地盡頭 신선 사는 땅 끝에는 달빛이 맑아
始覺乘槎真有界 뗏목 타고 올 참된 곳을 비로소 알게 되었는데
祗緣依斗自生愁 다만 북두성을 의지하려니 시름이 절로 인다
沈吟日暮杵歌起 울적하게 읊조리는 저녁 방아소리 들려오는데
點點擎峯拱北浮 한라산은 점점이 북쪽을 보고 떠있구나

이원달의 시(李源達詩)

重陽携酒望京樓 중양절에 술을 들고 망경루에 올라서
不醉佳辰奈客愁 취하지 아니하면 나그네 시름 어찌하리
濤聲撼屋潮將退 집을 흔드는 파도소리 썰물이 된 듯하고
雨氣淒林瘴未收 숲에 서린 비 기운은 장기가 걷히지 않아서
層城畫閣千年國 높은 성 그림관각 천년 된 나라
碧樹黃橙九月秋 푸른 나무에 노란 귤 구월 달 가을
莫把茱萸論後會 수유꽃 들고 다음 만날 계획 세우지 마라
近來身世任萍浮 요즈음 나의 신세 부평초와 같으니

이원조의 시(李源祚詩)

不涉重溟未始遊 겹친 바다 건너지 않으면 노닐 수 없어
飛仙來自鏡湖洲 나는 신선은 경호의 물가에서 왔으니
滄桑莫問今千劫 오랜 세월 세상이 바뀔 문지를 마라
山海都輸此一樓 이 다락에는 산과 바다 경치 모두 옮겨져 있으니
細雨林端生遠岵 비 내리는 숲 넘어 아득한 산줄기
夕陽天末數歸舟 저녁녘 하늘 끝에 돌아오는 배 헤아리네
元戎自笑烟霞癖 대장의 연하를 즐기는 습관 스스로 우스워

紅橋盃中太白浮 익은 굴 술잔 속에도 새벽별이 떠 있어

蚤學文章未學遊 어려서 문장을 배웠고 놀이는 배우지 못했는데
君恩特許上瀛洲 임금님 은혜로 특별히 영주에 올랐네
微枕北拱長依斗 작은 정성 북쪽에 바치려니 북두성 희미하고
傲眼南來獨倚樓 거만한 눈은 남쪽에 와서 홀로 다락을 의지했네
海外風烟多此地 바다 밖 경치는 이곳에 많고
日邊消息自何舟 하늘 끝 소식은 어느 배에 올는지
神仙不在人間世 인간 세상에 신선은 없으니
我欲從之魯叟浮 나는 노나라 노인의 떼배를 따르고 싶어

소행정(素行亭) 【연희각 동쪽에 있다. 현종 경자년(원년, 1660)에 목사 이회(李繪)가 세웠으나, 지금은 폐지되었다.】

종루(鍾樓) 【숙종 기묘년(25년, 1699)에 목사 남지훈((南至薰))⁴¹⁷⁾이 지은 지 오래 되어 새로 세웠다. 본래 ‘진해루(鎭海樓)’라 불렀으나, 편액을 고쳐 ‘탐라포정사(耽羅布政司)’라 하고 쇠종을 걸었는데, 그것은 곧 옛 묘련사(妙蓮寺)의 종이다. 문 위에 목사 이익태(李益泰)가 ‘海中叡府 天外雄藩(해중선부 천외웅번)’이라는 8자를 썼다.】

운주당(運籌堂) 【동성(東城) 안에 있다. 명종 병인년(21년, 1566)에 목사 곽홀(郭訥)이 세웠다. 아계 이산해(李山海)가 액자를 썼다. 영조 계해년(19년, 1743)에 안경운(安慶運)이 중수하였다.】

황우헌의 기(黃祐獻記)

무릇 제주는 멀고 험한 바다가 사이에 끼어있고, 세 고을로 나누어 있다. 이곳이 옛 탐라국이다. 왜구 세력이 틈을 엿보는 길목이므로, 이를 방어하는 준비와 성을 지키는 방책이, 진실로 다른 진(鎭)보다 몇 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평온한 날이 오래 지속되어, 성지(城池) 방어에 쓰이는 무기들이 없어지고 아무런 준비가 없는 것은 하루 이들의 짧은 기간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을묘년(명종 10년, 1555) 여름에, 해적이 세력을 믿고 쳐들어와 성을 포위하고, 높은 곳을 근거지로 삼아 압박하였다. 성(城) 안에 화살과 돌을 섞어 쏘아대며, 군진(軍陣)

417) 남지훈은 1699년 5월부터 1701년 9월까지 제주목사로 재임하였다.

의 허실과 사졸(士卒)의 강약을 훑볼에 비추어 보듯 명확하게 알았다. 난을 겪은 이후에 성보(城堡)의 보수는 마땅히 치밀했어야 할 것이나, 오히려 부족함이 있었다.

지난 을축년(명종 20년, 1565) 겨울에, 우리 사또 합하 포산(苞山)⁴¹⁸ 곽홀(郭訥) 공께서 지방관으로 임명되어 남쪽 고을 제주를 맡으셨다. 경계를 엄히 하고 군정을 돌보는 틈에 성지를 두루 살펴보니, “동성(東城)의 축조만 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락곶 내[嘉樂川]도 옛날에는 넘쳐흘렀으나, 지금은 어찌하여 말라버렸는가. 혹시라도 성이 포위되는 변고가 있으면, 병사들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장차 어떻게 구원할 것이며, 높은 능선으로부터의 포격 또한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고 개탄하셨다.

곧 서슴없이 성(城) 쌓는 일을 장계로 조정에 알렸다. 일꾼들이 몰려와서, 산지포구(山池浦口)까지 성을 물려 쌓으니 성벽은 높고, 치첩(雉堞)⁴¹⁹은 우뚝하며, 냇물은 기운차게 흘렀다. 옛 성의 무너진 치첩(雉堞)과 낮고 좁은 격대(擊臺)도 (모두 마음속에 생각한 순서에 따라 눈가는 대로 행하여) 한가지로 모두 새로워졌으니, 금성탕지(金城湯池)의 험준함을 그 누가 감히 업신여기겠는가?

아아! 이 고을은 남쪽의 중요한 변방으로서, 곽홀 목사⁴²⁰의 현명함은 옛 명장보다 뛰어나니, 무기를 갖추고 병사를 독려함은 특별히 중요한 일이 아니다. 그의 귀신같은 책략은, 외교적 교섭 자리에 나가지 않고도 천리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위엄이 있으니,⁴²¹ 어찌 칼싸움을 기다리며, 오랑캐들과 승부를 겨루겠는가.

크도다! 그의 평생 순국의 뜻과 애군(愛君)하는 충정은 타고난 성품이며, 화평하고 자상한 덕과 관대하고 측은히 여기는 도량과 청렴결백하여 사사로움이 없는 절개는 실로 백성들의 마음에 흘러넘치고, 사람들의 바라는 바에 흠족함이 있으니, 어리석은 내가 무슨 군더더기 말을 더 붙이겠는가.

그렇지만 군자도 반드시 휴식을 취함으로써 임기응변의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침내 모든 형편을 고려하여, 공장(工匠)을 부리고, 재목을 다듬어서, 여기에 하나의 당(堂)을 세웠다. 당을 둘러싸고 있는 산의 높고 수려함, 둘러친 바다의 신비로움, 모서리의 단정함, 단청의 아름다움은 칭찬하여 드러낼 필요가 없으며, 뒷날에도 그러하리라.

이에 곽홀 합하(閣下)의 뜻을 알 수 있으니, 변란이 있을 때에는, 이곳에 거처하며,

418) 현풍곽씨(玄風郭氏)의 시조 곽경(郭鏡)의 봉호(封號). 현풍 곽씨의 후손들이 시조 포산군(苞山君)의 봉호를 소중히 여겨 포산 곽씨(苞山郭氏)로 많이 부름.

419) 치(雉)는 적이 성벽을 기어오르는 것을 공격하기 위해 성벽을 밖으로 내밀어 쌓은 곳을 말하며, 첩(堞)은 성벽 위에 몸을 숨기기 위해 쌓은 담이다.

420) 군후(君侯)는 제후의 존칭이나, 여기에서는 제주 목사인 곽홀을 지칭한다.

421) 준조절충은 평화스러운 교제(交際)로써 적의 예봉(銳鋒)을 누르는 일로, 외교상(外交上)의 담판(談判)으로 국위(國威)를 빛내는 일을 뜻한다.

이곳에서 호령하고, 이곳에서 일을 잘 처리하였다. (외교적 교섭의 자리에서) 피차간에 서로 사양하지 않고 고집만을 내세우게 되면, 주인으로서 손님 대접을 생각하고, 성이 포위되어 풀리지 않으면, 편안하게 하여 수고로움을 적게 할 것을 생각하고, 적이 너무 많아 대적할 수 없으면, 기묘한 계책을 내어 허점을 찌를 것을 생각하고, 승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패배의 원인을 강구하여 공을 이룰 것을 생각하니, 이것은 최선을 생각하여 움직이고, 움직임에는 그 시기를 생각하는 것이 지당함을 말하는 것이다.

적이 비록 억만 명이라도 오히려 혼을 빼앗기고 숨어 도망갈 틈이 없을 것이니, 바람과 우레 같은 재앙과 벌과 전갈의 방자한 독이 있을 것을 어찌 근심하겠는가. 그러한 즉 이 당의 설치가 어찌 한갓 적장의 노쇠한 자질을 희롱하기 위함이겠으며, 또한 어찌 산천의 명승을 탐하기 위함이겠는가.

때때로 일이 없을 때에는, 바람이 부드러운 화창한 날, 이곳에 갓을 벗어 놓고 휴식을 취하며 거문고를 연주할 것이다. 백성 중에 거처를 잃은 자가 있으면, 그를 편안하게 해 줄 바를 생각하고, 굶주림과 추위를 울며 호소하는 자가 있으면, 입히고 먹일 생각을 하고, 추위와 더위의 고통에 시달리는 자가 있으면, 쉬게 할 바를 생각할 것이다.

그런즉, 상공(相公)께서 높은 곳(운주당)에 있으면서 멀리 바라보는 것이 어찌 집집마다 어루만져 타이르려 함이 아니겠는가, 정사를 돌보아 임금의 덕화를 널리 퍼는 것이 어찌 침체된 것을 일으키고 폐단을 고치려 함이 아니하겠는가. 활쏘기를 통해 덕을 살피는 것이 어찌 병졸들을 훈련시켜 적의 능멸을 막으려 함이 아니하겠는가.

오호라! 기틀을 깊게 하고 사물을 빛나게 하며, 계책을 운용함이 신과 같이 교묘하니, 사람들이 예측하고 헤아릴 수 있는 바가 아니로다. 만일 후세 사람들이 이 당에 올라서 계책을 세운 결과가 좋으면, 그의 계책을 칭찬할 것이며, 이 사람과 비교될 것이다. 만약 모든 면에 식견이 좁은 구차한 계책이라면, 마침내 경솔한 생각과 천박한 꾀로 돌아갈 것이니, 스스로 화와 낭패를 취한 셈이다. 훌륭하도다! 이 사람의 아량(雅量)이, 자방(子房)⁴²²에 대응하는 계획이 천년이 지나서도 똑 같구나.

이 당의 아름다움은 주(周) 소공(召公)이 그 아래서 쉬었다는 팔배나무⁴²³와 같이 후세에 잊혀 없어지지 않고 무궁하게 찬양될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에 대하여 그가 끼친 사랑 또한 심원하지 않은가.

생각하건대 영천(靈川)⁴²⁴ 신석계(申石溪)⁴²⁵ 군 역시 뛰어난 재주와 큰 그릇으로

422) 자방은 한(漢)나라 고조(高祖) 유방(劉邦)의 건국 공신인 장량(張良)의 자(字)다. 시호는 문성공(文成公)이다.

423) 소백은 주(周)나라 무왕(武王)의 동생 소석(召奭)이다. 그의 형 주공(周公)과 함께 어린 조카 성왕(成王)을 보필하였다. 소백지감당(召伯之甘棠)은 소백의 선정과 덕화에 감동한 백성들이 그가 남국(南國)을 순행할 때 팔배나무(甘棠) 아래에서 잠시 쉬자 그 지방 사람들이 그의 덕을 칭송하여 그 나무를 베지 말라고 노래한 고사에서 온 말이다.

424) 고령(高靈)의 옛 이름.

서, 조정 대신[朝右]들이 관리를 추천할 때 이곳 제주의 판관이 되었다. 곽홀 후(侯)의 뜻을 따라 크나큰 계책을 도왔으니, 함께 명예로운 이름을 길이 전하게 된 것은 가당한 일이다.

나는 세간의 미미한 존재로서 우연히 곽홀 합하(閣下)의 인정을 받아 외람되이 막부에서 모신지 1년이 되었다.

무진년(선조 원년, 1568) 봄에 비로소 집을 세워 운주(運籌)라고 편액하고, 고을의 원로들을 부르고 장수들과 보좌관들을 함께 거느려서 연회를 베풀고 낙성식을 하였다. 그래서 나에게 기(記)를 쓰도록 명하였는데, 시문을 짓는 재주가 천박하고 조악함을 사양하지 못하고 글을 지어 기록하니, 글의 침삭꺼리를 남기게 되었다.

신찬426)의 서(申繼序)

소문에 의하면, “큰 신령이 조짐을 보여 8개의 기둥을 들어 하늘을 떠받치고, 큰 바다 자라는 머리를 공중에 내밀어 삼신산을 땅위에 올려놓았다.”라고 하였다. <이 삼신산은> 하늘과 땅이 깊이 감추어둔 신성한 영역으로, 우임금이 나누어 정한 중국의 9주 밖에 있으며, 산은 높고 치솟고, 내에는 물이 고였으며, 경계가 웅장한 곳으로 요임금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어 진압한 이외의 지역이다.

그 강토는 남방에 이어지고 별자리는 동쪽에 응하니 고을의 칭호는 영주이다. 아마도 10주(十洲)⁴²⁷⁾의 한 산으로, 가까이 봉래산과 가로로 나누어 놓은 삼신산의 형세이다. 땅의 크기는 50리이니, 등(滕)⁴²⁸⁾나라처럼 작으나 왕이 있을 만하다.

신하로서 천 년간 섬겨온 신라 이후 흘러간 세월이 얼마인가. 하늘에 북두칠성을 그려 보나 왕자의 옛 나라는 없고, 삼성혈이라는 3성 신인의 기이한 족적을 전하는 증거만 있다.

서쪽으로는 중국과 접하여, 배[鷁首]⁴²⁹⁾들의 왕래가 자유롭고, 동쪽으로는 왜구가 가까이 있으니, 항상 오랑캐들이 넘겨다보는 야욕을 경계하여야 한다. 그래서 조선 시대에 와서 곧 진(鎭)을 두었는데, 세류영(細柳營)⁴³⁰⁾과 같은 엄한 군영을 세워, 문무를

425) 신석계는 1566년 5월부터 1568년 10월까지 제주관관으로 재직하다 의빈도사(儀賓都事)로 전임되어 떠났다.

426) 신찬은 김수익(金壽翼) 목사 재임(1649~1651) 때 제주교수(濟州敎授)로 재임하였다. 신향교이건기(新鄕校移建記), 운주당기(運籌堂記), 공신루기(拱振樓記) 등이 전한다.

427) 선인이 산다는 열 개의 섬. 곧, 조주(祖洲)·영주(瀛洲)·현주(玄洲)·염주(炎洲)·장주(長洲)·원주(元洲)·유주(流洲)·생주(生洲)·봉린주(鳳麟洲)·취굴주(聚窟洲)를 말함. 전의되어仙境(仙境)을 이른다.

428) 문왕(文王)의 아들 숙주(叔紉)가 봉해진 나라. 지금의 산둥성 서쪽에 있었음.

429) 익수는 익조(鷁鳥)의 모양을 뱃머리에 새기거나 그린 배.

430) 세류영은 군율이 엄정한 군영(軍營). 한(漢)의 주야부(周亞夫)가 장군이 되어 세류(細柳: 지금의 陝西省 咸陽縣에 있는 지명)에 진(陣)을 쳤을 때 다른 군영보다 군율이 엄했으므로 순시(巡視)했던 문제(文帝)가 크게 감동하여 불인 이름.

검비한 인재에게 굳게 지키게 하였다. 때마침 감당(甘棠)⁴³¹⁾의 덕치를 펴고자 하여, 주나라 소공(周召公)과 같은 훌륭한 보필을 선임하니, 을묘년(명종 10년, 1555)⁴³²⁾에 붉은 살모사와 같은 오랑캐의 침략을 그치게 하였다.

요새를 검각(劍閣)⁴³³⁾의 한 장부(丈夫)에게 맡기는 것은 지형의 험함에 연유하고, 성(城)을 진양(晉陽)의 삼판(三坂)⁴³⁴⁾에 맡겨두는 것은 사람들의 화합함에 힘입은 바이다.

곽홀 절제사의 방어 대책이 뽕나무 뿌리처럼 근본이 확고했던 것은 개연히 흥하고 폐함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신석계 판관이 미리 음우(陰雨)에 대비하여 신속하게 도와, 파고 쌓아올리니 옛 성이 중건되었다. 마치 새가 날개를 펼쳐 올린 것 같은 새로운 당이 비로소 열렸다. 웅장한 용마루와 조각한 들보에는 아침 햇살이 스쳐지나가고 단청한 기둥과 난간은 저녁노을 진 해안을 압도하는구나.

이 당의 규모를 상고해 보면, 주장(主將; 곽홀)의 깊은 계책을 알아볼 수 있으니, 튼튼한 성을 꺾은 것은 국가에 충성을 바치려는 의도이며, 지휘관의 장막을 멀지 않게 한 것은 군사를 격려함에 덕을 흡족하게 하려는 책략이 있었다. 이에 운주(運籌)라는 이름을 내걸어 적을 제압하여 이길 방도를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이 당은 달구경을 즐기던 유양(庾亮)⁴³⁵⁾의 남루(南樓)와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찌 매화를 감상하던 하손(何遜)⁴³⁶⁾의 동각(東閣)과 같겠는가.

문무 관리의 게으름이 고금 어느 때에 허용되었으며, 명예를 돌아보고 의리를 생각하는 사람이 앞뒤에 몇이나 될 것인가.

가만히 생각하니 사또께서는 조정의 영명한 분이시며, 학계의 뛰어난 선비로서, 예술계의 보물이라는 한나라 사마공 집안의 명성을 이었으며, 문단의 흰 구슬이라고 하는 진(晉)나라 사수(謝朓)의 문장처럼 빛난다.

임금님을 모시는 홍문관에서 거둬 근무하다 장수(將帥)로 임명되어 멀리 창해에 있는

431) 감당은 팔배나무인데, 주나라 소공이 남국(南國)을 순행할 때 팔배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자, 그의 선정(善政)과 덕화(德化)에 감동한 그 지방 사람들이 그 나무를 베지 말라고 노래한 고사를 이른다.

432) 청토지건세(靑兎之建歲)는 토끼해를 의미하며, 이 글에서는 1555년 을묘년(乙卯年)이다.

433) 검각은 중국 사천성(四川省)에 있는 산 이름. 장안(長安) 방면에서 촉(蜀)으로 들어가는 통로로써, 예로부터 요해지(要害地)로 유명하다.

434) 진양의 삼판은 전국 시대 한(韓)·위(魏) 연합군이 조(趙)나라 진양을 수공(水攻)할 때 물에 잠겨 남은 부분이 6자 정도였으나 끝까지 방어하여 함락되지 않았음을 이른다.

435) 유양(289~340)은 진나라 명목황후(明穆皇后)의 오라버니로, 성제(成帝) 때 곽묵(郭默)의 반란을 평정하여 정서장군(征西將軍)에 올랐다.

436) 하손은 중국 남조 양(梁)나라의 시인이다. 문단의 거성 범운(范雲)에게 시재(詩才)를 인정받았으며, 유효표(劉孝標)와 더불어 '하류(何劉)'라 불렸다.

변방을 다스리니, 인덕(仁德)이 미개한 지역에 진동하고, 교화(教化)의 비가 야만스런 고을에 흡족하게 내렸다. 또한 멀리 척후 보내고 봉화 관리를 엄히 하며, 위상(魏尙)⁴³⁷⁾과 같이 군사를 잘 대우하였다. 군사를 훈련시켜 무위(武威)를 드러내고, 촉나라 장수처럼 울령이 엄하고 분명하였다. 평화로운 시기에 군무를 논하는 것은 장차 전쟁이 있을 때 시험적으로 쓰자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덕을 살피고 정사를 듣는 여가를 틈타, 백우선(白羽扇)을 서서히 흔들면서 성을 순시하기도 하였고, 여유 있게 붉은 기를 잠시 멈추고, 정자에 머물며 소요하기도 하였다.

외교적인 교섭을 통하여 담소하는 가운데 유감없이 문제를 해결하니, 오랑캐는 마땅히 물러갈 수밖에 없도다. 금성탕지 같이 견고하게 방비하니, 난폭함은 이미 없어졌는데 옥노(玉弩)⁴³⁸⁾에 대한 대비가 어찌 필요한가.

때마침 대적성(大赤星)⁴³⁹⁾이 남쪽으로 흐르고 북두칠성의 끝은 서쪽을 가리키는데 푸른 파도가 바다를 차니 차가운 바람소리는 백마와 같은 물살을 몰아오는구나. 자주 빛의 상서로운 기운이 관문에 비추고 (괭홀의) 화려한 발자취는 청우(靑牛)의 땅⁴⁴⁰⁾을 진동시켰도다. 국화 핀 계단에 비추는 맑은 달은 북해에 떠 있는 술동이 같고, 굴 밑에서 불어오는 부드러운 바람과 향기는 동성의 필적에 감도는구나.

이로서 하늘은 뛰어난 인재를 머무르게 하여 이 섬은 형산⁴⁴¹⁾에서와 같이 제사 지내 이름을 얻었으며, 땅은 성품이 어질고 뛰어난 사람을 길러내니 누각에는 최호(崔顥)⁴⁴²⁾와 같은 시를 남겨 더욱 값지게 되었음을 알았다.

백년이나 사이가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느낌은 부절을 맞춘 듯이 같은데, 나 신찬(申攢)은 시골에 묻힌 자로 서울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푸른 물가에 핀 홍련같이 부끄럽게도 비장이 아닌 빈객으로 군영에서 외람되이 글을 짓는 손님이다. 글재주는 심약(沈約)⁴⁴³⁾에게 부끄러운데 헛되이 팔영루(八詠樓)에 오르고, 문장은 자안(子安)⁴⁴⁴⁾에 못미치나 감히 한 마디의 부(賦)를 서술한다.

437) 위상은 한나라 문제 때 운중 태수였다. 군사를 잘 대우하여 흉노의 침입 때 큰 공적을 세웠다.

438) 옥노는 유성으로 이 유성이 나타나면 세상이 혼란해질 징조로 여겼다.

439) 별 이름으로, 이십팔 수 중 심수(心宿)의 대적성(大赤星)을 대화(大火)라 한다.

440) 청우지경은 선인이 났다는 검은 소가 있는 땅으로, 여기서는 제주를 가리킨다.

441) 원문의 선형(獬衡)은 오악의 하나인 형산에서 지내는 제사이다.

442) 최호는 당(唐)나라 변주(汴州) 사람으로 당시 7언 율시의 일인자로 알려졌으며, 황학루를 지었다.

443) 심약은 중국 남조(南朝)시대의 문인(文人)으로, 사조(謝朓) 등과 함께 영명체(永明體)를 창안하였다. 자는 휴문(休文). 시호는 은(隱)이다.

444) 자안은 원말 명초에 활약한 작가로, 시내암(施耐庵)이라고도 한다. 나관중과 함께 『수호지』의 작가로 알려져 있다.

이원진의 시(李元鎮詩)

飛薨迢出白雲端 높은 누각 하얀 구름가에
 碣石扶桑指點間 갈석산⁴⁴⁵⁾ 해 뜨는 곳 지척이라네.
 幾閱狺狺軒勇氣 이 누각에서 몇 번이나 열병했던가!
 更傾鸚鵡破愁顏 앵무새⁴⁴⁶⁾ 잔으로 또 마시니 시름도 잊네.
 子房帷外乾坤正 장자방의 장막 밖은 천지가 평정되고
 德裕樓前日月閑 덕유루⁴⁴⁷⁾ 누각 앞에 일월이 한적하오.
 落筆滄洲仍笑傲 제주[滄州]에서 거만하게 웃음으로 붓을 들어
 百篇詩興不能刪 시흥은 많으나 능히 표현 못하네.

공신정(拱辰亭) 【북수문 위에 있다. 효종 신묘년(2년, 1651)에 목사 이원진(李元鎮)이 세웠으나 중간에 폐지하였다. 순조 정묘년(7년, 1807)에 한정운(韓鼎運)⁴⁴⁸⁾이 중건하였다. 신묘년(순조 31년, 1831)에 이예연(李禮延)⁴⁴⁹⁾이 삼천서당 북쪽으로 옮겨 세웠다.】

신찬의 기(申繼記)

변하(汴河)⁴⁵⁰⁾ 중류에 수문(水門)이 만들어지고, 소식(蘇軾)⁴⁵¹⁾이 쌓은 제방(堤防)에도 이미 황루(黃樓)⁴⁵²⁾를 지었으니, 이는 수구(水口)에 누각(樓閣)을 세우는 일의 그 유래가 오래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하물며 이 탐라 관부(官府)는 아래로는 바다에 임하고 위로는 계곡으로 이어져, 빗물이 때때로 범람하면, 성문(城門)이 자주 무너지고, 나무를 걸쳐 다리를 만들어도 수해(水害)를 막을 수가 없었다. 전후하여 이 고을을 다스리는 자는 이것이 근심이 되었지만, 좋은 계책을 마련하지는 못하였다.

신묘년(효종 2년, 1651)에 이원진 상공(李相公)이 절제사(節制使)로 임명받고 부임하여 고을의 일을 보았는데, 임진년(효종 3년, 1652) 가을 8월에, 풍우의 재해를 당하

445) 갈석(碣石)은 산 이름.

446) 앵무(鸚鵡)는 앵무새 모양의 화려한 술잔.

447) 덕유루(德裕樓)는 故事에 있는 누각인 듯하나 출전을 알 수 없다.

448) 한정운은 1807년 7월부터 1809년 1월까지 제주목사로 재임하였다.

449) 이예연은 1830년 3월부터 1832년 2월까지 제주목사로 재임하였다.

450) 변하는 중국 하남성(河南省)에 있는 하천(河川)이다. 일명 변수(汴水)라고도 한다.

451) 소식은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한 사람으로, 자는 자瞻(子瞻), 호는 동파(東坡)라 하였다.

452) 누명(樓名). 소식이 홍수를 다스린 기념으로 지었다고 한다.

여 남북의 수구(水口)가 일시에 모두 파괴되었다.

상공(相公)은 이에 개연히 탄식하며 말하기를, “보호하여야 할 곳이니, 고쳐 쌓지 않을 수 없다. 오랫동안 유지하려 한다면, 돌로 쌓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고, 이에 장인과 병사들에게 명하여 바위를 깨트려 나누어서 두 개의 무지개다리를 만들고, 수寨(水寨)를 넓게 뒀는데, 돌을 쪼고 다듬는 일로 인하여 공사가 방대하여 며칠 내에 이루어지기가 어려웠다.

그 때 비장(裨將)인 전 현감(前縣監) 이유원(李惟原)이 공사를 감독하여 밤낮으로 게으름을 잊으니, 다음해인 계사년(효종 4년, 1653) 봄에, 돌문(石門)이 비로소 완성되었다. 또 그 위에 다락(譙樓)을 지었는데, 3월 11일(丁丑)에 공(公)이 이 누(樓)에 올라 마침내 장사(將士)들을 모아 낙성하고, 그 이름을 공신루(拱辰樓)라 명명하니, 이는 노두(老杜)⁴⁵³의 시(詩)에서 ‘높은 다락(危樓)에서 북극성을 바라본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이 다락은 높으나 웅장하지 않고 화려하나 지나치지 않으므로 풍기(風氣)를 굳게 하고, 물샐 틈이 없으니 도적을 막는 요해(要害)가 되었다.

지금부터는 성문이 다시 물로 인해 무너질 염려가 없고, 주민들도 쌓거나 막는 괴로움을 면하게 되었다. 뒤에 와서 보는 자는, 어느 누가 상공(相公)께서 이 문루를 세운 것이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나 신찬(申贊)은 이날에 우연히 말석(末席)에 참여하였다가, 공(公)의 명을 받고 사양할 수가 없어서, 그 이루어 놓은 업적을 대강 서술하여, 뒤에 오는 자(후임 목사)로 하여금 이것이 비롯된 연유를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정운의 기(韓鼎運記)

영주는 우리나라 남해에 있고, ‘한라’라는 산이 있는데, 높고 높아 그 정상에서는 은하수를 잡을 수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곧, 세상에서 일컫는 삼신산(봉래·방장·영주)의 하나이다. 산의 정북방으로부터 해변에 이르기까지 사방 십리의 성이 둘러져 있는데, 이는 옛날 탐라국의 도읍지이며, 그 군주는 고씨였다.

태초에 고·양·부 세 신인이 땅에서 솟아나와 황무지를 개척한 시조가 되었다. 지금 그 유적(삼성혈)은 성 남쪽 수리쯤에 있으며, 아직도 완연하다. 시냇물은 한라산 아래에서 발원하여 삼성혈 앞을 굽이쳐 들며, 성의 좌편을 뚫고 바다로 흘러간다. 이른바 가락천이다.

453) 노두(老杜)는 중국 당(唐)나라의 시인(詩人)인 두보(杜甫)의 이칭(異稱)이다.

내가 처음 부임하였을 적에 살펴보니, 성곽은 완고하나 누대가 썩고 무너져 허물어질 염려가 있었으며, 수구에는 다릿돌이 흩어지고 없어져 제도(制度)의 자취가 없었다. 이에 장리들에게 부탁하여 말하기를 “백성들의 부역이 비록 민망스럽기는 하나 중수의 공역은 늦출 수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는가?”라고 하니, 모두 입을 모아 대답하기를, “여러 해 풍년이 들었고, 또 지금은 농한기이니, 어찌 공역을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그래서 정묘년(순조 7년, 1807) 11월에 착공하여 다음해 무진년(순조 8년, 1808) 3월에 준공하니, 동문의 누각이 우뚝 솟았고, 수구의 크고 작은 무지개다리가 활 같았다. 두 다리 사이에는 조그만 정자를 지어 공신정(拱辰亭)이라 제액하였으니, 대개 옛 명칭을 답습한 것이며 다만 누(樓)를 고쳐서 정(亭)이라 했을 뿐이다. 또 사면의 성곽 모퉁이에 각기 네 기둥의 격대 설치하는 백성들을 잘 다스린 효과와 장인들이 역사를 서들렸기 때문이다.

공사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왔다. 원근의 기로들이 모두 모여 말하기를, “아름답도다! 공역이 전일에 비해 훨씬 나아졌습니다. 이 다리는 이태호⁴⁵⁴)가 남·북 홍예(虹霓)를 만든 것이 시초이며, 100여 년간 지탱하다가 허물어졌습니다. 안경운 절제사⁴⁵⁵)는 다락의 판자를 개수하고 그 위에 다섯 기둥의 정각을 세워 공신정이라 하였는데, 20여 년이 지나자 허물어졌으며, 이절도⁴⁵⁶)는 돌로 홍교를 구축하였으나 겨우 4년 만에 허물어졌습니다. 이번의 시설은 전자에 비교하여 면목이 일신되었는데, 앞으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방략을 더불어 들려주시겠습니까?”라고 하므로, 내가 대답하기를, “아! 옛 사람의 말에 ‘세 번 팔뚝이 부러지면 명의가 된다.’고 하였는데, 이번의 개조가 곧 세 번 허물어진 뒤에 개수한 바이니, 비로소 앞의 실패를 거울삼은 결과리라. 앞으로 유지하는 기한은 미리 알 수는 없으나, 지난 일을 거울삼아 증감한 뜻을 관람하는 자들이 스스로 짐작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대화하던 기로들이 물러가므로, 즉시 이를 기록하였다. 해외의 진귀한 풍물을 감상하는 운치와 아득한 타향에서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심정에 이르러는 몸소 겪어본 자가 아니면 함께 더불어 말할 수 없으리.

454) 태호는 이원진(李元鎭)의 호이다.

455) 본문의 안절도(安節度)는 1740~1743년에 제주목사로 재임한 안경운(安慶運)이며, 당시 제주 목사는 절제사를 겸임하였으므로 절도(節度)는 절제(節制)의 오기이다.

456) 안경운 목사 이후 20년이 지난 1760~1765년간의 제주목사는 이창운, 이달, 이명운인데, 개수 기록이 없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다.

조정철의 시(趙貞喆詩)

危欄憑孤堞 외로운 성 위 위태로운 난간이 의지해 있어
 迢遠勢欲浮 아득히 먼 곳으로 배 띄워 가고픈 심정
 瞻天星北拱 하늘을 올려보니 별들은 북두성에 공수하고
 觀海水東流 바다를 바라보니 물은 동으로 흐르는데
 百代逐臣恨 쫓겨난 신하의 한 백 세대에 이어지고
 千秋漂子愁 방랑하는 자의 근심 천년의 세월 될 터
 登臨何處是 높이 올라 바라 볼 곳은 어디인가
 人說竹西樓 사람들은 죽서루라 말하는구나

이예연의 기(李禮延記)

이 정자는 본래 북성의 무지개다리 곁에 있었는데, 돌로 겹겹이 쌓아서 터를 만들고, 높이는 성과 가지런하였다. 겨우 기둥 넷을 세우고 정자를 만들어서, 처마 밖으로는 한 사람의 자리도 마련하기 어렵다.

이 정자에 오를 때에는 허공에서 바람 타는 격이니, 몸은 의지할 게 없어 위태로움을 이길 수 없다. 비록 사소한 기물이라도 쫓긋 솟은 곳에는 둘 수 없는데, 하물며 정자는 사람들이 올라 유람하는 곳이니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또 빗물로 물이 불어 범람할 때에는, 가락천(嘉樂川) 물이 곧바로 흘러와 부딪쳐 석축이 무너지니, 정자가 온전할 수 있겠는가. 큰 비올 때마다 개건하면 백성들은 견딜 수 있겠는가.

또한 산짓물은, 곧 성안 부녀자들이 물을 길는 곳이다. 두레박질을 하며 빨래하는 사람들이 떠들썩하니, 이때에 연소하고 방탕한 무리들이 (정자에) 올라가 내려다보는 하나의 기이한 광경이 벌어지는데, 우물 가까워서 목욕하는 혐의와 같아 과연 편안하겠는가.

내가 고을에 처음 부임하였을 때, 정자가 벗겨지고 떨어져 나간 것을 보고, 재목과 기와를 철거해 두었다가 개건할 계획을 세웠다.

다음해 2월에 이르러, 옛터에 그대로 기둥을 세우고 상량하여 거의 마치려 하는데, 향간의 말들이 자기 스스로를 현명하다고 여기며 의견이 같지 아니하고 여러 갈래로 나뉘므로, 민원에 따라 다시 동쪽 산등성이를 골라 옮기니 과연 명승지였다.

아름답게 단청을 한 누각은 소나무 수풀 사이에 은근히 비치고, 아름다운 풍경은 눈이

내리는 달밤에 어울리며, 북쪽 하늘의 별을 보니 근심이 깃드는구나.
편액은 세 글자로 예전대로 ‘공신정’이라 이른다.

이예연의 시(李禮延詩)

瀛洲山出海之東 바다의 동쪽에 영주산이 빼어나 있음은
天地空虛積氣籠 천지의 공허한 곳 기운을 쌓아 막으려 함인지
浩浩無邊如彼巨 끝없이 넓고 넓은 바닷물이 저와 같이 크니
盈盈不泄是誰功 담고 담아도 새지 않음은 누구의 공덕인지
魚龍莫測千尋窟 천 길이나 깊은 물 속 어룡은 헤아릴 수 없고
鴻鵠能騰萬里風 홍곡이 만 리를 바람타고 나는 곳
別界烟霞新構屹 별천지의 경치를 찾아 우뚝 새 집을 세우고
憑欄北望彩雲紅 난간을 의지하여 북쪽을 바라보니 상서로운 구름

이원조의 시(李源祚詩)

重溟一渡遠宸居 깊은 바다 한 번 건너 궁궐과 멀어져서
獨上危樓倚斗餘 홀로 높은 다락에 올라 북두를 찾으려는데
微月初生徐福海 서복이 다니던 바다에 희미한 달 떠오르고
暝烟深鎖乙那墟 삼을나 옛터엔 가리운 어두운 연기
天長華表歸遼鶴 하늘 끝 임금 계신 곳에 요동학 돌아가고
水濶虹門放海魚 넓은 물 홍예문에 바다고기 노닌다
北望長安何處是 북쪽을 바라보니 서울은 어디쯤인지
飛雲過鳥摠愁余 나는 구름 지나가는 새 모두 나를 시름지게

연상루(延祥樓) 【동성문으로, 옛날 제중루(濟衆樓)라 불렀다.】

진서루(鎭西樓) 【서성문으로, 옛날 백호루(白虎樓)라 불렀다. 영조 기미년(15년, 1739)에 목사 조동점(趙東漸)이 중건하였다.】

정원루(定遠樓) 【남문루로, 중종 임신년(7년, 1512)에 목사 김석철(金錫哲)이 세웠다. 숙종 을유년(31년, 1705)에 송정규(宋廷奎)가 중건하였다.】

제이각(制夷閣) 【제주성 남쪽 모퉁이에 있다. 가장 높은 곳이었는데, 지금은 폐지

되었다.】

결승정(決勝亭) 【곧 옛날의 해산대(海山臺)였다. 동성 안 산젯물〔山底泉〕 위에 있었으나, 지금은 폐지되었다.】

청풍대(淸風臺) 【남성문 안 서편에 있다.】

연무정(演武亭) 【옛날 제주 남쪽 5리 광양의 언덕에 있었다. 인조 병자년(14년, 1636)에 목사 신경호(申景琥)가 세웠다. 숙종 갑술년(20년, 1694)에 이익태(李益泰)가 중수하였다. 영조 신유년(17년, 1741)에 바람으로 기울어졌으나, 그 후 병인년(1746)에 한억증(韓億增)이 땅을 점쳐서 동문 밖에 고쳐 세웠다.】

홍중징의 시(洪重徵詩)

尋春旌節遶春城	봄을 찾는 목사의 행차 둘러선 봄의 성
欲借韶光寫不平	따뜻한 햇볕 빌어 평온치 못한 것 쏟아내려고
滄海濤聲空外吼	넓은 바다 파도소리 하늘 밖에 으르렁거리고
漢拏嵐氣雪中生	한라산엔 눈 속에서도 일어나는 아지랑이
淸歌迴徹流雲遏	맑은 노래 끝날 즈음 흐르는 구름 멈추고
緩舞嬌隨細柳橫	가는 버들 늘어진 곳에 휘늘어진 춤이
今日踏青存古俗	오늘 답청하는 일은 옛 풍속에 따라서이니
軟莎鋪處故呼觥	부드러운 잔디밭에서 자못 외치는 술잔

김수익의 시(金壽翼詩)

演武新亭壓海開	새로 지은 연무정은 열어도 바다를 누르는 듯
地形淸(潔)絕纖埃	지형이 말끔하여 가는 먼지 한 점 없다
龍旗日暖宜觀射	따뜻한 날 용기 꽃고 활쏘기 마땅하며
玉帳秋高好縱盃	가을날 구슬휘장에선 술잔 들기 좋구나
萬古叢祠餘老木	숲 속의 사당에는 늙은 나무만 남아있고
三仙幽穴但蒼苔	세 신인의 굴에는 푸른 이끼만 그 시절
當時勝價今安在	감상하던 경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欲和遺篇思已哀	남긴 글에 화답하려니 생각이 구슬퍼져

심연의 시(沈演詩)

南鄙清秋錦席開 남쪽고을 맑은 가을날 벌어진 비단자리
 垺亭瀟灑斷浮埃 먼지 끊겨 말끔하고 시원한 대정
 重逢絕島登高日 높은 곳 오르는 날 절도에서 다시 맞아
 更把他鄉從菊盃 다시 타향에서 들어보는 국화술
 山雨欲來雲潑墨 비가 오려는지 구름은 먹물이 번진 듯
 海風吹去水如苔 바닷바람 불어와서 물결은 이끼 같다
 明年莫問人誰健明年까지 누가 건강하겠는가 묻지를 마라
 世事如今祇可哀 세상이 저와 같아 다만 슬픈 뿐

이원진의 시(李元鎮詩)

侵晨鼓角出南城 이른 새벽 고각소리에 성 남쪽으로 나간다
 莎綠亭前掌樣平 모양이 손바닥 같은 정자 앞의 잔디밭에
 衡軸每從圖上起 진 치는 그림에 따라 가로 세로 금을 그으면
 風雲長向握中生 악기진(握奇陣)⁴⁵⁷ 속에서는 오래 풍운이 일어난다
 衆弧耦發流星閃 짝 맞추어 쏘는 화살⁴⁵⁸은 별이 흐르는 듯 번쩍이고
 寶埒爭馳匹練橫 앞다투어 달리는⁴⁵⁹ 갈피날에선 필표를 빗겨간다
 回首桑溟波已息 머리 돌려 동쪽 바다를 보니 파도는 잔잔한데
 暫停歸騎倒深觥 돌아가는 말 잠깐 멈추고 가득 따르는 술잔

이원달의 시(李源達詩)

鼓角喧天上將臺 하늘을 찌를 듯한 고각 소리 들으며 장대에 올라
 清晨馳射試雄才 이른 아침부터 활쏘기 말달리기를 시험한다
 衙門二品關防重 이품의 관원이 다스리는 관방의 관청이어서
 節制三城號令開 절제사의 직함으로 세 고을을 호령하여 거느린다
 坐點牧人驅馬去 앉아서 목자들이 치는 말을 점고해야 하고

457) 악(握)은 握奇(악기)를 줄여 쓴 말. 정진(正陣: 天·地·風·雲)과 기진(奇陣: 龍虎·蛇)외의 또 한 진.

458) 중호우발(衆弧耦發)은 향사례에서 활을 쏘을 때 짝 맞추어 단에 올라 서로 사냥하면서 활을 쏘는 사법.

459) 보날쟁치(寶埒爭馳)는 기마를 시험할 때 경계를 그어 세운 표시에 따라 달리는 기법.

行收獠戶貢珠來 돌아다니며 요호의 진주 공납도 받아야 하나
 乘風破浪平生志 평생 바람을 타고 물결을 깨칠 뜻을 품고 있어
 一笑登臨亦快哉 이 정자에 오르면 통쾌하여 웃음이 절로 난다

이익태의 기(李益泰記)

제주성 남쪽 5리에 정자가 있는데, 신경호(申景琥) 목사 때 세운 것이다. 세월이 오래 되고 비바람에 시달려 무너져 못쓰게 되었으나, 중수하지 아니한 지 이미 3년이 되었다.

내가 부임하여 다스리던 7월 16일에 동교(東郊)에서 전문(箋文)을 올려 보내고 삼성단 쪽으로 향하여 가다, 정자 터가 지척에 있으므로 주위를 둘러보고, 이졸(吏卒)들에게 물으니, 이르기를, “이 섬은 모두 돌덩이와 모진 돌로 이루어진 구릉인데, 오직 광양 평야만이 돌 하나 없고 평탄하여 손바닥과 같으니, 무사를 사열하고 병사를 훈련시킬 수 있는, 참으로 하늘이 만들어 준 땅입니다. 연이은 흉년을 만나 오랫동안 군사 훈련을 폐하였으나, 혹 무예를 시험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가건물을 짓는 역사에 백성들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며, 정자를 헐어낸 재목이 거의 썩어서 상했으니, 새것으로 바꾸는 일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내 또 물어 이르기를, “너희들의 말이 참으로 옳다. 내 장차 이 정자를 지으려 하나 일이 어긋나고 힘도 적어 백성을 동원하기 어려운 형세이다. 돌아보건대, 너희는 영(營) 소속이 많아 수천에 이른다. 마땅히 차례를 정하여 편의에 따라 일을 하면, 너희들은 남보다 괴로움을 더 받는 일이 없을 것이고, 민간에는 소란이 일어날 폐해가 없으니, 너희들의 뜻은 어떤가?”라고 하였더니, 모두 대답하기를 “좋습니다.”라고 하였다.

곧 재목을 모아 보태고 기와도 구워 보충하였는데, 목수 역시 영소속이 아닌 사람이 없었다. 11월 초 9일에 일을 시작하고 12월 25일에 마치니, 정청이 3칸이고, 동·서협이 각각 2칸이다. 주위에 담장을 두르고 좌우에 문을 내었는데, 세 기둥의 급식소는 서쪽 담장 밖에 있으니, 옛 사람이 남긴 모범을 벗어나지 않았고, 훗날의 본보기로도 떨어지지 않는다.

아마도 정자를 지은 것은 본래 훈련장(陣場)을 만들려는 것이므로, 거축에 필요한 물력도 곧 세 고을이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공사에는 제주의 백성들이 참여하지 않았고, 정의·대정 두 현도 알지 못하고 있으니, (제주진영 소속의) 이졸들이 찬성한 힘이 아닌 것이 없다. 어찌 크게 다행스런 일이 아니겠는가.

돌아보건대, 지금 태평함이 오래 계속되어 임금의 덕화가 바다에까지 미쳤다. 비록 세

상이 태평한 때를 당하였다고 하나, 문교(文教)가 있으면 반드시 군비도 갖추는 것인데, 하물며 해중의 탄환 같은 조그만 섬이 칠치(漆齒)⁴⁶⁰에 인접했음에랴. 미리 위험한 것에 대한 방비를 하지 않을 수 없고, 활 쏘고 말 타는 재주를 익히지 않을 수 없다. 봄과 가을에 조련할 자를 모집하였더니, 용맹스런 병사가 수풀과 같이 모여들었고, 양날 검과 활쏘기를 시험해보니 번개처럼 빠르고, 서릿발처럼 날카로우며, 햇빛처럼 빛났다. 이로써 바다를 진압하여 변방을 편안하게 하고, 이로써 적에 대항하여 그 내습을 막으니, 거의 연무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다.

아아! 세상에 벼슬아치 된 자들은 정자의 폐해를 보고도 무너지는 대로 내버리고 백성을 수고롭게 하지 않았다. 지금 나는 백성을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졸들을 수고롭게 하였다. 이졸들의 수고로움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애쓰게 하였다. 이는 나의 벼슬살이가 서투른 때문이다.

그러나 이졸을 거느리고 쇠고기와 술을 마련하여, 한가한 날을 골라 이 정자에 오르면, 구름은 은하수 길을 열고 파도는 영해(瀛海)에 쉬었다. 깃발이 펄럭이고 고각 소리는 맑고 웅장하여, 마음이 넓어지고 정신이 상쾌하니, 경황없이 부구(浮丘)⁴⁶¹에 절하고, 자연의 원기를 벗어났다. 이 몸이 천 리 밖 해도에 있음을 알지 못하니, 참으로 즐겁도다. 서로 더불어 낙성을 즐기고 술에 취하였다.

이를 기록하노라.

연교정(延教亭) 【제주 동문 밖 3리에 있다. 영조 정사년(12년, 1737)에 목사 김정(金儼)⁴⁶²이 창건하였다. 연교배전(延教拜箋)⁴⁶³하는 곳으로 지금은 폐지되었다.】

김정의 상량문(金儼上樑文)

천 년의 옛 고을에선 흙이 있는 일을 먼저 함이 마땅하고, 5리 밖의 새 정자에선 걱정 거리를 헤아려 훗날을 대비하는 것이니, 아름다움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다하여 생각하는 데 있다.

둘이켜보건대, 이 넓은 바다 가운데 한 지역은 바로 옛날엔 탐라국이였다. 신라 때부터 바다 건너와 보배를 바쳤고, 조선(聖朝)에 이르러 비로소 관리를 두어 죽사부⁴⁶⁴를

460) 칠치는 중국 변경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 또는 종족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외적(外賊)의 뜻으로 쓰임.

461) 부구는 전설상의 신선임.

462) 김정(金儼)은 1735년 4월 부임하여 1737년 9월 화북관에서 병사하였다. 제주도의 학문 장려와 선정에 힘썼다.

463) 연교배전은 교서를 받는 의식과 전문을 올려 보내는 의식을 말함.

464) 분죽은 지방 관리를 임명할 때 부절을 나누어 주는 일을 말함.

나누어 주었으니, 백치천첩(百雉千蝶)은 견고한 성이요, 옥장주아(玉帳朱牙)는 장수의 지휘소가 되었다.

말을 정선하고 굴과 유자 상자를 마련하여 해마다 바치고, 천추절과 정월 초하루, 동짓날에는 매번 전문을 올려 하례하였다.

다만 성 밖에 객사가 없기 때문에 길 왼쪽에 장막을 설치하여, 의장을 펼치고, 용정자⁴⁶⁵⁾ 모시는 일을 어찌 풀밭에서 하며, 낭함(琅函)⁴⁶⁶⁾을 받들어 호배(虎拜)⁴⁶⁷⁾를 올리는 일에 항상 눈보라를 염려하겠는가.

지난날 경황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어찌 구차하게 방임하며, 또 현재 급하다고 하여 구습을 따라 헛된 일을 하여서는 안 된다.

마침내 성문과 망루를 내밀어 동쪽으로 몇 걸음 물리고 나서, 나머지 땅의 음양의 알맞음을 살피니, 과연 저절로 동남동에 있게 되고, 경영 또한 길일을 만났으니, 어찌 번잡하게 점보는 일에 매달리랴!

일을 함에 앞서 민심의 화합을 걱정하여 부역 동원은 농한기를 기다려 하였으며, 높지도 크지도 아니하니 사치와 검약에 있어 적당하고, 돌담장은 영구적이고 변함이 없을 것이다.

공사는 며칠 걸리지 않아 이루어졌는데, 일은 마치 귀신과 같이 하였다. 방위는 남향이며, 교서(敎書)를 맞이하는 예법에 일치하고, 풍교와 관계있으니 감히 좋은 법규에 어긋나겠는가. 공사를 꺼리지 않았으니, 스스로 신하의 직분을 다한 것이다. 백성이 모두 즐거워하니 인심이 같은 바를 보는 것이요, 마을의 모습을 새롭게 바꾸었으니, 하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을 알겠다. 이에 좋은 노래를 불러 들보 들어 올리는 일을 돕고자 한다.

어여차 포양동⁴⁶⁸⁾, 아름다운 바다 아득히 끝이 없는데, 해는 솟아올라 함지(咸池)⁴⁶⁹⁾에 빛을 발하니, 새벽 오고 어둠은 사라져가네.

어여차! 포양서, 운해 도도하여 아득히 보이고, 해지는 엄자(巔岨)⁴⁷⁰⁾는 어디인가, 해 뜨는 새벽 부르는 해치는 소리.

어여차 포양남, 저기 보이는 한라산의 못, 그 물 흘러 바다에 드니, 모두가 만나는구나.

어여차 포양북, 많은 별들이 왕궁을 에워싸니, 장안 가는 길 멀다하지 말게, 임 생각하는 마음 바로 드는 것을.

어여차 포양상, 아득히 먼 하늘에 북두성 밝고, 남극성 아름답게 빛나네, 원컨대 봉래

465) 용정자는 교서나 나라의 금보(金寶) 등을 운반할 때 쓰던 가마를 말함.

466) 낭함은 교서를 넣은 상자를 말함.

467) 호배는 교서를 맞이하는 의식을 말함.

468) 어여차 포양동은 도편수가 상량한 들보위에서 동쪽을 향하여 제물을 던지는 동작을 말함. 각 방향과 상하에 따라 같은 동작을 하며, 노래 내용은 방향에 따라 다르다.

469) 함지는 동쪽 양곡에서 돋은 해가 질 때 그곳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서쪽의 큰 못을 말함.

470) 엄자는 해가 지는 산을 말함.

산에도 비취주소서.

어여차 포양하, 구태여 아름답고 큰집이 필요한가, 머리 숙여 절로 더 공경하니, 계속 하여 후임자가 이어지게 하소서.

옆드려 바라옵건대 상량을 한 후에 귀신이 음양으로 보호하고 비바람을 거두시고 길이 기꺼운 마음으로 허물없이 제향(祭享) 받아들여, 사나운 바람을 영원히 멎게 하시어 전문을 올리는 바닷길 막히지 않게 하소서.

시(詩)

結構元非擇地形 집짓기 지형 가리지 않으랴
城門五里卽斯亭 성문 밖 5리 연교정.
莎鋪正路何須席 잔디밭 윗자리는 어디인가
石擁虛簷不用屏 둘러친 옹벽 병풍 대신하고.
千載以前都未暇 천년 동안 겨를 없었는데
一間雖小使成廳 한 칸 조그만 대청 이루었다.
海山奇勝呈軒砌 바다, 산, 절경에 정자 갖추고
從事歌詩有足聆 정성 다하니 노래 들을 만하네.

진보(鎭堡)

【각 진의 조방장⁴⁷¹⁾은 일찍부터 영군관 가운데서 택하여 정하거나, 혹은 3읍의 체임 하는 수령으로 하여금 조정에 보고하여 머물러 방어하게 하였다. 지금은 본토인 장교 중에서 뽑는다.】

화북진(禾北鎭) 【제주 동쪽 10리에 있다. 무오년(4년, 1678)에 목사 최관⁴⁷²⁾이 창설하였다. 성 둘레는 303보이고, 높이는 10자이다. 동쪽과 서쪽에 두 개의 문이 있고, 성 안에 객사와 군기고가 있다. 조방장이 1인, 치총이 3인, 방군이 92명이고, 사후선 1척이 있다. 환풍정은 곧 객사이다. 숙종 기묘년(25년, 1699)에 목사 남지훈⁴⁷³⁾이 세웠다. 망

471) 조방장(助防將)은 해안 방어의 요충지에 설치된 방호소(防護所)의 장으로 방어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472) 최관(崔寬)은 1678년(숙종 4) 8월에 제주 목사로 도임하여 1680년(숙종 6) 5월에 떠났다.

473) 남지훈(南至薰)은 1699년(숙종 25) 5월에 제주 목사로 도임하여 1701년(숙종 27) 9월에 떠났다.

■ 耽羅誌草本(上)

양정은 북쪽 성 위에 있다.】

이희의 시(李禧詩)

衣繡乘驄此路中 옷을 갖추어 입고 청총마 탄 이번 길에는
來時行色去時同 올 때의 행색이 떠나는 길과 같구나
發奸摘伏慚實尹 간활한 이 었드린 이 찾아냄은 실윤에 부끄럽고
矯制開倉慕汲公 제도를 고치고 창고를 열며 급공을 사모하네
千里戀君兼戀土 천리 밖 임금님도 아끼고 이 땅도 아껴
一句愁雨又愁風 열흘은 비 내려 근심 또 바람 시름
殊方節序春歸盡 먼 곳 계절 봄이 다 지나감으로
排悶題詩恨未工 근심 물리치려 시를 지어보지만 시원치 않아

박성연의 시(朴成珩詩)

吹送長風動去橈 느린 바람 불어오면 노 저어 떠나는 배
海程千里正迢迢 천리 바닷길이 아득하기만
由來此地腸堪斷 예로부터 이곳은 애간장 끊는 곳
故使鎮名又別刀 그래서 진(鎭) 이름이 별도란다

이익한의 시(李翊漢詩)

飄然高閣壓城頭 표연한 높은 집이 성머릴 눌러
檻外滄波滾滾流 기둥밖엔 넘실넘실 흐르는 푸른 물결
日下長安千里隔 태양 아래 서울은 천리 밖에 떨어져 있어
登荒畝耐戀君愁 황급히 올라 임금님을 그리워하네

남구명의 시(南九明詩)

新亭高壓六鰲頭 새로 지은 높은 정자 여섯 자라를 눌렀고
萬壑西來入海流 모든 골짜기는 서쪽에서 와서 바다로 흘러든다

北望鄉關烟水濶 북쪽을 보니 안개물에 막힌 고향땅
客心無處可寬愁 나그네 마음 풀릴 곳이 없구나

송재항의 시(宋載恒詩)

巍然城閣壓波頭 높직한 성각이 파도를 눌렀으나
海水洶洶日夜流 날마다 바다 물결 세차고 어지럽네
遙望北雲歸意促 멀리 북쪽을 바라보면 돌아갈 생각뿐
戀親思國不勝愁 아버지와 나라님 생각 못이기는 수심이여

김정의 시(金倣詩)

劃然長嘯立城頭 획연히 길게 숨을 쉬며 성 머리에 올라보니
萬里滄溟濶不流 만 리의 푸른 바다 넓어서 흐르지 않고
北望長安何處是 북쪽으로 바라보면 서울은 어디쯤인지
天涯從古逐臣愁 예로부터 이곳은 귀양 온 이 시름 짓던 곳

【옛날 포항(浦港)이 얇고 좁아서 배를 정박시키기가 어려웠다. 김정(金倣)이 제주에 도입했을 때 친히 감독하여 제방을 쌓았는데, 길이는 210자, 높이는 13자이다. 오고 가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 때 쌓은 것에 의존하고 있다. 그 위에 영송정을 짓고 공선과 사선을 점검하는 곳으로 삼았으나, 지금은 폐지되었다. 해신사가 성 서쪽에 있다.】

이원조의 시(李源祚詩)

南維恩命愧高牙 남쪽 땅에 명령을 받으니 장군깃발 부끄럽네
越耆初傳海不波 노인들이 처음으로 바다에 파도 일지 않도록 제사하라 일렀네
近日無風遲貢舶 요즈음 바람이 없어 진상선 늦어지고
今年恒雨怨農家 금년은 잦은 비에 농민들은 하늘을 원망
靜思疵政心增惕 가만히 생각하니 정사가 잘못됐는가 두려워서
恭籲明神語敢侑 신명에게 공손히 부르짖으며 말이 너무 과장됐네
罷祀歸來看野色 제사 끝내고 돌아와서 들녘을 살펴보니

晚畦蕎麥始開花 늦게나마 밭이랑에 메밀꽃이 피었네

조천진(朝天鎭) 【제주 동쪽 25리에 있다. 성의 둘레는 240보, 높이는 9자이다. 삼면이 험한 바다인데 단지 통하는 문이 하나 있고, 그 위에 초루를 설치하였다. 성안에 조천관과 연북정, 군기고가 있다. 조방장이 1인, 치총이 2인, 방군이 67명이고 사후선이 1척 있다. 연북정은 곧 객사로, 옛날 성 밖에 있었는데, 선조 경인년(23년, 1590) 목사 이옥⁴⁷⁴)이 동성 위로 옮겨 세우고 편액하기를 쌍벽정이라 했다. 기해년(32년, 1599)에 성윤문⁴⁷⁵)이 중수하고, 연북정으로 편액을 고쳤다.】

청음 김상헌의 시(金淸陰詩)

天涯無日不回頭 하늘 보며 머리 돌리지 않은 날 없고
 一日思鄉抵九秋 고향 그리는 하루야 3년에 맞먹소.
 醉裡欲忘歸路濶 술 취해 갈 길 잊고자 하니,
 夢中猶覺此身浮 꿈에서도 이 몸 들떠 있다네.
 空今崔顥烟波句 부질없이 최호의 연파구⁴⁷⁶) 읊조리나,
 難幻陳卿竹葉舟 진경의 죽엽주⁴⁷⁷) 그려보기 어렵구나!
 謾說向來輕遠別 언뜻 떠난 것이 이별일 줄이야
 孤亭今夕自生愁 외로운 정자에서 시름이 생기네.

조성립의 시(趙誠立詩)⁴⁷⁸)

路入瀛洲兩腋輕 영주로 가는 길 날개 돋힌 듯

474) 이옥(李沃)은 1589년(선조 22) 10월에 제주 목사로 도임하여 1592년(선조 25) 3월에 떠났다.

475) 성윤문(成允文)은 1599년(선조 32) 3월에 제주 목사로 도임하여 1601년(선조 34) 6월에 떠났다.

476) 최호(崔顥)는 당나라 때의 훌륭한 시인이었으나, 도박과 술에 탐닉했다고 한다. 黃鶴樓(황학루)라는 시가 유명하다. 연파구(烟波句)는 최호의 읊시인 黃鶴樓(황학루)의 절구에 보인다. “日暮鄉關何處是 烟波江上使人愁(날이 저물어 고향은 어디인가! 연기 강위에 덮여 사람으로 근심하게 하네.)”.

477) 진경(陳卿)의 본명은 알 수 없다. 「竹葉舟」는 詩名이다.

478) 조성립(趙誠立) 1568(선조 1)~1638(인조 16) 조선조 선조 때의 문신, 제주구황어사(濟州救荒御史). 자는 여명(汝明), 호는 졸옹(拙翁) 혹은 일소헌(一笑軒). 본관은 황성이며 조린(趙潐)의 아들이다. 1599년(선조 32) 문과에 급제, 벼슬은 대사간(大司諫)에 이르렀다. 그가 어사(御史)로 제주에 와서 지은 「객사동헌기(客舍東軒記)」는 유명한 문장이다. 조성립이 1604년(선조 37) 3월 23일 제주에 와서 전년의 풍수해로 대흥년이 들고 또 유행병이 번져 동장(東場)의 기민수가 257명, 서장(西場)의 기민수가 290명을 확인하고 분진처(分賑處)를 31개소에 마련하였다. 특히 제주목사 김명운(金命胤) 제주관관 송종일(宋宗一) 등이 기민의 구치(救治)에 힘써 청송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보고하였다. 저서로 『일소헌유고(一笑軒遺稿)』가 있다.

冷然笙鶴引三清 피리⁴⁷⁹) 불며 선경⁴⁸⁰)으로 인도하오
回首劫灰飛已盡 고개 돌려보니 학은 사라지고
碧桃花下訪安生 파란 복사꽃⁴⁸¹) 아래 안생⁴⁸²)을 찾아가오.

이민성의 시(李民成詩)

公館峇嶢城上頭 공관은 높게⁴⁸³) 성 위에 치솟아
登臨客意悅逢秋 나그네 오르니 가을 회포에 젖네.
地漂島嶼星辰轉 땅 밖에 뜬 섬들 못별 구르듯
矢浴滄溟日月浮 시욕의 파란 물결 세월은 흐르네.
漢使定隨西極馬 한무제⁴⁸⁴) 평정하니 명마⁴⁸⁵)가 따르고
海風阻送鬱林舟 해풍은 사신의 배를 막으려 하오
蠻村處處杵歌起 제주에는 이곳저곳 방아 짓는 소리
獨倚闌干多少愁 홀로 난간을 기대니 절로 수심이 나오.

정립의 시(鄭立詩)

戀北亭臨大海頭 연북정은 큰 바닷가에 닿은 듯
朝暉夕靄幾春秋 아침 해 저녁 구름 몇 해이던가
鵬搏萬里風斯下 대붕 멀리서⁴⁸⁶) 바람 따라 오고
鰲戴三山地欲浮 큰 자라⁴⁸⁷) 삼신산을 업어 있네
平昔壯心看尺劍 옛날 장한 뜻으로 칼을 품었는데
晚年行李寄孤舟 만년엔 나그네⁴⁸⁸) 되어 바다를 건너네.
淹留忘却嚴程苦 오래 머무르니⁴⁸⁹) 일정 잊을까 걱정이오⁴⁹⁰)

479) 생학(笙鶴)은笙簫(생황)의 노래(笙·簫은 모두 악기 이름)를 신선이 부르며 타고 다니는 학.

480) 삼청(三清)은 도교의 3청으로, 옥청(玉淸), 상청(上淸)·태청(太淸)을 이르는데, 신선이 산다는 곳이다. 도교의 3신, 곧 玉淸元始天尊, 上淸靈寶道君, 太淸太上老君을 이르기도 한다. 崔國輔의 시 〈九日侍宴應製詩〉에 있다.

481) 벽도화(碧桃花)는 신선들이 먹고 오래 산다는 복숭아.

482) 안생(安生)은 前秦 王墮의 字. 王墮는 前秦 霸城의 사람으로, 字가 安生이다. 博學雄才하여 天文圖緯에 통했다.

483) 초요(峇嶢)는 산 따위가 높은 모양. 何晏(하안)의 글에 “峇嶢岑立 崔嵬巒居”라고 하였다.

484) 한사(漢使)는 한무제.

485) 서극(西極)은 명마(名馬)의 이름. 한무제가 오손국에서 얻은 말.

486) 봉단(鵬搏)은 봉새가 멀리 펼쳐 날아감.

487) 오대(鰲戴)는 충암시 「牛島歌」참조.

488) 행리(行李)는 여행 짐 또는 여행 준비. 심부름꾼.

489) 엄류(淹留)=淹泊(엄박). 陶潛(도잠)의 시에 “淹留遂無成”이라 했고, 陸游(육유)의 시에 “千金得一士難 晚途淹泊服愈

■ 耽羅誌草本(上)

日暮烟沙莫浪愁 날 저무니 바다 건널 시름 말아야지.

목장흙의 시(睦長欽詩)

此日來尋南海頭 오늘 남쪽 바닷가 찾아드니,
還如東海去年秋 지난해 동해 찾았던 일 같구나.
誰憐宇宙身將老 늙어짐을 누가 가없다고 했는가?
自笑風塵跡更浮 세상 풍진에 떠도는 일 스스로 웃소
萬里烟雲頻極目 만리 먼쪽 안개 자주 눈여겨보며
孤城波浪獨維舟 고성 물결엔 오직 외로운 돛단배뿐이네
憑軒却羨洲邊鳥 난간에 기대니 물새가 부럽기만 하고
不管人間無恨愁 무한한 시름⁴⁹¹⁾ 억누를 길 없네.

심연의 시(沈演詩)

烟波歸路暮城頭 연파에 저녁 성 머리로 길을 돌려오니
城上高亭萬古秋 오랜 세월 지나온 성 위의 높은 정자
風月不隨人事變 멋스러움은 인사의 변화를 따르지 않아 남아 있고
乾坤長與水光浮 하늘과 땅은 오래도록 물빛 위에 떠있네
百年身勢雙蓬髮 살아감에 따라 구레나룻 수염 하얘지는데
千里行裝一葉舟 먼 길 갈 행장은 한 조각 나뭇잎 배
遠客從來自多感 멀리 온 나그네 예부터 느낌이 많은데
登臨此日更添愁 오늘 이곳에 오르니 또한 시름이 더해지네

이원진의 시(李元鎮詩)

回首蓬萊跡已陳 봉래산 가본 지도 이미 오래였네
今來圓嶠又尋眞 오늘 한라산의 진면목을 찾았소.
玉人自解占南極 사또⁴⁹²⁾는 스스로 노인성의 짝사랑을

寒"이라 했다.

490) 본문에는 淹留忘却嚴程若라고 되어 있으나, 끝자 若은 苦의 잘못으로 보인다.

491) 한(恨)자는 한(限)자의 오석인 듯.

492) 옥인(玉人)은 옥을 다듬는 사람이다.

鍊母誰知戀北辰 뒤 알리! 북극성에 짝사랑을
 弩外潮聲回日城 전장 밖 물결 날마다 성을 감도네.
 槎邊星彩動天津 뗏목가의 별무리는 하늘⁴⁹³⁾에 반짝거려
 何當鳬鳥雙飛去 어찌 왕교의 나는 부석⁴⁹⁴⁾을 감당하리오.
 九尺龍墀賀萬春 대궐 터의 만춘을 기원합니다.

이선의 시(李選詩)

飄然旌節片帆開 정절을 나부끼며 조각배에 돛을 올려
 萬里滄溟一瞬來 만 리의 푸른 바다를 순식간에 건너왔네
 明月滿天波正濶 하늘에는 밝은 달 바다에는 넓은 물결
 此行知是訪蓬萊 이번 오는 길은 신선을 찾아오는 듯

김수익의 시(金壽翼詩)

狼狽吾行到此頭 내가 이곳에 온 것이 낭패가 되어
 還家猶幸趁新秋 가을에 접어들어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게 다행스러워
 潞公文錦讒何極 노공의 비단옷에 참소가 어찌 심하며
 交趾明珠謫亦浮 남쪽지방 구슬은 귀양 온 이도 띄운다
 惟是圖書留一橐 전대 속에는 오직 책들 뿐
 尙嫌尊酒載扁舟 편주에는 신기 꺼려하는 술동이
 天神可質平生事 천신에게 평생 일을 물을 수 있으니
 渡海風波豈足愁 풍파에 바다 건너는 일을 어찌 근심할 것인가

이도원의 시(李度遠詩)

城上高城枕海湄 바닷물가에 붙어 있는 성 위의 높은 성을
 客懷寥落獨憑時 쓸렁한 마음의 나그네 홀로 의지했네
 宸居北望雲天杳 궁궐이 있는 북쪽은 하늘엔 구름이 아득하고
 家信南來塞雁遲 집 소식 전해오는 변방 기러기는 느리기만

493) 천진(天津)은 별 이름. 은하의 가운데 있는 별.

494) 부석(鳬鳥)은 후한 때 왕교(王喬)의 고사에 나오는데, 현령(縣令) 또는 신선의 신발을 뜻함.

■ 耽羅誌草本(上)

漁戶孤生烟嫋嫋 어촌에는 요요한 연기 외로이 생겨나고
 風潮晚帶雨絲絲 들물에는 성글성글 내리는 저녁비
 炎洲節序秋將盡 남쪽고을에는 가을이 저무는데
 何日歸舟破浪期 어느 날이면 돌아가는 배 물결을 깨칠는지

이원달의 시(李源達詩)

縹緲樓臺壓海村 바닷가 마을 위로 누대 높직이 솟아 있는
 朝天城上建朱幡 조천성 그 위에다 붉은 깃발을 세웠으니
 千檣鷁首乘潮港 천 척의 배들은 포구에서 띄어지고
 萬匹龍驤散草原 만 필의 좋은 말들 초원 위에 흩어져 있네
 筍筍白魚仍供饌 통발에서 잡은 뱀어로 반찬을 차려먹고
 家家翠竹自成門 집집에는 푸른 대나무 절로 문을 이뤘어도
 殊方物物皆寬目 다른 지방의 물물에 모두가 너그러운 눈
 六住瀛洲感聖恩 영주에 오래 머물면서 성은을 느낀다네

이원조의 시(李源祚詩)

海曲繁華葦一邨 변화한 바다구비에 갈대밭 마을
 朝天館外住行幡 조천관 바깥에 행번을 멈추고
 長風客艤梨津櫂 바람 탄 나그네 배는 이진의 배
 細雨人耕善屹原 가는 비에 밭가는 곳은 선흘 마을
 荒歲若爲拯涸轍 흉년에는 물 마른 웅덩이의 고기를 구원하듯
 淸時猶自重邊門 평온한 때에도 오히려 변방문을 중히 여겨
 重溟不隔長安月 넓은 바다도 서울과 떨어져있지 않은 듯
 夢拜瓊樓祝聖恩 꿈에도 경루의 임금님 은혜 축원하네

별방진(別防鎭) 【제주 동쪽 80리에 있다. 중종 경오년(5년, 1510)에 목사 장림⁴⁹⁵⁾이 가까운 땅인 소섬(牛島)이 적이 다니는 요충지라서 김녕방호소를 이곳으로 옮겨 설치하였다. 성의 둘레는 1,081보, 높이는 7자이다. 동쪽과 서쪽, 남쪽에 각기 문이 있고, 그 위에

495) 장림(張琳)은 1510년(중종 5) 6월에 제주 목사로 도임하여 동년 12월에 떠났다.

모두 초루를 설치하였다. 성안에는 객사, 별창, 군기고가 있다. 조방장 1인, 치총 4인, 방군 100명, 사후선 1척이 있다.】

심연의 시(沈演詩)

絶島三秋後 절해고도에서 3년을 보내니
孤城十月中 별방성에 10월이 왔네
烟沈殘日暮 날은 저물어 연기가 모락모락
霜重衆山空 서리 겹겹이 내려 산은 공허하네.
行役身將老 행역⁴⁹⁶) 맡은 이 몸 점차 늙어
留連歲又窮 해마다 흥년이라 머물 수밖에⁴⁹⁷)
寒潮打荒堞 차가운 물결 거친 성에 부딪치고
窓外正天風 창밖엔 바로 하늬바람일세.

이원진의 시(李元鎮詩)

城壓鰲頭上 성곽은 자라 머리 위를 누르고
樓浮蜃氣中 누각도 신기루⁴⁹⁸) 속에 돋보이더니
三山身已到 이 몸 이미 삼신산에 이르러
四海眼仍空 사방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
碣石猶堪踣 갈석산⁴⁹⁹) 오히려 누워 있고
扶桑直欲窮 부상⁵⁰⁰)은 곧장 해돋이 하려나.
何時搏九萬 언제 구만장천을 박차고 나와⁵⁰¹)
正待負鵬風 바로 대붕의 바람을 기다리겠나!

김정의 시(金倣詩)

五馬魚遊東海隅 태수가 동쪽바다 모퉁이에 이르니

496) 행역(行役)은 징용 당하여 공사를 하거나 국경을 수비하는 부역.

497) 유련(留連)은 주저하여 떠나지 못하는 모양.

498) 신기(蜃氣)는 蜃氣樓(신기루).

499) 갈석(碣石)은 갈석산(碣石山)인 듯. 해가 지는 곳.

500) 부상(扶桑)은 해가 뜨는 곳.

501) 박구만봉풍(搏九萬鵬風)은 『장자(莊子)』 「소요유(逍遙遊)」에 나오는 말. 봉새가 바람을 타면 하루에 구만리를 날은다.

■ 耽羅誌草本(上)

慣看紅旭上雲衢 의례히 보이는 건 구름 속의 빨간 해
 始知海與天同大 바다도 하늘과 같이 큰 것은
 南極來看也不殊 남녘 끝 와서 봐도 또 다르지 않으니

애월진(涯月鎭) 【제주 서쪽 40리에 있다. 옛날 목성이 있었는데, 본래 삼별초가 쌓은 것으로 관군을 막던 곳이다. 선조 신사년(14년, 1581)에 목사 김태정이 석성으로 고쳐 쌓았다. 성의 둘레는 255보, 높이는 16자이다. 서쪽과 남쪽에 문이 있는데, 문 위에 초루를 설치하였다. 성안에 객사와 군기고가 있다. 조방장 1인, 치총 1인, 방군 74명, 사후선 1척이 있다.】

김상헌의 시(金淸陰詩)

嚴風萬里朔方來 먼 북쪽에서 불어오는 거센 바람은
 吹捲南溟作雪堆 남쪽바다에서 멈춰 눈언덕을 만들었네
 河伯欲昏愁汎駕 물귀신 어둡힐까 배 띄우기 근심스럽고
 龍公將雨怕登垓 용공이 비 내릴까 대에 오르는 것 두려워
 黿鼉滾沫紛顛倒 큰 자라는 파도 속에 어지러이 거꾸러지고
 蛟鱓隨波困避回 큰 고기 물결을 따르기 괴로워 회피한다
 徙倚孤城收遠望 외로운 성으로 옮겨서 먼 곳을 바라보니
 茲遊勝賞亦奇哉 보이는 경치 뛰어나고 기이하기만

이원진의 시(李元鎭詩)

毛羅成別域 탐라국은 유별난 지역에 이루어져,
 環海鏡澄清 거울 같은 바다는 맑기도 하네.
 日氣分桑島 날씨는 상도⁵⁰²⁾를 분명히 하고
 秋陰隱木城 가을이라 목성⁵⁰³⁾을 은밀히 숨겨
 攻駒仍舊事 망아지 치던 일은 옛 일이나,
 包橋卽今情 굴 따는 일은 오늘의 마음이네.

502) 상도(桑島)는 산동성 황현 북쪽 바다 가운데의 섬.

503) 목성(木城)은涯月城(애월성)을 이르는데, 애월성은 본래 木城이었다.

大陸雲山遠 대륙의 구름 낀 산맥은 멀어
迢迢望玉京 바라보는 옥경⁵⁰⁴)은 아득하오

이익한의 시(李翊漢詩)

孤島環南北 외로운 섬의 남북을 둘러가며
海關鎮勢雄 바다를 지키는 웅장한 진관
天連平楚濶 하늘은 넓은 초나라에 이어졌고
地接浙江通 지세는 절강성과 통할 수 있네
山影驕驕外 산과 들엔 화류마가 보이고
城陰橘柚中 성 안엔 귤나무 그늘져
馬前吹鐵篴 날라리가 인도하여 들어가니
月落戍樓空 달 지는 밤 빈 수자리

명월진(明月鎭) 【제주 서쪽 60리에 있다. 중종 경오년(5년, 1510)에 목사 장림이 목성을 쌓았다. 선조 임진년(25년, 1592)에 이경록⁵⁰⁵)이 석성으로 고쳐 쌓았다. 성의 둘레는 715보, 높이는 11자이다. 동쪽과 서쪽, 남쪽에 문이 있고, 모두 그 위에 초루를 설치하였다. 성안에 객사, 별창, 군기고, 활터가 있다. 영조 갑신년(40년, 1764)에 어사 이수봉⁵⁰⁶)이 조정에 보고하여, 조방장을 승격시켜 만호⁵⁰⁷)로 삼았다. 만호는 본영 출신 중에서 〈출신청에서〉 삼망을 갖추어 〈방어사(목사)가〉 임명하였다. 만호 1원, 치총 4인, 진리 20명, 방군 317명이 있다.】

김청음의 시(金淸陰詩)

高原下濕路透遲 높은 언덕 밑 펼길을 느릿느릿 돌아
卸馬孤城落日時 외로운 성에 짐 부린 것은 해가 떨어질 때
獨鳥帶烟迷遠樹 외로운 새에도 연기가 덮여 나무들마저 아득하고

504) 옥경(玉京)은 하늘 위의 옥황상제가 산다고 하는 가상의 서울.

505) 이경록(李慶祿)은 1592년(선조 25) 9월에 제주 목사로 도임하여 1599년(선조 32) 1월 이곳에서 사망할 때까지 6년 5개월 동안 최장기 목사로 재임함.

506) 이수봉(1710~?)은 조선 영조 때의 문신이다. 그는 1763년(영조 39) 유배인들의 역모 사건이 일어난 제주도의 도민을 위무하기 위하여 제주위유어사(濟州慰諭御史)로 도임하였다.

507) 만호(萬戶)는 제주진관 명월포의 방어 책임자로서 종4품의 수군 만호(水軍萬戶)이다.

■ 耽羅誌草本(上)

亂山如畫要新詩 어지러운 산 그림 같아 시상이 떠오른다
 霜風獵獵旌旗卷 빠르게 부는 서릿바람 정기가 걷히고
 軍樂喧喧鼓角悲 이어지는 군악소리 구슬픈 건 북과 호각
 滄海接天消息斷 하늘에 이어진 넓은 바다에 소식은 끊겼는데
 黃昏無奈有佳期 황혼인데도 어쩔 일인지 좋은 기약이 없구나

심연의 시(沈演詩)

海上孤城城上樓 바닷가 외로운 성 성 위에 있는 다락에
 登臨此日意悠悠 오늘 올라와 보니 마음은 유유하기만
 眼穿溟渤天窮處 눈으로는 넓은 바다 하늘 끝 뚫어보고
 脚踏蓬壺地盡頭 다리로는 땅 끝의 신선산을 밟았으니
 浮世百年同夢幻 오랜 세월 꿈속 살던 세속사람의 환상
 男兒幾箇辦仙遊 대장부 몇 번이나 신선 놀이를 계획했던가
 樽前不覺寒宵永 술상 앞에 앉아 추운 밤 긴 줄 모르고
 一醉都忘萬古愁 한껏 취하여 온갖 근심 잊어 보네

이원진의 시(李元鎮詩)

暮投孤館駐行旌 저물녘 객사에 머물러 깃발 꽂았네.
 古戍蒼茫枳棘平 옛 수루에서 멀리 탕자나무 예사롭소.
 都統餘威風捲海 최도통(최영)⁵⁰⁸의 남은 위풍, 바다를 제압하고
 侍郎遺跡月隱城 김시랑(김방경)⁵⁰⁹의 지나간 성곽엔 달이 비치오.
 天低碣石陰霏合 하늘밑 갈석산엔 눈비가 내리네.
 地壓扶桑霽旭生 땅에선 부상을 눌러 해돋이로다.
 八詠隱侯今不見 팔영시⁵¹⁰는 내가 아직 못 보았으나
 碧紗籠下淚沾纓 분포등롱 불빛 아래 눈물이 갓끈에.

508) 도통(都統)은 崔瑩 將軍(최영장군:1316-1388)을 이른다. 1373년 제주 牧胡의 난이 일어나자 楊廣全羅慶尙道都統使(양광전라경상도도통사)로 난을 평정하였다.

509) 시랑(侍郎)은 金方慶(김방경:1212-1300)을 이른다. 1270년 고려의 명장으로 守太尉中書侍郎平章事(수태위중서시랑평장사)가 되어 삼별초의 영장 김통정이 무리를 이끌어 탐라로 들어오자 성을 쌓고 항쟁하자 이를 평정하였다.

510) 팔영(八詠)은 양나라 沈約(심약)의 시인 八詠詩를 이르기도 하고, 崔顥(최효)의 「題沈隱侯八詠詩」를 이르기도 한다.

이익한의 시(李翊漢詩)

撫鼓登臨海上樓 깃발 들고 북치고 바다 다락에 높이 오르니
 水光山色擲悠悠 물 경치 산 경치 모두 다 유유하다
 孤城十月香生橘 시월 외로운 섬엔 풍기는 귤 향기
 絕域三秋雪滿頭 떨어진 곳이라 가을에도 머리에 눈이 가득
 浮世百年惟壯觀 백 년 사는 뜬 인생엔 오직 장대한 경치인데
 此生今日最奇遊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기이한 놀이를 하네
 尊前琴瑟多新調 술동이 앞 금슬에 올려진 새 곡조는
 若解將軍去國愁 장군이 임금 떠난 시름 알아주는 듯

김정의 시(金倣詩)

茲樓亦一廣漢樓 이 다락 역시 신선의 다락이라
 雲路休言九萬悠 구름길 구만리 멀다 말하지 마라
 海陸接連平似掌 바다와 육지 이어져 평평하기 손바닥 같고
 城池擁抱暈無頭 성지를 껴안은 달무리 머리가 없구나
 銀河不必乘槎去 은하수는 떼배 없이도 건널 수 있고
 瑤窟何須秉燭遊 선경이라 해서 어찌 촛불 들고 놀아야 하나
 目境洞然纖滓絕 눈앞이 말끔하여 먼지 한 점 없어서
 坐來消盡世間愁 앉아 있으니 세상시름 모두 다 녹아

이원조의 시(李源祚詩)

萬戶宜明月 만호진인 명월성
 千峰正白雲 많은 봉우리엔 흰 구름
 稻田今始見 논밭을 비로소 볼 수 있고
 野馬自成群 들에는 말들이 떼를 지어
 穎肉應遺母 광주리의 고기는 어머님께 보내고
 滕樓倍戀君 높은 다락에 오르면 임금님 생각 갑절
 災憂夜耿耿 재앙 근심이 반짝거려

■ 耽羅誌草本(上)

剪燭判呈文 촛불을 당겨 정문을 쓴다.

【「남명소승(南溟小乘)」에 이르기를, “탐라가 원나라에 조공할 때 이곳에서 배를 띄워서 순풍을 만나 7일 만에 백해(白海)를 지나서 대양(大洋)을 건넜다.”라고 했다. ○ 옛 읍지에 이르기를, “삼별초가 진도에 웅거할 때 위장(僞將) 이문경⁵¹¹⁾이 이곳에 와서 정박했다. 고려에서 김방경을 보내어 그를 토벌하고, 우군(右軍)은 비양도(飛揚島)로 들어왔다. 공민왕 때 원나라 목자가 반란을 일으키니, 최영이 병사를 거느리고 와서 토벌하자, 목자 등이 이 포구에서 항거하여 싸웠다. 대군이 진격하여 그들을 격파하였다. 호종조⁵¹²⁾가 또한 이곳에 와서 정박하였다.】

봉수(烽燧) 【연대(烟台)를 덧붙였다.】

사라오름봉수(紗羅) 【제주 동쪽 6리에 있다. 동쪽으로는 웬당오름봉수와, 서쪽으로는 도두리오름봉수와 신호를 주고받는다. 별장 6인, 봉군 12명이 있는데, 이하 모두 같다.】

원당오름봉수(元堂) 【제주 동쪽 20리에 있다. 동쪽으로는 서모봉수와, 서쪽으로는 사라봉수와 신호를 주고받는다.】

서모봉수(西山) 【제주 동쪽 36리에 있다. 동쪽으로는 입산봉수와, 서쪽으로는 원당봉수와 신호를 주고받는다.】

갯산봉수(笠山) 【제주 동쪽 50리에 있다. 동쪽으로는 왕개봉수와, 서쪽으로는 서모봉수와 신호를 주고받는다.】

왕개봉수(王哥) 【제주 동쪽 69리에 있다. 동쪽으로는 정의현 지미봉수와, 서쪽으로는 갯산봉수와 신호를 주고받는다.】

도두리봉수(道頭) 【제주 서쪽 15리에 있다. 동쪽으로는 사라봉수와, 서쪽으로는 물메봉수와 신호를 주고받는다.】

물메봉수(水山) 【제주 서쪽 30리에 있다. 동쪽으로는 도두봉수와, 서쪽으로는 고내봉수와 신호를 주고받는다.】

고내봉수(高內) 【제주 서쪽 40리에 있다. 동쪽으로는 물메봉수와, 서쪽으로는 도내미

511) 이문경(李文京)은 고려 원종(元宗)때 삼별초(三別抄)의 장군. 삼별초의 제주 공략 초기에 명월포를 거쳐 동제원(東濟院 : 제주 교대 근처)에 요새지를 구축하여 관군과 대적하였다.

512) 제주 방언에서는 주로 ‘고종달이’로 알려지고 있다. 호종조는 『고려사』 등에는 호종단(胡宗旦)으로 표기되어 있다. 송(宋)나라 푸저우(福州) 출신의 고려 귀화인으로 생몰년은 미상이다.

봉수와 신호를 주고받는다.】

도내미봉수(道內) 【제주 서쪽 55리에 있다. 동쪽으로는 고내봉수와, 서쪽으로는 느지리봉수와 신호를 주고받는다.】

느지리봉수(晩早) 【제주 서쪽 80리에 있다. 동쪽으로는 도내봉수와, 서쪽으로는 당산봉수와 신호를 주고받는다.】 513)

별도연대(別刀烟) 【제주 동쪽 10리에 있다. 동쪽으로는 조천연대와, 서쪽으로는 닻그내연대와 신호를 주고받는다. 별장 6인, 연군 6명이 있는데, 이하 모두 같다.】

조천연대(朝天烟) 【제주 동쪽 30리에 있다. 동쪽으로는 웻개연대와, 서쪽으로는 별도연대와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다.】

웻개연대(倭浦烟) 【제주 동쪽 33리에 있다. 동쪽으로는 무주애연대와, 서쪽으로는 조천연대와 신호를 주고받는다.】

무주애연대(無注烟) 【제주 동쪽 57리에 있다. 동쪽으로는 갯머리연대와, 서쪽으로는 웻개연대와 신호를 주고받는다.】

갯머리연대(笠頭烟) 【제주 동쪽 81리에 있다. 동쪽으로는 정의 종달연대와, 서쪽으로는 무주애연대와 응한다.】

닻그내연대(修近烟) 514) 【제주 서쪽 8리에 있다. 동쪽으로는 별도연대와, 서쪽으로는 듬북개연대와 신호를 주고받는다.】

듬북개연대(藻腐烟) 515) 【제주 서쪽으로 22리에 있다. 동쪽으로는 닻그내연대와, 서쪽으로는 남뚜리연대와 신호를 주고받는다.】

남뚜리연대(南頭烟) 【제주 서쪽 37리에 있다. 동쪽으로는 듬북개연대와, 서쪽으로는 애월연대와 신호를 주고받는다.】

애월연대(涯月烟) 【제주 서쪽 45리에 있다. 동쪽으로는 남뚜리연대와, 서쪽으로는 쉼못연대와 신호를 주고받는다.】

쉐못연대(牛池烟) 【제주 서쪽 58리에 있다. 동쪽으로는 애월연대와, 서쪽으로는 대섬연대와 신호를 주고받는다.】

513) 『탐라지초본』 원문에는 “晩早(在州西三十里 東應道圓 西應西山)”이라 하였는데, ‘在州西三十里’, ‘東應道圓 西應西山’은 모두 잘못 기록한 것이다. ‘三十里’는 ‘八十里’의 잘못이고, ‘道圓’은 ‘道內’의 잘못, ‘西山’은 ‘堂山’의 잘못이다. 이에 따라 이 책의 번역에서도 고쳤다.

514) ‘닻그내연대’는 보통 ‘修近浦烟塔’ 또는 ‘修近烟塔’로 표기하는데, 『탐라지초본』에는 ‘水近烟塔’로 표기하였다. ‘水’는 ‘修’의 잘못이다.

515) ‘조부연(藻腐烟)’은 ‘듬북개연대’의 한자차용표기로, 지금 제주시 외도2동 연대마을에 있었던 연대를 이른다. ‘듬북개’는 외도2동 연대마을과 하귀2리 경계 바닷가에 있다.

■ 耽羅誌草本(上)

대섬연대[竹島烟] 【제주 서쪽 62리에 있다. 동쪽으로는 쉼터연대와, 서쪽으로는 베랭이연대와 신호를 주고받는다.】

베랭이연대[孟令烟] 【제주 서쪽 77리에 있다. 동쪽으로는 대섬연대와, 서쪽으로는 한개연대와 신호를 주고받는다.】⁵¹⁶⁾

한개연대[大浦烟] 【제주 서쪽 83리에 있다. 동쪽으로는 베랭이연대와 서쪽으로는 두모연대와 신호를 주고받는다.】⁵¹⁷⁾

두모연대[頭毛烟] 【제주 서쪽 90리에 있다. 동쪽으로는 한개연대와, 서쪽으로는 대정현 쉼터리[牛頭]⁵¹⁸⁾연대와 신호를 주고받는다.】

목양(牧養)⁵¹⁹⁾

본도(本島)에서 말[馬]을 기른 것은 원나라가 아막(阿幕)⁵²⁰⁾을 설치하면서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목장의 말은 원나라의 둔마(屯馬)이라 칭하고 있다. 【방성분야(房星分野)⁵²¹⁾로 말이 번성하였다고 한다.】

고려 충렬왕 14년(1288)에 마축자장별감(馬畜滋長別監)⁵²²⁾을 두었다. 이에 앞서 탐라의 말을 국용(國用)으로 충당하였는데, 삼별초란(三別抄亂) 이후부터 원나라가 제주도 민들을 육지로 옮겨 살게 하고, 탐라를 특별히 원나라에 예속시키니 이로 말미암아 말 기르는 것이 번성하지 못하였다. 나라에서 매년 정벌할 때마다 관원들에게 벼슬의 등급에 따라 말을 거두니 중앙과 지방에서는 이를 괴롭게 여겼다. 그러므로 이러한 명령⁵²³⁾이

516) 『탐라지초본』 원문에는 “孟令烟(在州西七十七里 東應南頭 西應牛池)”라고 하였는데, ‘南頭[남두리]’는 ‘竹島[대섬]’의 잘못이고, ‘牛池[쉼터]’는 ‘大浦[한개]’의 잘못이다. 이 번역에서는 수정한 것을 바탕으로 번역하였다. ‘베랭이연대·버랭이연대’의 한자차용표기이다. ‘베랭이·버랭이’는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의 옛 이름이다.

517) 『탐라지초본』 원문에는 “大浦烟(在州西八十三里 東應頭毛)”라고 하였는데, ‘東應頭毛’는 ‘東應孟令 西應頭毛’의 잘못이다. 그러므로 이를 바탕으로 번역하였다.

518) ‘쉼터리연대[牛頭烟]’는 지금 한경면 용수리 ‘쉼터리동산’에 있었던 연대를 이른다. 당시 용수리는 대정현에 속해 있었다.

519) 목양(牧養)은 목장의 말이나 소를 먹여 기르는 일이다.

520) 아막(阿幕)은 애마(愛馬)와 함께 몽고어의 Aimaq에서 유래된 동음이자(同音異字)로 동일한 것이다. 종래의 阿幕(愛馬)에 대해서는 ① 부대(部隊)·조합(組合), 단체(團體), 주현(州縣)[白鳥高吉 說], ② 관직(官職)[內藤雋輔 說], ③ 부락(部落), 행정구역의 통치자(Kowalewski 說), ④ 구역(區域)[Podgorbunkij 說], ⑤ 성중애마(聖衆愛馬) 곧 근시 숙위(近侍宿衛)를 맡은 문무 관리층(文武官吏層)[金昌洙 說], ⑥ 목장관리 감독을 위한 목사(牧舍)[高昌錫 說], ⑦ 목장관할을 위한 행정 구역(후에 道驛) 곧 목구(牧區, 牧場)인 동시에 그 목정(牧政, 馬政)을 맡은 목아(牧衙, 官衙)[南都泳 說] 등이 있다.

521) 방성(房星)은 전국(戰國) 시대에 천문가가 중국 천도를 하늘의 이십팔수(二十八宿)에 배당하여 나눈 중에 하나이다. 마신(馬神)을 맡았다고 한다.

522) 마축자장별감(馬畜滋長別監)은 고려 시대 때 각 목장에 있는 말의 사육과 번식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벼슬아치이다. 충렬왕(忠烈王) 14년(1288)에 두었다.

있었다.

명나라 홍무 2년[고려 공민왕 18년(1369)⁵²⁴] 4월에 황제의 명령으로 탐라 말을 명나라에 바치게 했기 때문에, 왕은 비서감(秘書監)⁵²⁵ 유경원(劉景元)을 보내어 말을 선발케 했다. 제주 사람들은 유경원 및 목사 이용장(李用藏)⁵²⁶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다. 왕은 사신을 보내어 명나라 황제에게 알려서 탐라를 토벌하도록 청하였다. 6월에 제주(濟州)에서 항복하므로 이하생(李夏生)을 안무사(安撫使)⁵²⁷로 삼았다. 11월에 말 50필을 나라에 바쳤다.

홍무 7년[공민왕 23년(1374)⁵²⁸]에 황제가 예부주사(禮部主事) 임밀(林密)을 파견하여 탐라 말 2천 필을 징발케 했다. 고려왕이 평리(評理)⁵²⁹ 한방언(韓方彦)을 보내어 말을 거두어들이게 하니, 하치[哈赤] 석질리필사(石迭里必思) · 초고독불화(肖古禿不花) · 관음보(觀音保) 등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어찌 감히 원나라 세조(世祖)가 방목(放牧)한 말을 명나라에 바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여, 다만 300필을 선발했다. 고려왕은 마침내 최영(崔瑩)에게 명(命)하여 토벌하게 하였다. 밀직부사(密直副使)⁵³⁰ 김의(金義)를 시켜 말을 몰아 정료위(定遼衛)⁵³¹로 호송(護送)케 하였는데, 김의는 말 200필을 가지고 원나라로 돌아 왔다.

본조(本朝) 곧 조선의 목장은 예전에 20소(所)⁵³² 60둔(屯)⁵³³이었으나, 숙종 갑신년(30년, 1704)에 목사(牧使) 송정규(宋廷奎)⁵³⁴가 임금께 글을 올려[啓聞] 목장에 돌로 울타리를 둘렀는데, 열악한 곳은 버리고 우량한 곳을 취하고 작은 곳을 합하여 크게 만들어서 그 10소장을 영조 갑자년(20년, 1744)에 윤식(尹植)⁵³⁵이 다시 임금께 글을

523) 본래 『고려사(高麗史)』 「병지(兵志) - 마정(馬政)」조에는 ‘朝議以謂苦置官選牝馬牴 使之繁殖 則可備將來’가 있었는데 이 책에서는 앞의 내용이 생략되었음을 밝힌다.

524) 본문에 공민왕 21년은 착오이다.

525) 비서감(秘書監)은 고려시대에 비서성(秘書省) · 비서감(秘書監)의 종3품 벼슬아치이다.

526) 목사 이용장(牧使李用藏)은 고려 공민왕 때의 제주목사(濟州牧使)이다.

527) 안무사(安撫使)는 고려 후기에 이르러서 민요(民擾)와 같은 변란이 일어났을 때에 흔히 파견하여, 지방 군현(郡縣)의 백성을 안집(安集)시키라는 임무를 띤 임시 벼슬이었다.

528) 본문에 공민왕 25년은 착오이다.

529) 평리(評理)는 고려 공민왕(恭愍王) 11년(1362)에 도첨의부(都僉議府)에 평리를 두었다가, 동왕 18년(1369)에 도첨의 부를 문하부(門下府)로 고쳐 참지문하부사(參知門下府事)라 하였고, 동왕 21년(1372)에 참지문하부사를 고쳐 평리라 하였다. 특히 평리는 종2품 벼슬아치이다.

530) 밀직부사(密直副使)는 고려시대에 밀직사(密直司)의 정3품 또는 종2품 벼슬아치이다. 충렬왕(忠烈王) 원년(1275)에 정3품으로 하였다가 뒤에 종2품으로 올랐고, 충선왕(忠宣王) 3년(1311)에 다시 정3품으로 낮추었다.

531) 정료위(定遼衛)는 명(明)나라 태조(太祖)가 동방 진출을 목적으로 요양(遼陽)에 설치하였던 군대이다.

532) 소(所)는 ‘곳’의 뜻으로, 공간(空間)의 어느 지점이나 부분, 또는 사물의 개체(個體)나 집단(集團)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의 수를 세는 데 쓰는 말이다.

533) 둔(屯)은 조선시대, 목장에서 한 사람의 목동(牧童)에게 기르게 하였던 마필(馬匹)의 단위이다. 피마(雌馬) 1필(匹)과 상마(雄馬) 5필을 1둔이라 하였다.

534) 송정규(宋廷奎)는 숙종 30년(1704) 10월에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숙종 32년(1706) 5월에 체임되었다.

■ 耽羅誌草本(上)

올려서 울타리를 더 쌓았다.

일소장(一所場)⁵³⁶⁾ 【제주 동남쪽 60리에 있다. 마감(馬監)⁵³⁷⁾ 2인(人)⁵³⁸⁾, 군목(群牧)⁵³⁹⁾ 2명(名)⁵⁴⁰⁾, 목자(牧子)⁵⁴¹⁾ 23명, 둔마(屯馬) 712필(匹)⁵⁴²⁾, 둔우(屯牛) 620마리[首⁵⁴³⁾], 우감(牛監)⁵⁴⁴⁾ 2인, 군목 2명, 목자 16명이 있다.】

이소장(二所場)⁵⁴⁵⁾ 【제주 남쪽 35리에 있다. 마감 2인, 군목 2명, 목자 13명, 둔마 397필이 있다.】

삼소장(三所場)⁵⁴⁶⁾ 【제주 남쪽 15리에 있다. 마감 2인, 군목 2명, 목자 11명, 둔마 127필이다.】

사소장(四所場)⁵⁴⁷⁾ 【제주 남쪽 25리에 있다. 마감 2인, 군목 2명, 목자 6명, 둔마 73필이다.】

오소장(五所場)⁵⁴⁸⁾ 【제주 서남쪽 55리에 있다. 마감 2인, 군목 2명, 목자 17명,

535) 윤식(尹植)은 영조 20년(1744) 9월에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영조 21년(1745) 9월에 파직(罷職)되어 떠났다.

536) 일소장은 현재 행정구역으로는 구좌읍에 속하는 지역이다. 위쪽 경계로는 성불오름(成佛岳)에서 조천읍 경계에 있는 부대오름(伏大岳)을 잇는 선이 되고 아래쪽 경계로는 동거문오름(東巨文岳), 높은 오름(高岳), 돌오름(石岳), 채오름(箕岳)을 연결하는 선이다. 동쪽으로는 백악이 오름(開亦岳), 바치미오름(橫山) 사이에 두고 10소장과 접해 있으며, 서쪽으로는 거운오름(是連岳), 검은굴(黑坑)을 잇는 선이 2소장과 경계가 된다.

537) 마감(馬監)은 소(所, 馬場)의 우두머리로서 자장(字場)의 군두(群頭)·군부(群副)·목자(牧子)를 감독하고 말의 생산 관리와 낙자인(烙字印)·이마(理馬) 등에 종사하였다.

538) 인(人)은 사람의 수를 세는 데 쓰는 말이다. 벼슬아치를 셀 때에 썼다.

539) 군목(群牧)은 군두(群頭)로 보인다. 군두는 자목장(字牧場, 群)의 책임자인데 그 밑에 군부(群副) 2명, 목자(牧子) 4명을 배치에 말 생산에 종사하였다. 마소의 암컷 1백 필, 수컷 15필을 1군(群)이라 하는데, 군두·군부·목자는 매년 암말 100필과 수말 15필을 목양하여 새끼 85필 이상을 번식시키면 품계(品階)가 가해져 경관직(京官職)에 임명되었다.

540) 명(名)은 사람의 수를 세는 데 쓰는 말이다. 양민을 셀 때에 썼다.

541) 목자(牧子)는 자목장(子牧場)의 최하층으로서 말과 소의 생산을 담당하였다. 목자는 노자(奴子)·관노(官奴)·토착인(村人)·시사노(寺社奴) 등으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분은 양인(良人)이었으나 역(役)이 천하여 사회적으로 신랑역친(身良役賤)이란 특수 계층으로 불리었다.

542) 필(匹)은 말(馬)의 수효를 세는 데 쓰는 말이다. 말의 길이가 보통 1필(匹) 정도이고, 말의 시력(視力)이 밤에 4장(丈) 앞을 볼 수 있다하여 붙여진 말이다.

543) 수(首)는 '마리'의 뜻으로, 소[牛]·말[馬] 따위 짐승의 수를 세는 데 쓴다.

544) 우감(牛監)은 우목장(牛牧場)의 경우에 우감(牛監)이라 칭하였다.

545) 이소장은 현재 행정구역으로는 조천읍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위쪽 경계로는 바농오름(針岳), 민오름(文岳), 부대오름(夫大岳)으로 이어지는 상갓이 되고 아래로는 고평동(古坪洞)을 지나 세미오름(泉味岳), 당오름(唐岳), 알바메기오름(下夜漢只)을 거쳐 구좌읍 경계에 이어지는 하갓이 된다. 동쪽으로는 지금의 구좌읍과 접하는 선이 경계가 되며 서쪽으로는 지금 봉개동의 경계에 해당된다.

546) 삼소장은 현재 행정구역으로는 조천읍 경계로부터 서쪽으로 한내(大川) 상류에 이르는 지역이다. 위쪽 경계로는 거친오름(荒岳) 밑을 거쳐 한내(大川) 상류의 들레 오름(野來岳) 기슭까지 이어지는 기다란 지대이다. 아래쪽 경계인 명도암(明道岩)의 성제 오름(兄弟峯)을 지나 제주대학교, 오등동(吾等洞), 한천(大川)에 이른다.

547) 사소장은 한내(大川) 상류와 노형동 및 애월읍 경계를 이루는 외도내(外都川) 상류, 일명 무수내(無愁川)까지 이르는 지역이다. 위쪽 경계로는 지금 오등동 남쪽에 있는 열안지오름(呂亂止岳)에서 시작하여 노리손이 오름(獐孫岳) 남쪽을 지나 서쪽의 외도내(外都川) 상류로 이어진다. 아래쪽으로는 오라컨트리클럽 밑으로부터 검은오름(巨門岳) 기슭을 지나 해안동 개척단지, 구분동산에 이른다.

548) 오소장은 현재 애월읍 광령리·금덕리·어음리 등의 마을이 위치해 있다. 위쪽 경계로는 애월읍 광령리에 있는 츠남오름(眞木岳)과 유수암리에 있는 높구메(高丘山)를 거쳐 죽은바라메[各氏墓]에 이른다. 아래쪽 경계는 노형동과 광령리의 경

둔마 237필이다.】

육소장(六所場)⁵⁴⁹⁾ 【제주 서남쪽 70리에 있다. 마감 2인, 군목 2명, 목자 25명, 둔마 1,778필이다.】

산장(山場)⁵⁵⁰⁾ 【제주 동남쪽 35리에 있다. 효종 11년(1658)⁵⁵¹⁾에 목사(牧使) 이회(李禧)⁵⁵²⁾가 임금께 요청[啓請]하여 산마감목관(山馬監牧官)을 두었는데, 헌마인(獻馬人) 김만일(金萬鎰)⁵⁵³⁾의 성손(姓孫) 중에서 세습하게 하였다. 군목 2명, 목자 114명, 둔마 1,418필이다.】

우도장(牛島場)⁵⁵⁴⁾ 【제주 동쪽 100리에 있다. 마감 2인은 별방(別防)과 수산(水山)의 두 진장(鎭將)이 전례에 따라 겸임(兼任)하였다. 군목 2명, 목자 14명, 둔마 275필이다.】

과원(果園)

【중종(中宗) 병술년(21년, 1526)에 목사 이수동(李壽童)⁵⁵⁵⁾이 진상(進上)을 봉진하기 위하여 다섯 방호소에 각각 과원을 설치하여 감귤나무를 심었다. 그 후 점차 더 설치하여 지금은 40여 곳이 되었다.】

동(東)과원 · 별(別)과원 · 남(南)과원 · 중(中)과원 · 서(西)과원 · 새별(新別)과원 · 북(北)과원 【이상은 모두 제주성 안에 있다.】

동성(東城)과원 · 동일(東一)과원 · 동이(東二)과원 · 동고개(東坡)과원 【제주

계인 외도내[外都內], 양잠단지, 극락 오름[極樂岳] 남쪽 기슭을 지나 제주경마장, 제주운전면허시험장 아래쪽을 통과하여 유수암리에 있는 검은데기 오름[黑德岳]으로 이어진다.

549) 육소장은 현재 애월읍과 한림읍, 일부는 서쪽의 한경면에 걸쳐 있는 삼각형의 모습을 지닌 비교적 넓은 목장이다. 동쪽으로는 애월읍 어음리 원동마을로부터 시작하여 새별오름[曉星岳], 이달이오름[二達岳]의 북쪽을 거쳐 한림읍 금악리에 있는 검은 오름[黑岳]의 남쪽 기슭에 이른다. 남쪽 경계로는 안덕면 동광리에 있는 도라이오름[道羅伊岳]으로부터 한림읍 금악리에 있는 정물오름[井水岳]의 남쪽을 거쳐서 봉성리에 있는 케물오름[槐水岳], 어음리에 있는 바리메[鉢山]에 이른다.

550) 산장(山場)은 현재 조천읍과 남원읍·표선면 등 한라산 중턱 위쪽 주위 200여 리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 산장(山場)은 산둔장(山屯場)·산목(山牧)이라고 하며, 산마(山馬)를 목양하는 목장이다.

551) 원문에는 '顯廟'로 되었으나 '孝廟'의 착오이다.

552) 이회(李禧) 제주목사는 효종 9년(1658) 4월에 부임하여 현종 1년(1660) 5월에 체임되었다.

553) 김만일(金萬鎰)은 선조 27년(1594)에 전마(戰馬)을 조정에 바쳐 그 공으로 2품직 동지(同知)가 제수되었다. 그 후에 김만일의 아들 김대길(金大吉) 및 사손(嗣孫) 김여(金礪)도 2백 필의 말을 조정에 헌납(獻納)하니 효종 9년(1658) 제주목사 이회(李禧)가 장계(狀啓)로 요청하여 김대길에게 산마감목관(山馬監牧官, 6품) 직을 주어 그 자손에게 대대로 세습하도록 하였다.

554) 우도장(牛島場)은 현재의 행정구역으로 우도면 지역으로 숙종 23년(1697)에 제주목사(濟州牧使) 유한명(柳漢明)이 말을 방목함으로써 설치되었다.

555) 이수동(李壽童) 제주목사는 중종 21년(1526) 4월에 부임하고 중종 23년(1528) 12월에 체임되었다.

동성 밖에 있다.】

북일(北一)과원 · 북이(北二)과원 · 북삼(北三)과원 · 북사(北四)과원 · 북오(北五)과원 【제주 북성 밖에 있다.】

서북(西北)과원 【제주 서북성 밖에 있다.】

서남(西南)과원 · 새남(新南)과원 · 서고개(西坡)과원 【제주 서남성 밖에 있다.】

새(新)과원 · 남별(南別)과원 【제주 남성 밖에 있다.】

동남(東南)과원 · 동별(東別)과원 【제주 동남 성 밖에 있다.】

연로(延老)⁵⁵⁶⁾과원 【제주 남쪽 5리쯤에 있다.】

조천(朝天)⁵⁵⁷⁾과원 【제주 동쪽 30리에 있다.】

켄못(古興池)과원 · 함덕(咸德)과원 【제주 동쪽 35리에 있다.】

김녕(金寧)과원 【제주 동쪽 50리에 있다.】

괘(槐伊)과원 【제주 동쪽 70리에 있다.】

노형(老衡)과원 【제주 서쪽 15리에 있다.】

해안(海安)⁵⁵⁸⁾과원 · 용좌골(龍坐洞)⁵⁵⁹⁾과원 【제주 서쪽 20리에 있다.】

엄쟁이중(嚴莊中)과원 · 엄쟁이남(南)과원 · 엄쟁이북(嚴)과원 【제주 서쪽 35리에 있다.】

웃더럭[上加]과원 【제주 서쪽 40리에 있다.】

부맨이(夫面)⁵⁶⁰⁾과원 【제주 서쪽 50리에 있다.】

용선달이(龍先達)과원 · 문건이(文健)⁵⁶¹⁾과원 · 널모르(板舍)⁵⁶²⁾과원 · 서소로기(西鷺)과원 · 남 소로기(南鷺)과원 【제주 서쪽 70리에 있다.】

【이상의 각 과원에는 모두 과원지기[果直]⁵⁶³⁾와 감고(監考)⁵⁶⁴⁾, 수감고(首監考)⁵⁶⁵⁾ 1인이 있다.】

556) 제주중앙여고 북쪽과 북서쪽 일대를 ‘연로(延老)’라 하는 것을 볼 때 이 일대에 있었던 과원이다.

557) 『남환박물』 지파에는 朝天館(조천관)으로 표기되어 있다. 지금의 북제주군 조천읍 조천리에 있었던 과원을 이른다.

558) 제주시 해안동에 있었던 과원을 이른다.

559) 『남환박물』 지파에는 龍佐洞(용좌골)으로 표기되어 있다. 龍은 ‘용’의 음독자 표기, 佐는 ‘좌’의 음가자 표기, 洞은 ‘골’의 훈독자 표기이다. 곧 龍洞은 ‘용골’, 龍佐洞은 ‘용좌골’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용골’은 제주시 외도동 도평동의 한 지명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었던 과원을 이른다.

560) 『남환박물』 지파에는 夫面(부맨이)으로 표기되어 있다. 富와 夫는 ‘부’의 음가자 표기, 面은 ‘면’ 또는 이의 제주도방언 ‘멘’의 음가자 표기이다. ‘부맨이’(민간에서는 주로 ‘비맨이’라고 한다.)는 지금의 애월읍 어음1리를 이르기 때문에 이곳에 있었던 과원을 이른다.

561) 『남환박물』 지파에는 文巾(문건)으로 표기되어 있다. 文은 ‘문’의 음가자 표기, 建과 巾은 ‘건’의 음가자 표기이다. 북제주군 한경면 낙천리 동북쪽에 있는 들을 ‘문건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곳에 있었던 과원을 이른다.

562) 북제주군 한경면 저지리 남쪽에 있는 너른 고개를 ‘널모리’라고 하는데, 이곳에 있었던 과원을 이른다.

563) 과원지기[果直]은 과원을 지키는 사람이다.

564) 감고(監考)는 관아나 궁아에서 출납하는 금전이나 물건을 보살피며 감시하는 사람이다.

565) 수감고(首監考)는 여러 감고(監考) 가운데서 우두머리이다.

공헌(貢獻)⁵⁶⁶⁾ 【각 관아〔各司〕에 납부하는 것을 덧붙임.】

설날 아침〔正朝〕, 임금님의 탄생일〔生日〕, 동지(冬至) 【방물(方物)은 활에 매는〔結弓〕 노루의 가죽 각 25령(令⁵⁶⁷⁾)】

정월령(正月令)⁵⁶⁸⁾ 【없음.】

2월령 【새로 나온 청굴(靑橘)⁵⁶⁹⁾ 306개를 신(神)에게 올린다(薦新). 청굴 510개, 추복(搥鰓⁵⁷⁰⁾) 107접(貼⁵⁷¹⁾), 조복(條鰓⁵⁷²⁾) 107접, 인복(引鰓⁵⁷³⁾) 32주지(注之)를 진상(進上)한다.】

3월령 【추복 107접, 인복 209주지】

4월령 【추복 235접, 인복 58주지, 표고버섯(蓴古) 12말】

5월령 【추복 235접, 인복 58주지】

6월령 【추복 178접, 인복 57주지, 오징어(烏賊魚) 69접】

7월령 【추복 177접, 인복 57주지, 오징어 135접】

8월령 【추복 176접, 인복 57주지, 오징어 85접, 반하(半夏)⁵⁷⁴⁾ 23근(斤), 엄나무의 껍질〔海桐皮〕 5근, 석결명(石決明)⁵⁷⁵⁾ 1근, 비자(榲子)⁵⁷⁶⁾ 15말】

9월령 【추복 132접, 인복 29주지, 오징어 60접, 안식향(安息香)⁵⁷⁷⁾ 30근, 유자나무의 열매〔柚子〕 1,440개】

10월령 【새로 나온 당금굴(唐金橘)⁵⁷⁸⁾ 319개를 신에게 올린다. 당금굴을 대신하여 금굴(金橘)⁵⁷⁹⁾ 1,380개, 감자(柑子)⁵⁸⁰⁾를 대신하여 산굴(山橘) 10,510개를 진상한다.】

11월령 【새로 나온 유감(乳柑)⁵⁸¹⁾ 342개, 동정굴(洞庭橘)⁵⁸²⁾ 324개, 당유자(唐子)⁵⁸³⁾

566) 공헌(貢獻)은 백성이 나라나 관청에 세금으로 바치던 일(貢物)을 바침이다.

567) 령(令)은 털의 가죽을 세는 단위이다. 『度支準折』 과물(皮物) 항목에 “有毛曰令 無毛曰張”이라고 했다.

568) 월령(月令)은 다달이 왕실에 정례(定例)로 물품을 바치는 규정이다.

569) 청굴(靑橘)은 귤의 한가지이다.

570) 추복(搥鰓)은 두드러가면서 말린 전복이다. 추포(搥鮑).

571) 貼은 ‘접’의 뜻으로 전복(全鰓) 100개를 하나치로 세는 데 쓰는 말이다.

572) 조복(條鰓)은 ‘오리’와 같이 가늘고 길게 썰어 말린 전복이다.

573) 인복(引鰓)은 납작하게 펴서 말린 전복이다. 건복(乾鰓).

574) 반하(半夏)는 천남성과(天南星科)에 딸린 약초(藥草). 끼무릇. 구근(球根)은 담(痰)·구토·기침약으로 쓰인다.

575) 석결명(石決明)은 전복의 껍질을 약재로 이르는 말이다. 안약으로 쓴다.

576) 비자(榲子)는 기생충 퇴치약으로 쓰인다.

577) 안식향(安息香)은 안식향과(安息香科)에 딸린 낙엽 교목이다. 진액은 훈향료(薰香料)·방부제·소독용으로 쓰인다.

578) 당금굴(唐金橘)은 중국에서 들여 온 귤의 한 가지이다.

579) 금굴(金橘)은 귤과 비슷하나 좀 작으며 껍질 채 식용한다.

580) 감자(柑子)는 귤의 일종이다. 신맛의 열매는 주로 약재(藥材)로 쓰인다.

581) 유감(乳柑)의 열매의 맛은 밀감(蜜柑) 비슷하다.

■ 耽羅誌草本(上)

94개를 신에게 올린다. 유감을 대신하여 금귤 2,420개, 동정귤을 대신하여 등자귤(橙子橘) 2,630개, 감자를 대신하여 산귤 18,515개, 산귤 580개를 진상한다.】

12월령 【새로 나온 표고(藁古) 4말 8되, 백랍(白蠟)⁵⁸⁴⁾ 24조각, 치자(梔子)⁵⁸⁵⁾ 112근, 노루가죽(獐皮) 10령, 진피(陳皮)⁵⁸⁶⁾ 45근, 청귤의 껍질 약재〔靑皮〕 27근, 귤핵(橘核)⁵⁸⁷⁾ 4냥, 향부자(香附子)⁵⁸⁸⁾ 70근, 비실(榧實)⁵⁸⁹⁾ 2근, 무환자(無患子) 8냥, 석곡(石斛)⁵⁹⁰⁾ 8냥, 기각(枳殼)⁵⁹¹⁾ 20근, 연뿌리(蓮根) 1근 2냥, 연밥(蓮實) 2냥, 어린 탕자를 썰어 말린 약재〔枳實〕 5근, 후박(厚朴)⁵⁹²⁾ 30근, 무환자〔木患子〕 4,000개를 5년에 한 번 봉진(封進)한다.】

정조(正朝) 진상마(進上馬) 【24필(匹)】

탄일(誕日) 진상마 【20필】

동지(冬至) 진상마 【20필】

연례(年例) 진상마 【8필】

세공마(歲貢馬) 【200필】

흉구마(凶咎馬) 【10필】

노태마(駑駘馬) 【10필】

차비마(差備馬) 【60필을 3년에 한 번 봉진(封進)한다.】

갑마(甲馬) 【3년에 한 번 봉진(封進)한다.】

별어승마(別御乘馬) 【20필을 3년에 한 번 봉진한다.】

체임(遞任) 진상마 【목사·판관은 각 3필을 봉진하는데, 8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봉진하지 않는다.】

감목관(監牧官) 진상마 【2필을 두 해에 한번 봉진한다.】

제향(祭享) 흑우(黑牛) 【40마리】

목사 도임(牧使到任) 진상 백랍(進上白蠟) 【24조각】

582) 동정귤(洞庭橘)은 품종이 좋은 귤을 이르는 말이다.

583) 당유자(唐柚子)는 귤(橘)의 한가지이다.

584) 백랍(白蠟)은 백랍벌레의 수컷의 유충이 분비한 밀랍(蜜蠟)을 가공한 물건이다. 고약·초·환약 제조에 쓰고, 생사·직물·기구에 광택이 나게 하며, 지혈·진통제 등에 쓰인다.

585) 치자나무의 열매〔梔子〕는 황적색의 물감을 취하여 이뇨(利尿)·눈병·황달 등의 약재로 쓰인다.

586) 귤껍질 말린 것〔陳皮〕는 건위(健胃)·발한(發汗)의 약제(藥劑)로 쓴다.

587) 귤핵(橘核)은 요통에 약으로 쓴다.

588) 향부자(香附子)는 동방사니과의 다년초이다. 뿌리는 한약재로 널리 쓰인다.

589) 비자나무의 열매〔榧實〕은 기생충 퇴치약으로 쓰인다.

590) 석곡(石斛)은 산중의 바위나 늪은 나무에 붙어사는 풀의 한 가지이다.

591) 기각(枳殼)은 썰어 말린 탕자를 약재로 이르는 말이다. 기침·적취(積聚)·치질 등의 약재로 쓰인다.

592) 후박나무의 껍질〔厚朴〕은 위한(胃寒)·구토(嘔吐) 따위에 쓰인다.

체임 진상 백랍 【48조각, 치자(梔子) 30근, 노루가죽 50령, 중간 노루가죽 30령, 작은 노루가죽 20령을 봉진하는데, 아직 제거하지 못하면〔未準遞〕 봉진하지 않는다.】

의정부(議政府)⁵⁹³ 【진피(陳皮) 5냥, 향부자(香附子) 2근, 고련근(苦楝根) 5냥, 지실(枳實) 1근, 후박(厚朴) 2근, 기각(枳殼) 3냥, 반하(半夏) 7냥】

중추부(中樞府)⁵⁹⁴ 【진피 4냥, 향부자 2근, 고련근 5냥, 지실 1근, 후박 1근, 기각 2냥, 반하 7냥】

충훈부(忠勳府)⁵⁹⁵ 【진피 4냥, 향부자 2근, 고련근 5냥, 지실 1근, 후박 2근, 기각 2냥, 반하 7냥】

기로소(耆老所)⁵⁹⁶ 【진피 5냥, 향부자 1근, 고련근 5냥, 지실 1근, 후박 1근, 기각 2냥, 반하 5냥】

훈련도감(訓練都監)⁵⁹⁷ 【진피 5냥, 향부자 1근, 고련근 5냥, 지실 1근, 후박 1근, 반하 7냥, 녹각교(鹿角膠)⁵⁹⁸ 5냥, 해동피 1근, 천련자 10냥, 기각 3냥】

금위영(禁衛營)⁵⁹⁹ 【진피 5근, 향부자 1근, 고련근 5냥, 지실 1근, 후박 1근, 반하 7냥, 기각 5냥, 해동피 1근】

어영청(御營廳)⁶⁰⁰ 【진피 5냥, 향부자 1근, 고련근 5냥, 지실 1근, 후박 1근, 반하 7냥, 기각 2냥】

순영(巡營)⁶⁰¹ 【진피 4냥, 향부자 2근, 고련근 8냥, 해동피 1근, 굴핵(橘核) 10냥, 천련자(川楝子) 7냥, 후박 2근, 기각 2냥】

【이상은 목사(牧使)가 봉진하는 것이다.】

공조(工曹)⁶⁰² 【대모(玳瑁)⁶⁰³ 4장, 고라니·노루〔麋子獐〕의 가죽 2령】

593) 의정부(議政府)는 조선시대의 임금을 보좌하고 정무를 총괄하던 최고의 행정기관이다.

594) 중추부(中樞府)는 조선시대의 일정한 사무가 없는 문무(文武) 당상관(堂上官) 이상의 관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두었던 관아(官衙)이다.

595) 충훈부(忠勳府)는 조선시대의 공신(功臣)에 관한 사무를 맡은 관아이다.

596) 기로소(耆老所)는 조선시대의 나이가 많은 임금과 벼슬에서 물러난 일흔 살이 넘는 정2품 이상의 문관(文官)이 놀도록 설치한 관아이다.

597) 훈련도감(訓練都監)은 조선시대의 서울 방어의 임무를 띤 군대의 훈련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관아이다.

598) 녹각교(鹿角膠)는 사슴뿔을 녹아서 갇돌처럼 만든 약이다. 보혈(補血)·지혈(止血) 등에 쓰인다.

599) 금위영(禁衛營)은 조선시대의 대궐의 수비와 수도 방어의 임무를 맡았던 군영(軍營)이다.

600) 어영청(御營廳)은 조선시대의 중앙에 두었던 다섯 군영(軍營) 가운데의 하나이다.

601) 순영(巡營)은 순찰사(巡察使)가 집무하는 관아라는 뜻으로, 감영(監營)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602) 공조(工曹)는 조선시대의 육조(六曹)의 하나이다. 산택(山澤)·공장(工匠)·영선(營繕)·도야(陶冶)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다.

603) 대모(玳瑁)는 열대 지방의 바다거북의 한 가지이다. 등껍데기가 삼각형이며 빛깔의 변화가 많다. 껍데기는 대모갑(玳瑁甲)이라 하여 공예 재료로 쓴다. 안경테·담뱃갑·기타 귀중한 장식품을 만드는 데 쓴다.

■ 耽羅誌草本(上)

- 봉상시(奉常寺)⁶⁰⁴ 【16근 6냥, 비자(榧子) 4근】
 군기시(軍器寺)⁶⁰⁵ 【사고로 죽은 말의 등힘줄 96등(等)⁶⁰⁶), 이년목(二年木)⁶⁰⁷ 10개】
 장원서(掌苑署)⁶⁰⁸ 【금굴 290개, 동정굴 290개, 감자 217개, 유감 85개】
 상의원(尙衣院)⁶⁰⁹ 【치자 8냥】
 제용감(濟用監)⁶¹⁰ 【치자 9냥】
 전의감(典醫監)⁶¹¹ 【진피 2근 8냥, 향부자 10근, 해동피 12냥, 반하 2냥】
 혜민서(惠民署)⁶¹² 【진피 25근, 향부자 20근, 후박 8냥, 해동피 2근 8냥】
 【이상은 판관(判官)이 봉진하는 것이다.】

전결(田結)⁶¹³

전결(田結)의 총수(總數)는 원래 장부(帳簿)에 적어 올린 것이 4,297결(結) 83부(負) 9속(束)이다. 【밭(旱田)은 3,991결 92부 9속이고, 논(水田)은 305결 82부 9속이다.】

처음에는 토지의 결복(結卜)에 따라 조세(租稅)를 거둬들이는 법이 없었다. 단지 농사의 풍년과 흉년에 따라 상·중·하총(上·中·下擲)으로 정하여 연기가 나는 집(煙戶)에서 거두어들였다. 상총의 해에는 환산한 쌀[折米] 25섬, 중총의 해에는 환산한 쌀 20섬, 하총의 해에는 환산한 쌀 1섬 3되를 군자창(軍資倉)⁶¹⁴의 회계 장부에 기록[會錄]⁶¹⁵하였다.

영전세(營田稅)⁶¹⁶ 【좁쌀[田米] 4섬인데 해마다 같지 않았다.】

가경세(加耕稅) 【원전(元田) 이외에 새로 일군 논밭에는 농사를 짓는 대로 세금을 거두어[隨起收稅]서 제주목 관아[牧官]에 부쳐서 각조 비용[公下]으로 삼았다.】

604) 봉상시(奉常寺)는 조선시대의 제향(祭享)과 시호(諡號)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던 관아이다.

605) 군기시(軍器寺)는 조선시대의 병기(兵器)의 제조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관아이다.

606) 등(等)은 동물의 가슴과 배의 반대쪽 부분이다.

607) 이년목(二年木)은 종가시나무이다. 종가시나무는 상록수(常綠樹)의 한 가지로 키가 크며 목재질이 단단하여 건축물의 기둥 따위로 쓰인다.

608) 장원서(掌苑署)는 조선시대의 궁궐 안 원유(苑囿)와 화초, 과일 나무 등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관아이다.

609) 상의원(尙衣院)은 조선시대의 어의대(御衣衛)의 진공(進供)과 재화(財貨)·금보(金寶) 등을 맡아 보던 관아이다.

610) 제용감(濟用監)은 조선시대의 군중(軍中)에서 쓰이는 포물(布物)·인삼(人蔘)·의복(衣服)·사라(紗羅)·능라(綾羅)·채색(綵色)·염직(染織) 등을 맡아 보던 관아이다.

611) 전의감(典醫監)은 조선시대의 임금의 의약(醫藥)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관아이다.

612) 혜민서(惠民署)는 조선시대의 의약(醫藥)과 빈민(貧民)의 시료(施療)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관아이다.

613) 전결(田結)은 논밭에 대하여 물리는 세금이다.

614) 군자창(軍資倉)은 조선시대의 군자감(軍資監)의 딸린 창고(倉庫)이다. 군수(軍需)의 미곡(米穀)을 저장하였다.

615) 회록(會錄)은 금전이나 곡물 따위의 경우 소유물을 용도별로 모아서 회계 장부에 기록하는 일이다.

616) 영전세(營田稅)는 영문(營門)에 딸린 둔전(屯田)에 매긴 조세(租稅)이다.

대동(大同)⁶¹⁷⁾

대동(大同) 【본래 결역(結役)⁶¹⁸⁾이 없었는데, 남정(男丁)의 납부한 바를 대동이라 했다. 해촌(海村)의 매정(每丁)에게 참깨[眞荳] 8홉과 산촌(山村)의 매정에게 들깨[水荳] 1되를, 산촌과 해촌을 막론하고 매정에게 유채의 씨[菜種] 1되를 받아들여 기름으로 짜서 관에서 썼다. 섬 수[石數]의 다과(多寡)는 오로지 호수(戶數)의 가감(加減)에 달려 있다. 대충 목사가 받는 것은 참깨 11섬쯤, 들깨 9섬쯤, 유채의 씨 23섬쯤이고 관관이 받는 것은 참깨 15섬쯤, 들깨 6섬쯤, 유채의 씨 14섬쯤이다.】

봉름(俸廩)⁶¹⁹⁾

관수미(官需米)⁶²⁰⁾ 【삼읍 소재(三邑所在)의 관둔답(官屯畓)을 소작인[作者]에게 나누어 주었다. 수답(水畓)은 1마지기에 백미(白米) 12말을 받고, 건답(乾畓)은 1마지기에 백미 6말을 받아들인다. 중종 신사년(16년, 1521)에 목사 이운(李耘)⁶²¹⁾이 장계(狀聞)를 올려 일정한 격식을 정하였다. 정조 신해년(15년, 1791)에 이홍운(李鴻運)⁶²²⁾이 장계로 요청(啓請)하여 수량을 고쳐서 쌀 5분의 1를 감했다. 순조 갑신년(24년, 1824)에 목사 임성고(任聖皐)⁶²³⁾가 수량을 고쳐서 쌀을 줄였다. 순조 무술년(28년, 1838)에 목사 이원달(李源達)⁶²⁴⁾이 또 수량을 고쳤는데, 목사는 그 당시에 97섬쯤을 받았고 관관은 그 당시에 120섬쯤을 받았다.】

617) 대동(大同)은 상하 남정(上下男丁)이 매년 5되 쌀을 바치는 것이다[上下男丁 每年各捧五升米 名之曰大同米, 金鰲, 『家狀』, 『盧峯先生文集』].

618) 결역(結役)은 논밭의 결복(結卜)에 따라 부담시키는 부역이다. 그러나 요역은 8결작부(八結作夫)라 하여 8결마다 장정 1명씩을 내어 국가의 각종 토목 공사와 공물 운반에 무상으로 동원되었다. 그러나 1년에 원칙적으로 6일을 넘기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619) 봉름(俸廩)은 관리(官吏)에게 봉급(俸給)으로 주던 쌀이다.

620) 관수미(官需米)는 수령(守令)의 양식으로 거두어들이는 쌀이다.

621) 본문에 '耘'로 되어 있으나 '耘'으로 바로 잡았다. 이운(李耘)은 중종 15년(1520) 9월에 제주목사로 도임하여 중종 18년(1523) 3월 재임 중에 사망하였다.

622) 이홍운(李鴻運)은 정조 14년(1790) 7월에 제주목사로 도임하여 정조 15년(1791) 8월에 죄인의 자녀를 품계(稟啓)한 일로 파직되었다.

623) 임성고(任聖皐)는 순조 24년(1824) 1월에 제주목사로 도임하여 순조 26년(1826) 6월에 체임되었다.

624) 이원달(李源達)은 헌종 3년(1837) 11월에 제주목사로 도임하여 헌종 5년(1839) 3월에 사직(辭職)을 하고 떠났다.

■ 耽羅誌草本(上)

아록미(衙祿米)⁶²⁵⁾ 【원전(元田)의 조세로 연호(煙戶)에서 거두어 들었는데 목사의 아록미 11섬과 관관의 아록미 15섬을 모두 메주콩(醬太)으로 대신 받아 들었다.】

요역(徭役)⁶²⁶⁾

꿀 · 땔나무 · 숯[草柴炭] 【남정(男丁)은 해마다 꿀 1바리[法]⁶²⁷⁾, 땔나무 1단(團)을 받았다. 산촌에서는 꿀 대신에 숯 5말을 거두어들였다. 대충 목사가 받는 것은 꿀 3,700바리, 땔나무 3,200단, 숯 367섬이고 判官이 받는 것은 꿀 3,000바리, 땔나무 2,200단, 숯 82섬이다. 순조 병술년(26년, 1826)에 목사 심영석(沈英錫)⁶²⁸⁾은 요역(徭役)이 번거롭고 무겁기 때문에 땔나무 매단의 값으로 좁쌀[山米] 6되씩을 본전을 지급하여 쓰게 했다.】

평 · 닭[雉鷄] 【평 · 닭은 호역(戶役)인데, 여독호(女獨戶)를 제외하고 집집마다(每戶)에 닭 1마리, 계란 3개씩 거두어들이는 데, 대략 목사가 받는 것은 3,700마리이고 관관이 받는 것은 2,200마리이다. 산촌의 백성들은 평으로 대신 납부하였다.】

조적(糶糶)⁶²⁹⁾

영진창(營賑倉)⁶³⁰⁾의 회부미(會付米)⁶³¹⁾ 【6,561섬】

사창(司倉)⁶³²⁾의 회부미 【2,516섬】

보민고(補民庫)의 기부미(記付米) 【3,333섬】

만호창(萬戶倉)의 기부미(記付米) 【400섬】

별저미(別儲米) 【정조 기미년(23년, 1799)에 섬 안의 거둬진 흉년을 특별히 진념해서 해당 목(牧)으로 하여금 별도로 비축한 쌀[別備米] 만 섬을 삼읍(三邑)에 나누어 보관하여

625) 아록미(衙祿米)는 수령의 식구 몫으로 주던 쌀이다.

626) 요역(徭役)은 조정에서 구실 대신으로 시키던 노동이다.

627) 법(法)은 나뭇단이나 풀단 따위를 세는 단위이다. ‘아름’·‘단(丹)’·‘동(同)’·‘바리’의 뜻으로 풀이나 나뭇단·나무 따위 묶음을 세는 데 쓰는 말이다. 특히 바리는 마소에 잔뜩 실은 짐을 세는 단위이다.

628) 심영석(沈英錫)은 순조 26년(1826) 6월에 제주목사로 도임하여 순조 27년(1827) 8월에 파직(罷職)되어 떠났다.

629) 조적(糶糶)은 환곡(還穀)을 꾸어주거나 받아들거나 하는 일이다.

630) 영진창(營賑倉)은 기근(饑饉)이 들었을 때 굶주리는 백성을 구제(救濟)하기 위하여 마련하여 둔 창고(倉庫)이다.

631) 회부미(會付米)는 금전이나 곡물을 회록(會錄)하여 해당 관아(官衙)에 넘겨주는 쌀이다.

632) 사창(司倉)은 조선시대 지방 관아에 딸린 한 창고였다. 곧 사창은 백성들한테 수취(收取)한 각종 물품을 창고에 보관·출입시키는 것이 그 임무였다.

두었다. 순조 경오년(10년, 1810)에 비변사(備邊司)의 관문(關文)에 따라 호남(湖南) 연안(沿岸)의 여러 고을에 옮겨 구휼함에 따라 점차 소모됨에 이르렀다. 단지 환작(換作)⁶³³⁾한 벼(租)가 8,000섬인데, 해마다 모곡(耗穀)⁶³⁴⁾으로 800섬을 운반하여 와서 보태어 공용에 보태었다.】

공성곡(供星穀)⁶³⁵⁾ 【순조 계미년(23년, 1823)에 어사(御史) 조정화(趙廷和)⁶³⁶⁾가 사성(使星)⁶³⁷⁾에게 음식을 제공하는[支供] 비용으로 굶어모은 쌀[拮据米]⁶³⁸⁾ 47섬을 사창(司倉)에 부쳐서 이자[耗穀]를 받아 수용(需用)하였다.】

공피전(供彼錢)⁶³⁹⁾ 【외국 배(異船)가 표류(漂流)하여 도착(漂到)했을 때 땔나무·기름·물고기·닭 등의 물품은 일찍이 연호에서 거두어들였다. 순조 을해년(15년, 1815)에 목사 윤구동(尹久東)⁶⁴⁰⁾이 조정에 요청하여 잉여미를 얻고 돈으로 환산한 1,800량을 이자로 받아 사용하여 백성의 폐단을 제거했다. 그 후에 점차 소모되어 남아 있는 것이 많지 아니함에 이르렀다. 현종 신축년(7년, 1841)에 굶어모은[拮据] 것은 본래의 수량에 충당하여 영현(營縣)에 나누어 주었다. 영(營)에는 절목(節目)을 만들어 두었는데, 하나는 대정(大靜)에 있고 하나는 정의(旌義)에 있다.】

창고(倉庫)⁶⁴¹⁾

진휼창(賑恤倉)⁶⁴²⁾ 【제주의 진휼창은 관덕정(觀德亭) 서쪽에 있다. 동 진휼창은 별방(別防)에 있고, 서 진휼창은 명월에 있다. 현종 무신년(9년, 1668)에 목사(牧使) 이인(李瑱)⁶⁴³⁾이 가경세곡(加耕稅穀)⁶⁴⁴⁾으로 별도로 창고를 하나 설치하여 진휼창이라

633) 환작(換作)은 기왕의 것을 다른 명목으로 바꾸어 마련한 것이다.

634) 모곡(耗穀)은 세곡이나 환자 곡식을 받을 때에 쌓아두는 동안에 축이 날 것을 예상하고 한 섬에 몇 되씩 더 받는 곡식이다.

635) 공성곡(供星穀)은 사신(使臣)의 음식을 주는[供饋] 곡식이다.

636) 조정화(趙廷和)는 순조 21년(1821) 제주 삼읍에서 전염병이 크게 유행하여 3천명이 신음하자 순조 22년(1822) 10월에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로 있을 때에 제주위유어사(濟州慰諭御史)로 임명되었다.

637) 사성(使星)은 천자(天子)의 사신(使臣)의 일꾼이다. 한(漢)나라 화제(和帝) 때 이합(李郃)이 천문(天文)을 보고서 두 사람의 사신(使臣)이 오는 것을 안 고사(故事)에서 나온 것이다.

638) 길거미(拮据米)는 비공식으로 모은 쌀이다.

639) 공피전(供彼錢)은 외국인[彼人]이 표도(漂到) 때에 사용하는 돈이다.

640) 윤구동(尹久東)은 순조 15년(1815) 5월에 제주목사로 도임하여 순조 17년(1817) 10월에 형조참의(刑曹參議)로 제주(除授)되어 떠났다.

641) 창고(倉庫)는 물자를 저장하거나 보관하기 위한 건물이다. 곳집.

642) 진휼창(賑恤倉)은 진휼(賑恤)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창고이다.

643) 이인(李瑱)은 현종 8년(1667) 6월에 제주목사로 도임하여 현종 10년(1669) 9월에 재임 중 사망하였다.

했다. 흉년(凶年)에 진휼하는 데 쓰는 재물을 준비하였으나 그 후에 여러 번 되풀이하여 흉년이 드니[歉荒] 원곡(元穀)은 점차 줄어들었다. 영조 신해년(7년, 1731)에 목사(牧使) 이수신(李守身)⁶⁴⁵이 자비미(自備米)⁶⁴⁶ 5,000섬을 덧붙여서 설치하였다.】

보민창(補民倉) 【제주의 보민창은 진휼창 동쪽에 있다. 동서 두 진(兩鎭) 및 두 현(兩縣)에는 모두 창고가 있으며 진휼창과 더불어 있다. 진상할 밀랍과 표고버섯은 예전에 삼읍의 양호(良戶)에게 책임을 지워 징수하나 일반 백성들이 지탱하여 보전하지 못했다. 영조 병술년(42년, 1766)에 목사(牧使) 윤시동(尹蓍東)⁶⁴⁷이 자비미(自備米) 466섬을 환곡(還穀)으로 바꾸어 이자를 받아서 본디의 값을 지급하였다. 그 후에 각 창고에 남아 있는 돈을 차차 덧붙여서 각종의 비용[公下] 및 각 역을 대신 갚아 주는 비용[防給之資]으로 삼았다.】

고마고(雇馬庫)⁶⁴⁸ 【영·목(營牧)의 말을 빌려 쓴 샅[刷價]은 원래 무명[木] 30여 동(同)⁶⁴⁹이었다. 해마다 이자를 받아서 채거하는 관장(官長)⁶⁵⁰이 바다를 건넌 후에 세마(貰馬)의 비용으로 삼았다. 정조 신축년(5년, 1781) 어사(御史) 박천형(朴天衡)⁶⁵¹이 임금께 글로 상주(上奏)하여 혁파하였는데, 남아 있는 무명[木]은 견역고(鑣役庫)에 옮겨 부쳤다.】

목자고(牧子庫) 【본래 목자의 급료(給料)로 주는 쌀[料米]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환산한 쌀은 674섬이다. 정조 신해년(15년, 1791)에 견역고에 옮겨 부쳤다.】

견역고(鑣役庫)⁶⁵² 【영조 갑오년(20년, 1744)에 목사 박성협(朴聖浹)⁶⁵³이 자비미(自備米) 1천 섬으로 시노비[寺奴婢]가 경사(京司)에 상납하고 수렴하는 폐단을 제거하였다. 노비(奴婢)의 혁파⁶⁵⁴된 후에는 삼읍(三邑)에 옮겨 부쳐서 남정(男丁)의 대동(大同)을 대신[防役]⁶⁵⁵하게 하였다. 정조 갑인년(18년, 1794)에 보민고(補民庫)로 옮겨 부쳤다.】

644) 가경세곡(加耕稅穀)은 새로 개간하여 아직 양안(量案)에 올리지 아니한 논밭에서 세금으로 바치는 곡식이다.

645) 이수신(李守身)은 영조 5년(1729) 10월에 제주목사로 도임하여 영조 7년(1731) 9월에 체임되었다.

646) 자비미(自備米)는 기근이나 흉년에 대처하기 위하여 수령(守令)이 스스로 준비한 쌀이다.

647) 윤시동(尹蓍東)은 영조 41년(1765) 8월에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영조 42년(1766) 6월에 노모(老母) 봉양(奉養) 관계로 사임(辭任)하고 떠났다.

648) 고마고(雇馬庫)는 민간의 말을 샅을 주고 징발하는 일을 맡아보는 관아이다.

649) 동(同)은 피륙의 묶음을 셀 때 쓰이였다. 일반적으로 50필(匹)을 한 동으로 한다.

650) 관장(官長)은 관가(官家)의 장관인 수령(守令)을 이르는 말이다.

651) 박천형(朴天衡)은 제주목사(前濟州牧使)인 김영수(金永綏)의 수감(收監)과 추국(推鞠) 문제, 유배(流配) 문제로 정조 5년(1781) 6월 17일에 제주순무안사시재어사(濟州巡撫按查試才御史)로 임명되어 정조 6년(1782) 1월 12일 귀환하여 복명(復命)하였다.

652) 견역고(鑣役庫)는 군역이나 부역을 가볍게 덜어주는 관아이다.

653) 박성협(朴聖浹)은 영조 49년(1773) 3월에 제주목사로 도임하여 영조 50년(1774) 5월 재임 중에 사망하였다.

654) 노비의 혁파는 공노비(公奴婢)의 혁파이다. 이 혁파한 해는 바로 순조 1년(1801)이다.

655) 방역(防役)은 백성들이 부역(賦役) 대신에 돈이나 곡식을 바치는 일이다.

담은고(覃恩庫) 【영조 무오년(14년, 1738)에 어사(御史) 이도원(李度遠)⁶⁵⁶이 호남(湖南)의 무명〔木〕 60동(同)을 요청하고 허락을 받아 삼읍의 상평창(常平倉)⁶⁵⁷에 부쳐서 공적(公的)인 급료(給料)를 치러주는 비용으로 삼았다. 영조 신유년(17년, 1741)에 목사 안경운(安慶運)이 장계로 올려 요청한 이전미(移轉米) 5천여 섬을 창고를 설치하여 덧붙였다. 정조 갑인년(18년, 1794)에 보민고(補民庫)로 옮겨 부쳤다.】

사창(司倉) 【진휼창 서쪽에 있으며 본주(本州)의 동·서에 있다. 세 창고는 예전에 호남이전미(湖南移轉米)를 해마다 천 섬을 옮겨 두고 원병(援兵)의 군량으로 삼았다. 만력(萬曆) 경신년(광해군 12년, 1620)에 원병(援兵)을 혁파하고 상평(常平)과 군자(軍資) 두 창고에 옮겨 부쳐서 갖가지의 급료(給料)로 나누어 주는 비용으로 삼았다. 판관이 주관하였다.】

만호창(萬戶倉) 【명월진(明月鎭)에 있는데, 만호(萬戶)⁶⁵⁸로 승격할 때에 설치하였다.】

평역고(平役庫) 【무오년(영조 14년, 1738)에 어사 이도원이 여러 부류(各班)의 번(番)을 서지 않은 자에게 거두어들인 쌀 7말로 받아서 각 고역(苦役)⁶⁵⁹의 나누어 주는 급료(給料) 및 제반 비용으로 지급하고 이름을 균역청(均役廳)⁶⁶⁰이라 하였다. 그 후에 임오년(1762)에 목사 신광익(申光翼)⁶⁶¹이 2말을 줄일 것을 임금께 장계하여 일정한 격식을 갖추고 평역고(平役庫)로 고쳤다. 지금 임금〔當寧〕 무술년(헌종 4년, 1838)에 이원달(李源達)⁶⁶²이 또 8되를 줄여서 7말 2되로 여름과 가을로 나누어 받았다.】

장세고(場稅庫)⁶⁶³ 【각 목장에 몰래 침범하여 경작하는 곳〔犯耕處〕에 분배하여 곡식을 거두어 들여 마감(馬監)과 목자(牧子)의 급료로 삼았다. 정조 갑인년(18년, 1794)에 어사(御史) 심낙수(沈樂洙)⁶⁶⁴가 임금께 장계〔啓門〕하여 일정한 격식을 갖

656) 이도원(李度遠)은 영조 14년(1738) 7월에 당시의 제주판관(濟州判官) 오명계(吳命季)의 비리를 조사·보고하고 문·무과(文武科)의 과장(科場)을 개설하는 제주순무시재어사(濟州巡撫試才御使)로 파견되어 그 이듬해 4월에 시권(試券)을 가지고 조정으로 돌아갔다.

657) 상평창(常平倉)은 물가(物價)의 조절과 흉년의 빈민 구제책의 하나로 설치하였던 기관이다.

658) 만호(萬戶)는 각도의 여러 진(鎭)에 두었던 종4품의 무관 벼슬아치다.

659) 고역(苦役)은 『탐라록(耽羅錄)』 육고가(六苦歌)에 기록되어 있다. 이를테면 육고역(六苦役)은 아병(牙兵)·목자(牧子)·방졸(防卒)·과직(果直)·선격(船格)·포작(鮑作)이다.

660) 균역청(均役廳)은 균역법(均役法)의 실시에 따른 제반 사무를 관장하던 관아다.

661) 신광익(申光翼)은 영조 37년(1761) 7월에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영조 39년(1763) 5월에 울산(蔚山)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로 전출(轉出)되었다.

662) 이원달(李源達)은 헌종 3년(1837) 11월에 제주목사로 도임하여 헌종 5년(1839) 3월에 사직(辭職)을 하고 떠났다.

663) 장세고(場稅庫)는 목장에서 세금을 거두는 창고이다.

664) 심낙수(沈樂洙)는 정조 17년(1793) 12월에 제주위유안핵순무시재어사(濟州慰諭按覈巡撫試才御使)로 내도하고 그 이듬해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제수(除授)되어 10월에 체임되었다.

■ 耽羅誌草本(上)

추었다. 그 후 기미년(영조 35년, 1799)에 목사 조명즙(曹命楫)⁶⁶⁵이 특별히 감관(監官)⁶⁶⁶과 색리(色吏)⁶⁶⁷를 내보내어 세금을 거두어서 공용(公用)에 첨부했다.】

호적고(戶籍庫)⁶⁶⁸ 【홍화각(弘化閣)의 남쪽에 있다. 삼읍(三邑)의 호적을 보관하였는데, 목사 최해산(崔海山)⁶⁶⁹ 때의 실화(失火)로 정통 갑자년(세종 26년, 1444) 이전 것은 1권도 남아 있지 않다. 옛 읍지⁶⁷⁰에 기재되어 있는 영락(永樂)⁶⁷¹의 저화(楮貨)⁶⁷² 1장(張)⁶⁷³도 역시 어느 때 잃어 버렸는지 알지 못하니 한탄스럽다.】

영선고(營繕庫)⁶⁷⁴ 【주사(州司)⁶⁷⁵ 곁에 있는데, 땔나무와 숯, 말린 꿀[芻]과 마른 꿀[芻]을 쌓아 보관하는 곳이다.】

책판고(冊版庫)⁶⁷⁶ 【책을 담당[當書]하는 곳인데 영선고(營繕) 밑에 있다.】

화약고(火藥庫)⁶⁷⁷ 【운주당(運籌堂) 서쪽에 있다. 화약은 현재 수량[時數]은 11,930근(斤)⁶⁷⁸이다.】

자전고(紫電庫)⁶⁷⁹ 【세병헌(洗兵軒) 좌우(左右)의 2층 다락[層閣]에 있는데, 숙종 기사년(15년, 1689)에 목사 이우항(李宇恒)⁶⁸⁰이 세웠고, 화살 창고[箭庫]를 무술년(숙종 44년, 1718)에 정석빈(鄭碩賓)⁶⁸¹이 세웠다. 흑각궁(黑角弓)⁶⁸² 911장(張)⁶⁸³, 향각궁(鄉角弓)⁶⁸⁴ 226장, 교자궁(交子弓)⁶⁸⁵ 786장, 육량궁(六兩弓)⁶⁸⁶ 13장, 긴 화살[長箭] 5,082매

665) 조명즙(曹命楫)은 정조 21년(1797) 6월에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정조 23년(1799) 7월에 청피(靑皮)를 봉진(封進)하지 못한 죄로 나거(拿去)되었다.

666) 감관(監官)은 전곡이나 물품 등의 출납을 맡아보며 감시하는 벼슬아치이다.

667) 색리(色吏)는 일정한 일을 맡았거나 책임을 맡은 아전이다.

668) 호적고(戶籍庫)는 호적(戶籍)에 관한 사무를 맡아 보는 창고이다.

669) 최해산(崔海山)은 세종 16년(1434) 10월에 제주 안무사(濟州安撫使)로 부임하여 세종 19년(1437) 2월에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이배(移拜)되었다.

670) 옛 읍지는 『담라지(耽羅志)』를 지칭한다.

671) 영락(永樂)은 명(明)나라 성조(成祖)의 연호(年號)이다.

672) 저화(楮貨)는 고려 말·조선 초기에 국가에서 제조하여 통용시켰던 지폐이다. 닥나무의 껍질을 원료로 하였다.

673) 장(張)은 ‘장’의 뜻으로, 초(鈔)·저화(楮貨) 따위의 수를 세는 데 쓰는 말이다.

674) 영선고(營繕庫)는 건축물의 신축 또는 그 수리를 맡아보던 창고이다.

675) 주사(州司)는 주(州)의 관사(官司)이다.

676) 책판고(冊版庫)는 책을 박아내는 판(板)을 두는 창고이다.

677) 화약고(火藥庫)는 화약을 넣어두는 창고이다. 특히 화약은 충격·마찰·점화 등에 의하여 터지는 폭발물(爆發物)이다. 초석(硝石)·목탄(木炭)·유황(硫黃) 등을 써서 만든다.

678) 근(斤)은 염료(染料)의 무게를 헤아릴 때 쓰였다.

679) 자전고(紫電庫)는 무기(武器)를 넣어두는 창고이다. 특히 자전(紫電)은 오(吳)나라의 명검(名劍)의 이름에서 유래하여 ‘무기’라고 통칭하고 있다.

680) 이우항(李宇恒)은 숙종 15년(1689) 5월에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숙종 17년(1671) 12월에 체임되었다.

681) 정석빈(鄭碩賓)은 숙종 43년(1717) 9월에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숙종 45년(1719) 6월에 재임 중 사망하였다.

682) 흑각궁(黑角弓)은 무소의 검은 뿔로 꾸며 만든 활이다.

683) 張은 ‘장’의 뜻으로, 활(弓)이나 쇠뇌(弩)의 수를 세는 데 쓰는 말이다.

684) 향각궁(鄉角弓)은 우리나라에서 나는 소나 양의 뿔로 꾸며 만든 활이다.

685) 교자궁(交子弓)은 활을 고정하여 쏘는 것이다. 특히 멀리 있는 적들을 소탕할 때 쓰인다.

686) 육량궁(六兩弓)은 활의 한 가지로 무게가 여섯 냥이다.

[孚]⁶⁸⁷⁾ 20개, 통아(筒兒)⁶⁸⁸⁾ 1,865개, 환도(環刀)⁶⁸⁹⁾ 152자루[柄]⁶⁹⁰⁾, 긴 칼[長劍] 6자루, 철투구(鐵頭具)⁶⁹¹⁾ 221부(部)⁶⁹²⁾, 쇠로 만든 갑옷(鐵甲) 30벌(部)⁶⁹³⁾, 흑엄심(黑掩心)⁶⁹⁴⁾ 19벌, 풀섬(雪綿子)을 넣어 만든 방탄옷(塑掩心)은 5벌, 창[鎗]⁶⁹⁵⁾ 183자루, 삼지창(三枝鎗)⁶⁹⁶⁾ 14자루, 넓이 긴 방패(板長方牌)⁶⁹⁷⁾ 58널[葉]⁶⁹⁸⁾, 가슴 방패 109널, 굽은 방패 15널, 얇은 무쇠 방패 3널, 애기살 통(片箭筒)⁶⁹⁹⁾ 6개, 두꺼운 방패 13널, 나무로 지는 통개(筒箇)⁷⁰⁰⁾ 6개, 쇠[金] 69개, 방울[鐸]⁷⁰¹⁾ 31개, 큰 나팔[大角]⁷⁰²⁾ 24자루, 작은 나팔[小角]⁷⁰³⁾ 17자루, 북은 대·중·소를 아울러 25좌(坐)⁷⁰⁴⁾, 용두쇠[鉤鐵]⁷⁰⁵⁾ 9개, 땡땡이[鼗]⁷⁰⁶⁾ 39개, 벌비개[伐飛蓋] 12개, 활과 쇠뇌[弓弩] 88개, 낫[鎌子]⁷⁰⁷⁾ 59자루, 철고라(鐵古羅) 59개, 베는 낫[刈鎌] 16자루, 쇠사슬[鐵沙撻]⁷⁰⁸⁾ 19거리[良]⁷⁰⁹⁾, 무쇠 화살 68개, 베는 칼[斬刀] 8자루, 굴렁쇠[鉤郎金] 7개, 기창(騎鎗)⁷¹⁰⁾ 누수통(漏水桶)⁷¹¹⁾ 2개, 천자동철충통(天字銅鐵銃筒)⁷¹²⁾ 4자루, 지자동철충통(地字銅鐵銃筒) 4자루, 별양호리(別樣号里)

687) 浮는 ‘떼’의 뜻으로, 화살이나 화살대 100개를 하나치로 세는 데 쓰는 말이다.

688) 통아(筒兒)는 활과 화살을 꽂아 넣어 등에 지는 물건이다. 가죽으로 만든다.

689) 환도(環刀)는 칼집이 있어 고리를 달고, 이 고리에 끈을 드리우고 그것을 허리에 찬다는 데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특히 예전에 군복에 갖추어 차던 군도(軍刀)이다. 곧 긴 외날을 가진 단병기이다.

690) 柄은 ‘자루’의 뜻으로, 장도(長刀)·환도(環刀)·의도(儀刀)·장검(長劍) 따위 칼의 수를 셀 때 쓰였다.

691) 철투구(鐵頭具)는 군사가 쓰는 쇠로 만든 모자이다. 곧 철투구이다.

692) 部는 관(冠)·모자(帽子)·입(笠) 따위 머리에 쓰는 물건의 수를 세는 데 쓰는 말이다.

693) 部는 ‘벌’의 뜻으로, 갑옷의 수를 세는 데 쓰는 말이다.

694) 흑엄심(黑掩心)은 가슴을 가리는 검은 옷이다.

695) 창(鎗)은 긴 병기(長兵器)를 대표하며 찌르는 무기이다.

696) 삼지창(三枝鎗)은 창(鎗)의 한 가지이다. 끝이 세 갈래로 지고, 길이는 7자 6치이다.

697) 넓이 긴 방패(板長方牌)는 방패의 한가지이다. 길이는 5자 6치, 넓이는 2자 2치 되게 널빤지로 만드는 데 가장자리는 쇠붙이로 꾸미고, 겉면은 가죽을 붙이고 그림을 그렸으며, 안쪽은 무명을 발랐는데 손잡이가 있다.

698) 葉은 ‘널’의 뜻으로, 널빤지의 수를 세는 데 쓰는 말이다.

699) 애기살 통(片箭筒)은 애기살을 넣은 통(筒)이다. 통은 둥글고 긴 물건을 찔막하게 자른 그 토막으로서 속이 빈 물건의 충칭이다.

700) 통개(筒箇)는 활과 화살을 꽂아 넣어 등에 지는 물건이다. 가죽으로 만든다.

701) 방울(鐸)은 구리 바탕에 목설(木舌)을 단 것을 목탁(木鐸)이라 하여 문사(文事)에 쓰고, 금설(金舌)의 단 것을 금탁(金鐸)이라 하여 무사(武事)에 썼다. 방울을 치면 전군이 침묵하고 명령을 기다린다.

702) 큰 나팔(大角)은 관악기의 한 가지로 군대의 호령(號令)에 쓴다.

703) 작은 나팔(小角)은 관악기의 한 가지로 도금(鍍金)한 황동(黃銅)이나 쇠뿔로 나팔이다. 아가리에 나무로 만든 긴 관(管)이 달렸다.

704) 좌(坐)는 북·장고(長鼓)·징 따위 악기의 수를 세는 데 쓰는 말이다.

705) 용두쇠[鉤鐵]는 장구의 줄을 연결하는 데 쓰는 쇠갈고리이다.

706) 땡땡이[鼗]는 북자루를 잡고 돌리면 동체의 양쪽 끈에 단 구슬이 북면을 치게 만든 북이다.

707) 낫[鎌子]은 풀을 베는 연장이다.

708) 쇠사슬[鐵沙撻]은 쇠로 만든 고리를 여러 개 이어서 만든 줄이다.

709) 거리[良]는 새끼·줄 따위의 길이를 헤아리는 데 쓰는 말이다. 대체로 한 ‘거리’의 길이는 열 발이 되고, 한 발을 3자[尺] 6치[寸]로 치면 한 거리는 36자가 된다.

710) 기창(騎鎗)은 말을 타고 달리면서 창을 쓰던 무예이다.

711) 누수통(漏水桶)은 구멍을 뚫어서 물이 떨어지게 하여 그 분량으로 시간을 측정하도록 만든 물통이다. 무과(武科)의 취재(取才) 때에 쓴다.

712) 천자동철충통(天字銅鐵銃筒)은 “天”자의 자호(字號)를 가진 구리와 쇠(銅鐵)의 불씨를 손으로 점화하여 발사하는 유통식

■ 耽羅誌草本(上)

4개, 약통(藥桶)⁷¹³대·중·소를 아울러 105개, 각자 잠철(各字箴鐵)대·중·소를 아울러 28개, 세장당총통(細長唐銃筒)⁷¹⁴3자루, 현자동철총통(玄字銅鐵銃筒) 95자루, 황자동철총통(黃字銅鐵銃筒) 9자루, 당왜 시우쇠총통(唐倭正鐵銃筒) 4자루, 주자동철총통(宙字銅鐵銃筒) 133자루, 소당자동철총통(小唐字銅鐵銃筒) 39자루, 승자동철총통(勝字銅鐵銃筒) 163자루, 차승자동철총통(次勝字銅鐵銃筒) 168자루, 백자총통(白字銃筒) 14자루, 불랑기총통(佛郎機銃筒)⁷¹⁵19자루, 쇠가죽으로 누빈 그물집[牛皮納羅家] 34개, 귀약통[耳藥桶]⁷¹⁶34개, 약승(藥繩) 34개, 약통(藥桶) 514개, 호준포(虎蹲砲)⁷¹⁷19자루, 삼혈총통(三穴銃筒)⁷¹⁸36자루, 별승자동철총(別勝字銅鐵銃) 60자루, 무쇠 완구[水鐵碗口]⁷¹⁹대·중·소를 아울러 88자루, 무쇠 진천뢰[水鐵震天雷]⁷²⁰대·중·소를 아울러 231개, 천자장군전(天字將軍箭)⁷²¹95개, 천자 걸이살(天字巨里箭) 13개, 지자장군전(地字將軍箭) 97개, 현자(玄字) 차대전(次大箭)⁷²²208개, 은장전(隱藏箭) 387개, 황자(黃字) 철령전(鐵翎箭)⁷²³72개, 주자(宙字) 피령중전(皮翎中箭)⁷²⁴3,549개, 원승자(元勝字)·차승자전(次勝字箭)⁷²⁵을 아울러 4,478개, 신기전(神機箭)⁷²⁶1,620개, 대나무 화전(竹火箭)⁷²⁷251개, 주자화전(宙字火箭) 344개, 지자포(地字砲)⁷²⁸1개, 신기전(神機箭)의 화살통 388개, 질려포(蒺藜砲)⁷²⁹723개, 사질려포(射蒺藜砲) 157개, 주화(走火)⁷³⁰30개, 장주화(長走火) 30개, 명화

(有筒式) 화기(火器)이다.

713) 약통(藥桶)은 화약(火藥)을 담은 통이다.

714) 세장당총통(細長唐銃筒)은 가늘고 길며 승자총통(勝字銃筒) 계열에 비해서 훨씬 크고, 무게의 중심 부위에 거금(舉金)의 부착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715) 불랑기총통(佛郎機銃筒)은 불씨를 손으로 화약선에 점화 발사하는 화기로는 유일한 후장식(後裝式) 화포(火砲)이다. 특히 불랑기는 15세기 경 포르투갈 등 서구 제국에서 제작되어 1517년경에는 중국에 전해졌고 임진왜란을 계기로 하여 전래되었다.

716) 귀약통[耳藥桶]은 화승총(火繩銃) 옆에 재는 화약인 귀약[耳藥]을 담아 두는 통이다.

717) 호준포(虎蹲砲)는 차려 놓으면 그 형상의 범이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것과 같다하여 붙인 이름이다.

718) 삼혈총통(三穴銃筒)은 총알의 나가는 구멍이 세 개가 나란히 붙어 있는 총이다.

719) 무쇠 완구[水鐵碗口]는 진천뢰(震天雷)나 둥근 돌맹이를 장전하여 내쏘는 화포(火砲)이다. 태종 7년(1407) 경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720) 무쇠 진천뢰[水鐵震天雷]는 폭약을 장치하여 먼 거리에 쏘아 터지는 화포(火砲)이다. 특히 진천뢰(震天雷)는 임진왜란 때에 군기시(軍器寺)의 화포장(火砲匠)으로 있는 이장손(李長孫)이 창안해 낸 것이다.

721) 천자장군전(天字將軍箭)은 ‘天’자의 자호(字號)를 가진 큰 쇠불이로 만든 화살이다. 지자총통(地字銃筒)에 쟁여서 내쏜다.

722) 차대전(次大箭)은 크기의 정도가 대전(大箭)에 바로 다음 가는 대전이다.

723) 철령전(鐵翎箭)은 얇은 철판을 오려서 만든 살갓을 붙여서 만든 화살이다.

724) 피령중전(皮翎中箭)은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화살갓을 붙여서 만든 중전(中箭)이다.

725) 차승자전(次勝字箭)은 크기의 정도가 대승자전(大勝字箭)에 바로 다음 가는 화살이다.

726) 신기전(神機箭)은 화약의 힘으로 날아가 직접 살상하며, 밤에는 교란용으로 사용하였다.

727) 화전(火箭)은 화약을 이용하여 적진을 불태우거나 혼란용으로 사용하였다.

728) 지자포(地字砲)는 화포(火砲)의 한 가지로, 한 방에 네 대의 화살을 발사하는 다발식(多發式) 화기(火器)이다. 특히 포신(砲身)에 천자문(千字文)의 글자 순에 의한 자호(字號)인 “地”자가 새겨져서 붙여진 이름이다.

729) 질려포(蒺藜砲)는 탄환에 마름쇠를 넣어서 만든 화포(火砲)이다. 고려 말기에 최무선(崔茂宣)이 처음으로 만들었다.

730) 주화(走火)는 고려 말에 최무선(崔茂宣)이 만든 폭발물을 장치한 화살이다. 크기에 따라 세주화(細走火)·소주화(小走

(明火)⁷³¹⁾ 340개, 대발화(大發火)⁷³²⁾ 147개, 중발화(中發火) 110개, 소발화(小發火) 147개, 지화(地火)⁷³³⁾ 649개, 당화전(唐火箭) 506개, 화약(火藥) 11,935근 3냥 7전 5푼, 대약선(大藥線)⁷³⁴⁾ 285사리(沙里)⁷³⁵⁾ 12조(條) 2치[寸] 5푼, 중약선(中藥線) 694사리 5조, 소약선(小藥線) 1,370사리 8치, 각색 약승(各色藥升) 145개, 각총 기목(各銃機木)⁷³⁶⁾ 대·중·소를 아울러 39,845개, 선혈 시우쇠몽치(線穴正鐵錐) 45개, 마름쇠[稜鐵]⁷³⁷⁾ 85,200개, 정철환(正鐵丸)⁷³⁸⁾ 60,111개, 연철환(鉛鐵丸) 270,007개, 대수철환(大水鐵丸) 911개, 중수철환(中水鐵丸) 66,041개, 소수철환(小水鐵丸) 536,769개, 월자정철환(月字正鐵丸) 203,141개, 각자 총통 쇠기둥(各字銃筒鐵柱) 대·중·소를 아울러 161개, 각자 총통 쇠몽치(各字銃筒鐵錐) 대·중·소를 아울러 90개, 장화기(藏火機)⁷³⁹⁾ 대나무 통[竹桶] 1개, 지자총통기목(地字銃筒機木) 22개, 현자총통기목(玄字銃筒機木) 118개, 포를 놓은[放砲] 누인 삼 겹질[熟麻]로 만든 바[所] 16거리, 철학자(鐵學刺) 2개, 도지개(到至解)⁷⁴⁰⁾ 5부, 긴 화살에 들어가는 가죽 활집[羅韜] 49개, 애기살에 들어가는 가죽 활집 10개, 긴 화살에 들어가는 가죽그물 활집 10개, 화약을 넣는 돼지가죽 그물집 2개, 훈련 때 입는 옷 4벌, 붉은 옷·투구[頭具]⁷⁴¹⁾ 4벌, 구리화로 그릇[銅爐器] 104좌(坐)⁷⁴²⁾, 불방패[火防牌] 3부, 술 2좌, 귀약을 넣는 나무통 63개, 귀[耳]⁷⁴³⁾ 3개, 자귀[佐耳]⁷⁴⁴⁾ 3개, 큰 줄[大錯]⁷⁴⁵⁾ 3개, 작은 줄 3개, 중간의 갈고리[中鉅]⁷⁴⁶⁾ 3개, 작은 갈고리 3개】

火)·중주화(中走火)·대주화(大走火)로 나뉜다.

731) 명화(明火)는 불꽃놀이에 쓰는 화약이다.

732) 대발화(大發火)는 총포에 실탄(實彈)을 쏘지 아니하고 화약(火藥)만을 다져 넣어 내쏘아 불만 일어나게 한다. 특히 대발화는 세종 때에 만든 폭약의 하나로, 크기에 따라 대·중·소로 나눈 것 가운데 제일 큰 폭약이다.

733) 지화(地火)는 두꺼운 종이로 말라서 만든 통 속에 넣어 발화시켜 불을 지르는데 사용하는 화살이다. 특히 지화는 땅에서 일어나는 물건으로, 오늘날의 수류탄과 유사하다.

734) 약선(藥線)은 불을 붙여 화약을 터지게 하는데 쓰는 심지이다. 종이로 만든다.

735) 사리(沙里)는 ‘사리’의 차자 표기로, 국수·새끼·화승·생갈·축승·박오가리 따위를 형클어 지지 않도록 사리어 감은 덩이의 수이다. 줄이나 끈은 종류나 쓰임에 따라 그 길이가 달라지는데, 대개 30~50발[把]이 1사리이고, 50~100사리가 1동(同)이 된다.

736) 각총 기목(各銃機木)은 각각의 총(銃)에 틀을 이루는데 바탕이 되는 나무이다.

737) 마름쇠[稜鐵]는 도둑이나 적을 막기 위하여 홀어두는 마름 모양의 무쇠덩이다.

738) 철환(鐵丸)은 쇠로 만든 탄자이다. 특히 엽총 등에 채서 쓰는 잔 탄알이다.

739) 장화기(藏火機)는 총통(銃筒)에 화약을 채는 데 쓰는 기구이다.

740) 도지개(到至解)는 틈이 나거나 뒤틀린 활을 바로잡는 틀이다. 활도지개.

741) 頭具는 투구이다. 투구는 군사가 쓰는 쇠로 만든 모자이다.

742) 좌(坐)는 화로(火爐)·번철(番鐵) 따위의 수를 세는 데 쓰는 말이다.

743) 귀[耳]는 주전자의 부리처럼 액체를 따를 수 있도록 따로 내밀어 만든 부리이다.

744) 자귀[佐耳]는 나무를 깎아 다듬는 연장의 하나이다.

745) 大錯은 큰 줄이다. 줄은 쇠붙이를 끌거나 깎는 연장이다. 특히 大錯은 당(唐)나라의 전승사(田承嗣)가 아군(牙軍)을 만들어 방자하게 굴므로 나소위(羅紹威)가 이를 미워하여 주전충(朱全忠)의 군사를 빌어 이를 죽였으나, 주전충의 군사가 위(魏)에 남아서 금전(金錢)·재보(財寶)를 요구함으로써 위군(魏軍)이 크게 쇠하여졌다. 때문에 나소위가 곧 후회하여, 육주(六州)의 쇠를 다 모아도 이같이 무지러뜨릴줄[鑪]을 만들 수는 없다고 탄식한 고사(故事)에서 온 말이다.

746) 갈고리[鉅]는 갈고랑쇠에 긴 나무 자루를 박은 무기이다.

■ 耽羅誌草本(上)

식파고(息波庫) 【화북진(禾北鎭)에 있다. 교자궁 50장, 긴 화살 100매, 애기살 100매, 통아 12개, 신기전 29매, 정철 조총(正鐵鳥銃)⁷⁴⁷⁾ 10자루, 가죽을 누빈 그물집 10개, 귀약통 10개, 약통 150개, 약승 10개, 화승 30사리, 화약 49근 14냥 8돈, 연철환 300개, 소수철환 1,300개, 호준포 2자루, 삼혈총 2자루, 주자 총통 3개, 각자 약승 3개, 중약선 7사리, 소약선 8사리, 철투구 1부, 쇠로 만든 갑옷 1부, 환도 5자루, 창 10자루, 대·소의 북을 아울러 4좌, 쇠 3개, 방울 3개, 큰 나팔 3자루, 술 2좌】

조천고 북진(朝天庫北鎭) 【흑각궁 12장, 향각궁 2장, 교자궁 36장, 긴 화살 76매, 애기살 181매, 통아 20개, 창 44자루, 환도 3자루, 가슴을 가리는 붉은 옷 4벌, 큰 나팔·작은 나팔 각 2자루, 쇠사슬 2거리, 반쇠 1개, 방울 3개, 도지개 2부, 작은북 2좌, 땡땡이 2개, 굴렁쇠 2개, 벌비개 6개, 방패 30닢, 지자 동철총통 2자루, 현자 동철총통 2자루, 주자 동철총통 38자루, 승자 동철총통 5자루, 당자 동철총통 6자루, 소승자 동철총통 5자루, 조총 10자루, 가죽을 누빈 그물집 10개, 귀약통 10개, 약승 10개, 화승 30사리, 지자 장군전 3개, 동자 걸이살 2개, 현자 차대전 5개, 승자 피령전 50개, 약통 150개, 질러포 13개, 사질러포 20개, 신기전 46개, 대발화 4개, 주자 목화전 22개, 화약 58근 8냥 8전 5푼, 중약선 15사리 2오리, 화약선 1사리 9오리, 약승 15개, 각자 총통기목 대·중·소를 아울러 2,130개, 선혈 시우쇠몽치 5개, 연철환 440개, 정철환 353개, 수철환 6,839개, 지자 시우쇠몽치 2개, 동자무쇠기둥 2개, 현자 시우쇠기둥 장·단을 아울러 2개, 짧은 시우쇠기둥 대·중·소를 아울러 5개, 주자 무쇠기둥 3개, 중시우쇠기둥 3개, 화포기목 10부, 각자 자루나무 18개, 화포 1거리, 당자 기목 2부, 굵은 방패 4부, 둥근 방패 4부, 지자 총통기목 3개, 현자 총통기목 2개】

별방고(別防庫) 【흑각궁 25장, 향각궁 51장, 교자궁 131장, 육량궁 2장, 긴 화살 448매 27개, 명적전 400개, 통아 18개, 쇠로 만든 갑옷 1벌, 철투구 1부, 환도 10자루, 창 82자루, 총통 10부, 쇠 12개, 방울 12개, 북 중·소를 아울러 15좌, 땡땡이 12개, 마상북 2, 큰 나팔 28자루, 쇠사슬 6거리, 방패 64닢, 천자동철총통 1자루, 지자 동철총통 4자루, 별양호리 1자루, 잠철 3개, 약통 3개, 세장당철총통 2자루, 동철약통 4개, 현자동철총통 9자루, 황자동철총통 1자루, 주자총통 33자루, 승자동철총통 30자루, 차

747) 조총은 제일 좋은 무기이니, 위력이 쾌창(快槍)보다 10배나 되고 궁시(弓矢)보다 5배나 된다. 10번 발사하여 8·9번을 맞출 수 있으니, 숲 속에서 나는 새들을 모두 맞추어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이 때문에 조총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조총의 길이는 3척이고, 무게는 6근인데 5근으로 줄이면 더욱 좋다. 총구(銃口)에는 3전(錢)의 납(탄환)이 들어갈 만하게 하고 화약 또한 3전인데, 납이 가벼우면 화약을 줄이고, 납이 무거우면 화약을 많이 넣어야 한다. 화문(火門)은 작은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화약은 잘 건조하고 입자(粒子)가 가늘며 성질이 맹렬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승자동철총통 8자루, 당승자동철총통 6자루, 조총 10자루, 가죽을 누빈 그물집 10개, 귀약통 10개, 약승 10개, 약통 150개, 화승 30사리, 삼혈동철총통 3자루, 무쇠 대·중·소 완구를 아울러 14개, 천자장군전 24개, 무쇠진천뢰 1개, 지자 장군전 60개, 동자 걸이살 2개, 현자 차장군전 17개, 피령전 85개, 승자중전 70개, 황자 철령중전 3개, 목령전 50개, 주자 피령전 187개, 신기전 55개, 당화전 9개, 죽화전 43개, 질려포 19개, 사질려포 32개, 대발화 47개, 중발화 27개, 주자 화전 37개, 화약 325근, 중약선 54사리, 소약선 102사리, 약승 82개, 선혈 시우쇠몽치 30개, 연철환 2,139개, 정철환 279개, 대수철환 30개, 중수철환 145개, 소수철환 10,238개, 지자 무쇠기둥 2개, 각자 시우쇠기둥 25개, 큰쇠몽치 2개, 각자 총통기목 대·중·소를 아울러 44,120개, 자루나무 15개, 화포진바 1거리, 화차(火車) 1부, 목노궁(木弩弓) 7장, 목노(木弩) 애기살 22때, 능철 4,000개, 철릉박배판 40개, 화약을 넣는 가죽 손가방 5개, 낫 49개, 화약을 넣는 가죽으로 누빈 그물집 30개, 허리 걸이쇠 1부, 벌날개 2개, 굵은 방패 4부】

애월고(涯月庫) 【상각궁 11장, 교자궁 44장, 도지개 2부, 긴 화살 95때 17개, 애기살 87때 15개, 환도 2자루, 통아 20개, 창 34자루, 푸른 투구 2부, 쇠로 만든 갑옷과 투구 각 1벌, 가슴을 가리는 검은 옷 2벌, 방패 10닢, 쇠 2개, 방울 2개, 큰 나팔 8자루, 작은 나팔 4자루, 중궤(中櫃) 2좌, 땡땡이 7개, 마상북⁷⁴⁸⁾ 7개, 각자 동철총통 30자루, 시우쇠 조총 5자루, 가죽으로 누빈 그물집 5개, 약승 5개, 약통 75개, 화승 15사리, 지자 장군전 20개, 귀약통 5개, 지자 걸이살 2개, 현자 차대전 10개, 피령전 40개, 주자 피령전 40개, 승자 피령전 50개, 동자 화전 25개, 죽화전 1개, 당화전 16개, 신기전 31개, 질려포 20개, 사질려포 15개, 대발화 9개, 화약 66근 1냥 8전, 중약선 8사리, 소약선 6사리, 당총통 약승 2개, 각자 총통기목 대·중·소를 아울러 600개, 선혈 사우쇠몽치 5개, 연철환 300개, 정철환 300개, 수철환 5,075개, 자루나무(柄木) 13개, 지자 무쇠기둥 2개, 현자 긴무쇠기둥 2개, 주자 시우쇠기둥 2개, 중 쇠기둥 2개, 각자 총통기목 10부, 화포바 2거리, 약승 10개, 화약을 넣는 말가죽으로 만든 손가방 4개, 철환을 넣는 가죽 손가방 3개, 당승자 총통기목 4개, 화약을 넣는 말가죽 손가방 중·소를 아울러 14개, 벌날개 겹 용두쇠 4개, 굴렁쇠 1개, 굵은 방패 4부, 불방패 1부, 둥근 방패 2부, 현자 총통기목 3부】

명월고(明月庫) 【흑각궁 10장, 상각궁 19장, 교자궁 146장, 육량궁 2장, 긴 화살 211때 44개, 애기살 987때 15개, 육량전 50개, 명적전(鳴鑼箭)⁷⁴⁹⁾ 300개, 환도 8자루, 통아 40개,

748) 마상북(鑼)은 기병(騎兵)이 마상(馬上)에서 공격의 신호로 올리던 북이다.

749) 명적전(鳴鑼箭)은 쏘면 바람을 받아 울도록 만든 화살이다. 일명 우는살이다.

■ 耽羅誌草本(上)

철투구 5부, 쇠로 만든 갑옷 1벌, 지는 통개〔負筒箇〕 14개, 가슴을 가리는 검은 옷 10벌, 창 76자루, 쇠사슬 6거리, 독(蠶) 10개, 큰 나팔 4자루, 작은 나팔 24자루, 북대·중·소를 아울러 15좌, 땡땡이 10개, 마상북 2개, 쇠 11개, 방울 12개, 통개 14부, 도지개 2부, 긴 방패 51넝, 천자동철총통 1자루, 지자동철총통 3자루, 별양호리 1개, 약통 6개, 잠철 3개, 각자동철총통 100자루, 조총 10자루, 가죽을 누빈 그물집 10개, 귀약통 10개, 약승 10개, 약통 105개, 화승 10사리, 무쇠 대완구 3자루, 무쇠 중완구 10자루, 무쇠 진천뢰 12자루, 천자장군전 20개, 동자걸이전 2개, 현자 차대전 21개, 피령 중전 14개, 주자 피령 중전 14개, 목령전 50개, 승자 피령전 100개, 가늘고 긴 화살〔細長鏃〕 150개, 신기전 63개, 죽화전 30개, 당인전(唐人箭) 4개, 주자 화전 10개, 질러포 21개, 사질러포 10개, 유화창(流火鎗) 3개, 주화창(走火鎗) 30개, 화약 320근, 중약선 18사리, 소약선 52사리, 대발화 38개, 중발화 29개, 각자 총통 기목 대·중·소를 아울러 815개, 선혈 시우쇠몽치 5개, 연철환 3,019개, 정철환 1,173개, 중수철환 23개, 차수철환 103개, 소수철환 10,310개, 각자 무쇠몽치 3개, 각자 시우쇠기둥 6개, 큰 무쇠기둥 1개, 중 무쇠기둥 6, 당총통약승 1개, 방포 기목 6개, 화차 1부, 각자 약승 94개, 병목 13개, 방포바 14거리, 목노궁 5장, 목노궁 20떼, 목노 기목 5부, 궁노 10부, 당승자총통 기목 8부, 낫 10개, 마름쇠 2,167개, 차승자 기목 22개, 화약 가득 들어가는 나무통 83개, 약선이 들어가는 가죽 손가방 17부, 철환이 들어가는 가죽 손가방 27부, 주자 기목 4부, 요구쇠〔腰鉤金〕⁷⁵⁰⁾ 3개, 벌날개 겹 용두쇠 2개, 걸이쇠 2개, 굵은 방패 4넝, 각자 총통 기목 5개, 불방패 1넝】

기치고(旗幟庫) 【우위랑(右衛廊)에 있다. 좌독(坐蠶), 행독(行蠶), 형명(形名)⁷⁵¹⁾, 백수기(白帥旗)·황수기(黃帥旗)⁷⁵²⁾·표미기(豹尾旗)⁷⁵³⁾가 각 1면이 있다. 청도기

750) 요구쇠(腰鉤金)는 허리띠의 양쪽 끝을 마주 걸어 잠그는 자물 단추이다.

751) 형명(形名)은 고대 신호 체계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치(旗幟) 따위를 형(形)이라 하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징이나 북 따위를 명(名)이라 한다. 예컨대 군(軍)을 운용하는 법은 오직 깃발과 북일 뿐이다. 지휘관과 병사들이 귀로 다른 것을 듣지 않고 오직 징소리와 북소리를 들으며, 눈으로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오직 기치를 보아 '전진하라' 하면 전진하고, '멈춰라' 하면 멈추며, '동쪽으로 가라' 하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라' 하면 서쪽으로 나아가, 위엄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이익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가령 높은 관원과 귀한 신(神)이 '이리이리 하라'고 명령하더라도 결코 따르지 않으며 오직 한결같이 형명의 지휘를 보아 전군이 함께 한마음이 된다면 어떠한 적인들 죽이지 못하며 어떠한 공(功)인들 이루지 못하겠는가.

752) 백수기(白帥旗)·황수기(黃帥旗)는 넓은 마당에서 행하는 군사 조련(場操)할 때에 사용하는 기(旗)이다.

753) 표미기(豹尾旗)는 표범 꼬리 모양의 그림이 있는 기를 말한다. 표범 꼬리 모양의 표미기를 군중에 세우는 것은 표범의 위엄을 상징하여 사람들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이다. 더욱이 이 표미기를 세운 곳에는 한 사람도 함부로 엮되거나 제멋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하여 주장의 명령이나 영기(令旗)·영전(令箭)으로 부르지 않았는데 감히 제멋대로 들어온 자는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군법으로 저지하고 구속한다.

(淸道旗)⁷⁵⁴ · 금고기(金鼓旗)⁷⁵⁵가 각 2면이 있고, 영기(令旗)⁷⁵⁶ · 순시기(巡視旗)가 각 6면이 있다. 대오방기(大五方旗)⁷⁵⁷ · 중오방기(中五方旗)⁷⁵⁸가 각 5면, 문기(門旗)⁷⁵⁹ 10면, 각기(角旗)⁷⁶⁰ 8면, 고초기(高招旗)⁷⁶¹ 5면, 당보기(塘報旗)⁷⁶² 30면, 천총인기(千總認旗)⁷⁶³ 3면이 있다. 파총인기(把總認旗)⁷⁶⁴ · 고초기(高招旗)가 각 6면이 있고, 초관인기(哨官認旗)⁷⁶⁵ 30면, 기총기(旗總旗)⁷⁶⁶ 88면, 대총기(隊總旗)⁷⁶⁷ 262면이 있다.】

책판고(冊版庫) 【남성(南城) 안에 있다.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소학』, 『선묘어필초서(宣廟御筆草書)』⁷⁶⁸, 『사략(史略)』⁷⁶⁹ 『통감(通鑑)』⁷⁷⁰, 『전등신화(剪燈

- 754) 청도기(淸道旗)는 앞에서 인도하는 기를 말한다. 청도기는 행군시에 군의 선두에 잡고 가게 하여 부대를 인도하는 것이다. 더욱이 혼란할 때에는 장호적(掌號笛)과 난란히 말머리에 잡고 간다. 그리하여 장관(將官)과 기대총을 인도하여 장대(將臺)로 가서 발방(發放)을 듣도록 하며, 이것이 끝나면 다시 장관과 기대총을 인도하여 진영으로 돌아온다.
- 755) 금고기(金鼓旗)는 징과 북을 인도하는 기를 말한다. 더욱이 금고기는 모든 취타수(吹打手)들이 앉거나 일어나는 것과 전진하거나 멈추는 것을 모두 이 금고기의 신호에 따른다.
- 756) 영기(令旗)는 사방 1척이며 깃대의 길이는 4척인데 청색 바탕에 붉은 글씨를 쓰며, 위에는 창과 칼날을 단다. 영기는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다. 특히 각 군영에 경계 사항을 알리고 장수의 의사(意思)를 전달하는 것은 영기와 영전(令箭)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 757) 대오방기(大五方旗)는 위로는 하늘의 이치를 본뜨고 아래로는 물건의 형상(象)을 취하여 변화의 쓰임을 다 나타내었다.
- 758) 중오방기(中五方旗)는 다섯 장군의 얼굴을 그려 신명(神明)의 덕(德)을 통하게 하였다.
- 759) 문기(門旗)는 사방 5척이며 깃대의 길이가 12척이다. 중앙에는 날개 달린 범을 그리고 방위에 따라 각각 2개씩 마련하여 모두 10개를 준비하며, 기폭의 가는 모두 황색이고 위에 큰 구름무늬와 찬란한 쇠 칼날을 꽂는다. 게다가 자벽(子壁)의 문과 외루(外壘)의 네 문은 아침저녁 취타(吹打)하여 문을 열 때를 제외하고 일단 문을 닫은 뒤에는 반드시 영기(令旗)와 영전(令箭)이 있어야 비로소 문을 열며, 만약 영기와 영전이 없으면 가령 사자(使者)와 대장(大將)이 문밖에서 들어오려 하더라도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760) 각기(角旗)는 사방 4척이며 깃대의 길이는 12척이다. 동남쪽의 각(角: 귀퉁이)은 위가 청색이고 아래가 홍색인데, 나머지의 각도 이와 같다. 붉은 호리명박 모양의 장식품과 찬란한 쇠칼날이 있으며 위에 뚫린 구멍이 있어서 차간(叉桿)을 편리하게 하니, 이 또한 장병들이 출입하는 문이다.
- 761) 고초기(高招旗)는 자총(子層: 땅은 자(子)를 중앙으로 삼는 것으로서 곧 내진(內陣)을 칭한다)의 주장이 되니, 기병(騎兵)과 친위병이 모두 이에 따라 행동한다. 아간에는 등불을 보아 오방(五方)의 사용에 응한다.
- 762) 당보기(塘報旗)는 적세의 완급과 적군의 많고 적음을 반드시 제방 따위의 높은 곳에 올라가 자세히 관망한 뒤에 경보(警報)를 알리는 기를 말한다. 더욱이 당보기가 한번 움직이는 것을 보면 적의 군세를 즉시 살필 수 있으니, 이는 바로 사람을 통제하는 비결이요, 깃발로 신호하는 묘한 방법이다.
- 763) 천총인기(千總認旗)는 중심에 본방의 색깔을 얹히고 기폭의 가에는 영장(營將: 영장은 진영장(鎭營將)의 약칭(略稱)이다)을 응하게 하며 떠는 덕(德)을 응하게 한다. 게다가 떠는 통솔함과 뜻이 같다. 장령(將領)만이 인기(認旗)에 따라 있는 것은 영솔(領率)한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 764) 파총인기(把總認旗)는 중심에 본방의 색깔을 얹히고 기폭의 가에는 천총에 응하며 떠는 영장에 응한다.
- 765) 초관인기(哨官認旗)는 중심에 본방의 색깔을 얹히고 기폭의 가에는 파총에 응하며 떠는 천총에 응한다.
- 766) 기총기(旗總旗)는 기총(旗總)이 지휘하는 데 쓰는 기(旗)이다. 특히 기총(旗總)은 군대 조직 단위인, 한 기(旗)를 지휘하는 군관이다. 잡직으로 정8품이다. 더욱이 군대 조직으로는 1영(營)은 5사(司), 1사는 5초(哨), 1초는 3기(旗), 1기는 3대(隊), 1대는 한 마을의 군정을 단위로 하여 조직된다.
- 767) 대총기(隊總旗)는 대총이 그 상급 지휘관인 기총(旗總)의 명령을 받아 부하를 지휘하는 데 쓰는 기(旗)이다.
- 768) 『선묘어필초서(宣廟御筆草書)』는 선조대왕(宣祖大王)이 쓴 40폭(四十幅) 서첩(筆帖)이다. 조선지(朝鮮紙) 4절(四切) 크기에 대자(大字)로 써서 목판(木板)에 새긴 것을 인출(印出)한 것이다.
- 769) 『사략(史略)』의 원명은 『십구사략(十九史略)』인데 간단히 줄여서 『사략(史略)』이라고 한다. 『십구사략』은 원래 원(元)의 증선지(曾先之)가 『십팔사략(十八史略)』을 편찬하고, 명초(明初)의 여진이 원사(元史)를 증보하여 된 것이다.
- 770) 『통감(通鑑)』은 송(宋)의 강지(江贊)가 쓴 『통감절요(通鑑節要)』는 필삭(筆削)이 엄격하지 않아, 『자치통감(資治通鑑)』의 본지(本旨)를 곡해한 측면이 있음을 보고, 구연선사가 이를 안타깝게 여겨 사실(事實)을 증명하고 자의(字義)를 해

■ 耽羅誌草本(上)

新話)』771), 『동몽선습(童蒙先習)』772), 『격몽요결(擊蒙要訣)』773), 『상례비요(喪禮備要)』774), 『의례문해(疑禮問解)』775), 『예기천견록(禮記淺見錄)』776), 『신증유합(新增類合)』777), 『삼국지(三國誌)』, 『삼운통고(三韻通考)』778), 『영해창수록(嶺海唱酬錄)』779),

석하였다. 이는 마치 『춘추(春秋)』에 삼전(三傳)이 있는 것과 같다. 『통감(通鑑)』은 사마광(司馬光)이 쓴 『자치통감(資治通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보다 상세하게 풀이한 책이다.

771) 『전등신화(剪燈新話)』는 중국 문어체(文語體)의 단편 소설집이다. 명나라 학자 구우(瞿佑)가 지었다. 명나라 홍무 11년(1378)에 완성하였다. 원래 40권이었고 원명은 『전등록(剪燈錄)』이었다. 그 후 저자가 시화(詩禍)로 보안(保安)이라는 곳에 귀양 갔을 때 그의 저술의 대부분이 없어지고 『전등록』도 없어졌는데 뒤에 포강현윤(浦江縣尹) 호자양(胡子昂)이 그의 부하로부터 잔존한 4권을 입수하자 영락 19년(1421) 그것을 원저자 구우에게 교정을 받아 편집해서 『전등신화』라 게재하였다. 그 내용은 당나라 전기소설(傳奇小說)의 흐름을 이어 받아 몽환적(夢幻的)인 아름다움을 지닌 이야기가 많고 문체도 그와 어울리게 화려하다. 이 책은 조선 초기에 들어와 김시습(金時習)의 『금오신화(金鰲神話)』는 이를 모방하여 지었다.

772) 『동몽선습(童蒙先習)』은 명종 때 문신(文臣)이며 유학자(儒學者)인 박세무(朴世茂)가 서당에 처음 입학한 학동을 위하여 지은 책이다. 대개 먼저 『천자문(千字文)』을 배운 후에 다음 단계로 이 책을 교재로 사용하였다. 내용은 먼저 오륜(五倫)의 하나하나를 각분하며 그에 대한 해설을 붙였으며, 이어 총론(總論)에서 오륜(五倫)이란 인리(人理)의 자연적인 전칙(典則)으로서 사람의 모든 행실이 이에 벗어날 수 없다 하고, 효(孝)는 백행(百行)의 근원이 된다하여 사친(事親)의 도(道)와 절차를 대표적으로 들어 말하였다. 다음은 삼황오제(三皇五帝)에서부터 명(明)나라까지의 역대 사실과 우리나라 단군(檀君)에서부터 조선조(朝鮮朝)까지의 역사를 약술하고 국가의 흥망도 역시 인륜(人倫)에 좌우된다고 하였다. 이는 학동들의 필수적인 교양서적으로 그들을 이해시키는 데는 자체(字體)가 보다 쉽고 文句가 간명해야 됨으로 이에 편리하게 편찬한 것이다.

773) 『격몽요결(擊蒙要訣)』은 이이(李珥)가 1570년경에 낙향(落鄉)하여 있을 때 지은 것으로 젊은 소년들이 습득(習得)해야 할 기본적인 학문 입문서(學問入門書)이다. 선조 10년(1577) 처음 출간(出刊)되었다.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서술보다 간략하게 요점만을 들어 설명하였으니 상(喪)·제(祭) 등을 위시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예시해 놓았다.

774) 『상례비요(喪禮備要)』는 신의경(申義慶)이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원문을 위주로 하고 고금(古今)의 제가 예설(諸家禮說)을 참고하여 시용(時用)에 편리하도록 서술(敍述)한 책이다. 김장생(金長生)의 교정을 거치고 김집(金集)이 다시 수정, 증보하여 1권 1책의 목판본(木板本)으로 인조 26년(1648)에 간행하였다. 도설(圖說)에는 사당(祠堂)·신주(神主)·의금(衣衾)·상질(衰笠)·상구(喪具)·성분(成墳)·발인(發靱)·진찬(進饌) 등으로 가례도설(家禮圖說)과 대동소이 하며, 초상구(初喪具)·개상구(改葬具)·묘제구(墓祭具) 등의 모든 의식은 거의가 가례(家禮)와 같고 저자의 견해를 약간 첨부했을 뿐이다. 특히 축식(祝式)에 있어서는 가례(家禮)의 축식(祝式)과 같으며, 전체의식에서 가례(家禮)와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다.

775) 『의례문해(疑禮問解)』는 조선시대 예학자(禮學者)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이 예(禮)에 관한 문답을 적은 책이다. 책을 지은 목적은 당시 선비들의 모든 처신과 행사를 예에 맞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776) 『예기천견록(禮記淺見錄)』은 원(元)나라 진호(陳澠)의 『예기집설(禮記集說)』을 저본(底本)으로 하여 권근(權近, 1352~1409)이 자기의 설(說)을 덧붙인 예기(禮記) 해설서다. 26권 11책으로 태종 5년(1405)에 왕명(王命)으로 처음 간행되었다. 본래 목은 이증(牧隱 李穡, 1328~1396)이 예기(禮記)의 간편(簡編)을 다시 편집하고 문의(文義)를 변론(辨論)할 계획을 하였던 것이나 만년(晩年)의 질병으로 인해서 착수하지 못했다. 그의 문인(門人)인 권근(權近)이 은사(恩師)의 유지(遺旨)를 받들어 중국(中國)에서 귀국한 후 수년간 한거(閑居)하는 동안에 이 책의 저술(著述)을 결속(結束)시켰고 그 후 다시 성균관(成均館)에서 수년간 『예기(禮記)』를 강론(講論)하면서 얻은 견해(見解)를 가지고 다시 필삭(筆削)을 가해서 이 책의 편성(編成)을 완결시켰다. 그 후 숙종 31년(1705) 당시의 제주목사(濟州牧使) 송정규(宋廷奎)가 제주본(濟州本)에 약간의 보정(補訂)을 가하여 간행한 것이다.

777) 『신증유합(新增類合)』은 선조 조(宣祖朝)에 유희춘(柳希春)이 약 1,500자(字)를 더 보태 3천자(字)로 만들었다. 본래『유합(類合)』은 아동들이 한자를 쉽게 배우기 위해 만든 교본(敎本)이다. 전21장으로 한자(漢字) 1512자를 수록한 목판본(木板本)이다. 기술 방법(記述方式)은 전혀 절(節)·항(項)의 분류가 없이 전부가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한자(漢字)는 의미내용(意味內容)에 따라 유별(類別)되어 6자 구절(字句切)의 문장(文章)으로 되어 있다. 모자(母字)에 정음(正音)으로 훈(訓)과 음(音)을 달았다.

778) 『삼운통고(三韻通考)』는 조선 시대에 편찬된 운서(韻書)이다. 중국의 106운(韻)계 『예부운략(禮部韻略)』〈금(金)나라 왕문도(王文都)가 지은 신간운략(新刊韻略) 계통을 우리나라 사람이 이용하기 편하게 개편한 것으로, 편자와 연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 내용은 평·상·거·입성 등 사성(四聲) 순으로 한자를 배열한 106운계 『예부운략』을 우리나라 사람이 이용하기 쉽도록 같은 운을 가진 평·상·거성 한자들을 한데 모아 3계단으로 나열하고, 입성자만 책 끝에 따로

『밀산세고(密山世稿)』⁷⁸⁰, 『옥호빙(玉壺氷)』⁷⁸¹, 『목민심감(牧民心鑑)』⁷⁸², 『천자문(千字文)』⁷⁸³, 『춘종첩(春種帖)』⁷⁸⁴, 『안진경첩(顔眞卿帖)』⁷⁸⁵, 『주자(朱子)』가 쓴 『경재잡(敬齋箴)』⁷⁸⁶, 『석봉첩(石峰帖)』⁷⁸⁷, 『설봉첩(雪峰帖)』⁷⁸⁸, 『전천자문(篆千字文)』⁷⁸⁹, 『태사공필(太史公筆)』, 「탐라지도(耽羅地圖)」⁷⁹⁰, 『마의방(馬醫方)』⁷⁹¹, 『탐라지(耽羅誌)』⁷⁹², 『병학지남(兵學指南)』⁷⁹³, 『삼략(三略)』⁷⁹⁴, 『염

모아 나열하는 방식을 취했다.

- 779) 『영해창수록(嶺海唱酬錄)』은 중종 35년(1540) 11월에 제주목사로 부임한 조사수(趙士秀)가 중종 36년(1541) 3월에 체임될 때까지 박충원(朴忠元)과 시문(詩文)을 지어 서로 주고받은 내용을 박충원의 5대 후손인 제주목사 박성석(朴星錫)이 숙종 28년(1702) 정월 일에 제주영(濟州營)에서 책으로 간행한 것이다.
- 780) 『밀산세고(密山世稿)』는 박창원의 아들인 박계현(朴啓賢)의 지은 책이다. 그 내용은 알 수가 없다.
- 781) 『옥호빙(玉壺氷)』은 중국 명나라 도목(都穆)이 찬(撰)한 것이다. 1책이며 2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782) 『목민심감(牧民心鑑)』은 지방관의 정신 자세가 목민활동(牧民活動)의 원칙을 제시한 책이다. 저자는 중국 명나라 호광헌첩(湖廣憲僉)을 지낸 주봉길(朱逢吉)이며 명나라 영락(永樂) 2년(1402)에 간행되었다. 조선에서는 태종 12년(1412)에 권수(權綬)와 김명리(金明理)가 간행하였다. 내용은 지방관이 처음 관직을 제수 받았을 때 지녀야 할 마음이 짐, 갖추어야 할 소양, 부임 초기에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 및 풍속 교화, 소송 처리, 부세 및 역역(力役)의 동원 등 재직 중 행해야 하는 치민(治民) 업무의 원칙과 근무 태도, 상사(上司)와의 관계 유지, 기근 대책, 인수인계시 유의 사항 등에 대해 104개 항목으로 나누어 상술하였다.
- 783) 『천자(千字)』는 『천자문(千字文)』을 이른다.
- 784) 『춘종첩(春種帖)』은 『설암춘종첩(雪菴春種帖)』을 말한다. 『춘종첩』은 원(元)나라 성종(成宗) 2년(1296)에 이부광(李傅光)이 쓴 서첩(書帖)이다. 내용은 하나의 벼 낱알이 뿌리고 경작하여 추수하게 되면 집과 나라가 살지게 되는 과정을 정리한 서첩이다.
- 785) 『안진경첩(顔眞卿帖)』은 당(唐)나라의 충신(忠臣)이며 해서(楷書)와 초서(草書)를 잘 썼던 서예가(書藝家)인 안진경이 쓴 서첩(書帖)이다.
- 786) 『경재잡(敬齋箴)』은 주자(朱子)가 장경부(張敬夫)의 『주일잡(主一箴)』을 보고 만든 것인데 그 후 김화(金華)의 왕백(王柏)이 동(同) 『경재잡(敬齋箴)』을 도식화(圖式化)하였다.
- 787) 『석봉첩(石峰帖)』은 조선 중기(朝鮮中期)의 대가(大家)며 한국 서예(書藝)의 대표적인 존재로 일컬어지는 석봉(石峯) 한호(韓濩, 1543~1605)의 서첩(書帖)이다. 그의 행(行)·초사(草書)를 모각(摹刻) 탁본(拓本)한 것으로, 사방(四方) 1.3치(寸)정도 크기의 글자 약 30자(字)씩 든 필첩(筆帖) 10매가 수록되었다. 각판(刻版)은 음각(陰刻)이다.
- 788) 『설봉첩(雪峰帖)』은 강백년(姜栢年, 1603~1681)의 서첩(書帖)이다. 강백년(姜栢年)의 자(字)는 숙구(叔久), 호(號)는 설봉(雪峯)·한계(閑溪)·청월헌(聽月軒), 진양인(晉陽人)이다. 그의 시(詩)는 고초청려(孤峭淸麗)하다. 그는 처세에는 근신(謹愼)하였으나 흉중(胸中)에는 웅도(雄圖)도 있고 대지(大志)를 품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그도 늘 근신한 처세로 그러한 흉중(胸中)을 은폐시켜 갔을 따름이다. 결국 그러한 것의 조절이 빈번(頻繁)한 시작(詩作)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응제문(應製文) 및 일과문(日課文) 제편(諸篇)은 과식(誇飾)에는 별로 힘을 들이지 않고 골격이 살려져 있는 것이 특색이다. 그의 문장(文章)은 산체(散體)로 된 서(序)·발(跋)·설(說)·기(記)에 볼 만한 것이 있다. 고문(古文)은 구성이 짜여 있고, 서술의 간박(簡樸)하여 허찬(虛讚)내지는 고의작태(故意作態)한 흔적(痕跡)이 없다.
- 789) 『전천자문(篆千字文)』은 한자의 고대 서체(書體) 하나인 전서(篆書)로 쓰인 천자문(千字文)이다.
- 790) 「탐라지도(耽羅地圖)」는 숙종 35년(1709) 정월에 제주목사 이규성(李奎成)이 만든 지도이다. 이 「탐라지도(耽羅地圖)」는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단과 하단에는 제주도의 지리적 상황을 기록하였으며 중간에는 제주도를 목판으로 새겼다.
- 791) 『마의방(馬醫方)』은 말(馬)에 관련된 의학 지식을 집대성한 책이다. 이 책은 말의 생육과 병 치료의 관련된 지식을 모은 것이다.
- 792) 『탐라지(耽羅誌)』는 효종 4년(1653)에 제주목사 태호(太湖) 이원진(李元鎭)이 고흥진(高弘進)의 도움을 받아 편찬한 제주목(濟州牧)·대정현(大靜縣)·정의현(旌義縣)의 읍지(邑誌)이다.
- 793) 『병학지남(兵學指南)』은 16세기 중기의 명(明)나라 장수 적계광(戚繼光)이 지은 『기효신서(紀效新書)』에서 군대의 조련 방법에 관한 부분을 요약하여 만든 우리나라의 병서(兵書)이다.
- 794) 『삼략(三略)』은 진(秦)나라 말기 황석공(黃石公)이 태공(太公) 여상(呂尙)의 방법을 부연하여 전한(前漢) 시대의 개국 공신인 장량(張良)에게 전수하여 준 것으로 알려진 병서(兵書)이다. 상략(上略)·중략(中略)·하략(下略) 등 모두 세 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략편은 정치의 큰 도리와 군 운용의 기본 법칙을 논한 것이다. 중략 편에서는 상략편에서 언

■ 耽羅誌草本(上)

초신방(焔硝新方)』⁷⁹⁵⁾, 『첩해신어(捷解新語)』⁷⁹⁶⁾ 등이 있다. 모든 판각은 태반이 썩었다. 또한 많이 잃어 버려[闕失]서 인쇄할 수 있는 것이 적다.】

군액(軍額)

천총(千總) 3인, 파총(把總) 6인, 초관(哨官) 40인, 성장(城將) 4인, 치총(雉總) 34인, 가솔(假率) 108인, 기패(旗牌) 108인, 마병(馬兵) 1,410명 【제주 928명, 대정 242명, 정의 242명】, 아병(牙兵) 528명 속오군(東伍軍) 3,930명 【제주 3,090명, 대정 240명, 정의 600명】, 성정군(城丁軍) 359명, 대기수(大旗手) 659명, 차비군(差備軍) 584명, 배행군(陪行軍) 366명, 나장(羅將)·취수(吹手)·뇌자(牢子) 합계 296명 【방영(防營) 240명, 목관(牧官) 56명】

노비(奴婢)

관노(官奴) 43명, 관비(官婢) 29명, 교노(校奴) 8명, 교비(校婢) 7명, 서원노(書院奴) 5명, 서원비(書院婢) 2명, 삼성사노(三姓祠奴) 3명, 삼성사비(三姓祠婢) 2명.

공장(工匠)

타공(舵工 : 뱃사공) 【진상할 공물(貢物)을 실어 나를 때, 차례로 돌아가며 배정되어 운

급한 통치자의 덕목과 권변을 구체화하여,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 차례로 논하고 삼황오제 시대의 통치술의 시대적 변천에 따라서 민심의 향배가 어떻게 변하였으며 백성과 신하를 제어하는데 유리한 정략(政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하략편에서는 국가의 안위를 좌우하는 내면적 최고 규범으로서 도덕률을 언급하고 있다.

795) 『염초신방(焔硝新方)』은 화약(火藥, 焔硝)에 관해서 새로운 처방(處方)이 적혀진 책이다.

796) 『첩해신어(新方捷解新語)』는 강운성(康運聖)이 편찬하여 숙종 2년(1676)에 사역원(司譯院)에서 간행(刊行)한 일본어 학습용(日本語學習用) 교재이다. 그 일본어(日本語)가 「신어(新語)」로 불리운 까닭은 태종 15년(1415)에 사역원(司譯院)을 설치하고 처음 한(漢)·몽학(蒙學)만을 개설하였으나 후에 왜학(倭學)이 새로이 개설됨으로써 「신어(新語)」 또는 「신학(新學)」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 책의 편찬 목적은 당시 역관(譯官)들에게 일본어(日本語)를 가르쳐 일본(日本)과의 교역(交易) 및 접대(接待)에 일본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체제는 일본 문자(日本文字)를 대자(大字)로 쓰고 그 오른쪽에 한글로 발음을 적어 놓았다. 그리고 구절(句節)을 나누어 우리말로 풀이를 하였다. 대부분이 대화체(對話體)로 이루어져 있다.

송하는 사람을 격군(格軍, 결군)이라 한다.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이 160인이다. 현재의 숫자는 단지 30인이다.】

포작(鮑作 : 보재기) 【진상할 추복(搥腹)과 인복(引腹) 및 관청에서 쓰는 물고기와 전복은 모두 보재기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였다. 지금은 진상품은 솜씨가 월등한 지방 관청의 예방(禮房) 관리들에게 값을 주어서 사 바치도록 하였고 관용(官用)은 사사로이 구매하였다.】

염한(鹽漢 : 소금바치) 【제주목의 두모(頭毛), 대정현의 일과(日果), 정의현의 종달(終達) 등 세 곳에서 소금을 만들었다. 관청 가마에서는 매 달 두 말을 거두었고, 개인 가마에서는 한 말을 거두었다.】

장인(匠人 : 기술공) 【군기청(軍器廳)과 공고(工庫)에는 여러 가지 장인의 명색(名色)이 있었으나 지금은 빠진 정원이 많다.】

인물(人物) 【효열(孝烈) · 충의(忠義)】

효자(孝子)

김칭(金秤) 【김녕 마을 사람이다. 아전의 일을 맡아 관문(官門)에 있을 적에 그의 어머니가 종기를 앓아 기절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갓을 벗고 맨발로 달려가 집에 도착하자 하루 사이에 두 번이나 자신의 정강이 살을 베어 피를 내어 술에 타 어머니에게 드렸더니, 어머니가 소생하여 마침내 20여년을 봉양하였다. 성화(成化) 정미년(성종 18년, 1487)에 정문(旌門)을 내렸다.】

진대석(秦大石) 【보병으로 어머니를 봉양하여 효성이 지극하였다. 모친은 각기병이 있어서 앉거나 설 때에는 남에게 의지하여야만 하였다. 진대석이 번을 서기 위해 들어갈 때에는 어머니를 업고 성까지 와서 쌀을 구걸하여 공양하였고, 번을 서고 물러날 때에는 업고서 돌아와 아주 맛 좋은 음식을 마련해 드렸다. 처자가 두면 모친을 공양하는데 전념하지 못할까 두려워 종신 장가를 들지 않고 손수 밥을 지어 올렸다. 숭정(崇禎) 7년(인조 12년, 1634)에 정려를 내렸다.】

고찬원(高贊元) 【역시 보병으로서 집이 가난하였으나 어머니를 받들어 효도를 하였다. 어머니를 업고 구걸하였는데 종신토록 게을리 하지 않았다.】

박계곤(朴繼崑)⁷⁹⁷ 【아버이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기었다. 일찍이 무인도에서 파선(破船)되자 배의 널빤지에 아버지와 이별하는 두어 마디 말을 쓰고 하늘에 축원하며 바다에 띄우니, 하루도 되기 전에 밀물에 밀린 널빤지가 그의 집 문 앞에 이르렀다. 이것을 본 그의 부친이 급히 관가에 알리자 배를 보내어 싣고 돌아왔다. 사람들은 효성에 감동한 소치라고 하였다. 경자(숙종 46년, 1720) 인산(因山, 숙종 승하) 때에는 도민들에게 능역(陵役)에 참여할 것을 제창하였다. 정조 갑인년(정조 18년, 1794)에 어서 심락수(沈樂洙)가 장계(狀啓)를 올리자 정려(旌閭)를 명하였다. 목사 이원조(李源祚)가 그의 전기를 지었다.】

고윤문(高允文) 【목자(牧子)이다. 어머니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기었다. 사람들이 혹 장가들 것을 권하면, 말하기를 “만일 아내를 맞이해서 어머니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홀아비로 살면서 어머니의 뜻을 받드느니만 못하다.”라고 하여, 종신 장가를 들지 않았다.】

이필완(李弼完)⁷⁹⁸ 【기관(記官)이다. 유복자로 어머니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기었다. 그의 어머니가 쇠고기를 먹지 않아서 돌아가신 뒤에는 꿩과 닭고기로 제사를 지냈다. 하루는 묘제에 쓸 꿩을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 날던 매가 묘 앞에서 꿩을 치니 사람들이 모두 그의 효성에 감동한 것이라고 하였다. 정조 신축년(1761년, 정조 6) 어사 박천형(朴天衡)이 장계를 올려 보고하자 가선대부(嘉善大夫)로 가자(加資)하고 그의 집에 부역을 면제하였다.】

김옥(金玉) 【시비(寺婢)로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늙으신 시아버지를 받들어 봉양하였는데, 뒷사람을 생전에 잘 모시고 사망한 뒤에 정중히 장례를 지내는 데에 정성과 예의를 다하였다. 효부(孝婦)로 칭송되었다.】

열녀(烈女)

천덕(天德)⁷⁹⁹ 【시비(寺婢)로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아침저녁으로 음식을 올리며 애

797) (1675~1731), 한림읍 웅포리 태생, 숙종 36년(1710) 12월에 연리(椽吏, 아전)로서 목사 최계옹(崔啓翁)을 따라 진상품을 싣고 항해하던 중에 사서도(斜鼠島)에서 파선, 널조각에 글을 써 띄웠더니 신기하게도 웅포리 포구에 떠내려 오자 알게 되어 당시 목사 백시구(白時耆)는 배 세 척을 사서도에 보내어 구명하였다. 한편 1720년 6월 숙종이 승하하자 동년 10월에는 능역에 참가, 능역 노래를 선창하면 제주인 35명이 웅창하고 특히 도두리 남호현(南浩鉉)의 창이 좋아 크게 위로되었다. 이에 인원대비(仁元大妃)가 별감을 보내어 여러 물건을 하사해 주셨다.

798) (1697~1785), 본관은 경주, 한림읍 선돌(현 대림) 사람, 아버지에 대하여 추복(追服)하고 정조 52년(1776) 정조가 승하하자 80세 노구로서 능역에 참가하다.

799) (1514~?), 김씨, 애월읍 광지리 김연근(金連根)의 아내, 백호(白湖) 임제(林悌)가 제주에 들어와 목사인 아버지에게 과거급제를 알리려고 했다. 당시 목사는 임진년(林晉)이었다. 임백호는 이 때 뛰어난 문장으로 「김천덕전」을 지어 오늘에 전해진다.

도와 정성으로 대소상을 마쳤으며, 3년 뒤에도 오히려 삭망제를 지내었다. 그 고운 맵시에 반하고, 또 재물을 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혹 관기에 솟장을 올려 위협하기도 하고 혹은 그녀의 부친을 설득시켜 이권(利權)으로 유인하였으나 그녀는 죽기를 맹세하여 머리를 깎고 목을 매어 거의 죽을 번 하였으나 다시 소생하여 종신 절개를 지키었다. 만역(萬曆) 5년(선조 4년, 1571)에 정문을 내렸다.】

국기[國只] 【사비(私婢)이며 품관(品官) 홍질(洪質)의 첩이었다. 일찍이 과부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권세로 그녀를 겁탈하려고 하자 그는 하던 일을 포기하고 남편의 일가집으로 거처를 옮겨 종신 절개를 지켰다. 숭정(崇禎) 7년(인조 12년, 1634)에 정문을 내렸다.】

오 씨(吳氏)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남편과 함께 같은 무덤에 묻혔다.】

주 조이[周召史] 【방군(防軍)인 고거상(高舉常)의 아내이다. 남편이 죽자 힘을 다하여 영장(營葬)을 치렀는데, 일을 시작할 때에 두 개의 혈(穴)을 파게 하였다. 그녀의 자녀들은 언니에게 맡기고 목을 매어 죽었다. 같은 날에 남편과 함께 같은 무덤에 묻혔다.】

홍 조이[洪召史] 【제주목의 아전인 김창욱(金昌旭)의 아내이다. 남편의 병이 심해지자 차마 기다릴 수만은 없어서 목을 매어 먼저 죽었다.】

유진(有眞) 【양인(良人) 김창백(金昌白)의 아내이다. 나이 21세에 과부가 되었는데 그녀의 어머니가 딸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 딸의 뜻을 바꾸려고 하자 즉시 남편의 무덤에 가서 땅을 파고 머리를 풀어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

양 씨(梁氏) 【남편이 병이 들자 밤낮으로 하늘에 축원하며 자기 몸으로 대신하기를 원하였다. 남편이 죽는 날에 문을 닫고 음식을 끊어 죽으니, 남편과 함께 같은 무덤에 묻혔다.】

박 조이[朴召史] 【제주목의 아전인 손처권(孫處權)의 아내이다. 남편이 모진 병을 얻어 죽자 즉시 처마에 스스로 목을 매니, 남편과 함께 같은 무덤에 묻혔다.】

김 씨(金氏) 【남편이 죽은 날에 자식을 노비에게 맡기고 식음을 전폐하고 자결하였다.】

박 씨(朴氏) 【호자 박계곤(朴繼崑)의 딸이다. 젊어서 과부가 되어 종신 절개를 지켰다.】

충비(忠婢)

고소락[古所樂] 【열녀 박씨의 비(婢)이다. 그의 주인이 정절에 감화되어 종신 시집을 가지 않고 몸을 깨끗이 하여 주인을 섬겼다. 정조 갑인년(정조 18년, 1794)에 충(忠)·

효(孝)·열(烈) 세 정려를 내렸다.】

의기(義妓)

만덕(萬德)⁸⁰⁰ 【양가(良家)의 딸로 기적(妓籍)에 이름을 기탁하였다. 생신(生身 : 몸)을 잘 다스려 수천 금을 이루었다. 갑인년(정조 18년, 1794)의 큰 흉년을 당하여 자신의 재산을 모두 다 방출하여 굶주리는 사람들을 진휼하였다. 정조는 이 사실을 듣고 가상히 여겨 수령에게 명하여 소원을 물어보게 하였더니, 그녀는 왕도(王都 : 서울)와 금강산을 한 번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였다. <이에 임금은> 말을 지급하여 서울로 들어오게 하였다. 곧 내의녀(內醫女: 내의원의 벼슬)를 붙여 차비문(差備門) 밖에서 불러 보고 상을 매우 후하게 주었다. 역말을 타고 아침·저녁으로 날라다주는 음식을 먹으며 금강산을 유람하고 도로 서울에 이르렀다가 본토(本土, 제주)로 돌아왔다. 상국(相國 : 領議政) 채제공(蔡濟恭)이 그녀의 전기를 지어 제주로 보내었다.】

과환(科宦)

고려조(高麗朝)

고유(高維)⁸⁰¹ 【빈공(賓貢 ; 외국인 대상)으로 과거에 합격하여 벼슬이 우복야(右僕射)에 이르렀다. 고씨(高氏)로서 고려 왕국에 처음 벼슬한 사람은 유(維)로부터 비롯되었다.】

고조기(高兆基)⁸⁰² 【고유(高維)의 아들로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정당문학(政堂文學) 참지정사(叅知政事)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郎平章事)에 이르렀다.】

800) (1739~1812), 본관은 경주, 구좌읍 동북리에서 김응열(金應悅)의 딸로 태어났다. 외숙댁에 기탁되어 10세에 제주 성안 무근성의 퇴기(退妓) 월중선(月中仙)에 의지하여 일시 기적(妓籍)에 올랐었다. 남편 고선흠(高善欽)이 죽자 산짓골에서 객관(客館)을 차려 돈을 벌며 더구나 말총·미역·전복·양태 등 특산물을 서울로 무역하며 큰 부자가 되었다. 1790년(정조 14)부터 5년간 연속 흉년이 들어 1차로 2백 섬의 보리를, 또 이어 5백 섬의 감자와 보리를 내놓아 삼성혈 목에 큰 가마 10여개를 걸어 죽을 췌어 기아자를 살려낸 의인이다. 1977년 1월 사라봉 모충사에 그녀의 묘를 옮겨 '구휼 의인 김만덕 기념탑'을 세워 흠모하고 있다.

801) 고려 문종 때의 문신, 문종 11년(1057) 우습유(右拾遺)로, 또 문종 24년(1070) 동북로 병마부사에 임명, 이듬해 비서소감(秘書少監)에 임명되었다.

802) (1088~1157), 고려 의종 때의 문신, 권판병부사, 참지정사 판병부사를 거쳐 의종 3년(1149) 중서시랑 평장사, 판리부사를, 또 의종 5년(1151) 중군 병마판사 겸 서북병마판사로 임명되었다. 그의 작품으로 '진도 벽파정(碧波亭)'이란 시가 전해진다.

고적(高適)⁸⁰³ 【고조기(高兆基)의 손자로 제주 유충관(留摠官)이 되었다.】

본조(本朝, 朝鮮)

고득중(高得宗)⁸⁰⁴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한성 판윤(漢城判尹, 지금의 서울특별시)에 이르렀다.】

고태필(高台弼)⁸⁰⁵ 【고득중의 아들로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개성 유수(開城留守)에 이르렀다.】

고태정(高台鼎)⁸⁰⁶ 【고태필의 아우로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봉상시정(奉常寺正)에 이르렀다.】

김양필(金良弼)⁸⁰⁷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여 벼슬이 교수(教授)에 이르렀다.】

강치황(姜致瓚)⁸⁰⁸ 【주부(注簿)로 선무원종공신(宣茂原從功臣)에 제수(除授)되었다.】

강한중(姜翰宗)⁸⁰⁹ 【사과(司果)로 영국원종공신(寧國原從功臣)에 제수되었다.】

김용호(金用瑚)⁸¹⁰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방답첨사(防踏僉使)에 이르렀다.】

오섬(吳暻)⁸¹¹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장흥부사(長興府使)에 이르렀다.】

김진용(金晉鎔)⁸¹² 【생원시에 합격하여 벼슬이 참봉(參奉)에 이르렀다.】

803) 고려 후기의 문신, 원종 때의 과거에 급제하고 삼별초의 패배 한 뒤에 유충관에 임명되어 제주를 안무하였다.

804) (1388~1460), 세종 때에 한성부 판윤을 역임하고 효행이 뚜렷하다. 자는 자부(子傅), 호는 영곡(靈谷), 조천읍 교래리에서 고봉지(高鳳智)의 아들로 태어나 오현단 앞에 살았다. 일본 통신사로, 또 명나라에 성절사(聖節使)로 외교에 힘쓰고 특히 세종이 소갈증과 안질에 쓸 약재를 얻어 왔다. 세조 6년(1460) 원종(原從) 3등 공신으로 등재되고 시호는 문충(文忠)이었다.

805) 세조·성종 때의 문신, 영국 고득중(高得宗)의 장남, 세조 원년(1455) 좌익원종공신 2등에 등재되었다. 특명에 의해 가선대부에 승진, 곧 행 부호군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세조 14년(1468) 이조 참판으로 야인(野人) 정벌에 유공, 왕으로부터 1백냥을 하사받았다. 전라도와 황해도 관찰사 역임, 성종 10년(1479) 한성부 좌윤이 되었다.

806) 세조·성종 때의 문신, 영국 고득중의 차남, 1459년(세조 5) 문과에 장원급제, 편수관·장학원정이 되고 성종 원년(1470) 상의원정(尙衣院正), 성균관 사성이 되었다.

807) 중종 때의 문인, 본관 경주, 제주시 영평리 태생, 생원시에 합격, 충암 김정(金淨) 유배 때 교유하며 칭찬을 받았다. 필원(筆苑)으로 알려져 붓글씨로 유명했다.

808) (1549~1599), 선조 때의 무신, 본관은 대원, 주부 강수황(姜受瓚)의 아우, 1579년 형제가 동방급제, 특히 임진왜란에 큰 공을 세워 공신에 등재되었다.

809) (1605~1668), 본관은 진주, 제주시 월평리 태생, 인조 21년(1643) 관속을 거느리고 공물(貢物)을 수송하던 중 흉도들을 물리쳐 충의위(忠義衛) 사과(司果)로 제수되었다. 인조 22년(1644) 무과에 급제 통영의 비포 만호, 훈련원 판관을 역임, 영국원종공신(寧國原從功臣)으로 등재하였다.

810) (1551~1601), 본관은 나주, 애월읍 엄장리 태생, 건공장군 김성조(金成祖)의 아들이다. 임진왜란 때 전공을 세워 순천의 방답진(防踏鎭) 첨절제사를 역임하였다.

811) (1585~?), 본관은 군위, 제주시 아라동에서 태어나 광해군 10년(1618) 사마시에 합격, 인조 2년(1624) 증판 문과에 급제, 선산부사와 장흥부사를 역임, 강원도감사를 지냈고 만년에 전북 부안현으로 이주하고, 변산반도의 석포촌(石浦村)에서 죽어 묻혔다.

812) (1605~1623), 본관은 광산, 구좌읍 한동리에서 태어나 제주시 봉개리 명도암 마을로 옮겨 살았다. 아들 계룡(繼隆)과 계창(繼敞)도 문과 급제자이다. 유배인 간옹(艮翁) 이익(李翼)에게 고흥진과 함께 글을 배웠다. 인조 13년(1635) 진사

- 고홍진(高弘進)⁸¹³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전적(典籍)에 이르렀다.】
 문영후(文榮後)⁸¹⁴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곡성(谷城)현감에 이르렀다.】
 김계창(金繼敞)⁸¹⁵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전적(典籍)에 이르렀다.】
 김계룡(金繼隆)⁸¹⁶ 【진시시(進士試)와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감찰(監察)에 이르렀다.】
 김계흥(金繼興)⁸¹⁷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감찰에 이르렀다.】
 고기종(高起宗)⁸¹⁸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 정자(正字)에 이르렀다.】
 정희관(鄭希寬)⁸¹⁹ 【문과에 급제하여 유곡(幽谷) 찰방이 되었는데, 회방(回榜, 과거에 급제한 지 예순돌)에 참판 벼슬이 참판에 가자(加資)되었다.】
 정창원(鄭敞遠)⁸²⁰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단암(丹巖) 찰방에 이르렀다.】
 김창백(金昌白)⁸²¹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벽사(碧沙) 찰방에 이르렀다.】
 양유성(梁有成)⁸²²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보성군수(寶城郡守)에 이르렀다.】
 고만갑(高萬甲)⁸²³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고원(高原) 군수에 이르렀으며, 분무원

시에 합격, 인조 21년(1643) 숙녕전(肅寧殿) 참봉에 임명되었으나 후생을 가르치려고 이를 사양하였다. 오현단 쪽에 장수당(藏修堂)이라는 교육기관을 세워 교학에 진력하다. 후인들은 ‘명도암선생’이라 하고 칭송하기를 “명경결행(明經潔行)이요 남방유종(南方儒宗)이다.” 하였다. 순조 31년(1831) 처음 영혜사(永惠祠)에 추향, 인조 27년(1849) 고득중(高得宗)과 함께 향현사(鄉賢祠)로 이안(移安)하였다.

- 813) (1602~1682), 현종 때의 문신, 일명 고봉래(高逢萊), 제주시 이호리 오도룡 마을에서 태어났다. 유배 온 간옹(艮翁) 이익(李翼)의 문하에서 김진용과 함께 배웠다. 현종 7년(1666) 문과에 급제, 곧 성균관 전적을 지내고 목사 소두산(蘇斗山)과 교유, 증손 만침(萬瞻)과 만갑(萬甲)도 문과에 급제, 풍수지리에 능하여 탐라사절(耽羅四絶)이 하나로 송양받았다.
- 814) (1629~1684), 숙종 때의 문신, 애월읍 어음리 ‘부맨이’ 마을에서 태어났다. 현종 7년(1666) 문과에 급제, 전라도 남원의 오수 찰방과 곡석 현감을 지냈다. 숙종 10년(1684) 제주 교수로 임명, 시문과 글씨에 능하고, 천문에 조예가 깊고 복서(卜筮)를 잘해 탐라사절의 하나라고 하였다.
- 815) (1637~1699), 숙종 때의 문신, 본관 광산, 제주시 봉개리에서 참봉 김진용의 6남으로 태어났다. 현종 14년(1673) 문과에 급제, 성균관 전적이 되고 친형 계룡(繼隆)이 전남 장흥군의 벽사(碧沙) 찰방이었다.
- 816) (1632~1690), 숙종 때의 문신, 본관 광산, 찬남 김진용의 4남으로 태어나 애월읍 광령리에 살았다. 현종 4년(1663) 진사시에 합격, 이어 1673년(현종 14) 문과 급제, 아우 계창(繼敞)과 동방급제, 전남 고흥의 벽사 찰방, 예조 정랑 등 역임, 굴림서원(橋林書院) 원장으로 후진 육성에 진력하였다.
- 817) (1647~1701), 숙종 때의 문신, 본관은 광산, 구좌읍 한동리에서 태어났으며 참봉 김진용의 조카이다. 숙종 2년(1676) 문과에 급제, 사헌부 감찰에 임명되었다. 후일 남학의 교수로 교육에 진력하였다.
- 818) (1632~?), 숙종 때의 문신, 구좌읍 한동리 ‘방축마을’을 설촌, 숙종 2년(1676) 문과에 급제, 성균 정자(正字)를 지냈다. 고기종의 부친 고수형(高壽亨)은 참봉 김진용(金晉鎔)과는 처남매부 사이이다.
- 819) (1662~1751), 영·정조 때의 제주 교수, 본관은 동래, 구좌읍 상도리에서 태어났다. 아들 창선(敞選)도 문과에 급제, 숙종 7년(1681) 문과에 급제, 경상도 문경의 유곡(幽谷) 찰방 역임, 숙종 10년(1684) 제주 교수로 임명되어 교육에 진력, 영조 16년(1740) 회방연(回榜宴)으로 병조판서에 추증되었다.
- 820) (1667~?), 숙종 때의 문신, 본관 동래, 구좌읍 상도리 태생, 숙종 33년(1707) 문과에 급제, 전라도 장성의 청암(靑巖) 찰방을 지냈다.
- 821) 무과에 급제, 전라도 장흥군의 벽사(碧沙) 찰방을 역임하였다.
- 822) (1684~1761), 영조 때의 무신, 제주시 화북동 ‘거로 마을’에서 태어났다. 숙종 38년(1712) 무과에 급제, 영조 36년(1760) 그의 건의에 의해 급제선생안을 작성, 전라도 보성군수를 역임하다.
- 823) (1681~?), 영조 때의 문신, 해남현감 고만침과는 종형제 사이이다. 숙종 42년(1717) 문과에 급제, 경종 원년(1721) 성균관 학유로 등용, 성균관 전적과 사헌부 감찰, 예조 정랑 등을 역임하다. 영조 4년(1728) 무신란(戊申亂)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워 분무원종(奮武原從) 공신으로 등재되다.

중공신(舊武原從功臣)에 제수되었다.】

정창선(鄭敞選)⁸²⁴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고성현령(固城縣令)에 이르렀다.】

원현도(元顯道)⁸²⁵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동지(同知)에 이르렀다.】

변시중(邊是重)⁸²⁶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흥덕(興德) 현감에 이르렀다.】

고처량(高處亮)⁸²⁷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진해(鎭海) 현감에 이르렀다.】

김계중(金繼重)⁸²⁸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전적(典籍)에 이르렀다.】

양덕하(梁德夏)⁸²⁹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성균관 직강(成均館直講)에 이르렀다.】

이수근(李壽根)⁸³⁰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강령(康嶺) 현감에 이르렀다.】

이구성(李九成)⁸³¹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삼례(參禮) 찰방에 이르렀다.】

김형중(金衡重)⁸³²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에 이르렀다.】

변성운(邊聖運)⁸³³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주서(注書)에 이르렀다.】

변성우(邊聖遇)⁸³⁴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삼례(參禮) 찰방에 이르렀다.】

장한철(張漢喆)⁸³⁵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대정(大靜) 현감에 이르렀다.】

김용(金壙)⁸³⁶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예조좌랑(禮曹佐郎)에 이르렀다.】

변성보(邊聖輔)⁸³⁷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감찰(監察)에 이르렀다.】

824) (1683~1746), 영조 때의 문신, 구좌읍 상도리에서 교수 정희관(鄭希寬)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숙종 43년(1717) 문과에 급제, 숙종 44년 일본 대마도로 표도(漂到), 숙종 46년(1720) 전직, 이어 고창현감, 영조 8년(1732) 옥구 현감, 영조 20년(1744) 경상도 고성 현령을 지내고 전남 구례에서 병사하여 제주로 반장(返葬)하다.

825) 자세한 신상 알 수 없음.

826) (1694~?), 영조 때의 문신, 애월읍 남읍리에서 태어나 영조 4년(1728) 문과에 급제, 영조 37년(1741) 전라도 흥덕 현감, 말년에 굴림서원 원장으로 교육에 진력하다.

827) (1688~1762), 영조 대의 문신, 제주시 화북동에서 태어나 숙종 42년(1717) 문과에 급제, 이조 좌랑, 구례 현감, 진해 현감 역임, 영조 12년(1736) 제주향교 교수로 재임하면서 문묘 확장에 노력, 삼천서당을 세우도록 목사 김정에게 요청하다.

828) 1739년(영조 15) 문과급제, 순조 때의 정의 현감, 전직 김계흥(金繼興)의 아들이다.

829) (1714~1775), 영조 때의 문신, 한림읍 명월리에서 태어났다. 영조 15년(1739) 문과에 급제, 전직과 직강을 거쳐 외직으로 장성(長城)의 청암 찰방을 지냈다.

830) (1710~?), 영조 때의 문신, 주성(洲城)에서 태어났다. 유배인 간옹 이익(李翼)의 현손이고 문사 이중발(李重發)의 차남이다. 영조 15년(1739) 문과에 급제, 성균관 직강, 전라도 삼례 찰방과 황해도 강령 현감을 지냈다.

831) (1702~1773), 영조 때의 문신, 본관은 고부, 대정현에서 출생, 영조 15년(1739) 문과에 급제, 제주교수, 판관, 예조 좌랑과 병조 좌랑 역임, 전복의 삼례 찰방을 지냈다. 손자 이태상(李台祥)도 문과에 급제하다.

832) (1692~?), 영·정조 때의 문신, 본관은 나주, 애월읍 남읍리에서 태어나 영조 41년(1765) 문과에 급제, 성균 적적을 지냈다.

833) (1717~1787), 영·정조 때의 문신, 애월읍 남읍리에서 태어나 영조 41년 문과에 급제하고 승문원 주서를 지냈다.

834) (1721~1787), 영·정조 때의 문신, 제주시 도련리에서 태어나 영조 41년 문과 급제, 승정원 주서, 성균관 전직과 직강을 거쳐 전라도의 청암 찰방과 삼례 찰방을 지냈다.

835) (1744~?), 정조 때의 대정현감, 애월리에서 태어나 영조 51년(1775) 문과에 급제, 강원도 섬곡(섬곡) 현감을 지냈다. 『포해록』과 『늑담집(鹿潭集)』을 남겼다. 묘는 강원도 통천군에 있다.

836) (1744~1783), 정조 때의 문신, 대정읍 신도리에서 태어나 정조 7년(1783) 문과에 급제, 예조 좌랑·전직·전릉령 등을 거쳤다.

837) (1727~1789), 영·정조 때의 무신, 애월읍 남읍리에서 태어나 상가리로 옮겨 살았다. 무과에 급제하고 장흥의 벽사

- 김익철(金益喆)⁸³⁸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중림(重林) 찰방에 이르렀다.】
 강봉서(姜鳳瑞)⁸³⁹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장령(掌令)에 이르렀다.】
 정태언(鄭泰彦)⁸⁴⁰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병조정랑(兵曹正郎)에 이르렀다.】
 이태상(李台祥)⁸⁴¹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창락(昌樂) 찰방에 이르렀다.】
 변경준(邊景俊)⁸⁴²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봉상시 주부(奉常寺主簿)에 이르렀다.】
 고한조(高漢祚)⁸⁴³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강원중군(江原中軍)에 이르렀다.】
 홍수관(洪受寬)⁸⁴⁴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전주중군(全州中軍)에 이르렀다.】
 이광빈(李光彬)⁸⁴⁵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만경현령(萬頃縣令)에 이르렀다.】
 문상부(文祥富)⁸⁴⁶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오위장(五衛將)에 이르렀다.】
 홍범서(洪範瑞)⁸⁴⁷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훈련원 판관(訓練院判官)에 이르렀다.】
 고익보(高益普)⁸⁴⁸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동지(同知)에 이르렀다.】
 홍삼필(洪三弼)⁸⁴⁹ 【잡기(雜技)로 벼슬이 대정(大靜) 현감에 이르렀다.】
 이방익(李邦翼)⁸⁵⁰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전주중군(全州中軍)에 이르렀다.】
 박중환(朴重煥)⁸⁵¹ 【호자 박계곤(朴繼崑)의 손자로서 갑진년(1794년, 정조 18)에 순

찰방과 사헌부 감찰을 역임했다.

- 838) (1741~1790), 영·정조 때의 무신, 본관 김해, 조천리에서 태어나 무과에 급제하고 인천의 중림(重林) 찰방을 역임하다.
 839) (1746~1823), 애월읍 봉성리에서 태어나 영조 51년(1775) 문과에 급제, 전라도 남원의 오수(熬樹) 찰방과 서헌부 장령을 지냈다.
 840) (1744~?), 정조 때의 문신, 찰방 정희관의 손자로 구좌읍 상도리에서 태어났다. 1798년(정조 22) 문과에 급제하고 성균관 전적·병조 좌랑을 지냈다. 철종 9년(1858) 회방연(回榜宴)으로 축하받았다.
 841) (1756~1817), 순조 때의 문신, 본관 고부, 찰방 이구성의 손자, 주성에서 태어나 정조 19년(1795) 문과에 급제, 외아문 통례와 풍기의 창락(昌樂) 찰방을 지냈다.
 842) (1787~?), 순조 때의 문신, 애월읍 남읍리에서 태어나 순조 15년(1815) 문과에 급제, 승정원 주서·봉상주부·성균관 학유를 거쳐 하가리의 서학당에서 훈학에 종사하였다.
 843) (1762~1822), 정조 때에 대정·정의현감, 성안 '묵은성【陳城洞】'에서 태어나 정조 13년(1789) 무과에 급제, 정조 18년(1794) 갑인년 대흥년에 5백 섬을 바쳐 기아자를 살려 특명으로 무신의 반열에 올랐다.
 844) (?~?), 정조 때의 무신, 제주목 관내에서 태어나 1775년(영조 51) 무과에 급제하고 명월만호와 전주(全州) 중군을 거쳤다.
 845) (1734~1801), 영·정조 때의 무신, 본관은 성주, 조천읍 북촌리에서 무신 이정무(李廷茂)의 아들로 태어났다. 영조 41년(1765) 무과에 급제, 전라도 만경 현령을 지냈다.
 846) (?~?), 영조 때의 무신, 영조 35년(1759) 무과에 급제, 명월진 만호를 거쳤다.
 847) (?~?), 정조 때의 무신, 제주목 관내에서 태어나 정조 12년(1792) 무과에 급제, 훈련원 판관을 역임하다.
 848) (1739~1831), 영·정조 때의 무신, 제주시 도련동 마을에서 태어나 영조 41년(1765) 무과에 급제, 정조 2년(1778) 명월진 만호를 역임하고 95세까지 장수, 후에 타계하니 가묘(家廟)에 모셨다.
 849) (1783~1822), 정조 때의 무신, 무과에 급제 1798년(정조 22) 대정 현감을 지냈다. 이에 앞서 정조 18년(1794) 갑인년 흥년에 약국 1백 섬을 회사하여 기아자를 구제하다.
 850) (1757~1801), 정조 때의 무신, 조천읍 북촌리에서 전 만경 현령 이광빈의 아들로 태어났다. 정조 11년(1791) 무과에 급제, 선전관·전주 중군을 역임하다. 정조 16년(1796) 제주에서 표류되어 중국 팽호도(澎湖島)로 표류, 북경을 거쳐 귀향하였다. 그의 『표해록』과 『남유록(南遊錄)』이 전해진다.
 851) (?~?), 순조 때의 무신, 애월읍 신엄리에서 태어나 이도동에서 살았다. 정조 14년(1794) 조부 박계곤에게 정표하면서 중환에게 특별히 남행부장(南行部長)의 벼슬을 내리고 이어 주부·훈련판관을 거쳤다.

무어사(巡撫御使)가 특별히 추천하여 벼슬이 부장(部長)에 이르렀다.】

김귀택(金貴澤)⁸⁵²⁾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웅진우후(瓮津虞侯)에 이르렀다.】

김중식(金鍾軾)⁸⁵³⁾ 【잡기(雜技)로 벼슬이 임자첨사(荏子僉使)에 이르렀다.】

부사민(夫士敏)⁸⁵⁴⁾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대정현감에 이르렀다.】

김영집(金英集)⁸⁵⁵⁾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은계찰방(銀溪察訪)에 이르렀다.】

김영업(金英業)⁸⁵⁶⁾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제주판관에 이르렀다.】

형승(形勝)

백록담(白鹿潭) 【한라산 절정에 있다. 세속에 전하기를 많은 신선들이 이곳에서 흰 사슴에게 물을 먹이므로 이름이 되었다고 한다. 못 밑에는 흰 모래가 깔려있고, 조개껍질이 있다.】

김치의 시(金緻詩)

石劍撐空鳥路微 돌칼이 하늘을 받친 듯한 희미한 좁은 길
捫蘿直上倚西暉 넝쿨을 휘어 당겨 오르니 해는 벌써 서녘에 기울었다
天風嫋嫋香生屐 스스로 이는 바람 솔솔 신발 밑에 이는 향기
山靄霏霏翠滴衣 산아지랑이 멀리 이어져 푸르름이 옷에 번진다
白鶴巢邊珠樹老 하얀 학 둥지 곁에 구슬 나무 늙어 있고
青鸞駐處彩雲飛 푸른 난새 머무는 곳 날으는 듯 채색 구름
回頭弱水三千里 머리 돌려 삼천리 밖의 약수를 바라보며
爲問安期何日歸 묻노니 안기생은 어느 날이면 돌아올는지⁸⁵⁷⁾

852) (?~?), 정조 때의 무신, 정조 원년(1781) 무과 급제, 황해도 웅진 우후(瓮津虞侯)를 역임하였다.

853) (1770~1831), 순조 때의 무신, 조천리에서 찰방 김익철(金益喆)의 아들로 태어나 곡식을 많이 내어놓아 진제(賑濟)에 힘썼다.

854) (1758~?), 순조 때의 무신, 제주시 영평리에서 효자 부천겸(夫千謙)의 아들로 태어나 세조 8년(1784) 무과에 급제, 순조 23년(1823) 대정 현감, 이어 훈련원 주부를 역임했다.

855) (1775~1827), 순조 때의 문신, 본관은 나주, 제주시 화북동 거로 마을에서 태어나 순조 17년(1817) 아우 영업(英業)과 동방으로 급제하였다. 예조 좌랑을 거쳐 강원도 회양군 은계 찰방을 지냈다.

856) (1784~1835), 순·현종 때의 문신, 화북 거로 마을에서 태어나 순조 17년(1817) 형 영집(英集)과 동방으로 급제하였다. 사헌부 장령·제주 판관을 역임하더니 순직(殉職)하였다.

857) 안기(安期) : 安期生. 秦나라 때의 方士. 河上丈人에게 신선 되는 법을 배워 바닷가에서 약을 팔고 산다 하여 千歲公이라 불렸다. 진시황이 동유하였을 때 만나 삼일간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금과 비단을 주었으나 모두 두고 떠나면서 “수 십 년 뒤 나를 봉래산에서 찾으시오” 하였다. 시황이 사자를 보내었으나 찾지 못하였다. 한나라 무제 때에 李少君이 해상에

이원조의 시(李源祚詩)

山人吸靈液 신선이 마시는 신령스러운 물인
潭在高頂上 못이 높은 봉우리 위에 있으니
區區漢露盤 구구한 한나라의 이슬 쟁반은
其大纔如掌 그 크기는 겨우 손바닥만 한데

혈망봉(穴望峯) 【백록담 남변에 있다. 봉우리에는 한 구멍이 있어서 이를 통해 바라볼 수 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동쪽으로 가면 또 방암(方巖)이 있는데 그 모양이 네모반 듯해서 마치 사람이 깎아 만든 것 같다. 그 아래 잔디밭에는 좁은 길이 나고 있어 향기로운 기운이 온 산에 가득하여 마치 관현의 소리를 듣는 것과 같다. 세속에 전하기를 신선이 쉬는 곳이라고 한다.】

영실(靈室) 【한라산 서남쪽 산허리에 있다. 매우 가파른 낭떠러지이고, 높은 괴석들이 죽 벌여 서 있어서 오백장군(五百將軍)이라고도 하고 또는 돌나한(石羅漢)이라고도 한다.】

김치의 시(金緻詩)

萬壑杉松一逕幽 모든 골짜기에 삼나무 소나무 우거져 조용한 오솔길
每逢佳處暫遲留 경치 좋은 곳 만날 때마다 잠깐 멈춰서 보면
峯頭怪石羅千佛 산머리의 괴이한 돌들은 천불을 벌려놓은 듯
巖底清泉到十洲 바위 밑 맑은 물은 신선 사는 곳으로 흘러가는 듯
直下洞天騎白鹿 바로 골짜기로 가면 흰 사슴을 잡아탈 수 있을 듯
笑看仙子跨青牛 웃음 짓고 바라보는 신선은 푸른 소를 타고 있네
飄然迥出人間表 거리낌 없이 인간세계 벗어난 곳이니
自此仍成汗漫遊 이제부터 이 생각 저 생각 말고 놀아보련다

이경억의 시(李慶億詩)

遍踏仙區載酒歸 신선땅 둘러보고 취하여 돌아오는데
萬林烟雨暗霏霏 온숲에 느릿느릿 내리는 연기 같은 비

서 안기생을 보았는데 외(瓜)와 같이 큰 대추를 먹고 살더라 하였다.

山神挽我應相戲 산신령이 붙잡으니 응당 서로 놀아보려
笑把蓑衣被繡衣 웃으며 도롱이를 수놓은 옷 위로 입는다

이원조의 시(李源祚詩)

擎山畜氣深 한라산은 영기가 깊어
高厚稱其德 그 덕이 높고 두텁다 칭송하지만
終難掩奇峭 기이한 바위들을 감싸주지 못하고
崑崙逐外闕 우뚝우뚝 문지방 밖으로 내쫓았으니

등영구(登瀛邱) : 들렁레) 【제주성 남쪽 15리에 있다. 한라산 북쪽 기슭의 물은 모두 이곳으로 흘러 들어간다. 단애(斷崖)는 천척으로 큰 돌이 아래로 드리워져 그 가운데는 4~50명이 들어가 앉을 수 있다. 양변에는 진달래와 철쭉이 무성하여 숲을 이룬다. 꽃이 만발할 때에는 위아래가 모두 붉다.】

이명준의 시(李命俊詩)

石竇呀然處 짝 벌린 구멍 난 돌이 있는 곳
巖花無數開 바위 위로 꽃들은 수없이 피어있고
花間管絃發 꽃 사이로 관현을 연주하면
笙鶴若飛來 학을 타고 신선이 날아올 것 같네

※ 본 시(詩)는 홍중징(洪重徵)의 시이다. 등영구 바위에 새겨져 있어 지금도 누구나 볼 수 있다. 본 시가 새겨진 바위 위에 훗날 목사로 왔던 이명준(李命俊)의 이름자가 크게 새겨져 있어서 잘못 옮겨 적은 듯하다.

용연(龍淵) : 【제주 서성 밖 3리에 있다. 좌우에 석벽이 있는데 물의 깊이는 알 수 없고 세속에 전하기를 신룡(神龍)이 숨어있는 곳이라고 한다. 가뭄이 들어 기우제를 지내면 효험이 있어서 그렇게 부른다고 한다. 또는 취병담(翠屏潭)이라고 한다.】

임제의 시(林悌詩)

城南只數里 제주성 서쪽 몇 리 되는 곳

■ 耽羅誌草本(上)

有峽清而奇 큰 골짜기 맑고 기이하다
 石爲白玉屏 바위는 하얀 옥병풍 같고
 潭作靑琉璃 못은 파란 유리 같은데
 崖上幾叢竹 언덕 위 몇 포기 대숲엔
 蕭蕭海風吹 슬슬 바닷바람 스쳐간다
 扁舟倚短棹 조각배 노에 몸을 기대어
 吟玩歸遲遲 구경하고 읊으며 느릿느릿 돌아오네

이원조의 시(李源祚詩)

聞說龍淵勝 용연의 빼어난 경치를 이야기 듣고
 肩輿出白門 가마 타고 서문으로 나가 보니
 山腰納海水 중턱까지 바닷물이 들어오고
 地底臥雲根 아래로는 바위들이 누워있었네
 望遠頻擡眼 먼 곳으로 자주 시선 들어 바라보다
 窺深更着跟 다시 발을 붙이고 아래를 내려다보매
 漁舟繫斷港 물줄기 끝나는 곳에 매어있는 고깃배는
 何處是桃源 어떻게 이러한 무릉도원에 왔는지

용두암(龍頭巖) 【용연(龍淵) 서쪽 수 후(數候)⁸⁵⁸쯤에 있다. 바다 위 낭떠러지에 큰 돌이 물속으로 들어가 머리가 솟아난 모양이 마치 용머리(龍頭)와 같다. 그 위에 올라가면 가히 멀리 바라볼 수 있다.】

임형수의 시(詩)

幽窟龍蟠爲峯頭 조용한 굴속의 용이 서렸다 된 뽕죽한 봉우리
 應耽節制好風流 탐라의 절제사가 그 멋스러움을 좋아하여
 蒼波日落生新興 푸른 물결 떨어지는 해에 새로이 흥취 일으켜
 綠酒杯深蕩舊愁 푸른 술 가득 부어 묵은 수심 씻어 낸다
 穴老毛興雲萬古 오래된 모흥혈엔 만고의 구름 끼어 있고

858) 수 후(數候)는 과녁의 거리쯤으로 대략 30보를 말함

灘鳴皇瀆月千秋 황독탄 우는 물결엔 천추의 달이 비쳐
使君不是流連飲 사군은 마시고 노는 일에 빠져서가 아니라
爲措風光却少留 그 경치를 붙잡아서 잠시 머물렀을 뿐이네

임제의 시(詩)

海畔巖岨石 바닷가의 높직한 돌을
龍頭謾設名 용의 머리라 속여 이름 붙였네
洪濤日夜擊 큰 파도가 밤낮 내리쳐
猶作風雷聲 바람소리 우레소리인 듯

청음 김상헌의 시(金淸陰詩)

危巖千仞跨鰲頭 큰 자라 머리 위에 걸터앉은 천길 높은 바위
勢引蟠龍飲海流 웅크렸던 용이 바닷물을 마시려는 형세로다
跌宕遊人聊發興 질탕 놀아보려는 객들 애오라지 흥이 날 때
登臨遷客獨添愁 올라와 굽어보는 귀양객은 홀로 근심 더하더라
閨風西去無多地 솟을 바람 바다 멀리 서녘으로 사라지고
明月東來度幾秋 밝은 달 동녘으로 떠오르길 몇 해던가
一洗胸中九雲夢 구천에 오를 꿈을 마음에서 씻어내며
杯酒詩筆重淹留 술 마시고 시를 쓰며 거듭 다시 머문다네

김녕굴(金寧窟) 【제주성 동쪽 50리 김녕산에 있다. 산의 돌문은 높고 큰데 가운데는 오장기(五丈旗)를 세울 수 있다. 길이는 십여 궁(弓)이 된다. 그 위는 활같이 한가운데가 높고 길게 굽은 천장이어서 드리워진 무지개문(虹門) 같다. 아래는 평평해서 솟돌과 같다. 햇불을 켜서 걸어 들어가면 30리를 가지 못하고 멈추게 된다. 그 끝에 다다르면 원근을 예측할 수가 없다고 한다.】

재암(財巖) 【제주성 서쪽 60리의 명월진(明月鎭) 아래에 있다. 그 모양이 지붕과 같이 길게 굽어 있다. 그 위에는 흰모래가 덮여있고 아래는 큰 굴이 있다. 그 가운데에는 아주 넓어서 80보쯤 된다. 석종유(石鐘乳)가 난다. 그 서북쪽에는 또 두개의 바위가 있는데 이 름하여 “작은 협재바위(小夾財岩)”라고 한다. 깊고 넓어서 50보쯤 되는데, 모두에서 석종

■ 耽羅誌草本(上)

유가 난다. 그것이 응결되면 아래로 드리워 유소(流蘇)와 같다. 그것이 아래로 흐른 것이 방울져 떨어져서 비오는 것과 같아 사람의 옷과 갓을 적신다. 굴을 나오면 곧 모래밭을 이룬다.】

달관대(達觀臺) 【제주 동성 안에 있다. 노봉 김정이 이름 붙였다. 좌우에 중장병(中藏屏), 호반병(壺斑屏), 용린병(龍鱗屏), 감액천(甘液泉), 급고천(汲古泉), 취한대(翠寒垓), 희우대(喜雨垓), 여택천룡석(麗澤天礪石), 세심단(洗心壇) 등의 이름은 모두다 등급이 매겨져 있다.】

제영(題詠)

이첨⁸⁵⁹의 시(李詹詩)

土姓尊星主 제주 본디 성씨⁸⁶⁰는 성주로 높였고,
山名號漢拏 저 산 이름은 한라라 부른다네.⁸⁶¹

정이오의 시(鄭以吾詩)

深冬橘柚霜垂屋 한 겨울의 유자는 지붕에 매달려,
幾處蒹葭月滿船 갈대⁸⁶² 싹고 가는 배엔 달빛 가득하오.

승 혜일의 시(僧慧日詩)

海塢方殘臘 매화 언덕엔 바야흐로 늦은 설달

859) 이첨(1345, 충목왕 1~1405, 태종 5)은 이담(李擔)이라고도 한다.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이다. 1365년(공민왕 14) 감시(監試)의 제2인으로 합격하였고, 1368년 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검열이 되고, 이듬해 우정언에 이어 1375년(우왕 1) 우헌납에 올라 권신 이인임(李仁任)·지윤(池淵)을 탄핵하다가 오히려 10년간 유배되었다. 1388년 유배에서 풀려났다. 문장과 글씨에 뛰어나 하륜 등과 함께 『삼국사략(三國史略)』을 찬수하였으며, 소설 『저생전(楮生傳)』을 지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많은 시를 남기고 있으며, 유저로 『쌍매당집(雙梅堂集)』이 있다.

860) 토성(土姓)은 제주도 삼성혈(三姓穴)에서 솟아났다는 고·량·부(高良夫) 성씨를 말함.(良씨는 뒤에 梁으로 고침.)

861) 『담라지』의 “鎮山其曰漢拏者 以雲漢 可拏引也”에서 인용한 것인데, 한라산은 매우 높아 하늘의 은하수를 어루만진다는 뜻에서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보았다.

862) 경가(蒹葭)는 수생초(水生草)의 이름. 갈대. 『시경』에 “蒹葭蒼蒼 白露爲霜”, 즉 『시경』 ‘진풍편(秦風篇)’에 이르기를, 진나라 양공(襄公)이 이미 주나라 땅을 차지하여 백성을 다스리되 주례(周禮)로써 하지 않았으므로 국민이 이에 쫓지 않음을 풍자한 시다.

霜枝忽發春 서리 내린 나뭇가지에 문득 봄이 피었네
冷香雖可愛 차가운 향기가 비록 사랑스러우나,
地僻少遊人 땅이 궁벽하니 놀러오는 사람⁸⁶³⁾ 적구나.

권우⁸⁶⁴⁾의 시(權遇詩)

洞庭天香有柑橘 동정⁸⁶⁵⁾엔 천향의 감귤이 있고
渥洼龍種生麒麟 악와⁸⁶⁶⁾엔 용종⁸⁶⁷⁾의 기린을 낳는다.

이흥문⁸⁶⁸⁾의 시(李興文詩)

萬匹驕驄閑放野 만필의 준마⁸⁶⁹⁾는 들에서 한가히⁸⁷⁰⁾ 놀고
千株橘柚巧粧秋 천 그루의 귤과 유자는 가을에 물들었네.

민수⁸⁷¹⁾의 시(閔粹詩)

都近川肥潮長夜 도그네 물 불어 파도치는 밤에
漢拏山瘦葉凋秋 한라산은 야위어 입사귀가 시들도다.

863) 유인(遊人)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놀고 있는 사람, 주색잡기에 빠져 놀고만 지내는 사람이다.

864) 권우(1363, 공민왕 12~1419, 세종 1)는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이자 학자이다. 성균관 대사성과 집현전 직제학을 거쳤다. 저서 『매헌집(梅軒集)』이 있다.

865) 동정(洞庭)은 호수의 이름. 중국 호남성에 있는 중국 제일의 담수호(淡水湖)이다. 두보(杜甫)의 시에 “昔聞洞庭水, 今上岳陽樓”라고 하였다.

866) 악와(渥洼)는 하천의 이름. 중국 감숙성(甘肅省) 안서현(安西縣)에 있는 당하(堂河)의 지류이다. 『한서(漢書)』 『예악지(禮樂志)』에 “元狩三年 馬生渥洼水中作”이라 했고, 『盧論, 送史兵曹判官赴樓煩詩』에 “渥洼龍樓散雲時, 千里繁花乍別離”라고 했다.

867) 용종(龍種)은 잘 달리는 좋은 말(駿馬)·준걸(俊傑)·영특한 아이다. 이상은(李商隱)의 시에 “寄人龍種瘦, 失田鳳雛痴”라고 하였다.

868) 이흥문은 언제 사람인지도 확실하지 않고, 그의 이력도 알 수 없다.

869) 화류(驕驄)는 대추빛갈의 준마(駿馬). 주나라 목왕(穆王)이 천하를 두두 돌아다닐 때 탔던 여덟 필이 잘 달리는 좋은 말 가운데 한 필의 말.

870) 한방(閑放)은 걱정 없이 방심한 것이다.

871) 민수(생몰년 미상)는 조선 초기의 문신이다. 1469년(예종 1)에 제주로 유배되었다. 사초(史草)에 관계되어 사형에서 일등 감하여 제주의 관노(官奴)로 충속시켰으니, 이를 민수사옥(閔粹史獄)이라 한다.

민수의 시(閔粹詩)

水國蒹葭雲夢暮 바닷나라 갈대는 큰 늪⁸⁷²⁾ 같고
山城橘柚洞庭秋 산성의 귤과 유자는 동정의 가을이로다.
石牆板屋民居僻 돌담 판잣집은 궁벽하고 괴로워
異服殊音容子愁 갈옷과 사투리 나그네의 걱정이라네.

이유의의 시(李由義詩)

香透疎簾知有橘 향기가 성긴 발에 스며드니 귤이 있는 것을 알았고
風來虛閣覺生秋 바람이 빈집에 불어와 가을 기운을 알겠네.

이승소⁸⁷³⁾의 시(李承召詩)

俗似朱陳民易使 풍속은 주진⁸⁷⁴⁾ 같아서 백성 부리기 쉽고
地如幽冀馬多良 땅은 유기⁸⁷⁵⁾ 같아서 좋은 말이 많네.
桑麻雨足家家喜 뽕나무와 삼밭에 비가 흠족하니 집집마다 기뻐하고
橘柚霜濃樹樹香 귤과 유자에 서리가 무르익으니 나무엔 향기로나.

서거정의 시(徐居正詩)

雪滿花間鳴翠鳥 흰 눈이 꽃 사이에 가득한데 푸른 새가 울고
霜深籬落熟黃柑 서리가 울타리에 깊었으니 황감도 익었도다
雲開蓬島鰲岑近 구름이 봉도⁸⁷⁶⁾에 이니 오잠⁸⁷⁷⁾이 가깝고
日出扶桑海氣涵 해가 부상에서 나오는데 바닷 기운이 스며드네

872) 운몽(雲夢)은 초(楚)의 칠택(七澤)의 하나다. 구백리 사방의 큰 늪이다. 지금의 호북성(湖北省) 효감현(孝感縣) 서북쪽이라 한다.

873) 이승소(1422년, 세종 4~1484년, 성종 15)는 조선조의 문인이다. 당대의 대문장가. 1474년(성종 5) 신숙주·강희맹 등과 같이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편찬하였다.

874) 주진(朱陳)은 중국의 마을 이름. 주(朱)씨와 진(陳)씨가 한 마을을 이룬 고사에서, '양가(兩家)가 대대로 혼인함'을 이르는 뜻으로 "주진지호(朱陳之好)"라고 하였다.

875) 유(幽)와 기(冀)는 중국 고을의 이름이다.

876) 봉도(蓬島)는 봉래산(蓬萊山)이다. 봉래산은 동해(東海) 가운데에 있는 신선이 살고 있는 산이다.

877) 오잠(鰲岑)은 큰 바다거북이 등에 지고 있다는 해도(海島). 鰲(오)는 봉래(蓬萊)·방장(方丈)·영주(瀛洲)의 삼신산을 등에 지고 있다는 상상의 동물인 큰 바다거북을 뜻한다.

서거정의 시⁸⁷⁸⁾

地連仙島人居勝 땅이 선도에 이어졌으니 사람이 살기가 좋고
 貢入天朝物產饒 공물 바친 것이 조정에 들어가니 산물이 풍부하도다.
 名驥已過宛驤裏 이름난 기마는 이미 대원⁸⁷⁹⁾의 요뇨⁸⁸⁰⁾보다 뛰어나고,
 香柑絶勝漢葡萄 향감은 한나라의 포도보다 더 좋네.

임형수의 시(林亨秀)

山蟠王子國 오름은 왕자국에 서렸고
 波蹴老人星 물결은 노인성을 박찼네.

최보의 35절(崔溥詩三十五絶)⁸⁸¹⁾

渤海之南天接水 발해⁸⁸²⁾의 남녘 바다, 하늘과 바다 맞닿은 곳,
 鯨潮鼉浪無涯埃 큰 물결⁸⁸³⁾ 바닷가 가없이 스치네.
 耽羅國在渺茫中 탐라나라 끝없이 아득한데,
 一點彈丸六百里 한 점 섬이 6백 리라네.

中有青螺駕六鰲 중앙에 산이 솟아 육곶(六串:六鰲)⁸⁸⁴⁾을 이루었소.
 巨靈擘破勢周遭 거령⁸⁸⁵⁾의 손으로 빗어 올타리를 이루었네.
 撐天圓嶠無頭處 하늘에 솟은 한라산,⁸⁸⁶⁾ 산머리가 없소
 翠壁一里千尺高 푸른 산자락 한 참인데 높이는 1천 척이라네.

878) 이 시는 이원진 『탐라지』(제주목, 제영)에 '전인시(前人詩)'로 소개하였으나, 『탐라지초본』에는 '전인시(前人詩)'라 하였다가 수정하여 서거정의 시라 하였다. 그러므로 서거정의 시로 바로 잡는다.

879) 대원(大宛)은 한(漢)나라 때 서역(西域) 제국(諸國)의 하나다.

880) 요뇨(驤裏)는 옛날 양마(良馬)의 이름. 하루에 일만 팔천리를 달린다는 신마(神馬). 『후한서』에 “飛兔驤裏 絶足奔放”, 『회남자』에 “待驤裏飛兔而駕之 則世莫乘車”라고 하였다.

881) 35편의 절구라는 뜻인데 이를 耽羅詞(탐라사)라 한다.

882) 발해(渤海)는 요동반도 남쪽의 바다를 이른다.

883) 추조타랑(鯨潮鼉浪)은 큰 물결, 고래와 같은 조수, 자라와 같은 풍랑의 뜻.

884) 육곶(六鰲)은 육별(六鼈). 6필의 큰 자라. 이백의 동해시(東海詩)에 “必若思三島 應須釣六鼈”.(만드시 삼도를 생각할 것 같으면 응당 육별을 낚았으리)에서 인용했다.

885) 거령(巨靈)은 크나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신령.

886) 원교(圓嶠)는 원산(圓山), 두무오름(頭無岳)과 함께 한라산의 이칭.

■ 耽羅誌草本(上)

誰從壁頂鑿靈沼 누가 산정에 신령스러운 연못⁸⁸⁷⁾ 팠을까!
 岫岵幾廻貢貢鳥 공공조여! 백합 물고 몇 번이나 왔더냐?
 折峙山旁果若然 깎아지른 산방산,⁸⁸⁸⁾ 과연 그렇단다.
 奇觀問却知多少 기관절경을 묻고서야 다소 알았네.

蒼松綠竹紫檀香 푸른 솔, 푸른 대나무와 자단향⁸⁸⁹⁾이 향기롭고
 赤栗乳柑橘柚黃 적률, 유감, 귤, 유자는 누릿누릿.
 白雪丈餘紅綿樣 흰 구름 한 길 남짓 붉은 비단 펼쳐놓은 듯.
 四時留得青春光 사시사철 늘 푸른 색깔 띄웠다오.

世傳東角東巫峽 세상에 알려진 산 동쪽 모퉁이엔 동무협⁸⁹⁰⁾이요
 絃管遙聞第幾疊 타는 줄, 부는 피리소리 몇 번이던가?
 百里香雲繚繞中 백 리에 흰 구름⁸⁹¹⁾은 얹히고설켜⁸⁹²⁾
 仙曹此處應登躡 이곳에 선객들이 응당 오갔을 걸.

俯瞰人間隔世蹤 인간 세상 굽어보나 속세 자취 멀리하고
 海中別有瀛洲峯 바다 가운데 영주봉⁸⁹³⁾은 유별나구나
 秦童漢使枉費力 진동⁸⁹⁴⁾과 한사⁸⁹⁵⁾는 헛되이 힘을 썼소
 遺興三韓作附庸 후세에 삼한과는 부용⁸⁹⁶⁾이 되었고도다.

南畔是山北畔海 남쪽 자락엔 한라산이요, 북쪽은 바다
 毛興古穴中間在 옛 모흥굴⁸⁹⁷⁾이 그 사이에 있다오.

887) 영소(靈沼)는 신령스러운 못. 백록담 혹은 물장오리를 지칭.

888) 산방(山房)은 안덕면 사계리 소재의 산방산.

889) 자단향(紫檀香)은 자단나무를 잘게 깎아서 불에 피우는 향. 약에도 쓰임. 자단은 콩과에 속하는 상록 활엽 교목으로 즐기는 자색이며 부드러운 잔털이 있음.

890) 동무협(東巫峽)은 한라산 동쪽자락에 있는 지경 이름.

891) 향설(香雪)은 한창 만발한 흰 꽃을 구름에 비유한 말, 또는 구름처럼 떠오르는 향연. 이백의 시에 “香雲徧山起 花雨從天來”(香雲은 두루 산에 일어나고, 화우는 하늘로 오도다.)라고 함.

892) 요요(繚繞)는 얹히고설킴. 소매가 긴 모양. 필력이는 모양. 장형(張衡)의 시에 “修袖繚繞而滿庭”(고운 소매 필력이며 뜰에 가득하네)라고 함.

893) 영주봉(瀛洲峯)은 영주산(瀛洲山). 삼신산의 하나. 중국 동해안에 있으며 신선이 살고 있다고 함. 『사기』에 “海中有三神山, 名曰蓬萊·方丈·瀛洲, 仙人居之”라고 함. 여기서는 한라산을 이른다.

894) 진동(秦童)은 진시황의 사자(使者)가 동남(童男) 500과 동녀(童女) 500을 영주에 보내어 불로초를 캐도록 했다는 고사.

895) 한사(漢使)는 한나라 사신. 고사에 대하여 확인하지 못함.

896) 부용(附庸)은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부속함. 『예기』에 “天子田方千里, 公侯田方百里, 伯七十里, 子男五十里, 不能五十里者, 不合於天子, 附於諸侯, 曰附庸”이라고 함.

雲烟埋沒事茫然 구름과 안개에 묻혀 옛 일은 아득한데,
欲問遺風今幾載 문노니 유풍은 이제 몇 해던가!

憶昔神人開國初 옛날 신인이 개국한 때를 회상하오
山從遊獵水從漁 산 따라 사냥이요, 물 좇아 고기 잡네.
身如野鶴無歸着 몸은 두루미⁸⁹⁸)처럼 유유자적하고
地闊天高未有廬 천지는 높고 광활하나 아직 움막도 없었네.

石函當日來何處 삼신녀 타고 온 석함⁸⁹⁹) 어데서 왔나!
知向郊原播稷黍 들판에 피와 기장 뿌릴 줄 알았네.
歲久朱陳成一村 세월이 흘러 주씨·진씨 한 마을 이루듯
子孫乃爾多如許 그 자손들이 그렇게 많아졌네.

星芒初動鷄林天 별무리⁹⁰⁰) 처음으로 계림 하늘 움직였소,
已艤耽津一葉船 이미 배 한 척이 탐진⁹⁰¹)에 닿았네.
恰似老人朝北斗 흡사 노인성이 북두성을 뵈옵듯이
從今始與通人烟 이때부터 비로소 사람 왕래했다네.

好爵旋封兄及弟 좋은 작위 형과 아우에게 봉하자,
榮還故國傳來裔 영화롭다! 고국 탐라의 후예에게 전했네.
梯航疑叩不辭頻 험한 길 무릅쓰고 자주 찾아왔고,
朝事新羅暮百濟 아침에는 신라를, 저녁엔 백제를 섬겼소.

松岳龍興掃黑金 송악⁹⁰²)에 왕이 일어나 오랑캐를 무찌르고

897) 모흥고혈(毛興古穴)은 옛 모흥혈(毛興穴), 곧 삼성혈로 제주시에 있는 '멍굴'을 말하며, 고랑부의 삼성시조가 탄생했다고 전해지는 세 개의 구멍을 말한다.

898) 야학(野鶴)은 두루미. 한운야학(閑雲野鶴)은 하늘에 한가히 떠도는 구름과 들에 절로 노는 학. 곧, 아무 구속이 없이 한가한 생활로 유유자적하는 경지를 일컫는 말.

899) 석함(石函)은 탐라개국 신화의 내용, 「세종실록지리지」에 “古記云…木函內 又有石函 有一紅帶紫衣使者 開石函 出現青衣處女三 及諸駒犢五穀種”에서 유래된 말.

900) 성망초동(星芒初動)은 남방에 객성이 나타났으니 탐라사신이 나타날 징표라고 하여 신라에서는 고후를 성주로 봉했다는 고사. 「세종실록지리지」에 “于時客星現于南方 太史奏曰 異國人來朝之象也 遂朝新羅 王嘉之 稱長子曰星主 以其動星象也”라고 함.

901) 탐진(耽津)은 전라남도의 강진. 탐라의 사신 3인이 신라로 건너 갈 때 처음 도착한 포구. 「세종실록지리지」에 “至十五代孫 高厚高淸昆弟三人 造船渡海 至于耽津”라고 함.

902) 송악(松岳)은 松嶽(송악)으로도 쓰는데, '개성(開城)'의 옛 이름이다.

■ 耽羅誌草本(上)

預先歸去獻其琛 미리 찾아가서 공물을 바쳤다네.
奈何變作逋逃藪 어찌하여 난을 일으켜 탐라로 도망쳤나?903)
流入胡元染惡深 호원이 들어와 오염시켰네.

候風島口金方慶 후풍도904) 어귀에는 장군 김방경이요,
明月浦頭都統瑩 명월포905) 머리에는 도통 최영일세.
前後旌旗蓋海來 앞뒤로 개선의 깃발906) 바다를 덮었소,
渠心厭亂知相應 적들도 난리에 피곤하여 서로 응했네.

通精暴血濺池潢 김통정의 사나운 피 이 땅에 뿌려지고,
哈赤頑魂飛鈎鋌 하치의 모진 뉘은 칼끝에 날렸네.
網盡鱣鯨付鼎鑊 나쁜 무리 일망타진 가마솥907)에 부엌더니
年來無復海波揚 이후로는 해마다 시끄러움 없어졌네.

到頭安堵復蘇息 가는 곳마다 마음 놓아 다시 숨을 돌리오
弋獵謀生任所得 사냥으로 삶을 도모하며 제자리를 얻었네.
解棹扁舟向北風 노를 저어 조각배는 북풍을 맞받아 뜨고,
却將土物供臣職 토산물을 보냈으니 신직908)을 다했네.

爾來一百十餘年 이런 이후 1백 10여 년 만에,
贏得王家德化宣 영주 땅은 왕가의 덕화를 입었네.
文物盡從周禮樂 문물은 모두 주나라 예악909)을 따랐고,
版圖編入禹山川 판도는 우 임금의 산천에 편입한 듯.

我今萬里擎丹詔 내가 이제 만 리 밖에서 단조910)를 올렸으니,

903) 포도수(逋逃藪)는 죄를 지어 도망간 소굴로, 여기서는 삼별초가 들어온 '탐라'를 이른다.

904) 후풍도(候風島)는 배가 떠날 때에 순풍을 기다리는 섬이란 뜻이다. 여기서 후풍도란 추자도(楸子島)를 지칭한다.

905) 명월포(明月浦)는 현재의 북제주군 한림읍 지경의 포구. 삼도도통사(三道都統使) 최영 장군이 목호(牧胡)를 토벌하기 위해 추자도에 주둔한 고려군을 이 명월포구로 상륙하여 원구(元寇)를 완전히 섬멸시켰다.

906) 전후정기(前後旌旗)는 앞서 김방경 장군이 삼별초를 평정한 일과 뒤에 최영 장군이 목호를 완전 궤멸시킨 것을 말한다.

907) 정확(鼎鑊)은 중국 전국시대에 죄인을 삶아 죽이던 큰 솥. 극형을 뜻함.

908) 신직(臣職)은 신하의 직분.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서 탐라가 고려에 대해 신하의 구실을 하였다는 뜻이다.

909) 주례악(周禮樂)은 주나라 때의 예절과 음악. 중국 고대에는 예(禮)는 세상의 질서를 잡고, 악(樂)은 인심을 화합하게 한 다하여 사회 교육과 국가 통치상 중요하게 여겼음. 『예기』에 “禮樂不可斯須去身”이라고 하였다.

910) 단조(丹詔)는 천자의 칙명을 말한다. 장빈(張嬪)의 시에 “作日中官說天意 卽飛丹詔立新碑”라고 함.

跋涉遠來並海徼 바다 건너 멀리 와서 해변에서 마중하네.
 又有同舟許使君 또 허 목사⁹¹¹⁾와 배를 함께 타니,
 一番傾盖膽相照 처음으로 뵈었으되 곧 마음이 통했소.

館頭巖畔卸征鞍 관두랑 암반 위에 말안장 풀었소
 海色天光入望寒 바다 빛갈, 하늘빛이 보름달에 차갑네.
 貫月槎浮縱所適 달빛 아래 떼 배는 갈 곳으로 가고
 南溟無際學鵬搏 가없는 바다엔 대붕이 물결 두드리네.

孤颿却被天風好 외로이 돛단 배 순풍에 좋을시고,
 驀地飛經火脫島 줄지에 날아가듯 관탈섬⁹¹²⁾을 지났네.
 暫試青蛇掣海雲 잠깐 키 잡으니⁹¹³⁾ 해운을 시험하듯,
 蜃樓蛟室紛顛倒 신기루와 교실⁹¹⁴⁾이 서로 엇치락뎛치락.

底處一聲送櫓歌 아랫목 한 소리 노 젓는 노래라오,
 逐船來趁疾於梭 마중 나온 배는 빠르기가 북⁹¹⁵⁾이 오가듯.
 蓬窓揭了問前程 봉창을 열고서 묻기를 “갈 길은 얼마냐?”
 館在朝天影蘸波 “조천관의 그림자는 물결에 잠겼답니다.”

海吐瑞山供逸趣 바다는 서산을 토해내 흥취를 갖추고
 龍蟠牛島呈祥霧 교룡이 쇄섬⁹¹⁶⁾에 서렸으니 상서로운 징조라네.
 山川喜我泛槎來 산천은 우리 떼 배 오가자 기뻐하오

911) 허 사군(許使君)은 허 사또, 허 목사. 성종 때 제주 목사를 지낸 허희(許熙)를 말한다. 그는 1487년(성종 18) 10월 이 수생(李壽生)의 후임으로 제주에 도임하고, 1490년(성종 21) 5월 임기를 마치고 상호군(上護軍)으로 떠났다. 1487년(성종 18) 김녕촌에 사는 김칭(金秤) 가문에 정표(旌表)하였다. 1488년(성종 19) 1월 제주추쇄경차관(濟州推刷敬差官) 최보(崔漣)에게 부친상을 듣고 고향으로 발선하였다가 표류되었다.

912) 火脫島[화탈섬]는 제주시 북쪽, 추자도 남쪽에 있는 무인도로, 일명 관탈섬(冠脫島) 또는 ‘관탈’이라 하는데, 동서에 두 개의 섬이 있다.

913) 청타(靑舵)는 배의 푸른 키.

914) 교실(蛟室)은 교인지실(蛟人之室). 교(蛟)는 해중에 사는 동물인데 그 하는 바가 사람과 비슷하기 때문에 교인이라고 표현한다. 두보의 「과동정호시(過洞庭湖詩)」에 “蛟室園靑草 龍堆隱白沙” 또 맹호연(孟浩然)의 시에 “廡宇鄒蛟室 人煙接島夷”라고 함.

915) 질어사(疾於梭)는 북(梭)보다 빠르다는 뜻. 배틀에서 직물을 짤 때 실오라기 사이를 오가는 북보다 빨리 다닌다는 뜻.

916) 우도(牛島)는 제주의 동쪽에 있는 섬으로, ‘쇠섬’이라 한다. 서산용출(瑞山湧出)이란 화산 폭발로 이루어진 섬. 서산은 흔히 송악산설(松岳山說), 비양도설(飛揚島說), 군산설(軍山說) 등이 있었으나, 김찬흠(金燦洽)의 연구 발표에서 우도(牛島)임을 이미 밝힌 바 있다.

我亦有情堪指顧 나도 또한 정이 깊어 손으로 가리켜 보네.

燕尾蜂腰千萬形 제비의 꼬리, 벌의 허리 천만 형상이네,
爭流競秀不知名 흐르는 물과 솟은 산, 그 이름 알 수 없소.
微茫樹色畫圖裏 아득히 보이는 숲 모습, 화폭 속에 그리고자
日暈紅霞照眼明 햇무리⁹¹⁷⁾와 붉은 노을, 눈에 비춰 환하오.

遠人頗識尊王命 멀리서 온 사람 자못 왕명의 존엄함을 알고
扶我登途笳鼓競 나의 가는 길을 피리, 북소리로 다투어 맞소.
浦口巉巖道士羊 포구의 바위엔 도사가 양떼인 듯 어질고
路周磊落仙人鏡 노변의 돌무더기⁹¹⁸⁾는 신선의 거울인 듯.

青鳥彩鸞如有期 푸른 새⁹¹⁹⁾와 난새⁹²⁰⁾는 기약이나 했듯이
護予呵擁城中馳 나를 옹호하며 성안으로 달린다네.
奔迎拜跪稍知禮 분주히 엎드려 맞아⁹²¹⁾ 예의는 좀 안다마는
聒耳語音譯後知 시끄러운 방언은 통역해야 알아듣네.

便從父老問風土 문득 부로에게 제주의 풍토를 물었더니
冬苦風威夏苦雨 겨울은 매서운 바람, 여름은 굵은비라네.
草木昆虫傲雪霜 초목과 벌레들은 눈과 서리에 이겨내고
禽無鵲鵲獸無虎 날짐승 부엉이⁹²²⁾와 까치는 없고 길짐승 범도 없다네.

人知種植飽駒駒 사람들은 농사를 알아 배불러 코골고,⁹²³⁾
不羨江陵千戶侯 강릉 천호후⁹²⁴⁾ 부럽지 않다네.

917) 일훈(日暈)은 해무리[日月傍氣]. 요합(姚合)의 시에 “眼暈夜書多”이라 함.

918) 석락(磊落)은 마음이 활달하여 조그만 일에는 구애받지 않는 모양, 공명정대한 모습, 수가 많은 모양. 한유(韓愈)의 시에 “磊落奇偉之人”라고 함.

919) 청조(靑鳥)는 푸른 새, 사자(使者) 또는 서간(書簡), 선녀. 서왕모(西王母)의 사자로, 삼족의 푸른 새가 한(漢)의 궁전에 왔다는 고사.

920) 채란(彩鸞)은 색깔 있는 난새. 봉황과 비슷하다는 전설적인 새.

921) 배례(拜跪)는 무릎을 꿇고 절함. 꿇배(跪拜).

922) 휴류(鵲鵲)는 새 이름으로, 부엉이를 이룸. 『박물지(博物志)』에 “鵲鵲 晝日無所見 夜則至明”이라고 함.

923) 후후(駒駒)는 코고는 소리의 의성어. 소식의 시에 “鼻息駒駒自成曲”이라고 함.

924) 강릉천호후(江陵千戶侯)는 중국 호북성 강릉현, 명나라 때 장거정(張居正)이 이곳에서 나서 세칭 장강릉(張江陵)이라고 하였다.

渾把生涯登壽域 모두 생업을 지녀 오래 살아서,⁹²⁵⁾
閭閻到處杖皆鳩 마을마다 이르는 곳엔 모두 늙은이로다.⁹²⁶⁾

嫌將歲月虛拋擲 붙잡지 못한 세월은 헛되이 버렸고
照里鞦韆傳自昔 줄다리기, 그네뛰기 예로부터 전해졌네.
僧刹了無香火時 스님 있는 절에는 향화 피운 흔적 없건마는
駢闐簫鼓燃燈夕 북소리 뚱뚱 저녁엔 연등제라오.

革帶芒屨葛織衣 가죽띠, 짚신에 칩배 옷 입어
石田茅屋矮柴扉 자갈밭과 초가 쉼문짝은 낮고 작네.
負瓶村婦汲泉去 등에 허벅진 시골 아낙네 물 길고 가오,
橫笛堤兒牧馬歸 젓대 부는 어린이는 말 몰고 돌아오네.

民風淳儉看來取 풍속이 순박함을 보고서야 알았으며
不必彎弦徒尙武 한갓 활을 쏘며 상무할 필요가 없네.
絃誦東西精舍中 동서정사 안에서는 글 읽는 소리로다
元來人傑擬鄒魯 본시 인걸됨이 추로⁹²⁷⁾ 땅 사람인 듯.

路入杏壇謁素王 향교⁹²⁸⁾로 들어가 공자⁹²⁹⁾님을 배알했소
靑衿揖我明倫堂 명륜당의 유생⁹³⁰⁾들 나에게 절하더라.
誰知萬里滄溟外 뉘가 알리! 멀고 먼 만리 바다 밖
有此衣冠禮義鄉 의관을 갖췄으니 예의향임이 분명하네.

更誇物產荊楊府 또 물산은 넉넉해 형주·양주⁹³¹⁾와 같소

925) 수역(壽域)은 생존 중에 만든 무덤으로, 수혈(壽穴), 수장(壽藏), 수궁(壽宮)이라고도 한다.

926) 장개국(杖皆鳩)은 구장(鳩杖). 비둘기 장식이 붙은 노인의 지팡이. 머리에다 비둘기 모양의 장식을 붙인 젓가락. 옛날 8,90세의 늙은 백성들에게 나라에서 하사하였다.

927) 추노(鄒魯)는 공자와 맹자를 말함. 추(鄒)는 맹자의 탄생지이며, 노(魯)는 공자의 탄생지이다. 뜻을 바꾸어 공맹지학(孔孟之學)을 총칭한다. 『장자(莊子)』에 “鄒魯之士縉紳先生” 또 위맹(韋孟)의 시에 “濟濟鄒魯 禮義唯恭”라고 하였다.

928) 행단(杏壇)은 단(壇)의 이름. 옛날 공자가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던 유지. 행(杏)은 은행나무. 도가(道家)들이 수련을 쌓는 곳.

929) 소왕(素王)은 왕위에 올라 있지는 않으나 임금으로서 덕망이 있는 사람. 공자. 두예(杜預)의 글에 “仲尼自衛反魯 修春秋立素王”라고 함.

930) 청衿(靑衿)은 청색 깃의 옷. 유생을 가리키는 말. 『시경』에 “靑靑子衿 悠悠我心”이라고 함.

931) 형양부(荊楊府)는 형주(荊州)와 양주(楊州)를 말함. 형주란 「서경」의 우공(禹貢)에 보이는 중국 고대의 9주의 하나. 지금의 호남·호북의 양성 및 광서·귀주·사천·광둥의 일부를 포함함. 또 양주란 옛날 중국 9주의 하나. 지금의 강소·

■ 耽羅誌草本(上)

玼寶精華那可數 진보, 정화 어찌 이루다 셀 수 있으랴?
玼瑁蠙珠貝與螺 대모, 빈주(진주)들 또 조개와 소라며
靑皮白蠟石鍾乳 청피, 백랍들과 석종유까지 난다네.

乃知仙藥百千般 선약이 백 천 가지 있는 줄 이제야 알아
箇裏分明有煉丹 그 속엔 분명 불로불사약⁹³²⁾도 있겠지.
收拾鑑中九轉後 술 안에 모아 넣어 누차 달인 뒤에
定應白日可飛翰 바로 대낮에도 날 수 있다네.

我來得到神仙宅 내가 신선 댁에 이를 수 있다면
採了天台劉阮藥 천태산⁹³³⁾ 유완 약⁹³⁴⁾을 만날 수 있겠지!
願學麻姑看海桑 원컨대 마고할미가 해상을 보던 재주를 배워
應將此身壺中託 응당 이 몸 별천지⁹³⁵⁾에 의탁했겠네.

紫殿九重憶聖君 자신전⁹³⁶⁾ 구중심처의 임금을 생각하오
白雲千里戀雙親 흰 구름 천리 밖에 아버이를 그리네.
此身猶未全忠孝 이 몸은 아직도 충효를 다 못하고
不忍堪爲方外人 차마 국외자로 된다면 어찌 견딜고!

豈獨瀛洲在此地 어찌서 홀로 영주산이 이 땅에만 있었을까?
求之人世不難致 구한다면 인간세계 어디든지 있겠지,
莫如還向華山陽 마치 화산⁹³⁷⁾ 남쪽 방향으로 돌아감만 못하리라.
保我生平伊尹志 내 평생 이윤⁹³⁸⁾의 뜻을 보전하며 살리라.

안휘 · 강서 · 절강 · 복건의 땅.

932) 연단(煉丹)은 옛날 중국에서 도사가 진사(辰砂)로 황금이나 약과 같은 것을 만들었다고 하는 일종의 연금술.

933) 천태(天台)는 천태산(天台山). 중국 절강성에 있는 산 이름.

934) 유완약(劉阮藥)은 유완의 약. 유완(劉阮)은 한군양홍족인(漢軍鑲紅族人). 자는 반완(伴阮). 그림에 기교가 있고 전예행 초서(篆隸行草書)에 능했다. 어제(御製)의 요기(窯器)가 많기로는 완(阮)이 유명하다. 또 유완천태(劉阮天台)는 몽구(蒙求)의 표제, 후한의 유신(劉晨)과 완조(阮肇) 등이 천태산(天台山)에 들어가 선녀를 만났다는 고사.

935) 호중물(壺中物)은 술, 壺中天(호중천)은 별세계(別世界), 별천지, 선경(仙境)의 뜻. 술로서 속세를 잊는 즐거움. 한대의 선인 호공(壺公)이 하나의 향아리를 집으로 삼고 술을 즐기며 속세를 잊었다 함.

936) 자전(紫殿)은 자신전(紫宸殿)의 준말. 당대부터 이 이름이 있었다. 자(紫)는 자미성(紫微星), 신(宸)은 제거(帝居)의 뜻으로 천자의 어전(御殿). 『당육전(唐六典)』에 “大明宮北曰紫宸門 其內紫宸殿 殿之南面紫宸門”이라고 함.

937) 화산(華山)은 산 이름. 오악의 하나. 합서성 화현 서쪽에 있음. 진령산맥 중의 고봉.

938) 이윤(伊尹)은 은 나라의 어진 재상. 탕의 세 번의 초빙을 받고 재상이 되어 길을 치고 드디어 탕으로 하여금 천하의 왕이 되게 하였음.

【김종직(金宗直)⁹³⁹의 시(詩)에 「소서(小序)」가 함께 있다. 을유년(성종 11년, 1465) 2월 28일에 직산(稷山)의 성환역(成歡驛)⁹⁴⁰에서 잤다. 제주에서 약초를 공납하는 사람[貢藥人] 김극수(金克修)도 또한 왔기 때문에, 밤에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주의〉 풍토(風土)와 물산(物産) 등을 간략하게 물어 보았다. 드디어 그 말한 것을 기록한 것이 부(賦) 「탁라가(毛羅歌)」 14수(首)가 되었다】.

김종직의 시서(金宗直詩序)

郵亭相揖若相親 우정에서 인사를 나누니 서로가 친구와 같아
包重般般藥物珍 무거운 보자기엔 가지가지 진기한 약물
衣袖帶腥言語澁 옷소매엔 비린내 끼었고 말씨는 더듬는 듯하니
看君眞是海中人 그대는 정말 바다 섬의 사람일세

當初鼎立是神人 당초 나라를 세운 이는 신인인데
伉儷來從日出濱 동해가에서 배필을 맞았네.⁹⁴¹⁾
百世婚姻只三姓 세 성씨 혼인한지 오래인데
遺風見說似朱陳 유향은 주진과 같구나.

星主已亡王子絕 성주와 왕자 이미 끊겼고
神人祠廟亦荒涼 신인의 사당 또한 황량하네.
歲時父老猶追遠 부로들 해마다 조상을 추모하니
簫鼓爭陳廣壤堂 광양당에서는 북과 쟁소리가 들리누나.

水路奚徒數千里 물길 수천 리이건만
年年來往飽曾諳 해마다 왕래하여 잘 안다네.
雲帆過劫馳如箭 구름에 돛 달아 화살같이 달리니

939) 김종직(1431년, 세종 13~1492년, 성종 23)은 조선 초기의 문신이다. 1453년(단종 1)에 진사가 되고, 1459년(세조 5) 식년문과에 정과로 급제하였다. 저서로는 『점필재집(佔畢齋集)』, 『유두류록(遊頭流錄)』, 『청구풍아(靑丘風雅)』, 『당후일기(堂後日記)』 등이 있으며, 편저로 『동국여지승람』 등이 전해지고 있으나, 많은 저술들이 무오사화 때 소실된 관계로 지금 전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940) 지금의 충남 천안시 직산면(옛날 직산현 관아가 있었다.) 북쪽인 성환읍에 있었던 역참(驛站)이다.

941) 항려래종일출빈(伉儷來從日出濱)은 제주의 삼을라가 벽랑국(碧浪國)의 세 처자를 맞아 혼인하였다는 고사.

■ 耽羅誌草本(上)

一夜便風到海南 하룻밤 편풍으로 해남에 이른다네.

漢拏縹氣通房駟 한라산 아득한 기운이 방성⁹⁴²)과 통하니
雲錦離披水草間 구름 비단같이 수초 사이에 흩어졌네.
一自胡元監牧後 한결같이 원나라에서 목장을 설치한 뒤에
驪留歲歲入天閑 좋은 말들이 궁궐로 들어갔다네.

烏梅玳瑁黑珊瑚 오매,⁹⁴³) 대모, 흑산호
附子青皮天下無 부자, 청피 등은 천하에 없네.
物產非惟東府庫 물산은 왕실만이 아니라
精英盡入活人須 생명 살리는 데 다 들어가네.

車螯海月與蠔山 조개,⁹⁴⁴) 해파리,⁹⁴⁵) 굴이 많은데
巨口文鱗又幾般 기이한 물고기 또한 얼마더냐?
日暮腥烟羈鄉井 날 저물어 비린내가 향리를 덮으니,
水虞千舶泛鮮還 고깃배 모두 돌아가네.

萬家橘柚飽秋霜 모든 집 귤유, 서리를 머금고
採着筠籠渡海洋 광주리에 가득 바다 건너보내네
大官擎向彤墀進 관리들이 받들어 임금께 바치니
宛宛猶含色味香 부드러운 빛, 향기 머금은 듯하네.

使君車騎簇長圍 사또의 기마대 뻑뻑이 에워싸면
雉兔麋麇百族披 꿩, 토끼, 고라니, 노루 온갖 짐승 잡혀드네.
海島但無熊虎豹 섬이라, 곰과 호랑이, 범은 없으니
林行路宿不驚疑 숲속을 걷거나 자도 놀랄 일 없네.

942) 방사(房駟)는 방성(房星)으로, 28수의 넷째 별자리에 있는 별들이다. 말의 수호신으로 불리기도 한다.

943) 오매(烏梅)는 덜 익은 푸른 매실을 짙불 연기에 그슬려 말린 것을 이른다. 오래된 기침, 소갈(消渴), 설사에 쓰며, 회충을 없애는 데도 쓴다.

944) 차오(車螯)는 대합조개 비슷한 바닷조개의 일종이다.

945) 해월(海月)은 해파리로, 자포동물 해파리강, 히드라충강의 부유 세대를 통틀어 이르는 말. 몸은 한천질이고 샷갓 모양으로 생겼으며 갓 밑에는 많은 촉수가 늘어서 있고 그 가운데에 입이 있다. 촉수 표면에는 많은 자세포가 있는데, 그 속에 있는 독침으로 먹이를 쓴다.

庭除草際遇錢龍 대문과 담, 풀 사이에 전룡⁹⁴⁶⁾을 예우하여
 祝酒焚香是土風 축주분향하니 이것이 토속이네
 北人驚怕爭相笑 북쪽 사람 두려워도 다투어 웃으니
 還怨吳公在竹筩 도로 지네가 죽통에 있음을 원망하네.

閭閻子弟游庠序 여염집 자제도 학교에 들어가
 絃誦而今樂育多 글 읽고 외우며 인재 길러내네.
 滄海何曾斷地脉 창해 어찌 지맥이 끊졌는가?
 翹材往往擢巍科 인재를 왕왕 문과에 올랐네.

頭無嶽上靈秋水 한라산 정상의 신령스런 못
 旱不能枯雨不肥 가뭄에 마르지 않고 비에도 넘치지 않네
 霹靂雲嵐生造次 벼락, 천둥, 구름 갑자기 일어나
 遊人疇敢褻神威 나그네들, 신령의 위엄 가벼이 못하네.

火脫島西水相擊 관탈섬 서쪽 바다 조류 거칠어
 風雷噴薄怒濤高 바람과 우레 일어 성난 파도가 높이네.⁹⁴⁷⁾
 萬斛海鱸傾側過 수많은 병선⁹⁴⁸⁾ 뒤집히니
 行人性命若鴻毛 지나가는 사람 목숨이 위태롭구나.

候風淹滯朝天舘 순풍을 기다려 조천관에 머무르며
 妻子相看勸酒杯 처자 서로 만나 술잔을 권하네.
 日中霖霖霏霏雨 대낮의 가랑비가 소낙비 되니
 知是鰕魚噴氣來 큰고래 내뿜는 것으로 알았네.

목사 김응남의 시(金應南詩)

瀛海漫天未見涯 영해는 하늘에 닿아 끝을 볼 수 없고
 蓬山東去路非賒 봉래산은 동으로 거리가 멀 지 않네.

946) 전룡(錢龍)은 용의 한 가지, 또는 돈을 꿰어 만든 용을 이른다. 여기서는 신당(神堂)을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947) 분박(噴薄)은 세차게 뿜어 올리거나 용솟음침을 이른다.

948) 해추(海鱸)는 해추(海鱸)의 잘못으로 보인다. 해추는 큰 고래 또는 병선을 이른다.

■ 耽羅誌草本(上)

瑤臺笙鶴月明夜 요대의 생학이며 달 밝은 밤에
開盡碧桃千樹花 벽도화 천 그루가 피어 만발하였네.

孤島蒼茫海一涯 외로운 섬 아득히 바다 끝인데
東風回首故園賒 동풍에 머리 돌리니 고향은 멀다.
遙知漢北春猶早 멀리 한북의 봄은 아직도 이른데
窓外寒梅未着花 창밖의 한매는 아직 피지 않았는가.

鸞書昨夜下天涯 편지가 지난밤에 하늘 끝에 전해지니
千里雲濤望不賒 아득히 보이는 파도는 보아도 멀지 않다.
白首青春朝北闕 늙은이의 청춘엔 대궐문을 출입했는데
更堪扶病看鶯花 병든 몸으로 다시 봄 경치를 보겠는가.

교수 전영달의 시(全穎達詩)

偶然相識海天涯 하늘 끝 바다에서 우연히 알게 되어
握手同嗟去國賒 멀리 서울을 떠나움을 손잡고 탄식하네.
別恨已知無幾日 이별의 아쉬움이 며칠 남지 않았으니
不妨重醉滿城花 성 안에 꽃이 만발하여 또 한 번 취하면 어떠리.

고적(古蹟)

모흥혈(毛興穴) 【제주 남쪽 3리 광양에 있다. 세 구멍이 品자와 같은데, 삼을나가 솟아난 땅이다. 삼을(三乙)이 모(毛)가 되기 때문에 이름이 되었다. 『고려사』와 『고기』에 이르기를, “태초에 인물이 없었는데 세 신이 땅에서 솟아나 만이는 양을나라 하고, 둘째는 고을나라 하고 셋째는 부을나라 하였다. 세 사람은 먼 황무지에서 사냥을 하여 그 가죽을 입고 그 고기를 먹고 살았다. 하루는 자줏빛 봉니로 봉인을 한 나무 상자가 물에 떠 와서 동쪽 바닷가에 와 닿은 것을 보고 곧 가서 열어 보았더니 상자 속에는 돌함과 붉은 띠에 자색 옷을 입은 사자가 따라 와 있었다. 돌함을 여니 그 안에서 푸른 옷을 입은 세 명의 처녀와 각종 망아지와 송아지 및 오곡 종자가 나왔다. 그 사자가 말하기를, “나는 일본의

사신인데 우리나라 왕이 이 세 딸을 낳고 말하기를, ‘서쪽 바다 가운데 있는 큰 산에 하나님의 아들 3명이 내려 와서 장차 나라를 이룩하고자 하나 짝이 없다.’라고 하면서 나에게 명령하여 이 세 명의 딸을 모시고 가게 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들은 마땅히 이 세 명으로 배필을 삼고 나라를 이룩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고, 말을 마치자마자 그 사자는 홀연히 구름을 타고 가 버렸다. 세 명은 연령에 따라서 세 처녀에게 장기들고 샘물 맛이 좋고 땅이 건 곳을 택하여 활을 쏘아 땅을 점치고 살았는데 양을나가 사는 곳을 일내, 고을나가 사는 곳을 이내, 부을나가 사는 곳을 삼내라고 하였다. 이 때 처음으로 오곡을 심어서 농사를 짓고 망아지와 송아지를 길러서 목축을 하여 날이 갈수록 부유해 가고 인구가 늘어났다. 그 후에 고후·고청 형제 3인에 배를 만들어 타고 바다를 건너 탐진(耽津)에 이르렀다. 이때는 바로 신라가 왕창 융성하던 시기였다. 이때 신라에서는 객성(客星)이 남쪽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태사(太史)가 왕에게 아뢰었다. 〈탐라의 고후, 고청 등 형제 3인이〉 신라왕에게 조회하니 왕은 이를 가상하게 여겨 후는 성주(星主)라고 하고, 청은 왕자(王子)라고 불렀는데, 친자식과 같이 사랑하므로 막내는 도내(都內)라 불렀으며 각각 보개 및 옥과 띠를 주어 돌려보냈다. ○ 제주성을 살펴보니, 세 내〔三徒〕의 이름이 지금도 있다. 생각건대 세 신인이 처음에 서로 경계 지어 산 땅이나, 일설에는 고을나가 한라산 북쪽을 가려서 산 곳이 제일내〔第一徒〕, 곧 지금의 제주성이고, 양을나가 한라산 오른쪽 편을 가려서 산 곳이 제이내〔第二徒〕, 곧 지금의 대정 산방이고, 부을나가 한라산 왼쪽 편을 가려서 산 곳이 제삼내〔第三徒〕, 곧 정의 토산이라고 했다. 누가 옳은지 확실하지 않다.】

삼사석(三射石) 【제주 동쪽 10리에 있다. 세 신인이 가려서 정할 때 살을 쏜 곳이다. 지금까지도 화살 흔적이 남아있다. 세월이 오래 되어 파열되어 향인 양종창이 석실을 지어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

칠성도(七星圖) 【제주성 안에 돌로 쌓아 만든 웅벽 터가 남아있다. 세 성이 처음 나올 때 세 내로 나누어 점유할 때, 북두성을 모방하여 대를 쌓고 분거하였다. 그러므로 성안은 지금도 대촌이라 한다.】

금당(金塘) 【조천개〔朝天浦〕에 있다. 돌함이 물에 떠왔을 때 처음 정박한 곳이다.】

고령밭(古齡田) 【옛날 고령개〔高齡浦〕라 불렀다. 민간에서 이르기를, 당나라 배가 와서 침몰한 곳이라고 한다. 밭가는 사람은 땅을 파다가 간혹 마노와 유리 등의 보물을 얻기도 하는데, 이는 당나라 사람이 남긴 것이다. 지금 성안에 있고, 삼성사 터가 되었다.】

서산(瑞山) 【고려 목종 5년 6월에 산이 바다 가운데서 솟아났다. 산에는 네 구멍에 있

는데 붉은 물이 5일 동안 솟아나다가 그쳤다. 그 물은 모두 기왓돌이 되었다.】

항파두리성(缸坡城) 【제주 서쪽 25리에 있다. 고려 원종 12년(1271)에 김통정이 귀 일마을에 와서 웅거하면서 이 성을 쌓고 관군에 저항하였다.】

장성(長城) 【연해의 둘레는 3백여 리를 담으로 쌓았다. 고려림이 삼별초를 거느려 항거할 때 쌓은 것이다. 지금은 모두 무너지고 헐어졌다. 탐라국 때 또한 장성이 있었는데 아직도 터가 남아 있다.】

흙성(土城) 【제주 서남쪽 36리에 있다. 둘레는 15리이다. 삼별초가 쌓은 것인데, 지금은 무너지고 헐어졌다.】

다루가치부(達魯花赤府) 【제주성 북쪽 해안에 있다. 관부의 유지가 있는데, 이 터가 아닌가 한다.】

국둔전(國屯田) 【중종 신사년(1521)에 목사 이운이 군자금에 부족해서 계청하여 설립하였다. 땅이 척박하고 수확물이 넉넉하지 않아서 모자란 것을 채워서 바칠 때마다 군민이 심히 고통스러웠다. 이에 병술년에 이수동이 계문하여 혁파하였다.】

판서우물(判書井) 【제주성의 동남쪽 성안에 있다. 충암 김정이 적거할 때 판 것이다.】

우암적려비(尤庵謫廬碑) 【김양행(金亮行)의 陰記⁹⁴⁹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슬프도다, 생각건대 제주 동성 안에 잇는 산짓골은 곧 우암 송 선생이 유배되어 살던 곳이다. 선생은 기사년(1689, 숙종 15) 3월에 들어와서 겨우 한달을 지내다 붙잡혀 가다가 충도에서 다음 명령을 받았다.⁹⁵⁰ 처음 유배된 곳은 제주의 주리(州吏) 김환심(金煥心)의 집이었다. 갑진년(1724)에 불이 나서 타버리고 밭이 되었다. 신묘년(1711) 봄에 권진응(權震應) 공이 상소하여 선생의 지사(志事)를 아뢰자 (이 사람도) 대정현에 안치되었다. 얼마 되지 않아 용서를 받아 제주의 인사(人士)를 따라 남겨진 터를 방문하고 그곳을 얻었다. 읍어서 이르기를 ‘선생의 도덕이 화려하고 업적이 위대해도 백년도 되기 전에 자취가 남겨지지 않아 이미 찾기가 어렵게 되었으니 어찌 사람의 부끄러움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드디어 삼읍의 장보(章甫)에게 의논하고 비석을 세워서 기록하였다. 목사 양세현(梁世絢)이 그것을 도와서 이루었다. 원노들이 서로 전하여 말하기를 ‘선생은 유배중에 하는 일이 없었으나 오직 고을 향교(제주향교)의 경적을 얻어 독서를 하였다.’ 라고 하였다. 일찍 나갈 때는 전대에 과일과 포, 술을 갖추어 글을 짓고 그의 손자 주석으로 하여금 굴림사에 제사하게 하였다. 하루는 지팡이를 짚고 뜰을 거닐다가 직접 손으로

949) 음기(陰記) : 비석의 뒷면에 세긴 글

950) 受後命 : 사약을 받았음을 말함

노는 땅에 생강을 심었다.⁹⁵¹⁾ 이것은 모두 고사에 건줄만 한 것이라고 덧붙여 기록한다.】

약포(藥圃) 【새과원〔新果園〕 북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되었다.】

불우(佛宇) 【지금은 모두 폐지되었으나 섬 안에 고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덧붙인다.】

존자암(尊子庵) 【한라산에 있다. 영실골〔靈室洞〕 입구에 돌이 있는데, 승이 행도하는 모양과 같다. 민간에서 전하기를, 수행골〔修行洞〕이라 한다.】

이경억의 시(李慶億詩)

尊者知名寺 존자암은 유명한 절로 알려졌는데
 荒涼半舊墟 황량하여 절반은 옛 터만
 千年孤塔在 천년 묵은 탑은 남아 있고
 一室數椽餘 자그마한 집 한 채
 海客經過少 바다나그네 지나가는 이 적고
 蠻僧禮法疎 남쪽 지방 중은 예불이 서툴다
 秋宵望南極 가을 하늘의 노인성을 바라보니,
 塵慮已全除 세상 생각 다 함께 사그라든다.

월계사(月溪寺) 【독개〔甕浦〕 동남쪽에 있다.】

수정사(水精寺) 【조공내〔朝貢川〕 서쪽 언덕에 있다. 원나라 황후가 원해서 사찰을 창건한 것이다. 절의 규모가 자못 광대하고 두 개의 불구(佛軀)가 있는 데 저절로 중원(中原)에서 온 것이다. 『풍토록(風土錄)』에 이르기를, 원나라의 옛 건물이 홀로 우뚝 서 있다고 하였다.】

이제현의 시(李齊賢詩)

都近寺額制水坊 도그내의 절이 퇴락하여 물뚝으로 막았는데,

951) 생강을 심었다고 하는 것은 『韓詩外傳』에 나오는 성어인 薑桂之性을 말하는 것으로써 사람의 성질이 곧고 굳음을 비유하여, 늙을 수록 더욱 강직한 사람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임.

■ 耽羅誌草本(上)

水精寺裡亦滄溟 수정사 안이 또 큰 바다를 이루었네.

묘련사(妙蓮寺) 【곽지오름〔郭支岳〕 서쪽에 있다.】 952)

승 혜일의 시(僧慧日詩)

南荒天氣喜頻陰 남쪽 지방 날씨는 맑았다 흐렸다
此夕新晴洗客心 오늘밤은 날씨가 좋아 시원하다
一夢人生榮與悴 인생살이는 꿈 같아 퍼졌다 줄어졌다
中秋月色古猶今 하늘 가운데 달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迢臨渺渺煙汀濶 아득히 연기 낀 물가를 돌아가면
斜暈沉沉竹屋深 대밭 그늘 어두운 곳에 있는 집
賞到夜闌清入思 밤들어 난간에서 보면 생각이 시원하여
不禁頭側動微吟 머리를 돌리면 읊조림을 금치 못하네

문수암(文殊庵) 【제주성 남쪽 27리에 있다.】

해륜사(海輪寺) 【일명 서자복(西資福)이라 한다. 제주 서쪽 한독잇개〔大瓮浦〕 입구에 있다.】

만수사(萬壽寺) 【일명 동자복(東資福)이라 한다. 건들개〔健入浦〕 동쪽 언덕 위에 있다.】

강림사(江臨寺) 【제주성 동쪽 함덕개〔咸德浦〕 입구에 있다.】

보문사(普門寺) 【제주성 동쪽 30리에 있다.】

승 혜일의 시(僧慧日詩)

寺僻依荒徼 거친 변방 후미진 곳에 있는 절
泉甘得夢中 샘물 맛이 좋아 꿈에서 얻은 듯
蓮場逢勝事 연장에서 만난 좋은 일은
佛隴嗣遺風 불함⁹⁵³⁾의 유품이 전해지는 것

952) 이원진 『탐라지』(제주목, 불우)에는 '묘련사'가 "제주성 서남쪽 20리 떨어진 곳에 있다. 지금은 없어졌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김상헌의 『남사록』(권3)에는 묘련사가 곽지악(郭支岳) 서쪽에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묘련사'가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히 고증할 필요가 있다.

953) 룡(隴)자는 籠(룡)자의 오식이 아닌가 한다.

草過霜仍綠 풀은 서리가 지나도 푸르렀고
 蘿因瘴未紅 녕쿨은 장기⁹⁵⁴)에도 붉어지지 않아
 圓通門自啓 원통문이 스스로 열려 있어
 遠鴈叫長空 먼데서 오는 기러기 창공에 운다

서천암(逝川庵) 【조공내[朝貢川] 위에 있다.】

승 혜일의 시(僧慧日詩)

漢拏高幾仞 한라산은 얼마나 높은지
 絶頂瀟神淵 정상에 신령한 못에 물이 고여
 派出北流去 한 줄기 북쪽으로 흘러가니
 下爲朝貢川 아래에 이르러선 조공천이 되었네
 懸瀑亂噴沫 매달린 폭포는 분말을 내 뿜고
 走若珠玑圓 달려가는 건 구슬을 구르는 듯⁹⁵⁵)
 驚湍激群石 구비치는 물살은 많은 돌에 부딪치고
 間作囊蟲穿 사이에는 시루 같이 뚫어 놓고는
 安流得數里 어떻게 몇 리를 흘러 와서야
 澄清涵青天 맑게 고여 푸른 하늘을 잠겼는고
 道人有宗海 도인은 바다의 근원을 다스려
 卓庵向川邊 냇가를 향하여 암자를 세웠네
 既從山水樂 산수를 찾는 즐거움을 따르고
 且寄香火緣 또한 향깃불 올릴 연을 만들었으니
 涼秋佳月夕 시원한 가을 좋은 달밤에
 掃石開茗筵 바위를 쓸고 차를 끓이네
 嘗新剥棗栗 새 대추 새 밤을 깎아 맛보고
 談古窮幽玄 옛 것을 이야기하며 유현을 궁리하고
 因思仲尼語 따라서 공자님 말씀에 생각하며
 頗憶小聖禪 자못 소성선을 기억하네
 由斯無生理 여기에서는 살아 갈 도리가 없으니

954) 장(瘴)은 바닷 기운이 칙칙하게 어린 공기.

955) 주기(珠玑)는 구슬. 珠는 둥근 구슬. 玑는 둥글지 않은 구슬.

■ 耽羅誌草本(上)

名以期遐傳 이름이라도 기약하여 멀리 전해야지
如能高着眼 만약 높은 안목을 갖춘 분이 있다면
波波皆不遷 계속 이어가⁹⁵⁶⁾ 옮기지 않을 텐데

소림사(小林寺) 【제주성 동남쪽 10리에 있다.】

관음사(觀音寺) 【조천개〔朝天浦〕 위에 있다.】

안심사(安心寺) 【제주성 동쪽 10리에 있다.】

곽지사(郭支寺) 【제주성 서쪽 45리에 있다.】

원당사(元堂寺) 【제주성 동쪽 20리에 있다.】

돈물암〔頓水岩〕 【제주성 동쪽 80리에 있다.】

956) 파파(波波)는 바빠 이어지는 모양.